

연구보고서 2017-49

류정희 · 이주연 · 정익중 · 송아영 · 이미진

【책임연구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아영 가천대학교 교수

이미진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보고서 2017-49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발 행 일 2017년 12월

저 자 류 정 희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가 격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90-9 93330

발간사 <<

“청소년의 집단폭력은 왕따와 연결되고, 왕따는 학교폭력과 연결되고, 학교폭력은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성폭력은 아동학대와 이어지고 아동학대는 노인학대로 이어진다. 그 모든 폭력은 이어져 있다(미국질병관리본부, 2012, Connecting dots, p. 1).”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인 2013년(0.73%) 대비 지난 3년 동안 3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80.5%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고, 학대행위자인 부모 또한 아동기에 학대 피해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학대의 대물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의 대물림은 사회적 통설로서만 존재해 왔을 뿐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검증과 이에 기초한 정책 수립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학대 및 폭력의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대상별 특수성에 기초한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또래폭력(따돌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배우자학대), 노인학대를 포괄하는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과정에 걸쳐 학대 및 폭력은 다양한 생애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의 경험은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의 상호관계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중복적 학대경험이 이후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4008명의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19~59세 성인(부 또는 모)을 대상으로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을 비롯한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의 폭력경험, 그리고 현재(지난 1년간)의 가정 내 학대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 전반의 포괄적인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조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사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거의 80%에 달하는 다수의 우리나라 성인들은 과거 생애과정에서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의 학대 가해 경험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근거 기반의 통합적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정책대응전략의 수립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부연구위원의 연구책임하에 이주연 전문연구원이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익중 교수와 가천대학교의 송아영 교수,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이미진 교수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자문을 제공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윤경 연구위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서정아 연구위원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19
제2장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23
제1절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상호연관성	27
제2절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순환(Intergenerational Cycle of Abuse) ·	33
제3절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35
제4절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 연구방법론	39
제3장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개요 및 설계	63
제1절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65
제2절 조사 방법과 표본설계	68
제4장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 및 중복성	83
제1절 문제의 제기	85
제2절 선행연구 고찰	87
제3절 분석 방법	99
제4절 응답자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	103
제5절 과거 학대 및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106



제6절 과거 학대피해경험과 현재 학대가해경험의 관계성	119
제7절 논의 및 결론	128
제5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아동학대 가해의 관계성 연구	133
제1절 문제의 제기	135
제2절 이론적 배경	139
제3절 분석 방법	151
제4절 분석 결과	153
제5절 논의 및 결론	165
제6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계성 연구	169
제1절 문제의 제기	171
제2절 이론적 배경	173
제3절 분석 방법	178
제4절 분석 결과	183
제5절 논의 및 결론	238
제7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노인학대의 관계성 연구	241
제1절 문제의 제기	243
제2절 이론적 배경	245
제3절 분석 방법	250
제4절 분석 결과	253
제5절 논의 및 결론	292

제8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97

제1절 문제의 제기	299
제2절 이론적 배경	300
제3절 분석 방법	303
제4절 분석 결과	307
제5절 논의 및 결론	325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29

제1절 연구 결과의 논의	33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45

참고문헌 361

부 록 383

부록 1.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조사표	383
부록 2. 〈부표 2-1〉 국내 학대폭력 관련 조사의 관련 문항별 비교	404

표 목차

〈표 2-1〉 학대 및 폭력의 중복발생의 개념적 틀	32
〈표 2-2〉 외국의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	42
〈표 2-3〉 외국의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	44
〈표 2-4〉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	46
〈표 2-5〉 국내 직장폭력 관련 실태조사	48
〈표 2-6〉 국내 데이트폭력 관련 실태조사	49
〈표 2-7〉 국내 군대폭력 관련 실태조사	51
〈표 2-8〉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종단조사	52
〈표 2-9〉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통계 및 병원조사	54
〈표 2-10〉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통계 및 병원조사	55
〈표 2-11〉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조사 문항 및 결과 비교	59
〈표 3-1〉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조사 내용	67
〈표 3-2〉 시도별 집계구와 가구 수 분포	70
〈표 3-3〉 시도별 집계구 할당 결과와 기대표본오차	72
〈표 3-4〉 시도별 동부/읍면부와 주택유형별 집계구 할당 결과	73
〈표 3-5〉 2개 집계구당 성별 연령대별 할당 인원과 조사우선순위	74
〈표 3-6〉 시도별 성별연령대별 만 18세 미만의 인구 분포	79
〈표 3-7〉 시도별 성별 만 59세 이하 성인인구	80
〈표 3-8〉 18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18세 이상 가구원의 성별연령대 분포	81
〈표 3-9〉 시도별 성별연령대별 인구와 2개 집계구당 할당 인원	82
〈표 4-1〉 분석변수	101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4
〈표 4-3〉 응답자 가구의 일반적 특성	105
〈표 4-4〉 응답자 가구의 기타 특성	106
〈표 4-5〉 성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07
〈표 4-6〉 성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108

〈표 4-7〉 연령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09
〈표 4-8〉 연령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110
〈표 4-9〉 지역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11
〈표 4-10〉 지역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112
〈표 4-11〉 교육수준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13
〈표 4-12〉 교육수준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114
〈표 4-13〉 경제활동상태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15
〈표 4-1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별 가구평균소득	115
〈표 4-15〉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	116
〈표 4-16〉 응답자 특성별 군대폭력 경험	117
〈표 4-17〉 응답자 특성별 데이트폭력 경험	118
〈표 4-18〉 응답자 특성별 직장폭력 경험	119
〈표 4-19〉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학대경험의 변화 여부	120
〈표 4-20〉 과거 학대 및 폭력경험별 현재의 가해경험의 차이	120
〈표 4-2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군대폭력경험	122
〈표 4-22〉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데이트폭력경험	123
〈표 4-23〉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직장폭력경험	124
〈표 4-24〉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과거 성인기 학대피해경험	125
〈표 4-25〉 현재의 학대가해경험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127
〈표 5-1〉 출산연령과 양육스트레스	153
〈표 5-2〉 양육스트레스	154
〈표 5-3〉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155
〈표 5-4〉 아동 체벌에 대한 생각	155
〈표 5-5〉 아동학대 가해	157
〈표 5-6〉 자녀로부터의 폭력경험	158
〈표 5-7〉 응답자(가구) 특성별 아동학대 가해	159
〈표 5-8〉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학대	160
〈표 5-9〉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자녀학대	161

〈표 5-10〉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	162
〈표 5-11〉 노부모학대와 아동학대	162
〈표 5-12〉 아동학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64
〈표 6-1〉 배우자폭력 유형	174
〈표 6-2〉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본 배우자폭력 현황	175
〈표 6-3〉 배우자폭력의 유형 및 구체적인 행동	180
〈표 6-4〉 배우자 유무	184
〈표 6-5〉 결혼유지기간(년)	184
〈표 6-6〉 결혼만족도	184
〈표 6-7〉 가족관계	185
〈표 6-8〉 친인척 네트워크	186
〈표 6-9〉 친구 네트워크	186
〈표 6-10〉 배우자폭력 발생률	187
〈표 6-11〉 배우자폭력 가해	188
〈표 6-12〉 배우자폭력 피해	189
〈표 6-13〉 부부 간 통제	190
〈표 6-14〉 배우자 협상	191
〈표 6-15〉 배우자폭력 상해 가해	191
〈표 6-16〉 배우자폭력 상해 피해	192
〈표 6-17〉 응답자(가구) 특성별 배우자폭력 가해	193
〈표 6-18〉 응답자(가구) 특성별 배우자폭력 피해	194
〈표 6-19〉 아동기 폭력경험과 배우자폭력	196
〈표 6-20〉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과 배우자폭력	197
〈표 6-2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제외 전체 배우자폭력 가해 결정 모형 로지트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0
〈표 6-2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포함 전체 배우자폭력 가해 결정 모형 로지트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1

〈표 6-2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3
〈표 6-2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4
〈표 6-2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5
〈표 6-2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6
〈표 6-2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신체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8
〈표 6-2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09
〈표 6-2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0
〈표 6-3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2
〈표 6-3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3
〈표 6-3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4
〈표 6-3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경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5
〈표 6-3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경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6
〈표 6-3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통제행위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7
〈표 6-3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통제행위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18

〈표 6-3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제외 전체 배우자폭력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0
〈표 6-3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포함 전체 배우자폭력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1
〈표 6-3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2
〈표 6-4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3
〈표 6-4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4
〈표 6-4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6
〈표 6-4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신체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7
〈표 6-4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8
〈표 6-4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29
〈표 6-4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30
〈표 6-4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31
〈표 6-4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32
〈표 6-4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경제적 폭력 피해경험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34
〈표 6-5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경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35

〈표 6-5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통제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36
〈표 6-5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통제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237
〈표 7-1〉 부모님 생존 유무	254
〈표 7-2〉 노부모 연령(평균)	254
〈표 7-3〉 노부모 건강상태	255
〈표 7-4〉 노부모와의 연락 빈도	256
〈표 7-5〉 노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수준	257
〈표 7-6〉 응답자의 노인에 대한 인식	257
〈표 7-7〉 노인학대 발생률	258
〈표 7-8〉 노인학대 발생빈도	258
〈표 7-9〉 응답자(가구) 특성별 노부모학대	260
〈표 7-10〉 응답자(가구) 특성별 친부모학대	262
〈표 7-11〉 응답자(가구) 특성별 배우자 부모학대	264
〈표 7-12〉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원분석	266
〈표 7-13〉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군대폭력)과 노부모학대	267
〈표 7-14〉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군대폭력)과 친부모학대	268
〈표 7-15〉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군대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269
〈표 7-16〉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데이트폭력)과 노부모학대	270
〈표 7-17〉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데이트폭력)과 친부모학대	271
〈표 7-18〉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데이트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272
〈표 7-19〉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직장폭력)과 노부모학대	273
〈표 7-20〉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직장폭력)과 친부모학대	274
〈표 7-21〉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직장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275
〈표 7-22〉 아동학대 가해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의 관계	276
〈표 7-23〉 배우자폭력 가해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의 관계	277
〈표 7-24〉 배우자폭력 피해와 노인학대 가해경험의 관계	278

〈표 7-25〉 60세 이상 전체 집단의 노부모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280
〈표 7-26〉 60세 이상 전체 집단의 친부모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283
〈표 7-27〉 60세 이상 전체 집단의 배우자부모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286
〈표 7-28〉 남성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288
〈표 7-29〉 여성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289
〈표 7-30〉 만 43세 미만 집단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290
〈표 7-31〉 만 43세 이상 집단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291
〈표 8-1〉 분석변수	305
〈표 8-2〉 현재의 물질적 박탈상태	308
〈표 8-3〉 현재의 건강행태 · 습관	309
〈표 8-4〉 현재 사회, 심리적 건강상태	310
〈표 8-5〉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응답 분포	310
〈표 8-6〉 자살 생각과 이유	311
〈표 8-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313
〈표 8-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건강상태	314
〈표 8-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우울도의 차이	315
〈표 8-1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316
〈표 8-1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고위험음주율	317
〈표 8-1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 흡연율	318
〈표 8-13〉 현재의 삶의 만족도 결정 모형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 분석 ·	320
〈표 8-14〉 현재의 우울도 결정 모형 회귀분석(Regression)	322
〈표 8-15〉 현재의 자존감 결정 모형 회귀분석(Regression)	324
〈표 9-1〉 가정 내 폭력의 유형별 비교	341
〈표 9-2〉 연구결과 및 함의와 정책대응 총괄	346
〈표 9-3〉 아동기 학대 및 폭력 부정적 생애경험	350

그림 목차

[그림 2-1] 폭력의 그물망 framework	28
[그림 2-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	30
[그림 2-3] 학대경험의 세대 간 이전전이의 개념도	34
[그림 2-4] Albert Bandura 사회학습의 4단계	37
[그림 3-1] 아동가족 생애경험 설문조사	66
[그림 4-1] 폭력의 중복성의 개념도	86
[그림 4-2] 과거 생애과정의 학대경험그룹별 현재 가해경험의 차이	121
[그림 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부정적 생애경험 발생률 비교	336
[그림 9-2] 과거 학대·폭력피해경험과 현재의 가정폭력가해경험	338
[그림 9-3] 이원적 아동보호체계 구상(안)	351

Abstract <<

Understanding Connections among Abuse and Violence in the Life Course

Project Head · Ryu, Jeong-hee

Past international research has linke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o opportunities exposed to violence as well as health and psychological problems in adulthood. Theoretical models such as social learning theory, suggest that abusive and violent behaviors are easily learned, last and even transmitted to the next generation. Yet, none of research in Korea has focused on the connections among abuse and violence in the life cou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nnections among abuse and violence in various life stages, for instance, child abuse, peer violenc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elder abuse using the nationwide sample of 4,008 adults in the retrospective life experience survey in 2017. Results show that approximately 78.9% ha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ose reporting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ended to report repeated violent experiences in adulthood as well as current low-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high depression.

Co-Researchers: Lee, Juyeon · Chung, Ick-Joong · Song, Ahyoung · Lee, Mi-Ji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학대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대상별 특수성에 기초한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포래폭력(따돌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배우자학대), 노인 학대를 포괄하는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며, 생애 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학대경험은 매우 밀접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고 인구대상집단을 포괄하는 연계와 협력(cross-sector collaboration)을 기초로 한 통합적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

학대 및 폭력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연관성을 갖는 복합적 사회현상으로,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성은 공간, 시간적 차원과 학대행위에 결부되는 당사자의 양 측면(가해와 피해) 등 핵심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생애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크게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성인기의 폭력경험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아동학대, 형제폭력, 가정폭력 목격, 또

4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래폭력, 학교폭력, 지역사회폭력 등으로 구성되며, 성인기 학대 및 폭력은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 배우자폭력, 노인학대 등으로 구성된다.

학대 및 폭력경험의 양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므로 중복적 학대경험은 기간(period), 코호트(cohort), 연령(aging)효과 등의 시간적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학대에서 학대피해(victimization)와 학대가해(perpetration)로 구분되는 행위자 역할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애발달 과정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학대 유형에 대한 노출경험은 일반적이며 단일 유형의 일회적 학대경험에 비해 부정적 심리·정서적 결과와 더욱 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은 “학대 및 폭력의 대물림”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그 개념적 하위그룹에 속하는 세대 간 전이는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 자신이 학대행위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직접 학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학대의 발생률은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세대 간 전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Albert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은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과 세대 간 전이 또는 연속성으로 특징화되는 학대의 순환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나.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개요

국외에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조사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국내의 학대 및 폭력 관련 연구는 주로 당해 연도의 대상별 학대 및 폭력 발생률을 조사하는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이나 학대경험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의 성인(만

19~59세)을 대상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을 회고적으로 파악하고, 응답자의 개인특성별 및 가구특성별 학대와 폭력의 발생 및 제 특성을 분석하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수행은 2017년 8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조사완료 건수는 4,008건이었다.

다.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과 중복성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 한 번이라도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78.9%, 전혀 없었던 비율은 21.1%로 나타났다.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1~5점인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자 비율은 각 10~15%대에 이르고 있으며, 6점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점수별 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아동기에 학교폭력, 정치적 폭력, 강도 및 조직폭력 등 집단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전체의 52.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폭력, 가족 중 폭력피해의 경험, 정서적 학대경험, 포래폭력, 신체학대피해, 정서방임, 부모의 별거 또는 사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아동기 이후, 과거 성인기에 겪었던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조사 대상자 중 군대복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한 결과, 군대폭력은 65.3%가 피해경험을, 48.4%가 가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5.6%가 피해경험을, 5.1%가 가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폭력은 직장생활 유경험자의

25.7%가 피해경험이, 13.1%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과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모두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아동학대 가해의 관계성

자녀 양육 및 학대 관련 기초적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첫 자녀 출산 시 평균연령은 29.9세였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으로 '2시간 이상'인 경우가 39.4%(1,578명)로 가장 많았다. 최소 연령은 16세부터 최대 연령은 50세까지로 나타났다. 아동체벌에 대한 생각은 '경우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29명으로 6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가해경험은 정서학대 2문항, 신체학대 7문항, 방임 4문항, 성적 학대 1문항으로 총 14문항을 조사하였는데, 전체의 41.6%(1,668명)의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학대 가해경험을 교차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는 낮은 점수대에 많이 분포하였으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학대 가해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자녀학대 가해경험 유무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대폭력의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녀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트폭력과 직장폭력은 피해나 가해경험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자녀학대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현재의 배우자폭력 그리고 노부모학대 여부와 아동학대 가해경험과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폭력 가해가 35.1%로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없는 경우의 가해율(14.2%)보다 높았다. 노부모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가해경험은 53.2%(217명)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아동학대 가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모두 아동학대 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보다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 정도가 더 높았다. 아동학대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낸 변수는 성별, 연령, 경제활동(무직 기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양육스트레스, 우울, 음주,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사회적 바람직성이다.

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계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살피고 현재의 배우자폭력에 있어 아동기의 경험이 어떠한 관계성을 보여 주는지 CTS2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으며(98.6%), 결혼유지기간의 평균은 13.2년이었고 결혼만족도는 대체로 약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함께 하는 활동에 있어 취약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친인척이나 친구 네트워크의 경우 2~4명 정도의 네트워크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배우자폭력률은 27.5%(통제 제외 시)이었으며, 통제를 포함할 경

우 46.5%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와의 특성에 따른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폭력 가해 및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가해에 있어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지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수급여부 및 지역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배우자폭력의 가해율, 피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기 경험이 0점인 경우는 배우자폭력 가해가 4.6%, 피해가 3.5%인 데 비해 7점 이상인 경우 각각 61.2%, 62.8%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기 이후, 즉 청년·성년기 폭력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년·성년기의 폭력가해경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폭력의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의 경험 역시 청년·성년기 폭력피해경험이 높은 경우 배우자폭력 피해율이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의 배우자폭력을 배우자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있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밖에 유형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자존감 등이 배우자폭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배우자폭력 유형별 결과를 고찰함에 있어 성별 차이가 검증되어 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노인학대의 관계성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본인의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학대한 경우로 한정하여, 성인이 본인의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지난 1년

간 학대를 행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자료 중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중 1인이라도 생존하였다고 응답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60세 이상인 응답자만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 중 지난 1년간 노부모를 학대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13%에 달하며, 대부분 정서적 학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약 10%가 지난 1년간 학대피해를 경험했다는 수치와 유사한 결과이며, 정서적 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또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집단을 분석한 결과에서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의 3개 종속변수는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집단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집단별로 다소 이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아동기에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노부모학대가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학대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대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그들의 친부모를 학대함으로써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남을 보여 준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친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고 있다. 세대 간 전이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과거 가해자였던 친부모에게 가하는 “보복” 행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Pillemer, 198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가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노인학대의 복잡다단함을 예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노인학대 행위자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뿐만 아니라 폭력피해나 폭력 목격과 같은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가 노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학대의 행위자에 대한 사정에 있어 학대와 폭력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학대의 중지·예방을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자료를 토대로 하여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삶에 미치는 영향

응답자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415만 4,000원이었으며, 이 중 2.7%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평균은 20.0%였으며, RIR 30%를 기준으로 주거불안정가구를 분류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4.9%가 주거불안정가구에 해당하였다. 식품미보장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의 절대량이 부족한 가구는 전체의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의 23.5%가 음식의 다양성 및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현재 흡연율은 23.2%이며, 고위험음주군은 9.9%, 월간 폭음률은 4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업무 및 학업 외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15분이었다.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2점으로 대체로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3.1점 수준으로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우울도는 33점 만점에 평균 3.9점, 자존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0.8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친밀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32.4점이었고, 사회적 지

지는 36점 만점에 평균 21.1점이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8.5점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에 해당하였다.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우울도, 자존감을 포함한 3개의 심리사회적 결과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OR=0.60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1회 증가할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odds)는 39.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도에 있어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1회 늘어나면 현재의 우울지수는 0.276 높아지며,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있을 경우 우울지수는 1.472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존감에 있어서는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만이 현재의 자존감 정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전 생애에 걸친 주요한 학대 및 폭력 유형과 풍부한 결과변수를 포괄하고 있는 아동가족생애경험조사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생애주기 전반의 경험으로 확장하여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성의 정도, 유형, 패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가. 연구결과 논의

1) 과거의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과 현재의 폭력가해경험

본 연구 결과, 전체 4008명 중 78.9%가 아동기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ACE-Study를 개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나간 미국(60%), 영국(46.4%), 동유럽 8개국(50%) 및 베트남(76%) 등 국외의 발생률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동시에 한 응답자가 전체의 41.6%를 차지했으며,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룹은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81.2%가 아동기 또는 성인기에 학대폭력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과거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가정폭력 및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이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자녀폭력, 배우자폭력, 노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을 가진 성인의 89.5%가 과거에 아동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모두 현재의 학대가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폭력 및 학대의 중복성은 가해와 피해의 측면을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의 중복된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은 현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과거 성인기의 폭력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자기존중감에

부적(-)으로, 우울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경우, 우울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정책적 시사점

1) 학대 및 폭력경험의 보편성

본 연구결과 한국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특수한 욕구와 개인적 특성의 문제를 가진 소수의 인구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경험이었다. 따라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또는 가해집단을 개인적 차원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특수집단으로 간주하여 조사와 처벌을 중심으로 사후대응식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사람이 생애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서 학대 및 폭력을 정의하고 학대 및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원적인 학대예방대응체계의 구축

본 연구결과는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 및 취약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성인기의 다양한 학대의 피해 또는 가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대 및 부정적인 삶의 경험 전반에 취약한 빈곤취약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학대의 중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의 세대 간 전수의 고리를 끊은 근본적인 학대예방 및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차등적 대응체계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학대위험이 있는 취약한 위기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애주기와 연동된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의 주 공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학대예방 및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배우자폭력-노부모학대로 이어지는 학대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족을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 단위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 중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배우자폭력 및 노부모학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아동기에 경험했던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성장기 이후 성인기 폭력경험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다시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기 학대 및 폭력경험을 예방하는 정책개입의 강화(부모의 아동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양육 및 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교육 필수화, 아동체벌의 전면적 금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등)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기에 이어 성인기에 이어지는 폭력의 연속성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성인기 폭력경험을 예방하는 정책개입의 강화(보다 적극적인 군대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 직장내 폭력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직장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 마련을 검토,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법제의 정비 등)가 필요하다.

*주요 용어: 학대, 폭력, 생애주기, 아동학대, 배우자폭력, 노인학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잇달아 발생하였던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학대와 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접근과 포괄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학대 연구는 개별 인구대상집단별 학대의 이해와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대상별 특수성에 기초한 학대의 정의, 유형화, 보호서비스 및 정책대응체계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또래폭력(따돌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배우자학대), 노인학대를 포괄하는 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생애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학대의 경험은 밀접한 상호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들에서 생애주기상 학대의 중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Sumner et al., 2015), 중복피해(polyvictimisation)경험은 아동의 발달과 신체 및 정신 건강, 사회적 적응 등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생애주기상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인기 배우자폭력에 의해 심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기 성학대 경험과 성인기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이 성인기 폭력만 경험한 집단보다 훨씬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Messman-Moore et al., 2000). 중복적 폭력의 경험은 폭력의 세대 간

전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저해하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학대 및 폭력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발달순환(Cycle of violence)적 특성은 학대 및 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세대 간 전이현상과 중복피해의 경험을 포괄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기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의 상호관계성을 분석하고 인구대상집단을 포괄하는 연계와 협력(cross-sector collaboration)을 기초로 한 통합적 정책개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학대 및 폭력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일련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 및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기술분석,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순환(intergenerational cycle of violence)에 대한 연관관계 분석, 그리고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순환이 미치는 영향 및 결과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 및 세대 간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설계

1.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의 서론에서는 본 보고서 전체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설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검토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론적 논의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과 세대 간 순환과 관련된 개념 정의,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학대 및 폭력의 특성 고찰,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 및 함의의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방법론적 논의에서는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종단적·횡단적 연구 설계와 방법론과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진행되었던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본 실태조사의 목적과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과 표본설계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제4장은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를 기초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 및 중복적 경험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 및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기술분석,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등 아동기 이후 폭력 등 부정적인 생애경험에 대한 기술분석,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의 분석을 포함하였다.

제5장에서 제7장까지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아동기 이후 폭력의 경험과 현재의 가정폭력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제5

장은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 및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과 아동학대 가해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아동기 및 아동기 이후 학대 및 폭력의 생애경험이 현재의 배우자폭력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7장은 아동기 및 이후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부모세대와의 관계, 가정 내 노부모학대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제8장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 및 이후의 폭력에 대한 경험이 성인기의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인 생애과정의 경험의 장시간에 걸친 영향을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치, 사회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본 분석 결과의 논의를 요약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가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을 예방하고 세대 간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 및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외 학대 연구의 지표체계 및 조사 방법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 및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종단적·횡단적 조사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19~59세 성인(부 또는 모)으로 설정하였으며, 2015년 인구주택센서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성

년 자녀를 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표본 추출은 응답자 성별 비율은 5:5로 유지하였으며, 지역별 및 연령별 인구구성에 맞춰 비례할당하는 층화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는 전국 4008명의 유자녀 부모가 참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루어졌고 조사 방법은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태블릿 PC를 활용한 자기 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및 가구 특성, 아동기 성장과정 및 부정적 경험, 성인지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경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가족관계 및 가족환경, 삶의 질 및 건강상태 등 9개 조사 영역별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기 성장과정 및 부정적 경험 영역의 조사 문항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Study(ACE Study)의 문항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포함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학대 및 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사표 및 조사 관련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미국 CDC & Kaiser team의 추천으로 중국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kong) Edward Chan 교수의 수시 자문을 받았으며 국제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하여 국외사례조사 및 전문가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다차원적 정책 개입방안에 대한 국외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아동복지 관련 국제조사방법론(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또한 WHO의 학대예방팀(Violence Prevention Team)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WHO의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적용 실시되고 있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22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Adverse Childhood Experience-International Questionnaires (ACE-IQ)) 조사표의 한국에서의 적용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의 Michael Dunne 교수로부터 국제 ACE STUDY 적용 결과 및 타당성 조사 결과 관련 자문을 제공받았다.

제 2 장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1절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상호연관성

제2절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순환(Intergenerational
Cycle of Abuse)

제3절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4절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 연구방법론

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학대 및 폭력은 중복적으로 경험되며 그 중복적 경험은 상호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적 경험(multiple experiences of abuse and violence)은 본 연구의 기본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생애발달 과정에서 다양하게 경험되는 폭력 및 학대 유형의 패턴은 다양하며 그 상이성과 유사성에 따라 연관관계의 성격은 유형화될 수 있다.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중복성과 관련한 개념은 ‘학대 및 폭력의 중복발생(co-occurrence; co-existence)’, ‘학대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ion of abuse)’, ‘중복학대(multiple types of abuse)’, ‘중복학대피해(multiple victimization)’와 ‘중복학대가해(multiple perpetration)’, ‘다유형중복학대피해(poly-victimization)’와 ‘다유형중복학대가해(poly-perpetration)’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이 세대를 넘어 재생산될 때 이는 ‘학대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와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abuse)’으로 개념화된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학대 및 폭력 중복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의 합의는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고 세대를 거쳐 재생산되는 학대의 순환성(cycle of abuse)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학대 및 폭력의 상호 연관성(interconnection)을 중심으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학대 및 폭력의 순환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

(theoretical framework)을 제시하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던 학대 및 폭력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한 주요한 이슈들을 검토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있는 학대 및 폭력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대 및 폭력의 중복발생(co-occurrence; co-existence)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이해당사자인 피해와 가해의 양 측면에 대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multiple experiences of abuse and violence)을 중복적 피해경험(polyvictimization)과 중복적 가해경험(polyperpetra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학대의 세대 간 순환구조 내에서 상호관계성의 특수성을 ‘학대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개념을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대 및 폭력의 순환성의 기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상호교차성이론(Intersectionality Theory),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생태학적 상호교류이론(Ecological or transactional theories) 등 다양한 이론과 가설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주 분석 대상이 되는 학대의 복합적 경험(multiple experiences)과 세대 간 전이를 통한 순환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기로 한다.

셋째, 학대 및 폭력 관련 연구에서 조사 설계와 조사 방법에 대한 검토는 결과의 해석과 비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조사 대상의 선정, 측정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 개요 및 조사 문항을 분석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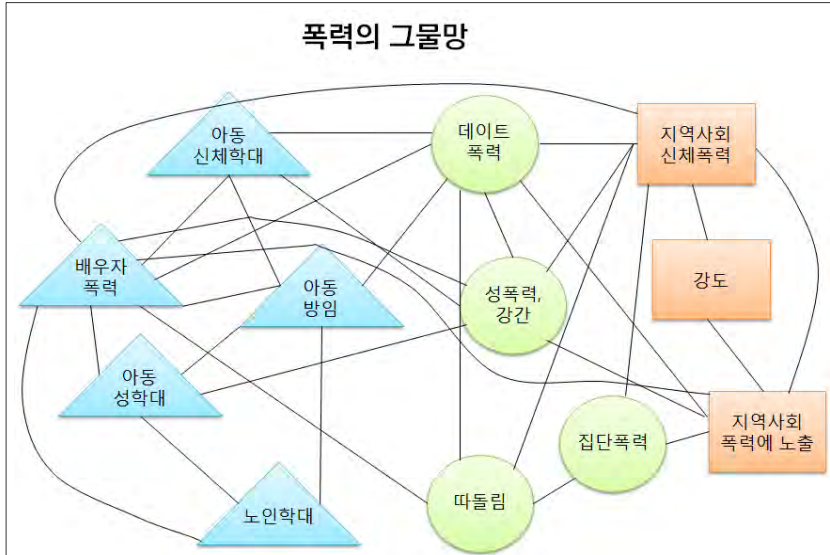
제1절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상호연관성

1.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

학대 및 폭력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연관성(interconnection)을 갖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이러한 학대 및 폭력의 복합적인 구조를 Hamby와 Grych(2013)는 “폭력의 그물망(Web of Violence)”으로 지칭했다.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성은 공간, 시간적 차원과 학대행위에 결부되는 당사자의 양 측면(가해와 피해) 등 핵심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학대 및 폭력의 상호연관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와 피해의 양 측면을 구분하여 그 중첩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간적 차원에서 가정 내, 가정 외 집단 및 조직, 지역 사회 및 사회 등 발생공간의 중복성과 시간적 차원에서 학대 발생의 시점 및 그 지속기간 등의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별적 단일 유형의 학대의 위험요인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인간의 생애주기에 걸쳐서 경험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경험의 구조와 특성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wholistic profile of abuse)에 있어서 한계가 크게 존재했다. 학대 연구, 실천 및 정책 전반에서 이루어졌던 세분화된 접근(fragmented approach)은 다양한 종류의 학대 및 폭력피해 사이의 연관성 및 학대의 순환적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학대피해경험은 이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범죄행위(multiple offences)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한 학대피해는 새로운 학대피해의 전조(cursors) 또는 결정요인(catalysts)이 되기도 한다.

[그림 2-1] 폭력의 그물망 framework



자료: Hamby, S., & Grych, J. (2013). The web of violence: Exploring connections among different forms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abuse.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https://www.socialwork.career/2013/08/are-you-assessing-your-clients-for-polyvictimization.html>에서 2017. 10. 15. 인출.

예컨대, 부모에 의해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학교폭력 또는 또래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대 위험성이 높은 환경적 결정요인으로 인하여 중복적 학대 및 폭력은 군집(clusters)을 이루어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학대행위자 부모는 아동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폭력을 가하거나, 높은 범죄 발생률 지역에 사는 아동은 그들 자신이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목격자가 되는 동시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에 대한 분절적 접근은 학대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접근방식으로 더욱 세분화되었다. 선행연구는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피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중심으로 특화되

어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아동기 전체에 걸친 학대피해 및 가해를 포괄하는 중복적 경험에 대한 발달경로는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또한,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경험과 성인기의 경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세분화되어 아동기 학대의 직접적 간접적 피해 및 가해의 경험이 어떻게 성인기 폭력의 경험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탐색은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의 취약성(vulnerability)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학대의 유형들이 어떤 군집(cluster)을 구성하고 있는지, 특정 유형의 학대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 다른 유형의 학대로 이어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집단 중 어떤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후의 삶에서 중복적 학대피해(multiple victimizations)를 경험하는지, 어떤 아동은 그렇지 않은지 등 중복적 학대경험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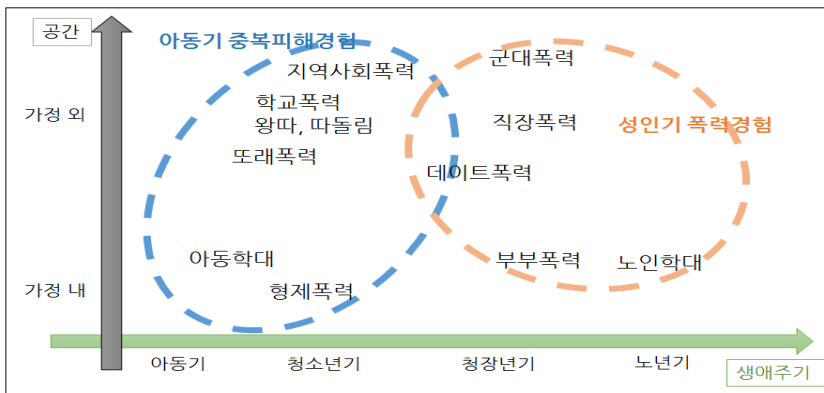
요약하면, 특정한 학대 유형의 피해에 대한 협소한 접근은 생애주기에 걸쳐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학대 및 폭력피해의 경험의 범위(scope)와 다양성(variety)에 대한 과소추정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Finkelhor, Ormrod, Turner, & Hamby, 2005). 또한, 학대의 중복적 경험이 개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가장 심각한 수준의 중복적 학대피해를 경험한 취약집단의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학대 및 폭력 예방 및 대응정책의 표적집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에 대한 개념적 정의

학대 및 폭력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학대의 발생 및 지속기간, 학대의 두 측면인 가해와 피해의 측면, 다양한 종류의 학대의 동시발생

(co-occurrence) 여부 등 핵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학대 및 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학대의 중복경험에서 시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애의 발달 단계에 따른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크게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성인기의 폭력경험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아동기 중복피해경험은 아동학대, 형제폭력, 가정폭력, 왕따, 따돌림, 또래폭력, 학교폭력, 지역사회폭력 등으로 구성되며, 성인기 학대 및 폭력은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 배우자폭력, 노인학대 등으로 구성된다. 학대피해자의 연령에 기초한 학대 및 폭력의 분절적 접근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아동기 전체의 중복적 학대 및 폭력경험을 포괄하는 개념화와 이에 대한 고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기와 성인기를 아우르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에 대한 개념화는 생애경로적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대 및 폭력경험의 양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며, 중복적 학대경험은 기간(period), 코호트(cohort), 연령(aging)효과 등의 시간적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2-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



둘째, 학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학대피해(victimization)와 학대가해(perpetration)로 구분되며, 이는 중복적 학대경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복적 학대경험은 중복적 학대피해와 학대가해의 양 측면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며, <표 2-1>과 같이 양 측면의 경험에 대한 각각의 개념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대의 중복성(multiplicity of abuse or violence)은 단일학대피해(mono-victimization)와 단일학대가해(mono-perpetration)로 구분되며, 그 학대유형별 차이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가장 광의의 학대피해경험은 중복학대피해(multiple victimization)와 중복학대가해(multiple perpetration)이며, 경험되는 학대의 유형이 다양하게 다를 때는 다유형중복학대피해(poly-victimization)와 다유형중복학대가해(poly-perpetration)로 정의될 수 있다(Finkelhor et al., 2007). 반면, 단일 유형의 학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사용되는 개념은 반복피해(re-victimization)와 반복가해(re-perpetration)이다. 예컨대, 아동기 성학대의 피해경험이 성인기에도 반복될 때 이는 반복피해의 예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학대 가해자의 동일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생애발달 과정에서 경험되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과 피해경험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대 유형에 대한 노출경험은 일반적이며 단일 유형의 일회적 학대경험에 비해 부정적 심리·정서적 결과와 더욱 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1〉 학대 및 폭력의 중복발생의 개념적 틀

피해	가해	피해 및 가해
단일유형의 학대 또는 일회성 학대 및 폭력		
단일폭력 피해 (mono-victim) 개별폭력 피해 (isolated) 단일유형 노출 (single form exposed)	단일폭력 가해 (mono-perpetrator)	단일유형 가해 및 피해 (mono-perpetrator-victim) 또래폭력가해피해 (bully victim) 파트너폭력가해피해 (mutual IPV)
학대의 중복성(multiplicity): 학대 유형별 구분		
다유형학대중복피해 (poly-victim) 중복유형피해 (multiple type victim) 중복학대유형노출 (multiple form exposed) 복합적 트라우마 (complex trauma)	다유형학대중복가해 (poly-perpetrator) 폭력적 다형성 (violent polymorphism)	다유형학대중복가해 및 피해 (poly-perpetrator-victim)
반복성(repetitiveness): 시간에 따른 구분		
반복적 피해 (repeated victim) 만성적 피해 (chronic)	반복적 가해 (repeated perpetrator) 상습범 (recidivist)	반복가해 및 피해 (repeated perpetrator-victim)

제2절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순환(Intergenerational Cycle of Abuse)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는 “학대 및 폭력의 대물림”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학대의 세대 간 순환은 이상에서 살펴본 학대의 중복적 경험의 주요한 유형으로 시간의 경과 및 학대 유형별 중복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대의 세대 간 순환을 통한 학대의 재생산은 크게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intergenerational continuity)과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은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을 때 해당되지만, 학대행위자가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인지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 세대 간 전이는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의 개념적 하위그룹에 속하며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 자신이 학대행위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직접 학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그림 2-3]과 같이 1세대(Generation 1)로부터 학대를 당한 2세대(Generation 2)인 부모가 직접적으로 3세대(Generation 3)인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때 학대의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한다.

학대의 발생률은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세대 간 전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Berlin, Appleyard, & Dodge, 2011; Valentino, Nuttal, Comas, Borkowski, & Akai, 2012; Hamby, Smith, Mitchell, & Turner, 2016에서 재인용). 세대 간 연속성에서 세대 간 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 개념이 세대 간 전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학대피해

를 경험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학대행위자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다른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2-3] 학대경험의 세대 간 전이의 개념도



자료: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6). p. 2.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해 왔던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신체적 학대와 같은 단일 유형의 학대 또는 둘 이상의 폭력유형 경험의 총량으로 집계된(aggregate) 학대 및 폭력의 경험에 초점이 두어졌다. 선행연구 결과는 중복적 학대경험은 높은 수준의 세대 간 연속성 또는 전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이 어떻게 구체적인 G3이 경험하는 학대 세부유형 간에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학대 및 폭력의 세부유형별로 서로 다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중복된 폭력 유형 경험의 총량으로 집계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을 통한 접근은 특정한 폭력 유형의 세대 간 전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Erickson, Egeland, & Pianta, 1989; Yates, Dodds, Sroufe, & Egeland, 2003; Kim, 2009

에서 재인용). 따라서 각 세대에서 경험하는 학대의 유형에 따른 다양성(variatio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유형 대 유형별 전이(type specific intergenerational continuit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신체적 학대, 아동방임, 아동의 성학대 등으로 구분되는 학대의 유형이 같은 유형 혹은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는가 등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학대의 세대 간 전이의 구체적인 기제와 경로를 유형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세대 간 전이에 있어서 단일 유형의 세대 간 연속성이 상이한 학대 유형 간의 연속성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Kim, 2009). Kim(2009)은 신체학대와 방임 사이의 전이 패턴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기 방임의 경험이 있는 부모는 신체적 학대보다는 방임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는 방임보다는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대의 세대 간 전이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유형의 학대가 상호연관되어 있는 정도와 중복발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제3절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상에서 논의된 학대 및 폭력의 구조와 특성은 폭력의 연속성 및 순환성(cycle of violence)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과 세대 간 전이 또는 연속성으로 특징화되는 학대의 순환성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며, 본 절에서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중심으로 그 순환성의 기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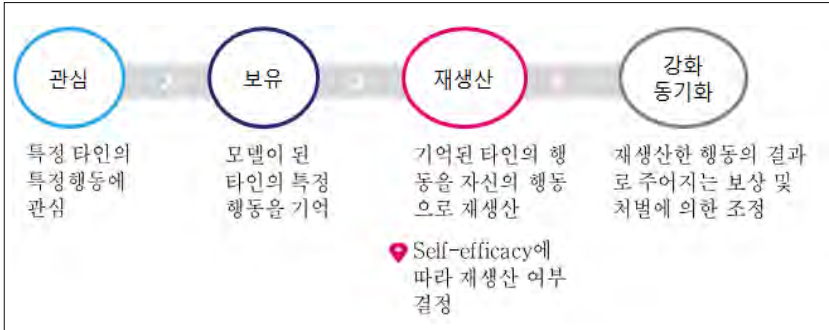
Albert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에게 있어 행동 패턴은 자신

의 행동 결과에 대한 타인의 보상과 처벌 등으로 인한 강화경험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²⁾ 일차적으로 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델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영유아기 때부터 부모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델링하여 학습하게 된다. 또한 특히 언어의 습득과 같은 복합적인 행동이나, 실패했을 경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학습하는 데에 모델링은 더욱 유용하다. 이러한 모델링과 더불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보상과 처벌은 한 개인이 모델링을 통해 습득한 행동을 강화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Bandura, 1971).

사회학습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의 과정’(Attentional process)으로 학습의 대상은 타인의 모든 행동이 아니라 주체가 관심을 두게 되는 타인의 특정 행동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보유의 과정’(Retention process)으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는 과정이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려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델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세 번째 단계는 ‘자동적 재생산 과정’(Motoric reproduction process)으로 모델의 행위를 자신의 행동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네 번째 단계는 ‘강화 및 동기적 과정’(Reinforcement and Motivational Process)으로 재생산한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혹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이를 통해 이후의 행동에 있어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이다. 즉, 처벌 등 부정적인 피드백은 특정 행동을 억제하게 되며 격려 및 보상 등 긍정적인 반응은 행동을 촉진시키게 된다(Bandura, 1971).

2) 본 절에 제시된 Albert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은 Bandura(1971)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그림 2-4] Albert Bandura 사회학습의 4단계



타인의 학대 등 공격적인 행위 또한 모델링을 통한 사회학습의 주요 주제가 된다. 학습의 대상(관찰되는 객체)은 주로 권력(힘)과 지위를 가진 중요한(혹은 빈번하게 접촉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모방하려는 주체와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모델링의 정도가 더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부모 혹은 양육자 등은 흔히 모방학습의 대상이 되며, 부모 혹은 양육자의 폭력과 학대는 아동이 모델링하는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Bandura, 1971).

다만 이 시기에 학습된 폭력적 행위들은 부모와 양육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표출되지는 못하고, 본인보다 약자이거나 혹은 이후에 본인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공격성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Bandura는 이를 ‘자기효능’(self-efficacy)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효능’은 사회학습의 세 번째 단계인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측면으로 만일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의 폭력적 행위를 모델 삼아 인지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도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학대하는 부모와 견주어 신체적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자기효능)이 드는 경우 부모에 대한 폭력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인지적으로 모델화된 학대 행위는 이후에 - 그러한

행동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될 때에 - 발현되는데, 흔히 신체적으로 더 열악하거나 본인보다 더 낮은 힘과 권위를 가진 자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Bandura, 1978).

따라서 아동기의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이 관찰과 모방의 주제가 되어 이를 학습하며, 이러한 학습의 결과, 또래관계나 성장한 이후의 직장 및 군대에서의 사회적 관계,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 자신의 자녀 혹은 늙은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학습된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혹은 이후에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피해를 통해서도 폭력은 학습될 수 있으며, 학습된 공격성은 이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표출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은 학습된 공격성이 공격성을 낳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 경로를 설명해 주며, 또한 이러한 학습된 폭력적 행위가 가정에서 되풀이되면서 자녀세대에도 전수되는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아동기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이 이후 청년기와 성인기의 공격성이나 학대 및 폭력의 거듭된 피해로 발현되는 폭력의 구조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주로 패널조사와 회고적 횡단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기의 학대 및 폭력의 피해와 목격경험이 이후 생애의 폭력적 가해 혹은 재학대피해로 연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Fonseka et al., 2015; Logan-Green et al., 2015; Pournaghash-Tehrani & Feizabadi, 2009), 이러한 폭력의 사이클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et al., 2011; Muller et al., 1995).

Pournaghash-Tehrani와 Feizabadi(2009)의 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이후의 배우자폭력의 가해에 예측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

여 주었으며, Fonseka 등(2015) 역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이후 성인기 배우자폭력의 가해로 강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배우자폭력 피해 목격경험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an-Greene(2015)의 연구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초기 성인기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청소년기의 피해와 성인기 피해에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성인기 공격성에도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Smith 등(2011)은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의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살펴보았는데, 청소년기에 양육자의 배우자폭력에 노출된 경우 초기 성인기와 성인기에 배우자폭력(배우자폭력)을 경험하게 되며, 초기 성인기의 배우자폭력의 경험 여부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폭력 노출의 효과를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ller 등(1995)의 연구는 체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체벌하게 되며, 이러한 자녀에 대한 체벌은 자녀의 공격성을 강화하여 이후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경로를 확인하였다.

제4절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 연구방법론

1. 국외 학대 및 폭력경험에 대한 조사

국외의 학대 및 폭력 관련 연구는 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학대경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패널을 구축하여 수행하는 종단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실태조사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Study,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등의 횡단조사가 있으며, 종단조사에는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Family Transition Project, Lehigh Longitudinal Study, Environmental Risk Longitudinal Twin Study 등이 있다.

최초의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연구인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Study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회고조사(Retrospective Study)로 만 18세 이상 성인 응답자의 아동기 학대 및 폭력경험(신체, 정서, 성학대 및 방임), 아동기 부정적 경험(가정 내 약물중독, 정신병력, 부모 별거, 이혼 및 사망, 가족 중 수감자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변수로 성인의 보건의료정보(각종 병력, 비만, 중독, 정신과 증상 등)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남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에서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Kaiser Permanente의 주관하에 1만 7,000명 이상의 자발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는 우편조사(초기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9년 이후, ACE 질문 항목(ACE module)은 전미에서 매년 실시되는 전화조사인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BRFSS)에 포함되어 2016년 기준 3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되어 왔다. 국제적으로도 WHO의 주관하에 ACE International Questionnaire(ACE-IQ)가 개발되어 영국, 필리핀, 캐나다, 루마니아, 체코,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되었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NatSCEV)는 청소년비행 및 범죄예방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의 주도하에 실시되었다. 아동(0~9세: 주 양육자, 10~17세: 아동 본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으며(1

회 조사 표본 4,549명, 2회 조사 표본 4,503명 등), 전화조사를 통하여 3회(2008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NatSCEV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대상 폭력의 노출 빈도를 측정하고, 폭력피해 특징, 위험요인 및 결과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경험의 중복성 및 군집성(cluster)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결과변수로 정신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및 폭력경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학대경험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아동기 폭력과 비행 및 범죄경험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7).

아동기 학대 및 폭력경험에 대한 종단조사 중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는 청소년의 비행 및 약물 사용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1986년 미국 뉴욕 로체스터의 공립학교에서 선정된 1,000명의 7학년 및 8학년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조사하고 있다. 패널로 구성된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비행(약물 사용, 조직 폭력 가담 여부, 총기류 보유 여부, 문제약물의 중독, 미성년 임신, 자퇴)과 폭력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체벌 여부를 파악하여 폭력의 피해와 가해의 연계성을 연구하였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8).

〈표 2-2〉 외국의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

구분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Study ¹⁾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²⁾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³⁾
연구 목적	아동기 부정적 경험(학대 및 폭력경험 포함)과 현재의 건강 관련 태도 및 행동의 연관성을 파악	아동의 폭력 노출 빈도를 측정하고 폭력피해의 특징, 위험요인 및 결과 등을 파악하여, 한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 경험의 군집양상 파악	청소년의 비행 및 약물 사용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기 위함
조사 대상	Kaiser Permanente 보험 수급자 중 성인 1만 7,000명(남캘리포니아 지역)	전미 아동(0~9세는 주 양육자, 10~17세는 아동 본인)을 대상으로 4,500여명의 표본 구축	1978~1988년 미국 뉴욕 로체스터의 공립학교에서 선정된 1,000명의 7학년 및 8학년 학생 및 부모
최초 작성	1995년	2008년	1986년
최근 작성	2014-BRFSS(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조사 내 간단모듈(횡단조사)	2014년(횡단조사)	2013년(종단조사)
학 대 및 폭 력 문 항	- 아동기 학대 및 폭력경험(신체, 정서, 성학대, 방인) - 아동기 어려운 경험(가정 내 약물중독, 정신병력, 부모 별거, 이혼 혹은 사망, 가족 중 수감자 여부 등) - 보건 및 의료정보(각종 병력, 비만, 중독, 정신과 증상 등)	- 아동의 폭력경험(통상적 범죄경험, 아동학대경험, 또래 및 형제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경험, 학대 및 폭력피해의 목격경험, 기타 피해경험) - 생애 전반의 부정적 경험 - 음주, 인터넷 폭력 피해, 왕따, 지역사회폭력, 비행경험 등	- 비행경험(비행, 약물사용, 조직폭력 가담 여부, 총기류 보유 여부, 문제 약물의 중독, 미성년 임신, 자퇴 등) - 부모용: 체벌 여부, 지역 사회 환경(폭력 목격 등)

자료: 1)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Abou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acestudy>에서 2017. 3. 20. 인출.

2)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7).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III, 1997-2014.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523>에서 2017. 3. 20. 인출.

3)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8). Rochester Youth Development Project: Project Overview. https://www.ojjdp.gov/jjbulletin/9810_2에서 2017. 3. 20. 인출.

Family Transitions Project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1989년 당시 451명의 청소년(7학년/고등)과 그 형제 및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한 조사이다. 패널 내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애인 및 결혼 후 첫 자녀 등도 패널로 포함하였다. 본래 본 조사의 목적은 1980년대 미국 농업지역의 거주자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자 이러한 농어촌지역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있었으나, 조사변수에 폭력과 비행 등 관련 문항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폭력경험의 역동성을 분석하는 데에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1989년 당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가족과 연인 및 그들의 자녀 등 친밀한 관계에서 자녀학대, 배우자학대, 가족 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비행 및 범죄행위 등이 언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이다. 조사 대상이 성장함에 따라 폭력경험과 결과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Iowa State University, 2017).

Lehigh Longitudinal Study는 1976~1977년에 아동학대 혹은 방임으로 CPS(Child Protection Service)에 의뢰된 사례 중 457명의 학대 피해아동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이 성장하면서 아동기 학대 및 어려움의 노출경험, 학령기 비행경험, 성인기 범죄행위 등을 연구하여 생애 전반의 폭력의 중복성을 연구하였다(University of Washington, 2017).

Environmental Risk Longitudinal Twin Study는 1994~1995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쌍둥이 자녀를 둔 1116가족을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조사로, 조사 대상 아동 및 가족 내의 학대 및 폭력경험을 파악하고, 가정 내 학대경험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정요인을 가지는지, 결과와 연관성을 가지는지 연구하였다(King's College London, 2017).

44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표 2-3〉 외국의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

구분	Family Transition Project ¹⁾	Lehigh Longitudinal Study ²⁾	Environmental Risk Longitudinal Twin Study ³⁾
연구 목적	1980년대 미국의 농업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농어촌 가족단위로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	가정폭력 및 기타 유형의 아동기 폭력 및 어려움 경험의 발생과 결과를 파악하고자 함.	영국 아동의 파괴적 행위(반대적, 과잉행동 혹은 집중하지 못하는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조사
조사 대상	아이오와주의 451명의 청소년(7학년/고등)과 그 형제 및 부모, 애인 및 첫 자녀	아동학대 혹은 방임으로 CPS에 의뢰된 사례 중 457명의 학대피해아동 및 그 부모	1994~1995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쌍둥이 자녀를 둔 1,116가족
최초 작성	1989년	1976~1977년	1999~2000년
최근 작성	1992년(종단조사)	1990~1992년	2012년
학대 및 폭력 문항	- 자녀학대(피해, 가해) - 배우자학대(피해, 가해) - 가족 내 알코올 사용, 자퇴, 원하지 않는 임신, 약물남용, 트라우마적 사건 - 비행(흡연, 음주, 약물, 폭력행위, 경찰 출동, 방화 등 각종 비행사항)	- 아동기 학대 및 어려움의 노출경험 - 학령기 비행경험 - 성인기 범죄행위	- 부모용: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정서, 신체, 성학대 및 방임) - 아동용: 부모 및 나이 많은 형제자매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정서, 신체, 성학대 등)

자료: 1) Iowa State University. (2017). Family Transitions Project. <http://www.hdfs.hs.ias.tate.edu/research/project/family-transitions-project/>에서 2017. 3. 20. 인출.

2) University of Washington. (2017). Longitudinal Exposure to Family Violence. <https://socialwork.uw.edu/research-project/longitudinal-exposure-family-violence>에서 2017. 3. 20. 인출.

3) King's College London. (2017). Environmental Risk(E-Risk) Longitudinal Twin Study. [https://www.kcl.ac.uk/ioppn/depts/SGDP-Centre/research/environmentalrisk\(e-risk\).aspx](https://www.kcl.ac.uk/ioppn/depts/SGDP-Centre/research/environmentalrisk(e-risk).aspx)에서 2017. 3. 20. 인출.

2. 국내 학대 및 폭력경험에 대한 조사

국내의 학대 및 폭력과 관련된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실태조사, 종단조사, 병원조사, 통계자료, 대상별 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정 실태조사에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및 노인실태조사 등이 있다. 이 중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배우자폭력 가해 및 피해, 가구 내 자녀폭력 가해, 자녀로부터의 폭력경험, 가족원(노인 포함)에 대한 폭력 등 가정 내 전반적인 폭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아동기 학대경험 또한 제한적이거나 소수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가정 내의 학대 및 폭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설 내 학대피해 및 가해에 대한 실태와 가구원 외의 지인 및 타인에 의한 학대 및 폭력피해는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이인선 등, 2016).

노인실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각 대상별로 단순화된 학대 피해 척도를 탑재하고 있으며, 신체적, 정서적 및 성학대와 방임 등을 주요 학대 유형으로 다루고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비행, 학교폭력 및 또래폭력 등의 문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실태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전반적인 환경, 상호작용 및 심리정서적 척도 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의 학대피해 및 가해요인과 관련요인 등 폭넓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정경희 등, 2014; 김미숙 등, 2013).

〈표 2-4〉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

구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¹⁾	노인실태조사 ²⁾	아동종합실태조사 ³⁾
연구 목적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우리나라 아동의 복지수준, 성장 여건 및 발달주기별 정책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가구원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전국의 0~18세 미만 아동가구
조사 주기	3년	3년	5년
최초 작성	2010년	2008년	2008년
최근 작성	2016년	2014년	2013년
표본 추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집단가구(기숙사, 양로원 등),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조사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에서 2010년 당시 만 61세 이상인 노인 추출	- 기초보장수급가구, 차상위가구: 행복e음 전산망 리스트 - 일반가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규모	19세 이상 성인 6,000명 (여성 4,000명, 남성 2,000명)	1만 451명	4,007가구 (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
학 대 및 폭 력 문항	- 아동기 학대피해, 폭력 목격 여부 - 배우자 통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폭력 정도 및 폭력 최초 경험 시기 - 자녀학대 가해(본인 및 배우자) - 가족원학대 가해 - 노인용: 자녀로부터의 학대경험	- 노인학대(신체, 정서, 경제, 방임(돌봄 및 경제적)) 발생 유무	- 부모용: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 아동용: 비행,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 아동학대 피해(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작성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1)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이미정, 주재선, 정수연 등. (2016). 2016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등.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인기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직장폭력, 데이트폭력, 군대폭력의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정 조사로 실시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있다. 먼저, 직장폭력 관련 실태조사로는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와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가 있다.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는 전국의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및 목격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보고서는 서비스산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 및 최근 직장 내 괴롭힘(조롱, 폭언, 소문, 위협, 폭력, 성폭력) 피해, 가해 및 목격경험을 조사하였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대상의 한계가 있으며, 사례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의 경우, 조사 문항에서 성희롱 관련 항목만을 포함하여, 직장 내 전반적인 폭력 유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안상수 등, 2010; 구미영 등, 2015).

둘째로, 데이트폭력 관련 실태조사로는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I 등에서 진행된 바 있다.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는 만 19~30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성적인 추행과 폭력경험에 대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다(이미정 등, 2009).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층이 만 19~60세 미만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신체, 정서 및 성폭력 등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간략한 항목으로나마 아동기 학대피해 및 목격경험도 파악하고 있으나 여성은 피해경험만을 조사하여 다소 한계가 있다(홍영오 등, 2015).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I의 조사는 전국의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성희롱과 성적 폭력 피해경험 및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을 파악하였다(안상수 등, 2010).

〈표 2-5〉 국내 직장폭력 관련 실태조사

구분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¹⁾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²⁾
연구목적	서비스산업 종사 근로자 일반의 직장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여 직장 괴롭힘 실태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	여성과 남성의 보다 효율적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실효가 있는 방안 제시
조사대상	서비스산업 종사 근로자	전국 19~70세 남녀 직장인
조사주기	-	-
최초작성	-	-
최근작성	2015년	2010년
표본 추출틀	- 고용노동부,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대한간호사협회(2014) - 통계청 국가공무원 인사통계(2013.12)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2014)	2009년 기초사업체조사통계
표본규모	1,000명	3,027명(남성 1,507명, 여성 1,520명)
학대 및 폭력 문항	- 직장 내 괴롭힘(조롱, 폭언, 소문, 위협, 폭력, 성폭력) 피해, 가해 및 목격 - 과거 직장 괴롭힘 경험	- 성희롱 피해 및 목격경험 유무
작성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1) 구미영, 천재영, 서유정, 정승기. (2015).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안상수, 박성정, 김금미. (2010).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2-6〉 국내 데이트폭력 관련 실태조사

구분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¹⁾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²⁾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³⁾
연구목적	우리 사회 청년층의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데이트 강간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위험을 검토하여 관련 정책대응 방안 마련	친밀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 모색	대학생활 영역에서 성평등 실천 실태를 파악하여 대학 및 대학생활에서의 성평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만 19~30세 청년층	교제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전국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조사주기	-	-	-
최초작성	-	-	-
최근작성	2009년	2015년	2011년
표본 추출틀	2009년 8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전문 인터넷 조사업체 자체 리서치 패널 110만 명 대상 인구비례 할당추출방법	교육과학부 교육통계, 2010
표본규모	3,600명	4,000명(남녀 각각 2,000명)	5,555명(남성 2,497명, 여성 3,258명)
학대 및 폭력 문항	- 성추행 및 성폭력 경험(고교 입학 이후부터 현재까지)	- 여성: 통제피해, 데이트 폭력(신체, 정서 및 성폭력) 피해경험 - 남성: 아동기 학대 피해 및 목격경험, 통제 가해 및 피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 성희롱 경험(피해) - 데이트폭력 경험(가해)
작성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1) 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안상수, 박성정, 최윤정, 김금미. (2011). 성평등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I: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지막으로, 군대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I’ 등이 있다.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간부, 사병, 여군 등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왕따 등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였으나, 대상별 조사 항목이 상이하고 여군의 경우 성희롱 피해 및 목격경험에 치중하고 있어 전반적인 폭력의 발생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이종호 등, 2014).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여군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피해와 목격경험을 조사하였으나, 타 유형(신체, 정서 및 왕따 등)의 폭력경험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안상수 등, 2012).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I의 경우 50세 미만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군대 내 다양한 폭력 피해 및 목격경험을 조사하였으나, 여성(여군)은 포함되지 않았다(안상수 등, 2011).

학대 및 폭력과 관련된 종단조사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종단조사는 장기간에 걸친 아동의 발달상황과 가족의 변화 그리고 폭력의 양상 등을 추적하여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다만 조사별 포함된 학대 및 폭력의 문항이 주로 학교 혹은 또래 친구 간 폭력과 비행경험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종원 등, 2016; 이해연 등, 2012; 양계민 등, 2016).

〈표 2-7〉 국내 군대폭력 관련 실태조사

구분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¹⁾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²⁾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³⁾
연구목적	군내 인권의 보장과 군 본연의 역할인 완벽한 전투 임무수행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	여군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여군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 및 정책 개선방안 모색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남성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사회 실현에 남성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 마련
조사대상	군 장병, 예비군, 병사의 부모	현재 군대에 복무 중인 여군	19~49세 연령범위의 군필, 군미필 및 군 면제 남성
조사주기	-	-	-
최초작성	-	-	-
최근작성	2014년	2012년	2014년
표본 추출틀	국방부 협조	국방부 협조	2014년 8월 기준 주민등록통계
표본규모	1,088명	860명	1,500명
학대 및 폭력문항	- 간부용: 인권침해 피해 경험(구타, 언어폭력, 성희롱, 왕따) - 사병용: 인권침해 피해 경험(구타, 언어폭력, 성희롱, 왕따, 과식 강요) - 여군: 성희롱 피해 및 목격	- 성희롱 피해 및 목격경험(성적 농담, 신체접촉, 성추행)	- 폭력 피해 및 목격(언어, 신체, 집단 따돌림, 성적 괴롭힘 및 농담) 경험
작성기관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1) 이종호, 최장욱, 황윤상, 윤형호, 서동욱. (2014).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

2) 안상수, 박선영, 김혜영, 최윤정, 김병조, 김동원. (2012).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안상수, 김인순, 윤민재, 김보연. (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1): 군복무 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2-8〉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종단조사

구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¹⁾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²⁾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³⁾
연구목적	한국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 및 성장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
조사대상	2010년 기준 전국의 초 1, 초4, 중1 각 학년 재학생	전국의 다문화가족 중 2016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패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초등학교 5학년생 801명
조사주기	1년	1년	1년
최초작성	2010년	2011년	2010년
최근작성	2016년	2016년	2012년
표본 추출틀	2009년 전국 학교통계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재학 다문화청소년 및 모	2011년 1차 조사에 참여했던 아동 대상
표본규모	〈2010년 원표본〉 7,071명 〈2016년〉 5,859명	〈2016년〉 1,322가구 (학생 1,335명 학부모 1,304명)	〈2012년〉 2차 조사-초등 5학년 801명(본조사) 시설이용변화 및 지속이용 아동 50명(부가조사: 심층면접)
학대 및 폭력문항	- 비행가해, 피해경험(놀림, 왕따, 패싸움, 신체 폭력, 협박, 빙뜯기, 성 폭력 및 희롱) - 사이버 비행	- 집단 괴롭힘(따돌림, 욕, 놀림, 무시, 폭력, 위협, 소문 등) - 비행 친구와의 접촉(신체적 폭력 가해, 빙뜯기 가해, 폭력집단 가입 및 패싸움 경험)	- 폭력가해(타인에 대한 심각한 신체폭력, 왕따) - 학교폭력 피해(놀림, 조롱, 협박, 왕따) - 학교 및 지역사회 폭력(심각한 신체폭행 및 강도 피해)
작성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 1) 이종원, 모상현, 강현철, 정윤미, 한지형. (201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한주희.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종합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이혜연, 박영균, 유성렬, 정선옥, 고정원. (20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또한 통계자료 및 병원자료를 통한 학대 및 폭력 관련 조사로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및 ‘퇴원손상심층조사’ 등이 있다. 본 자료들은 전국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나, 학대 및 폭력으로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진단만으로는 학대 및 폭력이 손상 원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학대 및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 혹은 중복학대와 세대 간 전이 등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된 아동학대 및 방임사건에 대한 자료로서, 보고된 아동학대 피해사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국노인학대현황보고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노인학대 피해사례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신고되어 판정된 피해사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대 발생률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학대 피해자의 개인적, 가족적 및 기타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 외의 추가적인 학대 및 폭력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표 2-9〉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통계 및 병원조사

구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¹⁾	질병관리본부 응급실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²⁾	질병관리본부 퇴원손상 심층조사 ³⁾
연구목적	국민의 정확한 사망 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 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손상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상 예방관리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전 국민	20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기준에 맞는 561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모든 환자
조사주기	연중	1년	연중
최초작성	1983년	2006년	2005년
최근작성	계속통계	2013년	2012년
표본 추출틀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손상환자	100명상 이상 병원 퇴원환 자 중 손상환자
표본규모	전 국민	〈2013년〉 약 22만 명	〈2012년〉 115만 6,119명
학대 및 폭력문항	- 질병사인코드(신체폭 력, 성학대, 심리적 학 대, 기타 학대, 배우자 폭력, 부모에 의한 학 대, 기타 학대 등)	- 손상의도성(폭력, 타살 등) - 손상기전 및 발생장소 - 자살위험인자(학대 여부 포함)	- 손상의도성(폭력, 타살 등) - 손상기전 및 발생장소 - 자살위험인자(학대 여부 포함)
작성기관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자료: 1) 통계청. (2016). 사망원인통계(전국편).

2) 농촌진흥청, 도로교통공단, 소방방재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
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 질병관리본부. (2014). 제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3) 질병관리본부. (2014). 퇴원손상통계: 2004-2011.

〈표 2-10〉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통계 및 병원조사

구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¹⁾	전국노인학대현황보고서 ²⁾
연구목적	아동학대 현황 및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 분석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방향과 노인보호 정책 마련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례	2015년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조사주기	연중	1년
최초작성	2001년	2005년
최근작성	2015년	2015년
표본추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사례
표본규모	〈2015년〉 1만 9,214명	1만 1,905건
학대 및 폭력문항	- 아동학대 피해자 정보(학대신고 및 발견진수, 학대유형, 가구소득수준, 아동 특성, 신고 후 조치결과 등) -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아동과의 관계, 가해자 특성, 신고 후 조치결과 등)	- 노인학대 피해자 정보(연령, 발생장소, 가구형태, 행위자와의 관계, 생활수준, 치매정도 등) - 노인학대 가해자 정보(결혼유형, 교육, 생활수준, 직업, 장애 등 특성)
작성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이상에서 논의된 국내의 학대 및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살펴 퍼볼 때, 대상별로 실시되는 법정 실태조사에서는 대상별 특정한 학대 및 폭력의 경험만을 분절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학대경험을 파악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기 학대경험 문항은 단 9개 문항으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을 단순하게 물어보고 있어서, 아동기 학대경험을 포괄적으로 담아 내지 못한다. 또한 데이트폭력, 군대폭력, 직장폭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국적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조사의 목적별로 남성 혹은 여성 중 일부 성별을 특정한 대상만을 포함하거나 폭력의 유형을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한정하거나 혹은 가해나 피해 어느 한쪽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폭력경험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의 분석 결과, 현재까지 국내의 조사연구들 중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아동기 부모의 폭력 목적, 또래폭력, 지역사회 내 폭력의 목적,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 내 폭력 및 가정폭력(부부 및 노인) 등 다각도의 학대와 폭력에 대한 주제를 모두 포함하여 학대 및 폭력의 상호연관성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학대 및 폭력경험에 대한 조사의 비교

학대 및 폭력의 발생률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며, 결과의 비교는 조사의 대상, 조사 문항의 범위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는 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 실시된 국내의 전국 단위 조사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학대 및 폭력경험에 대한 문항을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앞서 제시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자료 중 14개 자료(조사명은 <표 2-11> 참조)를 포함하였다. 비교의 기준은 조사 대상 연령, 학대폭력 발생 장소, 행위자-피해자 관계, 가해-피해, 학대폭력경험의 기간, 직접경험 여부, 학대폭력의 유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각 조사 해당 문항별 세부 내용은 <부표 2-1>을 참고).

조사 대상 연령을 살펴보면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2016)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자녀에 대한 폭력 피해와 가해까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령범위가 가장 넓었으며, 노인실태조사(2014)는 만 65세 이상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는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되 만 9세

미만은 부모의 가해경험을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 및 종단조사는 특정 연령을 지정하고 있으나, 종단조사의 특성상 대상자가 성장하면서 연령범위는 확장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 밖의 조사는 청년층 혹은 성인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의 선행 실태조사들이 설정한 학대 및 폭력의 발생 장소는 각 조사가 특정한 학대 및 폭력의 주제와 관련이 있었다. 발생 장소로 ‘가정 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가 있으며, ‘가정 내-외’를 모두 다룬 조사는 노인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그 밖의 연구들은 ‘가정 외’에서의 학대 및 폭력경험을 다루고 있다.

학대 및 폭력의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가 가장 다양한 관계들을 보고 있는데, 본인과 부모, 본인의 부모 간 상호폭력,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자녀, 배우자와 자녀, 본인과 가구원 등 가족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상호 간의 관계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본인과 부모, 본인과 학교 친구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 있으며, 노인실태조사는 본인과 가족, 본인과 타인을,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는 본인과 부모, 본인의 부모 간 상호폭력, 본인과 연인 등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 밖의 연구들은 본인과 타인(학교친구, 연인, 직장동료, 군대 내 등)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연구의 초점이 폭력의 가해인지 혹은 피해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피해만을 다룬 조사는 노인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직장폭력을 다룬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 군대폭력을 주제로 한 조사들을 포함하였다. 그 밖의 조사들은 모두 가해와 피해경험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학대폭력경험의 기간은 주로 지난 1년이었으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조사에

서는 최근 6개월이었다. 과거의 경험을 회고하여 응답하는 문항이 포함된 조사들도 소수 있었는데,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아동기 피해경험을 포함하였으며,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장기와 교제 시의 경험을 묻고 있다. 또한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에서는 고교 입학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을 회고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I에서는 군복무 당시의 경험을 회고하여 조사하였다.

학대 및 폭력의 직접 경험 여부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 조사들이 ‘직접 경험’ 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부모 간의 폭력, 직장 및 군대 내 구성원 간의 폭력의 경우에는 ‘목격경험’을 물었다.

폭력의 유형은 대체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아동)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임을 포함하고, 배우자폭력에는 경제적 폭력과 부부 간 통제를 포함하였다. 노인 대상 폭력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 이외에도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포함되었으며, 청소년 연령에서는 따돌림(왕따), 갈취 등이 포함되었다.

〈표 2-11〉 국내 학대 및 폭력 관련 조사 문항 및 결과 비교

조사명	대상연령	가정 내외 구분	행위자-피해자 관계	가해/피해	기간	직접 경험 여부	폭력유형	폭력률 / 학대율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16)	만 19세 이상	가정 내	부모-본인	피해	아동기	○	정서적·신체적 폭력, 방임	- 아동기 언어학대피해: 29.6 - 아동기 회초리로 맞음: 48.1
			부모-부모	피해	아동기	목적	정서적·신체적 폭력	- 아동기 부모 간 욕설 목적: 33.2 - 아동기 부모 간 손/발로 폭력 목적: 12.7
			본인-배우자	가해/피해	지난 1년	○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통제	배우자학대피해: 41.5 (통제 포함)
			본인-자녀	가해/피해	지난 1년	○	신체적·정서적 폭력, 방임	자녀학대가해: 27.6
			배우자-자녀	가해/피해	지난 1년	목적	신체적·정서적 폭력, 방임	자녀학대피해: 19.2
			본인-가족원	가해/피해	지난 1년	○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 65세 이하 피해 3.7, 가해 3.6 - 65세 이상 피해 7.3
노인실태조사(2014)	만 65세 이상	가정 내	본인-타인	피해	지난 1년	○	폭력	학대경험률: 9.9
		가정 외	본인-가족, 타인	피해	지난 1년	○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방임	

조사명	대상연령	가정 내외 구분	행위자-피해자 관계	가해/피해	기간	직접 경험 여부	폭력유형	폭력률 /학대율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8세 미만	가정 내	부모-자녀	가해 (9세 미만) 피해 (9세 이상)	지난 1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 방임 피해: 40.7 - 신체 피해: 6.1 - 정서 피해: 11.9
	9~18세 미만	가정 외	본인-학교 친구, 타인	가해/피해	지난 1년	○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따돌림, 갈취	- 학교폭력 피해율: 32.2
한국아동청소년비밀 조사(2016)	초1, 초4, 중1	가정 내	본인-부모	피해	지난 1년	○	학대, 방임	
		가정 외	본인-학교친구, 타인	가해/피해	지난 1년	○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따돌림, 갈취	- 원실태비행: 32.7 - 사이버비행: 13.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집단조사(2012)	초5	가정 외	본인-학교친구, 타인	가해/피해	지난 6개월	○	정서적·신체적 폭력, 양대, 갈취	- 비행경험률: 12.2
다문화청소년 집단조사(2016)	고1(16년)	가정 외	본인-학교친구, 타인	가해/피해	지난 1년	○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따돌림, 갈취	- 심한 구타 가해율: 1.8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2015)	성인(근로자)	가정 외	본인-직장동료	가해/피해	최근 6개월	○ / 괴롭힘 목적 포함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 객관적 피해율: 31.5 - 주관적 피해율: 7.4

조사명	대상연령	가정 내외 구분	행위자-피해자 관계	가해/피해	기간	직접 경험 여부	폭력유형	폭력률 /학대율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2015)	만 19~60세 미만	가정 내	부모-본인	피해	성장기	○	신체적·정서적 폭력	- 데이트폭력피해: 53.5
			부모-부모	피해	성장기	모격	신체적·정서적 폭력	- 데이트폭력가해: 57.0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I(2011)	대학, 대학원생	가정 외	본인-연인	가해/피해	교세 시	○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가정 외	본인-타인(연인)	가해/피해	지난 1년	○	성폭력	- 여성 성희롱 피해경험률: 26.7 - 데이트폭력 가해경험률: 8.0
청년층 sexual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2009)	만 19~30세	가정 외	본인-타인(연인)	가해/피해	고교 입학 후	○	성폭력	- 남성의 성추행 성폭행 경험률: 4.2~7.9 - 여성의 성추행 성폭행 경험률: 9.9~30.1
		가정 외	본인-직장동료	피해	지난 1년	○/모격	성희롱	- 성희롱 피해경험률: 5.0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2010)	19~70세	가정 외	본인-가족동료	피해	지난 1년	○/모격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 신체폭력 피해경험: 45.4 -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 33.5 -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 21.6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I (2014)	19~49세	가정 외	본인-군대 내	피해	군복무당시	○/모격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조사명	대상연령	가정 내외 구분	행위자-피해자 관계	기해/ 피해	기간	직접 경험 여부	폭력유형	폭력률 /학대율
군인 권리보호 및 구 제체제에 대한 인권상 황 실태조사(2014)	성인(군대 병사의 부모)	가정 외	본인-군대 내	피해	지난 1년	○/목적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 여군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6.3 - 여군의 성희롱·성폭력 목적 경험: 27.3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 사(2012)	성인(군 복무자)	가정 외	본인-군대 내	피해	지난 1년	○/목적	성희롱, 성폭력	- 성희롱 피해경험률: 11.9

자료: 1) 이인선 등. (2016). 2016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미숙 등.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구미영 등. (2015).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안상수 등. (2010).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 이미정 등. (2009). 청년층 세수일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홍영오 등.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안상수 등. (2011).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I: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이종호 등. (2014).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제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

10) 안상수 등. (2012).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 안상수 등. (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1): 군복무 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 이종원 등. (201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양계민 등.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 이혜연 등. (20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3 장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개요 및 설계

제1절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제2절 조사 방법과 표본설계

3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 개요 및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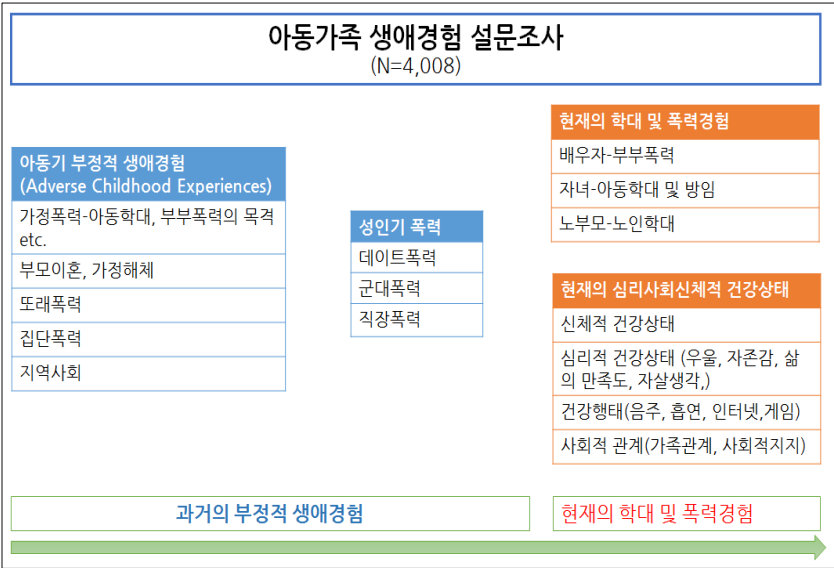
제1절 조사 목적과 조사 내용

1. 조사 목적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경험을 회고적으로 파악하고, 응답자의 개인특성별 및 가구특성별 학대와 폭력의 발생 및 제 특성을 분석하며, 생애주기별 학대와 폭력경험(가해 및 피해)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학대와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적 정책개입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아동기 폭력의 피해경험을 비롯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의 주요한 형태의 폭력경험(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 현재(최근 1년간)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의 가해 및 폭력경험을 배우자폭력, 아동학대(가해), 노인학대(가해)로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학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가해)경험과 폭력(학대)의 전이의 역동을 포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생애주기별 학대폭력과 사회적 관계, 삶의 질,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정책개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그림 3-1] 아동가족 생애경험 설문조사



2. 조사 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응답자 기본사항, 가구 특성, 아동기 성장과정 및 부정적 경험, 그 밖의 성인기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경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가족관계 및 가족환경, 삶의 질 및 건강상태 등 9개의 조사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의 특성요소가 반영된 세부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표 3-1〉 참조). 아동기 성장과정 및 부정적 경험에는 출생 후 18세 미만까지 본인의 학대 및 방임 피해경험, 가족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가족원의 학대피해 목격경험, 또래폭력(왕따 등) 피해 및 가해경험, 지역사회폭력 목격경험, 집단폭력(학교폭력, 정치적 폭력, 강도 및 조직폭력) 피해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그 밖의 성인기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경험 영역은 군대폭력(피해 및 가해), 데이트

폭력(피해 및 가해), 직장폭력(피해 및 가해)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우자폭력(피해 및 가해), 아동학대(가해), 노인학대(가해) 등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및 노부모와의 관계 등의 각 영역별로 파악되었다. 가족관계 및 가족환경에서는 가족관계 일반과 가족 내 식품미보장, 주거 관련 항목, 국민기초수급 여부, 사회적 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삶의 질 및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정신건강, 음주 및 흡연, 인터넷 사용 정도 등이 포함되었다.

〈표 3-1〉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조사 내용

조사영역	세부항목
응답자 기본사항	- 연령(만 나이), 18세 미만 자녀 유무, 자녀 주양육자 - 경제활동상태, 직업, 교육수준
가구특성	- 가구원 수 - 가구원별 특성(가구원 번호,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만 나이, 장애 여부) - 특성별 가구원 수(영유아, 아동, 노인, 등록장애인, 가구유형) - 가구유형(주말부부, 응답자 부모 분거, 응답자 배우자 부모 분거, 다문화 가정)
아동기 성장과정 및 부정적 경험	- 본인의 학대 피해경험(신체학대 피해경험, 정서학대 피해경험, 성학대, 방임 피해경험) - 가족 내 부정적 경험(가족원의 알코올 등 어려움 경험, 가족원의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 가족원의 수감, 부모의 이혼 별거 혹은 사망) - 가족 구성원의 학대피해 목격경험(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피해 목격) - 또래폭력(왕따) 피해/가해경험, 피해/가해 유형 - 지역사회폭력 목격경험 - 집단폭력 피해 및 목격경험(학교폭력, 정치적 폭력, 강도 및 조직폭력)
그 밖의 성인기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경험	- 군대폭력 피해/가해경험(본인 및 가족 구성원: 신체, 정서) - 데이트폭력 피해/가해경험(본인: 신체, 정서, 성) - 직장폭력 피해/가해경험(본인: 신체, 정서, 성)
배우자와의 관계	- 혼인상태, 결혼(동거) 연도, 결혼생활 만족도 - 배우자 통제 피해/가해경험 - 배우자폭력 피해/가해경험(신체, 정서, 성 및 경제)
자녀와의 관계	- 첫 자녀 출산연령 - 자녀돌봄 도움 유무, 양육스트레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 아동체벌 허용도 - 아동학대 가해(본인 및 배우자: 신체, 정서 및 성학대, 방임)
노부모와의 관계	- 생존 노부모 존재 여부, 건강상태(배우자 및 본인), 노부모 접촉 빈도(본인 및 배우자), 생활비 의존 여부, 노부모 직접 부양 여부, 부양 부담

조사영역	세부항목
	- 노부모학대 가해(본인: 신체, 정서 및 경제적 학대, 방임 등) - 노인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및 가족환경	- 가족관계 일반, 사회적 지지(가족, 친척, 이웃, 친구) - 식품미보장(Food Insecurity) - 주택 점유형태, 월평균 총임대료 및 관리비, 월평균 가구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생계, 주거, 교육, 의료)
삶의 질 및 건강상태	- 삶의 만족도, 전반적 건강상태 - 정신건강(우울, 자존감, 자살 생각 및 이유), 사회적 바람직성 - 음주(빈도, 정도, 폭음수준), 흡연 정도 -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

제2절 조사 방법과 표본설계

1. 조사 방법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일반가구 내 만 59세 이하인 성인(부 또는 모)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수행기간은 2017년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의 민감성과 응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대 및 폭력 관련 문항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태블릿 PC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친 조사 안내문과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제공하여 조사 진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대상자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표본설계

가. 모집단과 추출 틀의 정의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만 59세 미만의 성인을 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추출 틀의 1차 추출단위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한 집계구로 하였으며, 2차 추출단위는 표본으로 선정된 집계구 내의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최종 추출단위는 2차 추출단위인 조사적격가구 내에서 만 59세 이하 성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중에서 1명을 선정하였다.

나. 층화변수와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응답자의 생애주기별 학대와 폭력경험(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회·경제·환경적 상황 및 생활환경 등이 포함되므로 이들을 동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도, 동부와 읍면부, 주택 유형 등을 명시적 층화변수로 사용하고 만 18세 미만의 성별, 연령대를 잠재적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모집단 분석은 층화변수인 시도, 동부·읍면부, 주택 유형 등에 대해서 1차 추출단위인 집계구와 응답자인 만 59세 이하의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2>와 같이 정리하였다. 특광역시와 읍면부는 규모도 작고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동부와 유사하므로 동·읍면부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표 3-2〉 시도별 집계구와 가구 수 분포

시 도	집계구				가구 수	인구수	
	합계	동부 아파트	동부 주택	읍면부		전체	만 59세 이하
서울	19,445	8,856	10,589	0	3,784,490	9,919,016	6,517,858
부산	6,877	3,621	3,256	0	1,335,900	3,489,212	2,169,618
대구	4,971	2,740	2,231	0	928,528	2,482,476	1,577,467
인천	5,794	3,196	2,598	0	1,045,417	2,946,270	1,941,566
광주	3,077	2,038	1,039	0	567,157	1,466,741	936,548
대전	3,126	1,834	1,292	0	582,504	1,509,587	976,236
울산	2,305	1,389	916	0	423,412	1,167,960	774,356
세종	412	272	140	0	75,219	259,157	160,419
경기	24,451	12,685	7,790	3,976	4,384,742	12,775,175	8,335,213
강원	3,064	1,122	728	1,214	606,117	1,547,453	920,931
충북	3,155	1,128	771	1,256	601,855	1,592,573	973,698
충남	4,231	1,191	660	2,380	796,185	2,105,959	1,254,378
전북	3,766	1,650	995	1,121	717,311	1,858,927	1,083,671
전남	4,112	1,001	580	2,531	720,612	1,899,088	1,069,382
경북	5,391	1,619	1,277	2,495	1,062,725	2,692,859	1,580,434
경남	6,785	2,580	1,828	2,377	1,258,487	3,372,586	2,077,016
제주	1,257	283	615	359	220,369	647,547	397,482
합계	102,219	47,205	37,305	17,709	19,111,030	51,732,586	32,746,273

주: 가구 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고 인구수는 2017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다. 표본크기와 표본배분

표본크기의 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생산할 주요 통계의 허용목표오차의 크기, 사용 가능한 예산의 규모와 통계생산단위의 수준 등이며 본 사업에서는 통계생산단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단위를 원칙으로 하였다. 적용할 표본추출법이 3단층화집락 추출법이므로 허용목표오차의 크기를 d_o 로 가정하면 필요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sum_{h=1}^L N_h^2 S_h^2 / w_h}{N^2 (d_o / z_{\alpha/2})^2 + \sum_{h=1}^L N_h S_h^2}$$

여기서 N_h 와 S_h^2 는 각각 h 층에서 층의 크기와 분산이고 w_h 는 h 층에서 표본할당비례상수이며 N 과 $z_{\alpha/2}$ 는 신뢰계수를 나타낸다.

예산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 표본 규모는 4,000가구로 정하였으며 시도별 표본배분법의 검토 시 시도별 기대표본오차의 크기를 계산하여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가구인 4,000가구를 집계구당 15가구를 조사한다는 가정에서 집계구 수로 환산하면 267개 집계구가 표본크기이며, 267개 집계구의 시도별 배분은 2개 집계구를 우선할당한 후 나머지 233개를 만 18세 미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였다.

시도별로 할당 결과에 대한 기대표본오차를 계산한 결과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에 각각 59개 집계구(885가구)와 47개 집계구(705가구)가 할당되었고 이에 대한 기대표본오차는 각각 3.36%포인트와 3.77%포인트였다. 또한 규모가 작은 세종시와 제주도에는 각각 4개 집계구(60가구)와 6개 집계구(90가구)가 할당되었고 이에 대한 기대표본오차는 각각 12.91%포인트와 10.54%포인트 등이므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3-3〉 시도별 집계구 할당 결과와 기대표본오차

시도	집계구				만 59세 이하 성인	집계 구 할당	할당 표본 가구	기대 표본 오차
	합계	동부 아파트	동부 주택	읍면부				
서울	19,445	8,856	10,589	0	6,517,858	47	705	3.77
부산	6,877	3,621	3,256	0	2,169,618	17	255	6.26
대구	4,971	2,740	2,231	0	1,577,467	13	195	7.16
인천	5,794	3,196	2,598	0	1,941,566	16	240	6.45
광주	3,077	2,038	1,039	0	936,548	9	135	8.61
대전	3,126	1,834	1,292	0	976,236	9	135	8.61
울산	2,305	1,389	916	0	774,356	8	120	9.13
세종	412	272	140	0	160,419	4	60	12.91
경기	24,451	12,685	7,790	3,976	8,335,213	59	885	3.36
강원	3,064	1,122	728	1,214	920,931	9	135	8.61
충북	3,155	1,128	771	1,256	973,698	9	135	8.61
충남	4,231	1,191	660	2,380	1,254,378	11	165	7.78
전북	3,766	1,650	995	1,121	1,083,671	10	150	8.16
전남	4,112	1,001	580	2,531	1,069,382	10	150	8.16
경북	5,391	1,619	1,277	2,495	1,580,434	13	195	7.16
경남	6,785	2,580	1,828	2,377	2,077,016	17	255	6.26
제주	1,257	283	615	359	397,482	6	90	10.54
합계	102,219	47,205	37,305	17,709	32,746,273	267	4005	1.58

시도별로 할당된 집계구의 동·읍면부와 주택유형에 대한 배분은 동·읍면층은 집계구 수를 기준으로, 주택유형층에 대해서는 집계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였으며 할당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4〉 시도별 동부/읍면부와 주택유형별 집계구 할당 결과

시도	모집단 집계구				할당된 표본집계구			
	합계	동부 아파트	동부주택	읍면부	동부 아파트	동부 주택	읍면 부	합계
서울	19,445	8,856	10,589	0	21	26	0	47
부산	6,877	3,621	3,256	0	9	8	0	17
대구	4,971	2,740	2,231	0	7	6	0	13
인천	5,794	3,196	2,598	0	9	7	0	16
광주	3,077	2,038	1,039	0	6	3	0	9
대전	3,126	1,834	1,292	0	5	4	0	9
울산	2,305	1,389	916	0	5	3	0	8
세종	412	272	140	0	2	2	0	4
경기	24,451	12,685	7,790	3,976	31	19	9	59
강원	3,064	1,122	728	1,214	3	2	4	9
충북	3,155	1,128	771	1,256	3	2	4	9
충남	4,231	1,191	660	2,380	3	2	6	11
전북	3,766	1,650	995	1,121	4	3	3	10
전남	4,112	1,001	580	2,531	2	2	6	10
경북	5,391	1,619	1,277	2,495	4	3	6	13
경남	6,785	2,580	1,828	2,377	6	5	6	17
제주	1,257	283	615	359	2	2	2	6
합계	102,219	47,205	37,305	17,709	122	99	46	267

라. 표본추출

시도별, 동·읍면부별과 주택유형별 집계구의 모집단과 할당표본의 분포를 기준으로 1차 추출단위(PSU)인 집계구는 집계구 내의 가구 수를 크기로 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며 바로 인접한 집계구를 예비집계구

로 선정하였다. 단, 표본집계구 교체는 집계구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응답자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집계구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① 원룸 밀집 집계구
- ② 조사 대상 적격가구가 과소한 경우
- ③ 당해년에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집계구
- ④ 집계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조사 수행 중 극한 응답 거부 또는 민원 발생 가능 집계구

2차 추출단위인 가구의 선정은 추출된 표본집계구 내의 가구 명부를 작성한 후에 15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한 후에 방문하여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거주 여부를 묻고 만일에 비적격 가구인 경우에는 바로 인접가구로 교체하여 만 59세 이하 성인 중 가구주 또는 세대주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아래 <표 3-5>의 우선순위와 할당 인원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5>에 주어진 연령대 구분과 성별 인원수는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기거하는 가구의 18세 이상 59세 미만의 성인을 분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3-5> 2개 집계구당 성별 연령대별 할당 인원과 조사우선순위

구분	30대 이하	40대 이상	합계
남자	5 / ①	10 / ③	15
여자	7 / ②	8 / ④	15

* 숫자(할당 인원)/ ① (우선순위)를 나타냄.

마. 가중치 작성

표본조사에서 가중치는 조사된 표본데이터의 분포구조와 모집단 분포의 구조를 일치시켜 모수 추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정해 주는 승수를 의미한다. 가중치 계산 절차는 아래 순서로 하였다.

설계가중치 ⇨무응답 보정 ⇨극단가중치 조정 ⇨사후층화 보정

1) 설계가중치(Design Weight)

설계가중치는 조사 모집단의 표본추출틀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 1차 추출단위인 집계구는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2차 추출단위인 가구는 확률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며 가구원은 세대주 또는 가구주를 지정하여 조사하므로 집계구와 표본가구의 추출확률의 역수를 설계가중치로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w_{hijk}^0 = \frac{S_h}{n_h S_{hi}} \cdot \frac{M_{hi}}{m_{hi}} \text{-----}(1)$$

여기서 h 는 층, i 는 집계구, j 는 가구, k 는 가구원을 나타내고, n_h 는 h 층에 할당된 표본집계구 수, S_h 와 S_{hi} 는 각각 확률비례추출에서 크기척도(MOS)를 나타내며, h 층의 가구 수와 h 층 내의 i 집계구의 가구 수를 나타낸다. M_{hi} 와 m_{hi} 는 각각 h 층 i 표본집계구 내의 가구 수와 표본가구 수를 나타낸다($m_{hi}=15$ 가구임). 또한 표본집계구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거주 여부를 para data로 수집하여 집계구 내에서 조사적격률을 산출하여 설계가중치의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2) 무응답 보정 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표본조사에서 가구 또는 개인의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에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응답률의 역수로 계산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집계구 내에서 15가구를 조사하고 가구 내에서는 성인 중 남자와 여자를 교대로 1명을 조사하므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1이 된다.

3) 극단가중치 조정

설계가중치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의 값들 중에서 특정 가중치가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가중치의 영향이 왜곡된 모수추정치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Q_3 + 3.0IQR$ 또는 $Q_1 - 3.0IQR$)보다 크거나 작은 가중치를 극단가중치(extreme weight 또는 outlier weight)라고 하며 극단가중치를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고 전체적인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극단가중치 조정이라고 한다.

4)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앞서 언급한 설계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와 극단가중치 조정의 가중치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어떤 특성에 대한 합계와 외부 행정자료에서 획득한 특성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보정해 주는 승수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라 한다. 예를 들어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만 59세 이하 성인의 성별, 연령대별 합계와 2017년 주민등록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인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아래와 같이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앞에서 설명한 가중치에 곱해서 최종가중치를 계산하였다.

-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

$$BF_{sa} = \frac{OT_{sa}}{\sum_{h=1} \sum_{i=1} \sum_{j=1} \sum_{k=1} W_{hijk}} \text{-----}(2)$$

여기서 분모에 주어진 합산은 성별(s)과 연령대(a)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자의 OT_s 는 2017년 주민등록인구의 성별 연령대의 인구이다.

- 최종가중치는 앞에서 설명한 설계가중치, 무응답 보정 가중치, 극단가중치 조정과 사후층화 보정 가중치를 곱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W_{hijk}^f = w_{hijk}^o \cdot \frac{1}{R_{hij}} \cdot EXT_{hijk} \cdot BF_s \text{-----}(3)$$

여기서 R_{hij} 는 응답률을 나타내고 EXT_{hijk} 는 극단가중치의 조정인자를 나타낸다.

바. 모수 추정

- 전국 단위의 모평균(모비율) 추정량

$$\hat{\mu} = \frac{\sum_{h=1} \sum_{i=1} \sum_{j=1} \sum_{k=1} W_{hjik}^f y_{hijk}}{\sum_{h=1} \sum_{i=1} \sum_{j=1} \sum_{k=1} W_{hjik}^f} \text{-----}(4)$$

여기서 W_{hijk}^f 는 식 (3)으로 주어진 최종가중치이고 y_{hijk} 는 h 층 i 집계구 j 가구 내의 k 번째 가구원의 관찰값으로 나타내며 관심모수가 모비율인 경우에는 y_{hijk} 는 “1” 또는 “0”을 나타내는 2항 확률변수이다.

- 시도별 또는 영역(성별, 연령대)별 모평균(모비율) 추정량

$$\hat{\mu}_g = \frac{\sum_{h=1} \sum_{i=1} \sum_{j=1} \sum_{k=1} W_{hjik}^f y_{hijk} I[hijk \in g]}{\sum_{h=1} \sum_{i=1} \sum_{j=1} \sum_{k=1} W_{hjik}^f I[hijk \in g]} \text{-----}(5)$$

여기서 g 는 시도 또는 영역(성별, 연령대 등)을 나타내고 $I[hijk \in g]$ 는 지수함수로 첨자 $hijk$ 가 영역 g 에 속하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 분산 추정

식(4)와 식(5)로 주어진 추정량은 비선형추정량이므로 분산 추정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므로 테일러급수전계를 이용한 근사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집계구를 하나의 집락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층화집락추출법에서 비선형추정량에 대한 분산은 아래 식으로 추정을 나타낼 수 있다.

$$\widehat{V}(\hat{\mu}_g) = \frac{\sum_{h=1} \frac{n_h(1-f_h)}{n_h-1} \sum_{i=1} [W_{hig}(\overline{y_{hig}} - \overline{y_g}) - \frac{1}{n_h} \sum_{s=1} W_{hsg}(\overline{y_{hsg}} - \overline{y_g})]^2}{(\sum_{h=1} \sum_{i=1} W_{hig})^2} \text{---}(6)$$

추정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인 표준오차는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se(\hat{\mu}_g) = \sqrt{\widehat{V}(\hat{\mu}_g)} \text{-----}(7)$$

표준오차는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추정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인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아래 식으로 계산하였다.

$$RSE(\hat{\mu}_g) = \frac{se(\hat{\mu}_g)}{\hat{\mu}_g} \cdot 100 (\%) \text{ -----(8)}$$

〈표 3-6〉 시도별 성별연령대별 만 18세 미만의 인구 분포

구분	남자				여자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18세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18세
전국	1,348,656	1,674,233	782,453	977,415	1,281,600	1,572,116	720,714	894,628
서울	227,562	273,728	130,821	165,411	216,578	258,894	122,674	153,784
부산	80,647	94,742	45,654	59,367	76,374	89,296	42,076	53,306
대구	60,806	78,205	39,681	50,514	58,157	72,517	35,224	44,586
인천	79,544	96,840	44,162	54,733	75,713	91,959	41,409	50,797
광주	40,388	54,420	26,859	33,570	38,049	50,745	24,627	31,116
대전	41,589	52,323	25,135	31,101	39,243	49,100	23,118	28,467
울산	34,926	41,119	18,689	24,251	33,104	37,546	16,620	21,350
세종	11,188	12,928	4,418	4,169	10,647	12,647	4,471	3,956
경기	367,615	460,296	207,185	251,380	349,792	435,299	193,014	233,722
강원	34,434	47,071	23,340	29,841	32,912	43,970	21,355	26,805
충북	41,518	52,032	24,537	30,982	39,761	48,598	22,151	28,214
충남	58,436	72,352	32,016	39,296	55,935	67,498	29,610	35,893
전북	45,045	60,471	29,585	37,358	42,354	56,693	27,381	34,623
전남	45,738	57,709	28,248	36,830	43,995	54,266	25,918	33,462
경북	67,165	79,759	37,749	48,950	62,954	73,235	33,727	42,752
경남	93,144	115,598	53,084	66,467	88,110	107,135	47,391	59,562
제주	18,911	24,640	11,290	13,195	17,922	22,718	9,948	12,233

〈표 3-7〉 시도별 성별 만 59세 이하 성인인구

구분	총인구			만 59세 이하 성인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전국	51,732,586	25,840,361	25,892,225	32,746,273	16,776,021	15,970,252
서울	9,919,016	4,865,778	5,053,238	6,517,858	3,239,031	3,278,827
부산	3,489,212	1,719,792	1,769,420	2,169,618	1,094,212	1,075,406
대구	2,482,476	1,232,194	1,250,282	1,577,467	801,954	775,513
인천	2,946,270	1,478,780	1,467,490	1,941,566	993,539	948,027
광주	1,466,741	726,559	740,182	936,548	472,045	464,503
대전	1,509,587	754,432	755,155	976,236	495,890	480,346
울산	1,167,960	601,244	566,716	774,356	405,769	368,587
세종	2,591,57	129,481	129,676	160,419	81,737	78,682
경기	12,775,175	6,425,769	6,349,406	8,335,213	4,270,917	4,064,296
강원	1,547,453	779,367	768,086	920,931	483,520	437,411
충북	1,592,573	804,119	788,454	973,698	509,903	463,795
충남	2,105,959	1,070,198	1,035,761	1,254,378	666,815	587,563
전북	1,858,927	924,625	934,302	1,083,671	563,688	519,983
전남	1,899,088	949,931	949,157	1,069,382	570,370	499,012
경북	2,692,859	1,353,724	1,339,135	1,580,434	834,206	746,228
경남	3,372,586	1,698,498	1,674,088	2,077,016	1,085,761	991,255
제주	647,547	325,870	321,677	397,482	206,664	190,818

〈표 3-8〉 18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18세 이상 가구원의 성별연령대 분포

구분	남자					여자					합계
	18~29	30~39	40~49	50~59	60 이상	18~29	30~39	40~49	50~59	60 이상	
전국	77,054	1,424,014	2,329,415	515,040	15,409	214,826	2,014,584	2,223,411	208,560	2,572	9,024,885
서울	8,361	237,656	424,202	101,871	3,095	25,436	336,900	419,583	44,269	514	1,601,887
부산	3,816	83,653	140,687	33,737	1,077	11,283	118,889	139,844	13,649	171	546,806
대구	3,004	65,107	119,703	25,303	635	8,709	95,193	118,057	9,993	116	445,820
인천	5,275	89,841	134,313	29,677	752	13,712	122,853	129,055	12,035	133	537,646
광주	2,279	42,072	74,014	16,447	490	6,731	63,505	72,433	6,805	81	284,857
대전	2,513	45,669	75,318	16,019	459	7,167	65,212	72,494	6,700	81	291,632
울산	2,323	41,291	60,525	12,507	299	6,145	54,946	56,265	4,681	59	239,041
경기	370	8,938	11,085	1,543	48	1,163	12,477	9,310	576	7	45,517
강원	20,202	398,038	643,291	133,918	3,463	54,960	555,719	604,598	52,545	577	2,467,311
충북	3,140	34,054	60,659	15,255	621	7,063	52,517	58,950	6,643	101	239,003
충남	3,470	44,744	66,743	14,379	450	8,880	62,454	62,256	5,775	99	269,250
세종	4,765	63,340	85,199	18,328	664	13,076	86,254	76,811	7,336	106	355,879
전북	3,090	42,976	73,892	17,311	680	8,948	64,573	70,199	6,942	103	288,714
전남	2,866	39,801	67,567	17,290	686	8,865	60,142	62,235	6,592	107	266,151
경북	4,739	68,181	106,872	22,754	760	13,421	97,076	98,369	8,667	124	420,963
경남	5,792	102,698	157,531	31,236	912	16,460	143,295	144,466	11,656	148	614,194
제주	1,049	15,955	27,814	7,465	318	2,807	22,579	28,486	3,696	45	110,214

〈표 3-9〉 시도별 성별연령대별 인구와 2개 집계구당 할당 인원

구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합계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이상	30대 이하	40대 이상	
전국	1,501,068	2,844,455	2,229,410	2,431,971	5	10	7	8	30
서울	246,017	526,073	362,336	463,852	5	10	7	8	30
부산	87,469	174,424	130,172	153,493	5	10	7	8	30
대구	68,111	145,006	103,902	128,050	5	10	7	8	30
인천	95,116	163,990	136,565	141,090	5	9	8	8	30
광주	44,351	90,461	70,236	79,238	5	10	7	8	30
대전	48,182	91,337	72,379	79,194	5	10	7	8	30
울산	43,614	73,032	61,091	60,946	5	9	8	8	30
경기	9,308	12,628	13,640	9,886	6	8	9	7	30
강원	418,240	777,209	610,679	657,143	5	10	7	8	30
충북	37,194	75,914	59,580	65,593	5	10	7	8	30
충남	48,214	81,122	71,334	68,031	5	9	8	8	30
세종	68,105	103,527	99,330	84,147	6	9	8	7	30
전북	46,066	91,203	73,521	77,141	5	9	8	8	30
전남	42,667	84,857	69,007	68,827	5	9	8	8	30
경북	72,920	129,626	110,497	107,036	5	9	8	8	30
경남	108,490	188,767	159,755	156,122	5	9	8	8	30
제주	17,004	35,279	25,386	32,182	5	9	7	9	30

제 4 장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 및 중복성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응답자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

제5절 과거 학대 및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제6절 과거 학대피해경험과 현재 학대가해경험의 관계성

제7절 논의 및 결론

4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 및 중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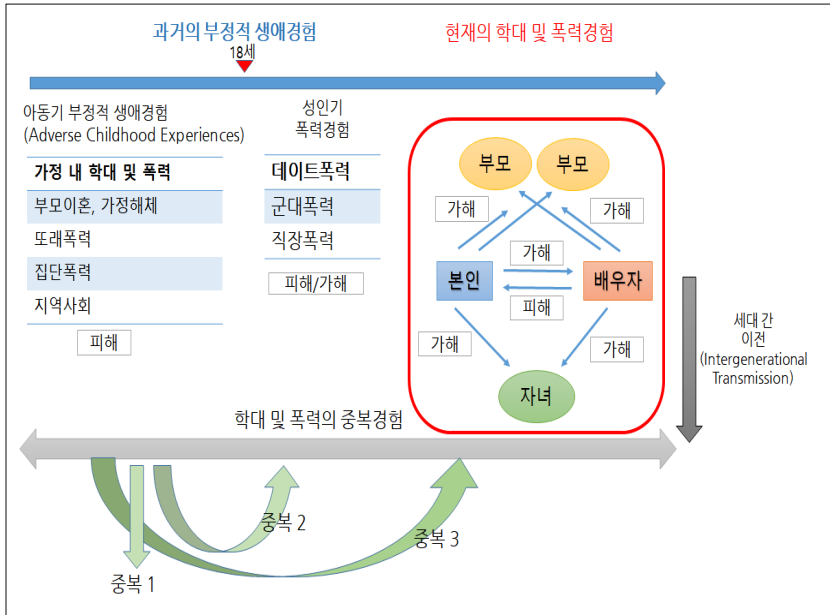
제1절 문제의 제기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성의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상 폭력의 경험을 크게 세 개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8세 이전의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가정 내 폭력의 피해 및 목격경험과 부모 이혼 및 가정해체경험, 또래폭력 피해, 집단폭력 및 지역사회폭력 피해와 목격경험 등을 포함하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첫 번째 시점이다. 두 번째는 과거 성인기에 경험한 데이트폭력, 군대폭력 및 직장폭력 등의 피해 및 가해경험이며,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의 배우자폭력 피해 및 가해, 자녀학대 가해 그리고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을 파악하였다.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은 세 가지 차원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수준이 얼마나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둘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³⁾이 얼마나 중복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및 현재의 폭력경험이 얼마나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으로 분석하였다.

3) 군대폭력은 군대에 의무복무한 남성만을 포함하여 질문하였으며, 직장폭력은 직장생활 유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함.

[그림 4-1] 폭력의 중복성의 개념도



따라서, 본 장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정도와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의 발생수준과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경험의 중복성의 정도와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현재의 가정폭력의 가해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 발생률의 비교

최초의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Kaiser Permanente 및 CDC가 주관하여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만 7,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Kaiser Permanente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전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여자의 50%는 여성, 74.8%는 백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7세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신체적 학대, 성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방임, 모의 폭력적 대우, 가정 내 약물중독, 가정 내 정신병력, 부모 별거 혹은 이혼, 가족 중 수감자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는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률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응답자 전체의 3분의 2가 적어도 하나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했으며, 전체의 28%가 신체적 학대를, 21%가 성학대를 경험하였다. 또한 다수가 부모의 이혼 및 별거 혹은 정신장애 및 약물중독이 있는 부 혹은 모와 함께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Dong et al, 2004). 이러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여러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0%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정적 경험이 있었으며, 12.5%는 그 이상의 학대 유형을 중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및 생애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또 하나의 주요한 조사인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결과는 아동기의 다유형 중복학대 피해경험(poly-victim-

ization)과 관련된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Finkelhor, Ormrod와 Turner(2007)는 70%의 아동이 최근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학대 피해경험을 하였으며, 청소년의 18%는 4회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형태의 학대피해경험을 했다. 다유형 중복학대 피해자는 더 많은 유형의 폭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기, 상해, 성폭력 등의 보다 심각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Shattuck, Finkelhor & Hamby, 2015).

ACE(Adverse Child Experiences) Study-International Questionnaire는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해 국제적 도구로 개발되어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적용되어 실시되어 왔으며 그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Kim, 2017)는 93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아동기 동안 적어도 한 번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하였으며, 참여 대학생의 8%가 4~8개의 항목에서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하였다. Tran 등 (2015)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동기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건강 및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베트남의 8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99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 76%의 학생들이 아동기 동안 적어도 한 번 부정적 삶의 경험을 하였으며 21%가 4개 또는 그 이상의 부정적 삶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정서적 학대(42.3%)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 삶의 경험이었으며, 신체적 학대(39.9%), 가정폭력의 목격(34.6%)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의 Völkl-Kernstock 등(2016)은 아동정신건강과에서 외래상담을 1년 이상 받았던 6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아동기 폭력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많은 수의 아동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두 개의 폭력의

경험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Hughes 등(2016)의 연구는 3,88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최근의 정신적 웰빙과 삶의 만족도 및 9개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노출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46.4%가 적어도 한 번 부정적 삶의 경험을 하였으며, 8.3%가 4번 또는 그 이상의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ellis 등(2015)의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8개의 동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아동기 부정적인 삶의 경험과 건강 간의 상호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18~25세에 이르는 1만 69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반 이상의 청년들이 적어도 한 가지의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했으며, 하나의 부정적 삶의 경험은 다른 부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의 연령, 샘플집단 선정의 전국적 대표성, 포괄하는 학대 및 폭력 유형 등에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학대 및 폭력의 범위는 주로 아동학대와 청소년폭력, 아동학대와 배우자폭력, 배우자폭력과 노인학대를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전국적 규모에서 아동기 전 연령을 포괄하는 학대피해 또는 가해경험과 기타 폭력의 중복피해율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한국에서 중복학대는 주로 아동학대의 범주 내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중복학대와 재학대 발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복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p. 265)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중복학대비율은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조치판정되었던 학대피해 사례 중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 학대 또는 방임의 유형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비율을 의미하며, 2016년 기준 전체 학대 사례 중 중복학대비율은

48.0%(8,980건)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복학대가 시간적 동시발생성(co-occurrence)에 초점을 두는 개념인 반면 재학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반복적 발생(repeated occurrence)에 주목한다. 재학대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 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p. 264)”로 정의되며, 2016년 재학대비율은 8.5%(1,591건)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학대 및 폭력피해의 중복경험은 주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직접피해경험과 가정폭력의 목격 등 간접피해경험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서울 및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재엽 등(2010)의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부모의 학대행위에 의한 학대피해경험과 배우자폭력 목격경험의 중복피해율이 8.8%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이인선, 최지현(2014)은 아동학대 피해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중복피해 경험률을 4.5%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경험의 연관성에 대한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6~55%)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Chan, 2015).

2. 성인기 중복폭력 피해경험의 발생률

가. 데이트폭력

대검찰청이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데이트 상대에 의해 학대 및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7만 3864명에 이르며 이들 중 1,000여 명은 사망하였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4,000여 명, 폭력범죄

피해자는 7만 3,864명을 차지했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p. 3). 데이트폭력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며, 주로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반복적, 지속적으로 학대당한다는 점에서 배우자폭력과 유사하다. 미국의 CDC와 WHO 등 외국에서는 친밀한 사이(intimate relationship)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범주 내에서 배우자폭력과 데이트폭력을 다루고 있다. WHO는 “IPV란 여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신체적, 성적, 그리고 정서적 폭력과 통제 행위를 포함한다.(WHO, 2012; 류정희 등, 2016, p. 117에서 재인용)”라고 정의함으로써, 주요 피해자로서 여성을 특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CDC의 경우, “IPV란 현재 혹은 지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신체적, 성적, 스토킹, 그리고 정서적 폭력(협박의 행위 포함)”(CDC, 2015; 류정희 등, 2016, p. 117에서 재인용)으로 정의,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스토킹을 주요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되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배우자폭력은 가정의 범위 안에서 가정폭력의 세부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은 더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별범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클레어법’이 제정, 데이트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의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대상, 조사 도구, 조사 방식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의표집방식의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데이트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경험이 어떻게 다른 형태의 폭력 및 학대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미혼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이혜원(2016)의 연구는 18세 이상의 데이트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6.7%로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 피해 양상은 심리적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위협적인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강제적인 성관계를 경험한 경우 등 폭력의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에 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예지, 서미경(2014)은 20~30대 미혼남녀 858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폭력(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에 따른 가해 및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심리적 폭력은 대상자의 88% 이상이 피해,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체적 폭력 가해는 전체 응답자의 53.6%, 피해는 49.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1%가 성적 폭력의 가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30.7%가 피해를 경험하였다. 한편, 홍영오(2017)는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크게 통제행동, 심리적·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추행, 성폭력, 상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통제행동이 7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추행 (37.9%)과 심리적·정서적 폭력(36.6%), 신체적 폭력(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크게 주요한 위험요인은 아동기 부모폭력의 목격에 따른 간접적인 폭력경험, 아동기 직접적인 학대피해경험, 학교폭력경험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아동기 부모의 배우자폭력 목격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폭력 및 학대의 중복적 경험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는 아동기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경험이 있는 아동이 성인기에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 주고 있다(Lichte & McCloskey, 2004; 홍영오,

2017).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배우자폭력 목격경험은 자녀로 하여금 왜곡된 남성상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데이트 상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폭력피해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게 된다(Lichte & McCloskey, 2004).

둘째,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데이트폭력과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의 강한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손일영, 2017; 신소라, 2017; 이화숙, 2016; 조춘범, 이현, 2013; 이윤연, 장현아, 2017; 홍영오, 2017; Whitefield et al., 2003). Whitefield 등(2003)은 아동기 폭력의 경험이 파트너폭력(데이트폭력, 배우자폭력 혹은 가정폭력)의 경험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3가지 이상의 아동기 폭력경험은 파트너폭력 가해 혹은 피해 위험을 2배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가해의 예측변인을 분석한 신소라(2017)의 연구는 아동기 방임 및 성적 학대의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가해요인을 분석한 홍영오(2017)의 연구는 심리·정서적 데이트폭력과 신체적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이 성장기 부모폭력의 목격 및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손일영(2017)은 아동기 학대피해경험 중 정서적 학대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데이트폭력 피해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기 학교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이미호(2016)는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데이트성폭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교폭력 가해경

험이 있을수록 데이트성폭력 가해의 확률은 4.2배 높아졌으며, 학교폭력 가해경험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화숙(2016)의 연구도 1,05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결성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 및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직장폭력

직장폭력(workplace victimization)이란 “직업과 관련된 상황 또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공격, 욕설, 위협” 등을 의미(문준혁, 2016, p. 207)하며 사업주 및 직장상사, 동료뿐만 아니라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폭행 등 물리적 폭력과 괴롭힘, 성희롱 등의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직장폭력은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 따돌림(bullying), 또는 부정적 행동경험(negative act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적·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부정적 행동경험 설문지 개정판(The Negative Acts Questionnaire-Revised, NAQ-R)을 활용하여 2010년 ‘제5차 유럽 근로조건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를 통해 EU 27개 회원국과 터키 등의 총 4만 3816명 노동자에 대한 직장폭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언어적 폭력,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및 모욕적 행동, 신체적 폭력, 괴롭힘, 성희롱으로 구성되는 ‘부정적 사회 행동’ 조사 결과, 평균 14%의 노동자가 부정적 사회적 행동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22%)와 핀란드(21%)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의 부정적 사회적 행동이 발견되었으며, 종사 영역별로는 보건 분야(약 23%), 운송(약 20%), 교육(약 18%)의 순으로 직장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에서도 직장폭력 피해는 파워하라(パワハラ·직장상사의 횡포), 세쿠하라(セクハラ·성희롱 혹은 성차별), 마타하라(マタハラ·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크게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6. 1. 25.). 일본의 직장폭력 발생률은 21.9%(2010년 전 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JICHIRO 조사)에서 25.3%(2012년 후생노동성)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22.0%)과 비교하여 파견비정규직이 3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향식 괴롭힘이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정신적인 공격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과도한 요구(28.7%), 인간관계 고립(24.7%), 생활 침해(19.7%)가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직장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직장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직장폭력 실태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4년 주기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근로환경조사와 함께 업종별(제조업, 보건 의료 등), 행위별(폭행, 성희롱 등) 발생 빈도를 보고해 왔다. 이 조사에서 근로자의 폭력경험은 지난 1개월 간 언어폭력,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과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왕따/괴롭힘 또는 성희롱 경험을 포괄하고 있다. 2014년 근로자의 폭력 경험률은 7.5%로 2010년 4.2% 대비 커다란 상승폭을 보여 주고 있다. 직장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굴욕적 행동(1.9%),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0.9%)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환경조사는 실제로 발생하는 직장폭력 피해경험의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다(문준혁, 2016).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 높은 직장폭력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서유정, 2017).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98%를 차지하는 15개 산업분야의 근로자, 3000명 중 16.5%의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경험을 보고하였고, 29.0%가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의 직장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근무환경 실태조사는 객관적 괴롭힘(operational approach)과 주관적 괴롭힘(self-report)의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객관적 괴롭힘의 행위유형은 업무상 차별, 전보-퇴직 강요, 성희롱·언어 폭력, 따돌림 등 25개 항목을 포함하며, 25개 행위유형 중 1가지 이상을 6개월간 주 1회 반복해 겪었을 때 객관적 괴롭힘(16.5%)으로 분류한다. 반면, 주관적 피해율은 노동자 스스로가 지난 6개월간 월 1회 이상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로 주관적 직장폭력 피해자는 4.3%로 나타났다. 직장폭력 경험률은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규직의 21.3%가 객관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28.1%)에 비해 낮았다. 또한 산업별 분포에 있어서 숙박, 음식점 노동자의 27.5%가 직장 내 괴로움을 경험했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다양한 직장폭력에 대한 조사들이 수행되었으나, 특정한 의료, 요양사, 사회서비스 등 특정한 직업군 내의 직장폭력을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표집 방법은 임의표집이나 유의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장혜영, 2016; 김지환, 김자영, 김승섭, 2015; 조이현, 2017; 서은주, 2012; 김숙영, 윤순녕, 2012).

다. 군대폭력

분단 상황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군대는 폭력에 가장 허용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집단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전투적 사고, 폐쇄주의로 나타나는 군대라는 조직문화의 특성(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2016, p. 2)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 군 내부의 폭력이 묵인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군대 내 폭력허용도는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한 2014년도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데, 군대 내 폭력 등 인권침해행위가 조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간부는 22%, 병사는 30%, 예비군은 40%에 달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군대폭력의 유형은 군대복무기본법,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등에 근거하여 유형화되며,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으로 구분된다. 무력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집단인 군대 내에서 폭력은 폭력사건의 발생이 불특정다수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폭력의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국방부 국회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전반기까지 군대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군인이 총 3,865명에 이르며, 2012년 20%(759건), 2014년 27%(1,038건), 2015년 26%(988건)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조동택, 이상훈, 2016, p. 110에서 재인용). 군대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 중 언어폭력(36.6%)이 가장 심각했으며, 사생활 침해(20.9%), 차별(20.1%), 구타 및 가혹행위(16.7%), 성폭력(6.6%)의 순으로 나타났다(조

동택, 이상훈, 2016, p. 111).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대 내 성폭력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접적인 성폭력경험률은 6.3%에서 19%로 나타났고, 성폭력피해 목격경험은 27.3%에서 41.3%로 나타나 군대 내 여군들의 직간접적 성폭력경험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안상수 등, 2012; 이종호 등, 2014).

군대폭력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최근의 연구는 군대폭력경험과 아동기 학대경험, 가정폭력 노출경험, 학교폭력경험과의 상호연관성을 검증했다(김상균, 2014; 장건호, 2007; 조동택과 이상훈, 2016). 장건호(2017)의 연구는 2016년 육군의 교육부대, 전투(예비)사단, 전투지원부대 및 공군과 해군부대를 대상으로 유의표집방식으로 실시된 “2016년 군 장병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군대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총 1000명의 조사 대상 병사 중 입대 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병사는 전체의 51.0%(아동학대 피해경험 및 부모 간 폭력의 목격을 모두 경험한 병사가 24.7%, 아동학대만 경험한 병사는 18.0%, 부모 간 폭력 목격을 경험한 병사는 8.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군대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장건호, 2017, p. 32). 김상균(2014)은 일반사병과 수감사병으로 나누어 군 사고의 예측요인을 아동기 학대경험, 입대 전 학교폭력의 경험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군 사고 경험은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경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 주었으며,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또한, 조동택, 이상훈(2016)은 학교폭력과 군대폭력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학교폭력의 가해경험과 군대폭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을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경험과 과거 성인기 학대 및 폭력경험으로 구분하여 그 경험의 중복성의 유무와 정도를 분석하고, 그것이 현재(지난 1년간)의 학대 및 폭력의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첫째, 분석에서 활용되는 아동기 및 과거 성인기를 포함한 과거의 학대 및 폭력을 비롯한 부정적 생애경험은 피해경험으로 한정하고, 현재의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가해의 경험으로 한정한다. 이는 앞서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처럼 다양한 과거 및 폭력의 제 유형별로 피해 및 가해의 교차점은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가지며 이러한 역동적인 가능성을 모두 분석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분석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을 개별적 학대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총합(aggregation of maltreatment type)의 경험으로서 조작화하였다. 즉,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을 비롯한 부정적 경험은 ACE 점수로 그 경험 유무 및 경험의 강도를 조작화하였고,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 유무, 직장폭력 피해 유무, 군대폭력 피해 유무로 구분하여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유무 및 총합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폭력가해의 경험 또한 자녀학대 유무, 배우자폭력 가해 유무, 노부모학대 유무로 구분한 후 현재 폭력의 가해경험의 총합에 따라 학대 및 폭력의 가해경험 유무를 구분하였다.

1. 분석자료 및 활용변수

분석자료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단위는 응답자 개인이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독립변수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을 포함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의 목격, 가족 구성원의 부정적 생애경험,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의 목격경험 등 포괄적인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13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경험 유무의 총합을 점수화한 연속변수(0~13점)로 활용하였다.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은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으로 경험 여부 중 한 번이라도 경험했을 경우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이 있음(1)으로 조작화한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현재의 가정학대 가해경험 유무에 대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즉, 과거 1년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학대, 배우자폭력, 노부모학대 중 어떤 유형이라도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의 학대가해경험으로 분류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별, 아동 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우울, 자존감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양하게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조사에 따른 응답자 반응왜곡(response distortion)의 문제점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추가하였다.

〈표 4-1〉 분석변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아동기 부 정 적 생애경험 (ACE)	신체적 학대	항목별 ACE문항은 1. 예, 0. 아니요로 측정하여 합산함(연속변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가족구성원) 알코올/약물중독	
		(가족구성원) 수감경험	
		(가족구성원) 우울, 자살	
		가정폭력 목격	
		(부모) 별거/이혼	
		정서적 방임	
		물리적 방임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 목격	
		집단폭력 경험/목격	
	성인기 폭력경험	군대폭력 피해	1. 예, 0. 아니요
		데이트폭력 피해	
		직장폭력 피해	
종속 변수	현재의 폭력가해 경험	아동학대(자녀) 가해	1. 예, 0. 아니요
		배우자폭력 가해	
		노부모폭력 가해	
통제 변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상태	교육수준	1.고등 이하, 2. 2년제 대학, 3. 4년제 대학 이상
		총가구소득(지난 3개월 평균소득)	평균 소득액
		주거취약층 여부	1. 예, 0. 아니요
		경제활동상태	1.상용근로자 2.임시,일용근로자 3.자영업/무급가족 4.무직/기타
	인구가족학적 특성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별	1.43세 미만 2.43세 이상
		아동 수	평균 아동 수
		가구유형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가족관계특성	세부항목별 “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총합(연속변수)
	심리사회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0. 전혀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 합계점수(연속변수)
		사회적 지지	세부항목별 “없음은 0점~5는 5점”의 총합(연속변수)
		삶의 만족도	1. 매우 불만족~4. 매우 만족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1. 매우 나쁘다~나쁘다 2. 좋다 3. 매우 좋다
	우울	0. 극히 드물다~3. 대부분 그랬다의 합산점(연속변수)
	자존감	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합산점(연속변수)
	고위험음주율	1. 고위험음주, 0. 고위험음주 아님
	사회적 바람직성	세부항목별 “1. 예, 0. 아니요”의 총합(연속변수)

주: 1) ACE 질문문항(혹은 카테고리)별 합산 산식은 국제비교를 위하여 International ACE Study 가이드라인을 따랐음.

2) 연령구분을 43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 여부를 적용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또는 확장해서 1974년까지의(2017년 기준 43세)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 및 사회적 자원의 취약함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적 삶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학대 및 폭력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

3) 주거취약층은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평균 30%를 기준으로 이상은 주거취약층으로 분류하였음.

4) 고위험음주율은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평균 7잔 이상 마실 경우 고위험음주로 분류함.

2. 분석 방법

먼저, 독립변수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종속변수인 현재(과거 1년간)의 가정폭력 가해경험(자녀학대, 배우자폭력, 노부모학대)에 대한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및 현재의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교차분석(cross tab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과거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과 현재의 가정폭력 학대경험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만을 투입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가정폭력 학대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와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만을 투입하여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모두 투입하여 과거의 학대 및 폭력피해를 비롯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학대 및 폭력가해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기술분석 및 회귀분석에는 표준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제4절 응답자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총분석대상 4,008건의 응답자 특성은 <표 4-2>와 같다.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51.8%를 차지하여 남성(48.2%)보다 다소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3세 미만이 57.8%로 43세 이상(42.2%)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가 47.7%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는 39.2%, 농어촌은 13.1%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특성은 4년제 미만 대학 재학, 중퇴 및 졸업의 학력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3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31.7%로 나타나, 대학 중퇴 및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67.1%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는 상용근로자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및 기타가 25.7%,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18.9%,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준전문 사무직이 35.5%, 기능조립직이 11.1%, 전문 관리직이 10.2%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7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는 21.8%, 월세 및 보증부월세가 4.4% 등이었다.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934	48.2
	여성	2,074	51.8
연령	43세 미만	2,315	57.8
	43세 이상	1,693	42.2
지역	대도시	1,911	47.7
	중소도시	1,571	39.2
	농어촌	526	13.1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318	32.9
	대학(4년제 미만) 재학/졸업	1,419	35.4
	대학(4년제 이상) 졸업 이상	1,271	31.7
경제활동상태	상용근로자	2,004	50.0
	임시, 일용근로자	218	5.5
	자영업/무급가족	757	18.9
	주부, 기타	1,029	25.7
직업 (N=2,977)	전문 관리직	304	10.2
	준전문 사무직	1,058	35.5
	판매서비스직	1,231	41.3
	기능조립직	331	11.1
	단순노무직, 농업 관련	41	1.4
	군인, 기타	13	0.4
주거점유형태	자가	2,935	73.2
	전세	872	21.8
	보증부월세 및 월세	176	4.4
	기타	25	0.6

이번에는 응답자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 내 가구원 수는 4명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38.1%로 그 다음이었다. 5명 이상인 경우는 10.4%로 나타났으며, 가구 내 평균 가구원 수는 3.7명 수준이었다. 가구 유형은 대부분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96.6%)로 나타났으며, 3세대 가구는 3.4%였다. 자녀의 수는 1명이 5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명이 41.0%로 그 다음 순이었다. 자녀의 수가 2명 이하인 비율은 94.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구 내 평균 자녀 수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응답가구 내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자녀가 만 5세 이상인 경우가 65.4%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는 24.5%이었고, 자녀의 연령이 영유아부터 그 이상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가 10.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2.8%이었으며, 300만~400만 원 미만이 30.4%, 500만 원 이상이 25.4%, 300만 원 미만이 11.4% 등의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전체 평균은 415만 8,000원이었다.

〈표 4-3〉 응답자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가구, 명, 만원, %)

구분	변수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가구원 수	2명	22	0.6
	3명	1,527	38.1
	4명	2,044	51.0
	5명 이상	415	10.4
	평균 가구원 수	3.7	0.673
가구유형	2세대	3,871	96.6
	3세대	137	3.4
자녀 수	1명	2,139	53.4
	2명	1,644	41.0
	3명	214	5.3
	4명 이상	11	0.3
	평균 아동자녀 수	1.5	0.610
아동자녀의 연령별	영유아(만5세 미만)	981	24.5
	영유아 및 그 이상 연령	405	10.1
	영유아 없음(만 5세 이상)	2,622	65.4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58	11.4
	300만~400만 원 미만	1,217	30.4
	400만~500만 원 미만	1,315	32.8
	500만 원 이상	1,018	25.4
	월평균 가구소득(평균)	415.4	127.8

응답자 가구의 기타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6.7%가 주말부부였으며, 2.4%는 응답자 혹은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인 다문화가정이었다.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2.6%이었으며, 한부모가구는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및 의료 등의 급여 중 한 가지라도 수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 가구의 기타 특성

(단위: 건, %)

구분	빈도	비율
주말부부	264	6.7
다문화가정	97	2.4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 포함 가구	103	2.6
한부모가구	53	1.3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107	2.7

제5절 과거 학대 및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한 번이라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78.9%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21.1%이었다.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1~5점인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자 비율은 각 10~15%대에 이르고 있으며, 6점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점수별 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

험이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7점 이상의 높은 부정적 경험이 있는 비율도 11.0%로 여성(5.3%)의 2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5〉 성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단위: 건,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남성	여성	전체
0점	19.1	22.9	21.1
1점	15.5	14.9	15.2
2점	8.3	13.3	10.9
3점	11.6	11.5	11.6
4점	12.6	13.5	13.1
5점	13.0	11.9	12.5
6점	8.9	6.7	7.7
7점 이상	11.0	5.3	8.0
전체	100.0(1,934)	100.0(2,074)	100.0(4,008)

주: $X^2=79.664^{***}$, $***p<.001$

세부항목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학교폭력, 정치적 폭력, 강도 및 조직폭력 등 집단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비율이 전체의 52.7%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사회폭력 목격경험 비율은 49.7%, 가족 구성원들 간의 폭력 목격경험 비율이 49.1%, 정서적 학대 경험 비율이 47.8% 등으로 높은 편이었다. 아동기 신체적 학대 피해 경험률은 전체의 26.1%였으며,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이 27.5%, 정서방임이 17.4%, 부모 별거 혹은 사망 등을 경험한 비율이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이러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아동기 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가족구성원 간 폭력 목격 경험, 정서방임,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 집단폭력 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6〉 성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단위: %)

세부경험	남성 유경험	여성 유경험	유경험 전체	χ^2
신체적 학대	30.9	21.5	26.1	46.200***
정서학대	50.1	45.6	47.8	7.998**
성학대	3.5	3.2	3.4	0.251
가족 중 약물	4.9	5.3	5.1	0.407
가족 중 수감	0.2	0.2	0.2	0.01
가족 중 만성우울	1.0	1.8	1.4	4.667*
가족 중 폭력피해	51.3	47.1	49.1	6.929**
부모별거, 사망	6.7	8.6	7.7	5.133*
정서방임	19.2	15.7	17.4	8.606**
물리적 방임	5.6	4.8	5.2	1.513
또래폭력	31.8	23.4	27.5	35.159***
지역사회폭력	53.9	45.8	49.7	26.402***
집단폭력	58.5	47.3	52.7	51.082***

* $p<.05$, ** $p<.01$, *** $p<.001$

연령별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43세 이상에서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은 83.0%로 43세 미만(76.0%)에서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7점 이상 복합적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이 43세 이상에서 10.8%로 43세 미만(6.0%)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 연령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단위: 건,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43세 미만	43세 이상	전체
0점	24.0	17.0	21.1
1점	15.8	14.4	15.2
2점	11.3	10.3	10.9
3점	11.5	11.6	11.6
4점	12.6	13.7	13.1
5점	12.4	12.6	12.5
6점	6.4	9.6	7.7
7점 이상	6.0	10.8	8.0
전체	100.0(2,314)	100.0(1,692)	100.0(4,006)

주: $X^2=66,963^{***}$, $***p<.001$

세부항목에 따른 분포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43세 이상의 연령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전반적으로 43세 이하의 연령보다 높았는데, 특히 집단폭력의 피해 및 목격경험($\Delta 10.4\%$ pt), 정서방임 피해($\Delta 9.3\%$ pt), 정서학대 피해($\Delta 8.3\%$ pt), 신체적 학대 피해($\Delta 7.7\%$ pt), 가족 구성원 간 폭력의 목격경험($\Delta 5.9\%$ pt), 지역사회폭력 목격($\Delta 5.4\%$ pt) 등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8〉 연령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단위: %)

세부경험	43세 미만 유경험	43세 이상 유경험	유경험 전체	χ^2
신체적 학대	22.8	30.5	26.1	30.312***
정서학대	44.3	52.6	47.8	26.824***
성학대	2.6	4.4	3.4	10.152**
가족 중 약물	4.3	6.2	5.1	7.464**
가족 중 수감	0.2	0.1	0.2	0.537
가족 중 만성우울	0.9	2.0	1.4	8.751**
가족 중 폭력피해	46.6	52.5	49.1	13.626***
부모별거, 사망	6.4	9.4	7.7	12.431***
정서방임	13.4	22.7	17.4	59.022***
물리적 방임	4.7	5.9	5.2	3.063
또래폭력	26.0	29.5	27.5	5.869*
지역사회폭력	47.4	52.8	49.7	11.398**
집단폭력	48.3	58.7	52.7	41.75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차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3.0%로 중소도시의 72.6%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점수가 6점(대도시 9.4%, 중소도시 5.7%, 농어촌 8.0%)인 경우 그리고 7점 이상(대도시 9.7%, 중소도시 5.9%, 농어촌 8.0%)에서도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9〉 지역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단위: 건,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0점	17.0	27.4	17.1	21.1
1점	12.5	17.3	18.6	15.2
2점	10.1	11.1	13.3	10.9
3점	12.7	9.9	12.7	11.6
4점	14.1	12.5	10.8	13.1
5점	14.7	10.1	11.4	12.5
6점	9.4	5.7	8.0	7.8
7점 이상	9.7	5.9	8.0	8.0
전체	100.0(1,911)	100.0(1,570)	100.0(526)	100.0(4,007)

주: $X^2=126.597^{***}$, $***p<.001$

세부항목에 따른 분포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도시에서 신체적 학대(30.6%), 정서학대(53.5%), 가족 구성원 간 폭력피해 목격(55.5%), 물리적 방임(6.8%), 또래폭력(35.5%), 지역사회폭력 목격(58.9%) 등으로 타 지역보다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농어촌은 집단폭력(66.7%), 정서방임(24.7%) 등의 비율이 타 지역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부모 별거 및 사망 등을 경험한 비율이 9.8%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10〉 지역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단위: %)

세부경험	대도시 유경험	중소도시 유경험	농어촌 유경험	유경험 전체	χ^2
신체적 학대	30.6	20.4	26.2	26.1	46.566***
정서학대	53.5	41.6	45.4	47.8	50.314***
성학대	3.9	3.1	2.3	3.4	4.199
가족 중 약물	4.9	5.5	4.9	5.1	0.702
가족 중 수감	0.2	0.3	0.0	0.2	1.531
가족 중 만성우울	0.7	2.1	1.7	1.4	8.751**
가족 중 폭력피해	55.5	42.5	45.6	49.1	60.759***
부모별거, 사망	5.9	9.8	7.6	7.7	18.444***
정서방임	19.7	12.1	24.7	17.4	57.326***
물리적 방임	6.8	3.6	4.2	5.2	19.587***
또래폭력	35.5	21.0	17.7	27.5	119.769***
지역사회폭력	58.9	40.0	44.9	49.7	128.927***
집단폭력	54.2	46.2	66.7	52.7	69.695***

*p<.05, ** p<.01, ***p<.001

교육수준별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고졸 이하: 81.5%, 전문대: 78.1%, 4년제 대학 이상: 77.3%)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점수가 6점 혹은 7점 이상인 경우, 그 비율에서 4년제 대학 이상보다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1〉 교육수준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단위: 건,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4년제 미만) 이하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전체
0점	18.5	21.9	22.7	21.1
1점	13.6	14.6	17.5	15.2
2점	11.8	9.6	11.4	10.9
3점	12.6	10.6	11.5	11.5
4점	13.5	14.6	10.9	13.1
5점	11.7	11.9	13.8	12.4
6점	9.5	7.5	6.2	7.8
7점 이상	8.9	9.2	5.8	8.0
전체	100.0(1,319)	100.0(1,419)	100.0(1,271)	100.0(4,009)

주: $X^2=49.904^{***}$, $***p<.001$

세부항목에 따른 분포를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에서 정서학대(49.8%), 가족 중 만성우울(2.4%), 정서방임(23.1%), 집단폭력(54.9%) 등을 경험한 비율이 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신체적 학대(28.3%), 가족원 간 폭력피해의 목격(52.5%), 지역사회폭력 목격(53.3%)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의 경우 세부항목별 비율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12〉 교육수준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세부경험별

(단위: %)

세부경험	고등학교 이하 유경험	대학교(4년제 미만) 이하 유경험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유경험	유경험 전체	χ^2
신체적 학대	27.2	28.3	22.3	26.1	13.844***
정서학대	49.8	49.4	43.9	47.8	11.520**
성학대	4.2	2.7	3.2	3.4	4.377
가족 중 약물	5.9	5.1	4.2	5.1	3.753
가족 중 수감	0.3	0.2	0.0	0.2	3.589
가족 중 만성우울	2.4	1.0	0.8	1.4	15.335***
가족 중 폭력피해	50.1	52.5	44.3	49.1	18.810***
부모별거, 사망	8.6	7.3	7.0	7.6	2.916
정서방임	23.1	14.9	14.3	17.4	44.165***
물리적 방임	6.1	6.2	3.2	5.2	14.899**
또래폭력	28.6	27.9	25.7	27.5	2.877
지역사회폭력	50.0	53.3	45.4	49.7	16.904***
집단폭력	54.9	49.5	54.1	52.7	9.323**

*p<.05, ** p<.01, ***p<.001

이번에는 현재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이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89.6%)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8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상용근로자(76.4%)와 주부 및 기타(74.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가 6점 혹은 7점 이상인 경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13〉 경제활동상태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단위: 건,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 무급가족	주부, 기타	전체
0점	23.6	14.2	10.4	25.2	21.0
1점	16.3	10.6	12.5	15.9	15.2
2점	10.7	9.2	12.9	10.2	10.9
3점	11.2	12.4	14.0	10.4	11.6
4점	11.5	19.7	12.9	14.8	13.1
5점	11.0	12.4	16.5	12.2	12.4
6점	6.9	9.6	12.7	5.4	7.8
7점 이상	8.7	11.9	8.0	5.8	8.0
전체	100.0 (2,005)	100.0 (218)	100.0 (758)	100.0 (1,030)	100.0 (4,011)

주: $X^2=133.286^{***}$, $***p<.00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별 가구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88만~430만 원 사이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에 따른 가구평균소득의 변화는 가시적이지 않았다.

〈표 4-1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별 가구평균소득

(단위: 만원, 건, 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평균	N	표준편차
0점	413.4	844	126.147
1점	410.0	609	129.388
2점	429.4	437	123.335
3점	414.5	463	114.424
4점	430.3	524	128.837
5점	412.2	499	122.101
6점	388.0	311	119.939
7점 이상	420.8	322	159.092
전체	415.4	4,008	127.774

2. 아동기 이후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의 기술분석 결과

과거 성인기에 겪었던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군대폭력(가해 및 피해), 데이트폭력(가해 및 피해), 그리고 직장폭력(가해 및 피해)을 중심으로 살펴해보았다. 군대폭력은 군대복무경험이 있는 1,8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65.3%가 피해경험을, 48.4%가 가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5.6%가 피해경험을, 5.1%가 가해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폭력은 직장생활경험이 있는 3,84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중 25.7%가 피해경험이, 13.1%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

(단위: 명, %)

구분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경험
없음	34.7	51.6	94.4	94.9	74.3	86.9
있음	65.3	48.4	5.6	5.1	25.7	13.1
전체	100.0(1,812)		100.0(4,008)		100.0(3,849)	

응답자 특성별로 군대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43세 이상) 경우 군대폭력의 피해율 및 가해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의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16〉 응답자 특성별 군대폭력 경험

(단위: 명, %)

구분		군대폭력	
		피해	가해
연령	43세 미만	48.8	48.8
	43세 이상	51.2	51.2
	χ^2	20.956***	10.675**
지역	대도시	51.7	53.6
	중소도시	33.0	29.3
	농어촌	15.3	17.1
	χ^2	34.926***	56.051***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6.6	25.9
	대학(4년제 미만) 재학/졸업	35.8	38.2
	대학(4년제 이상) 졸업 이상	37.6	35.9
	χ^2	2.498	4.347

*p<.05, ** p<.01, ***p<.001

응답자 특성별로 데이트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의 피해율은 여성에서, 가해율은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가해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의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데이트폭력 피해의 경우 전문대 이하의 학력에서 4년제 이상의 학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17〉 응답자 특성별 데이트폭력 경험

(단위: 명, %)

구분		데이트폭력	
		피해	가해
성별	남성	42.0	65.0
	여성	58.0	35.0
	χ^2	3.693	24.532***
연령	43세 미만	50.2	50.0
	43세 이상	49.8	50.0
	χ^2	5.584*	5.359*
지역	대도시	63.4	68.0
	중소도시	22.5	18.0
	농어촌	14.1	14.1
	χ^2	29.846***	43.771***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8.5	38.3
	대학(4년제 미만) 재학/졸업	38.9	35.4
	대학(4년제 이상) 졸업 이상	22.6	26.2
	χ^2	9.413**	4.025

*p<.05, ** p<.01, ***p<.001

응답자 특성별로 직장폭력의 경험률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직장폭력의 피해와 가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43세 미만에서 43세 이상의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의 순으로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직장폭력 경험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18〉 응답자 특성별 직장폭력 경험

(단위: 명, %)

구분		직장폭력	
		피해	가해
성별	남성	56.1	67.1
	여성	43.9	32.9
	χ^2	23.663***	73.073***
연령	43세 미만	54.5	58.0
	43세 이상	45.5	42.0
	χ^2	6.779**	35.719***
지역	대도시	58.9	60.7
	중소도시	27.5	20.0
	농어촌	13.5	19.4
	χ^2	76.776***	90.13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33.7	36.0
	대학(4년제 미만) 재학/졸업	35.8	35.2
	대학(4년제 이상) 졸업 이상	30.5	28.7
	χ^2	1.594	4.145

*p<.05, ** p<.01, ***p<.001

제6절 과거 학대피해경험과 현재 학대가해경험의 관계성

1. 기술분석 결과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학대경험과 현재의 가해경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과거의 학대피해경험(아동기 및 과거 성인기)과 현재의 학대가해경험을 모두 포함할 때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는 18.8%에 그친 반면, 지속적으로 학대의 피해 및 가해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응답자는 41.6%에 이르렀다.

〈표 4-19〉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학대경험의 변화 여부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경험	성인기 폭력경험	빈도	퍼센트
없음	없음	753	18.8
없음	있음	131	3.3
있음	없음	1457	36.4
있음	있음	1667	41.6
합계		40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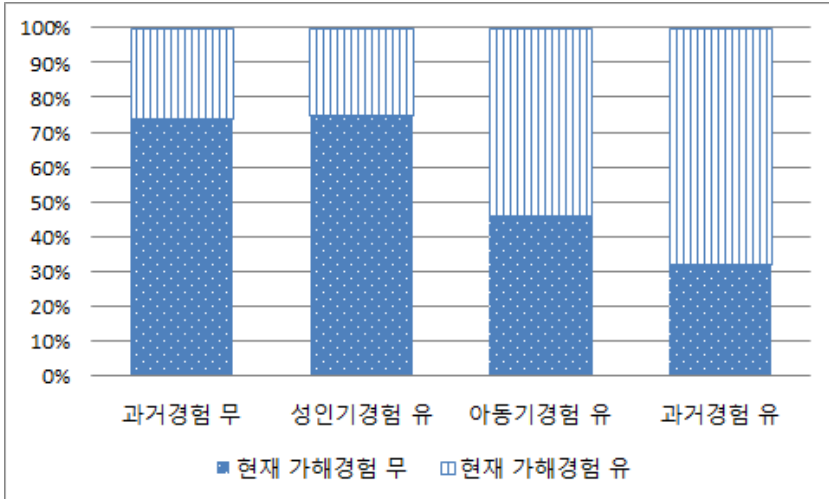
과거의 학대 및 폭력경험별로 현재의 가해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의 경향은 두드러졌다.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 중 9.1%만이 과거 폭력의 피해경험이 전혀 없으며, 52.8%가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 피해의 경험이 있거나 36.7%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가진 경우에 속했다.

〈표 4-20〉 과거 학대 및 폭력경험별 현재의 가해경험의 차이

(단위: 명, %)

	현재의 가해경험		합계
	현재 가해경험 무	현재 가해경험 유	
과거경험 무	558	195	753
행퍼센트	74.1	25.9	18.8
열퍼센트	30.1	9.1	
성인기 경험 유	98	33	131
행퍼센트	74.8	25.2	3.3
열퍼센트	5.3	1.5	
아동기 경험 유	668	789	1,457
행퍼센트	45.9	54.2	36.4
열퍼센트	36.0	36.7	
과거 경험 유	531	1,136	1,667
행퍼센트	31.9	68.2	41.6
열퍼센트	28.6	52.8	
합계	1,855	2,153	4,008
	46.3	53.7	100.0

[그림 4-2] 과거 생애과정의 학대경험그룹별 현재 가해경험의 차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의 중복성에 대한 분석 결과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등의 영역에서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경우와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군대폭력의 가해경험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피해경험에서는 다소 추세의 역전이 있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군대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7점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비율은 군대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이 없는 경우의 7~8배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2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군대폭력경험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군대폭력(N=1812)			
	피해경험		가해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0점	5.5	44.3	5.1	31.9
1점	11.9	22.2	9.1	21.6
2점	7.4	8.3	6.3	8.9
3점	11.8	11.1	10.9	12.3
4점	15.4	7.9	13.8	11.9
5점	18.1	3.8	19.8	6.9
6점	13.5	0.5	14.7	3.4
7점 이상	16.4	1.9	20.2	3.1
전체	100.0(1,182)	100.0(630)	100.0(877)	100.0(934)
χ^2	589.642***		461.493***	

***p<.001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및 가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모두가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트폭력 피해 비율도 점차 증가하였다.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증가추세에 다소 등락이 있으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높은 경우 데이트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7점 이상인 경우 가해경험 비율은 42.6%에 달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22〉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데이트폭력경험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데이트폭력(N=4008)			
	피해경험		가해경험	
	있음 (n=453)	없음 (n=198)	있음 (n=328)	없음 (n=323)
0점	0.0	22.3	0.0	22.2
1점	1.8	16.0	1.0	16.0
2점	5.3	11.2	1.9	11.4
3점	11.5	11.6	10.2	11.6
4점	12.3	13.1	8.7	13.3
5점	14.1	12.4	11.2	12.5
6점	18.9	7.1	24.3	6.8
7점 이상	36.1	6.3	42.7	6.2
전체	100.0(227)	100.0(3,781)	100.0(206)	100.0(3,802)
χ^2	361.934***		496.364***	

***p<.001

직장폭력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증가할수록 피해 비율이 증가하다가 6점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7점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해경험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가해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4-23〉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직장폭력경험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직장폭력(N=3849)			
	피해경험		가해경험	
	있음 (n=453)	없음 (n=198)	있음 (n=328)	없음 (n=323)
0점	2.2	27.3	0.8	23.9
1점	7.1	17.9	5.0	16.7
2점	7.3	11.9	4.2	11.7
3점	9.1	12.8	8.5	12.3
4점	13.8	12.7	11.1	13.2
5점	21.9	9.5	22.8	11.2
6점	18.9	3.9	21.2	5.8
7점 이상	19.7	4.0	26.5	5.2
전체	100.0(989)	100.0(2,861)	100.0(505)	100.0(3,343)
χ^2	829.162***		610.162***	

***p<.001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등의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그 경험을 ‘없음’, ‘1개 유형의 피해’, ‘2개 유형의 피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과거 성인기 학대 피해’(군 입대 혹은 직장 무경험자: 2개 유형, 군 입대 혹은 직장 유경험자: 3개 유형)로 구분하여 이를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의 점수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인기 학대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경우(또는 학대피해의 중복성이 가장 높은 경우), 전체가 한 번이라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높아질수록 피해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과거 성인기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과거 성인기 피해경험 없음>1개 유형의 피해>2개 유형의 피해>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인기 피해경험자 등의 순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무경험자의 비율이 높았다. 과거 성인기 학대피해경험

이 없는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7점 이상인 비율은 2.5%에 그쳤으나, 1개 유형의 성인기 피해경험 보유자의 비율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7.4~9.1%로 나타났으며, 2개 유형의 피해경험을 보유한 사람들의 7점 이상 비율은 24.9%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모든 성인기 학대피해 경험자의 경우 7점 이상의 비율이 38.6%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24〉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과거 성인기 학대피해경험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과거 성인기 학대피해					전체
	없음	1개 유형 피해경험		2개 유형 피해경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인기 학대피해경험자	
		군입대 유경험자	군입대 무경험자	군입대 유경험자		
0점	33.0	9.8	3.4	0.6	0.0	21.0
1점	18.7	16.6	6.5	7.5	1.3	15.2
2점	12.9	9.8	10.7	5.8	1.9	10.9
3점	11.6	14.0	12.8	7.7	8.9	11.6
4점	11.5	17.0	15.1	12.9	13.3	13.1
5점	7.4	16.4	22.1	21.9	17.1	12.5
6점	2.3	9.1	20.3	18.7	19.0	7.8
7점 이상	2.5	7.4	9.1	24.9	38.6	8.0
전체	100.0 (2,299)	100.0 (706)	100.0 (384)	100.0 (466)	100.0 (158)	100.0 (4,013)

2. 회귀분석 결과

〈표 4-25〉는 과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모두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학대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이고, 모형 2는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학대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모형 3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동시에 투입하여 현재의 학대가해경험과의 관계성을 보여 주는 모형이다.

모형 1에서 보이는 바처럼, 다른 인구경제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가정내 학대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OR=1.397, p<0.00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1회 많아질수록 현재 학대가해경험의 가능성(odds)이 39.7% 증가되고 있다.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자영업), 아동 수, 지역, 건강상태(좋은), 양육스트레스, 우울도,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가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성인기 폭력피해와 현재의 폭력가해경험의 관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OR=7.424, p<0.001$).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1회 증가할수록 현재 폭력가해경험의 가능성(odds)은 7.4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들은 모형 2에서도 유의하였다.

모형 3은 모형 1과 모형 2의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변수를 모두 투입한 통합모형으로 두 변수는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유의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OR=1.329, p<0.001$), 성인기 폭력피해($OR=2.752,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1회 많아질수록 현재 학대가해 가능성(odds)은 32.9% 증가하고,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1회 증가할수록 현재 학대가해의 가능성

(odds)은 175.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투입됨으로써 성인기 폭력피해의 오즈비가 현저하게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1, 2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25〉 현재의 학대가해경험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97	<.0001	0.019				1.329	<.0001	0.021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7.424	<.0001	0.161	2.752	<.0001	0.175
성별(여성=1)	1.274	0.013	0.097	1.574	<.0001	0.101	1.506	<.0001	0.102
연령	1.046	<.0001	0.007	1.049	<.0001	0.007	1.047	<.0001	0.007
로그균등화소득	0.922	0.012	0.032	0.928	0.017	0.032	0.931	0.026	0.032
주거취약층 (1=RIR)=20%)	1.05	0.687	0.122	1.054	0.662	0.119	1.073	0.569	0.123
전문대졸 (기준=고졸)	0.802	0.026	0.099	0.81	0.028	0.096	0.794	0.020	0.099
대졸	0.53	<.0001	0.104	0.519	<.0001	0.101	0.514	<.0001	0.104
일용직고용 (기준=상용직)	1.068	0.727	0.188	1.223	0.269	0.183	1.071	0.716	0.188
자영업	1.414	0.001	0.107	1.661	<.0001	0.104	1.433	0.001	0.107
무직 기타	1.21	0.090	0.112	1.192	0.108	0.109	1.21	0.090	0.113
2세대가구 (기준=3세대)	0.91	0.676	0.227	0.844	0.421	0.210	0.877	0.561	0.226
아동 수	1.846	<.0001	0.066	1.818	<.0001	0.064	1.866	<.0001	0.066
중소도시 (기준=대도시)	0.579	<.0001	0.092	0.534	<.0001	0.089	0.591	<.0001	0.092
농촌	0.554	<.0001	0.133	0.511	<.0001	0.130	0.55	<.0001	0.133
건강상태 좋음 (기준=매우 좋음)	0.631	<.0001	0.100	0.696	0.000	0.096	0.632	<.0001	0.100
건강상태 나쁨	1.155	0.594	0.270	1.478	0.159	0.277	1.267	0.386	0.273
양육스트레스	1.205	<.0001	0.014	1.222	<.0001	0.014	1.194	<.0001	0.014

	Model 1			Model 2			Model 3		
우울	0.955	<.0001	0.011	0.972	0.006	0.010	0.952	<.0001	0.011
자아존중감	0.98	0.104	0.012	0.986	0.223	0.012	0.982	0.146	0.012
삶의 만족도	0.645	<.0001	0.093	0.71	0.000	0.090	0.658	<.0001	0.093
가족관계	0.962	<.0001	0.010	0.958	<.0001	0.009	0.963	<.0001	0.010
사회적 지지	0.979	0.015	0.009	0.975	0.004	0.009	0.978	0.012	0.009
고위험음주	1.027	0.847	0.136	1.143	0.316	0.133	1.007	0.960	0.137
사회적 바람직성	0.932	<.0001	0.017	0.914	<.0001	0.017	0.928	<.0001	0.018
log-likelihood	4159.108			4323.461			4124.77		
N	4008			4008			4008		

제7절 논의 및 결론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 한 번이라도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78.9%, 전혀 없었던 비율은 21.1%로 나타났다.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1~5점인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자 비율은 각 10~15%대에 이르고 있으며, 6점 이상인 경우에는 각 점수별 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발생률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던 ACE Study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의표집방식으로 동일하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문항(ACE-IQ)을 활용했던 Kim(2017)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중 50%의 대학생이 아동기에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 대표성 등에서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또한 국외에서 최초로 ACE Study를 수행했던 미국의 60%, 영국의 46.4%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의 76%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치이나 조사대상집단 및 대상연령의 선정, 표본추출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은 본 조사가 포괄하고 있는 대상이 60세 미만 유자녀 성인 전체라는 점에서 과거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문화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경험을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목격 경험(49.1%), 그리고 정서학대(47.8%)의 경험이 가장 높은 유형 중 하나였으며, 이는 여성 및 아동 등 소위 사적인 “가정사”로 간주되어 왔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가정폭력경험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가정폭력실태조사(2016)의 결과와 비교할 때, 가정폭력의 직간접적 경험률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즉, 부모 사이의 폭력언어 또는 행동의 목격경험은 45.9%로 비슷했으며, 정서적 학대경험은 29.6%로 본 연구조사 결과보다 낮았으나 아동기 신체적 학대경험은 48.1%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3세 이상의 세대가 43세 미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에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 비율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와 주부 및 기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이후, 과거 성인기에 겪었던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살펴보았는데, 조사 대상자 중 군대복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한

결과, 군대폭력은 피해경험이 65.3%, 가해경험이 48.4%로 가장 높은 발
생률을 보인다. 직장폭력 피해경험은 25.7%, 가해경험은 13.1%로 피해
경험이 가해경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조사
기준기간, 측정도구 등이 상이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15개 산업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서유정, 2017)와
비교하면, 조작적 피해자는 21.4%, 주관적 피해자는 4.3%로 본 조사 결
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과거 생애과정
에서 학대경험의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했을 때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과
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동시에 한 응답자가 전체의 41.6%를 차지했
으며,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룹은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의 현재 가정폭력 가
해경험(자녀폭력, 배우자폭력, 노부모폭력)과의 관계성 분석 결과는 상당
히 흥미롭다. 현재의 폭력가해경험을 과거의 학대 및 폭력경험별로 비교
해 보면,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 중 52.8%가 아동기와 성
인기 모두 피해의 경험이 있거나 36.7%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가
진 경우에 속했으며 과거 생애과정 중 폭력의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
자는 9.1%에 불과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과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모두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구사회학적, 사회
경제적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
기 폭력피해경험은 모두 현재의 가정폭력 학대가해 여부와 유의미한 연
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특수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집단의 문제가 아닌 보다 보편

적으로 경험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애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경험은 피해와 가해를 교차하면서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따라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또는 가해집단을 개인적 차원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특수집단으로 간주하여 접근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학대 예방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처럼 한국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다시 현재의 가정폭력의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대 및 폭력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과 결과는 그 폭과 깊이가 크고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미치는 학대 및 폭력의 영향성은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개입에 있어서 생애의 초기발달과정에서 아동기 학대뿐만 아니라 삶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아동기 발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과거 성인기 생애경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이 군대 내 폭력으로 나타났는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폭력이 관대하게 허용되는 특수한 공간이 군대임을 고려할 때 크게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그동안 폭력이 학습되고 재생산되는 공간으로서 군대폭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 왔으나, 실질적인 군대폭력을 줄이기 위한 조직문화의 개선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 5 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아동학대 가해의 관계성 연구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논의 및 결론

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 아동학대 가해의 관계성 연구

제1절 문제의 제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문제로 치부해선 안 되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게 은폐되어 사회적으로 묵인될 가능성이 크고 일회성이 아니라 학대자의 지속적인 학대 습성에 의해 반복되어 대상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다. 피해아동은 부모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아동이 성장해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대물림 학대하는 등 세대 간 전이되어 학대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크게 아동 자신과 부모, 가족, 사회적 요인 등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오정수, 정익중, 2017). 그러나 학대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원인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원인들 간의 상호적 영향관계를 갖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나로 규정짓는 것은 매우 힘들다. 아동학대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는 학대의 대물림이다. 학대는 학대피해아동이 경험하는 당시의 직접적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순환 개념이나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가설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피해아동이 또 다른 학대의 가해자로 등장하는 2차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과거의 피해자가 새로운 가해자가 되어 자신이 당한 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또 다른 아동학대를

저지른다. 이런 방식으로 아동학대가 대물림되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에게서 학대가 더 많이 발견되지만,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도 아동학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위험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rouch & Milner, 1993). 건전한 가족관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거나, 아이들로부터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기대하는 것이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 부모가 되기 전, 자기 부모한테서 보고 듣고 자란 양육 모델밖에 없고, 자녀 출산 전에 부모 역할을 학습해 볼 기회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가진 외상(trauma)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학대한다. 분노, 실패감, 우울, 위축되어 있는 자아가 부모의 내면에 있어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울음으로 자기의 요구 사항을 표현한다면, 부모는 이를 사랑의 눈길로 봐 줘야 하는데 자신의 이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가정 내에서는 무척 권위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한 사회문화적 허용도가 높은 것이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동학대의 원인은 개인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학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며,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에게 다시 학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중 최소 30%, 최대 60%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

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정수, 정익중, 2017). 또 2004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서도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남성은 53%, 여성은 64.4%나 됐다. 모두 아동학대의 대물림 현상을 보여 주는 지표들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단순히 대물림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어릴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은 충동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범죄자의 인생을 역추적해 보면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후유증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아존중감의 저하다(연진영, 1992; Cerezo & Frias, 1994; Green, 1985;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오정수, 정익중, 2017에서 재인용). 아동은 대개 학대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Briere, 1992). 이러한 사고를 통해 부모는 나쁠 수 없으므로 학대받는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해 싫은 감정을 지니거나 속상한 마음이 드는 자신이 학대받아 마땅한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아동은 반복적인 학대를 통해 실제로는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학대가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다고 믿는 아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기 어렵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은 학대를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된다. 학대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부모가 격려해 주어야 하는 아동의 자아발달을 위축시키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 준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Allen &

Tarnowski, 1989; Oates, Forrest, & Peacock, 1985; 오정수, 정익중, 2017에서 재인용).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 및 주변 세계에 대한 내적 신념을 함께 손상시키게 된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시키고 강화해 주어야 하는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자신을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Crittenden & Ainsworth, 1989). 이러한 낮은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함부로 다루며 통제력이나 의지도 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아동은 아픈 기억들을 잊기 위해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생활한다(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경증,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파괴적 행동이나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비행 등과 같은 일탈행동적 문제들을 보인다(Daly & Burton, 1983; Owens, 1994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에서 재인용).

아동학대 문헌에는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학대아동이라는 개념이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3). 학대받은 아동이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성장하여 성인이 된다면 취약한 부모가 되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아동학대가 대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폭력 상황을 접하면서, 폭력을 손쉬운 갈등 해결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 복합적인 외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칫 폭력을 가족이 살아가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히 폭력 같은 육체적인 것만이 학대는 아니다. 비행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타뿐 아니라 ‘쫓아내겠다’거나 ‘그렇게 하면 때리겠다’며 겁을 주는 정서적 학대, 또 식사를 제때 챙겨 주지 않거나 늦게 귀가해도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 방치 등도 자녀를 문제로 이끄는 학대이다. 또는 아동이 부모의 학대행동을 모방하여 학대하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어떤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동학대로 전이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유전적, 사회적 영향의 결합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Kaufman & Zigler, 1993). 이렇게 학대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이될 수 있거나 학대의 주기가 여러 세대에 걸쳐 설정될 수 있다는 믿음은 초기에 학대의 원인에 대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였다(Egeland, 1993). 하지만 학대받은 부모 중 일부는 학대하는 부모가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Kaufman & Zigler, 1993). 따라서 이 장의 목적은 학대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문헌에 바탕을 두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회고적 조사에 기반을 두어 학대당한 아이들이 학대받는 부모가 될 가능성은 얼마인가? 또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등 외상이 학대부모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제2절 이론적 배경

1. 학대나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이론

학대나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있다. 첫째, 사회학습이론은 아동이 학대부모로부터 공격적 반응 패턴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Muller, Hunter, & Stollak, 1995).

즉,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그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 및 처벌의 패턴을 통해,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모델링하는 중요한 타인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습득된다(Bandura, 1977). 부모 역할은 아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강력한 영향 중 하나이며, 이러한 각 특성은 모방 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매우 강력한 모델로 인식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노출되어 관찰하거나 모방하는 인지 과정으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학습이론으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하였거나 부모의 부부 간 폭력과 같은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등 폭력에 노출된 경험으로 공격성을 학습함으로써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자녀학대나 가정폭력,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등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고경은, 이수림, 2015; 김재엽, 이순호, 2011; 이현주, 2013; 조춘범, 조남홍, 2011; Cutis, 1963; Holt & Gillsepie, 2008). Akers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s),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차별적 접촉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학대나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Akers, 2000).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나 부부 간 폭력과 같은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한 합리화로 이어져 청소년기 또는 성인이 된 이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김경호, 2006;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둘째,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은 Agnew(1992)가 전통적인 긴장이론(strain theory)을 바탕으로 정립한 이론으로,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개인이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관계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다른 사람과의 부정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긴장 상태는 몇 가지 상황에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긴장 상황이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중대한 것으로 느껴지는 상황, 사회적 통제가 낮고, 범죄적 상황으로 연루될 수 있는 주변의 압력이나 동기가 있을 경우이다(Agnew, 2001). 즉, 긴장 상황에 처하면 이를 대처하기 위해 회피나 약물 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행은 긴장에 분노로 대응할 경우 발생하기 쉽다(Akers, 2000; Hay, 2003).

일반긴장이론은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청소년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하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때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Agnew, 2001; Brezina, 1998). Smith와 Thornberry(1995)의 연구에서는 12세 이전에 발생한 아동학대와 청소년기의 비행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고, 심각한 비행의 유형일수록 그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 또는 폭력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비행이나 향후 학대적 양육방식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Hollist, Hughes, & Schaible, 2009; Mazerolle, Burton, Cullen, Evans, & Payne, 2000).

셋째, 공격적 행동에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Muller, Hunter, & Stollak, 1995). 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적

기질은 자녀에게 유전된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유전적 설명 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유전적 요소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학대피해아동 중에는 학대부모로 성장하지 않는 비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전적 요소만으로는 학대가 세대 간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aufman & Zigler, 1993). Cloninger 등(1987)은 이른 나이에 친척이 아닌 사람에 의해 입양된 스웨덴 남성 862명을 연구했다. 환경 및 유전적 위험이 동시에 낮은 입양아는 2.9%의 범죄율을 보였고 환경 위험은 높지만 유전적 위험이 낮은 입양아는 6.7%의 범죄율을 보였다. 환경 위험은 낮으나 유전적 위험이 높은 입양아는 12.1%의 범죄율을 보였으나 높은 환경 및 유전적 위험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은 40%의 범죄율을 보였다. 따라서 환경적 및 유전적 영향이 각각 범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환경과 생물학의 상호작용이었다. 따라서 학대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환경적 및 유전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학대가 세대 간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단일 요소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세대 간 전이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제시되는 것은 Belsky(1980)의 다중요인 접근법이다. 학대가 개인, 가족, 공동체 및 문화의 상호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어떤 개인이 폭력의 전이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큰지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수준의 영향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2. 아동학대 피해가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기 범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피해가 아동학대 가해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청소년기나 청년기 중 중간단계에서 다양한 위기에 부딪치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아동학대 피해자는 청소년기 비행이나 성인기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된다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나타나기 쉽다. 아동학대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과 그의 가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며 맺는 다양한 관계에까지 미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노충래, 이신옥, 2003; Baldry, 2003; Salzinger, Rosario, & Feldman, 2007). 김정옥과 박경규(2002)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부모의 부부 간 폭력 관찰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고경은, 이수림(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김세원과 이봉주(2010)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후기부터 점차 학대의 정도가 증가한 학대증가 계층이 학대감소나 비학대 계층의 청소년에 비해 지위비행이나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발달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경험이 청소년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 일부 연구들에서는 아동학대가 여러 매개변수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내기도 하였다. 즉, 학대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반사회적 행동 또는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및 학교 애착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수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Egeland, Yayas, Appleyard, & Dulmen, 2002). Widom(1989)의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학대의 장기적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대다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이나 성인 범죄 기록이 없는 반면, 학대아동이 청소년으로 체포될 확률이 53%, 성인으로 체포되는 비율이 38%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이후의 범죄 행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Widom, 1992), 신체적 학대를 겪은 아동의 약 16%가 폭력 범죄로 체포되었다. 특히 방임한 아동 중 12.5 %는 폭력 범죄로 체포되었다. 나이, 성별 및 인종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방임과 후속 폭력 간에는 여전히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 Widom(1992)은 신체학대의 희생자들만이 후기에 폭력에 의존한다는 개념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가족 내 부정적 상황의 연속이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폭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체학대와 방임 모두 이후의 폭력과 범죄 행위에 대한 동등한 유력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이나 성인기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Hay(2003)는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긴장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의 학대와 같은 가족긴장을 경험할 때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비슷한 수준의 분노를 느끼지만,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죄책감의 수준이 더 높아 긴장이 비행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Herrera와 McCloskey(2001)는 비슷한 가족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아동학대의 경험이 폭력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성인 수감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Chen과 Gueta(2016)의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수감자가 아동기에 정서적·

신체적·성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동기 학대는 여성이 범죄에 개입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 학대는 여성에 대한 체포 확률을 77% 증가시켰다(Widom, 1992).

아동기 학대피해나 폭력에의 노출경험은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이나 비행을 넘어서 성인범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대상자 중 51.2%가 아동청소년기에 부모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간접피해를 경험하였고, 전체 대상자의 약 60%가 청소년기에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욱, 2013). 방화범죄자의 성장기 경험을 조사한 박형민과 최수형(2013)의 연구에서도 방화범죄자들은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는 등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고, 연쇄방화범죄자들의 경우 비연쇄방화범보다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모든 청소년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신체학대를 경험하였더라도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분별된 지지를 받을 경우 후기 청소년 비행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청소년의 자기보호태도가 가정폭력 노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엄명용, 2001;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또한 사회적 지지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높여 주고 긴장을 최소화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하도록 해 줌으로써 긴장 상황에서도 범죄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llen, 1994; Kruttschnitt, Ward, & Sheble, 1987).

3. 아동학대 피해가 성인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가족 내에서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McKay, 1994). Straus, Gelles, Steinmetz(1980)는 비폭력 아버지의 아들보다 학대자의 아들이 가정폭력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태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 인구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서로를 강력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rk와 Flitcraft(1988)는 아동학대 사례 평가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 거의 3분의 2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McKay, 1994)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발생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소년이나 스스로 폭행을 당한 소년은 가정폭력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아동기의 신체학대경험을 통해 학습한 폭력행동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나 부모의 폭력적 모습을 목격하는 경험은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04; 조춘범, 이현, 2013; Charles, Robert, Shanta, & Vincent, 2003; Gershoff, 2002).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은주(2004)는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인기 가정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는 김재엽 등(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장희숙과 김예성(2004)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 의뢰된 폭력남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아동기의 학대피해경험

이 많아질수록 폭력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학대경험은 한 세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동학대를 통하여 여러 세대로 전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자녀 훈육방법은 세대 간 전이되어 부모의 아동기 훈육경험과 부모가 되어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 사이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행동과 유사한 양육행동을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보임으로써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심각한 체벌을 받으며 자란 성인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체벌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문혁준, 2000; Gershoff, 2002),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수용적인 양육을 받으며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수록 본인의 자녀에게도 온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와의 관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권영임, 2011;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최미경, 김영희, 정혜숙, 2014). 이진민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1세대 조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거부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2세대인 부모의 양육행동에 이어짐으로써, 양육행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부와 부의 권위형, 지배형, 방임형 양육스타일 및 조모와 모의 권위형, 지배형, 방임형 양육스타일이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이숙희 등(2009)의 연구 결과는 양육스타일이 조부모로부터 부모를 거쳐 자녀에게 3대에 걸쳐 이어진다는 Kitamura와 Shikai(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순현(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여자 아동과 그의 어머니 220쌍, 총 44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조모의 신체학대가 모의 신체학대로 전수되어 여아의 비행행동으로 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ons와 그의 동료들(1991)도 4512명의 부모와 그의 가족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가 부모를 양육할 때 폭력을 사용하거나 공격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였을 경우 부모 역시 현재의 자녀를 비슷한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 자신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부모의 위험요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김재엽, 류원정, 오세현, 이현, 2014; Egeland, Jacobvitz, & Sroufe, 1988). 김혜영과 장화정(2002)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경험에 있는 성인은 부모가 되었을 때 아동학대, 그중에서도 신체학대의 위험이 가장 높아진다고 하여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의 설명을 뒷받침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성장기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또는 방임의 위험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폭력은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역시 다른 인구집단과 마찬가지로 폭력이 세대 간 전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재엽, 류원정, 2016; 김재엽, 최권호, 채지훈, 2012).

Fry(1993)는 멕시코의 두 지역사회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확인하였는데, 평화로운 지역의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아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아동들 역시 덜 공격적이고 순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가 빈번하고 공격적인 성향의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심각한 체벌을 가하거나 부부 간 폭력이 자주 일어났고, 이 지역의 아동들은 말을 잘 따르지 않고 공격적이거나 싸우는 경우가 평화로운 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enner와 Slack(2006)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였을 경우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횡단연구를 통하여 회고적 방법으로 부모의 학대 피해경험을 살펴보기 때문에 부모의 과거 학대피해경험이 과장되어 보고될 수 있다. Pears와 Capaldi(2001)는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109명의 부모와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10년 동안의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 조사에서 아동기 학대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중 23%는 10년 뒤에 실시한 아동의 응답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의 빈도나 심각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편, 여러 연구자가 학대피해아동 중 일부 아동들이 성장하여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지만 대부분의 학대피해아동은 이러한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 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게 하는 매개요인이 무엇인지와 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Kemp, 2001).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녀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모의 개인적 성격 특성이나 환경적 요소 등 보호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혜영, 석말숙, 2003; Egeland, Jacobvitz, & Sroufe, 1988; Zuravin, McMillen, DePanfilis, & Risley-Curtiss, 1996). 김혜영과 석말숙(2003)은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자녀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부부관계, 자녀 양육 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 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였지만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끊어 내어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기에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던 어른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받은 심리치료, 그리고 현재의 배우자와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Egeland, Jacobvitz, & Sroufe, 1988). Zuravin과 그의 동료들(1996)도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213명을 대상으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끊어 내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부모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폭력이 세대 간 전이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원가족에서의 양육경험과 아동기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의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한 성인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충격, 즉, 외상(trauma)의 결과로 자녀에게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07; 박수빈, 2014; 이수인, 임애덕, 2007; Garssen, Deerenberg, Mackenbach, Kerkhof, & Kunst, 2011; Tillman, 2016).

이혼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김현주(2004)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자신의 결혼도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난민의 경우에도 탈출과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난민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Chang, Rhee, & Berthold, 2008; Ima & Hohm, 1991). 이는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와 난민가정을 비교한 Euser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두 집단 모

두 총인구 대비 학대가정의 비율이 높았으나, 이주노동자 가정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조정한 이후에는 이주민 효과가 사라졌지만 난민가정은 부모 교육수준을 조정한 이후에도 이주 경험이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남았다.

제3절 분석 방법

1. 활용변수

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 중인 ACE 점수의 기본적 틀과 변수 설정 방법을 따른다.

나. 청년기/성인기 폭력경험

만 18세 이후 청년기 및 성인기에 발생하였던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등의 폭력의 경험을 측정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다. 아동학대 가해

아동학대 가해는 Straus 등(1998)이 개발한 CTSPC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응답자 본인에게 지난 1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를 물어 측정하였다.

라. 그 외 분석 변수

성별, 연령, 지역, 균등화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종사상 지위, 지역, 주관적 건강상태, 양육스트레스, 우울도, 자존감, 음주,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사회적 바람직성 등을 포함하였다. 본 변수들은 기술통계를 통해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등이 현재 아동학대 가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대한 통제 변수로 투입되었다.

2.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응답자 가구 내 자녀양육 관련 변수, 그리고 자녀학대 가해에 관련된 변수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현재의 아동학대 가해 여부 간, 그리고 현재의 아동학대 가해 여부와 배우자폭력/노인학대 여부 교차분석, t-test/ANOVA(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 아동학대 가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절 분석 결과

1. 기술분석 결과

자녀 양육 및 학대 관련 기초적 자료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자녀 출산 시 평균연령은 29.9세였고, 최소 연령은 16세부터 최대 연령은 50세까지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이루어진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최소 0점부터 최대 15점까지 응답 중 평균은 5.2점으로 나타났다.

〈표 5-1〉 출산연령과 양육스트레스

(단위: 세,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29.9	4.16	16.00	50.00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	5.2	3.09	0.00	15.00

양육스트레스를 하위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문항 1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그렇지 않다’에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문항 1(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은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2〉 양육스트레스

(단위: 명, %)

문항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빈도 227	1,612	1,417	753	4,008
		비율 5.7	40.2	35.3	18.8	100.0
2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빈도 190	1,252	1,636	930	4,008
		비율 4.7	31.2	40.8	23.2	100.0
3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빈도 109	911	1822	1165	4,008
		비율 2.7	22.7	45.5	29.1	100.0
4	내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빈도 79	621	2,053	1,255	4,008
		비율 2.0	15.5	51.2	31.3	100.0
5	지금보다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빈도 50	629	2,080	1,250	4,008
		비율 1.2	15.7	51.9	31.2	100.0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본인은 ‘2시간 이상’인 경우가 39.4%(1578명)로 가장 많았고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혀 놀아 주지 않음’을 포함해 ‘30분 미만’인 경우는 15.6%(627명)로 나타났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2시간 이상’인 경우가 40.6%(1626명)로 가장 많았고 ‘전혀 놀아 주지 않음’을 포함해 ‘30분 미만’인 경우가 15.8%(636명)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본인과 배우자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단위: 명, %)

구분		전혀 놀아주지 않음	30분 미만	30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이상	계
본인	빈도	109	518	801	1,002	1,578	4,008
	비율	2.7	12.9	20.0	25.0	39.4	100
배우자	빈도	126	510	762	930	1,626	3,953
	비율	3.1	12.7	19.0	23.2	40.6	100

아동 체벌에 대한 생각은 ‘경우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29명으로 6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2.8%로 뒤를 이었고, ‘대부분 허용될 수 있다’ 혹은 ‘늘 허용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로 가장 적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체벌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4〉 아동 체벌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아동 체벌에 대한 생각	빈도	비율
절대 허용될 수 없다	1,315	32.8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될 수 있다	2,629	65.6
대부분 허용될 수 있다	55	1.4
늘 허용될 수 있다	9	0.2
계	4,008	100.0

아동학대 가해경험은 정서학대 2문항, 신체학대 7문항, 방임 4문항, 성적 학대 1문항으로 총 14문항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본인의 경우 전체 4,008명 중 40.1%(1,608명)가 정서학대, 11.4%(458명)가 신체학대, 2.1%(86명)가 방임, 0.2%(7명)가 성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복경험을 제외하면 총 41.6%(1,668명)의 응답자가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전체 3,953명 중 34.9%(1,381명)가 정서학대, 7.9%(311명)가 신체학대, 0.7%(28명)가 방임, 0.02%(1명)가 성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복경험을 제외하면 35.3%(1,415명)의 배우자가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문항 중에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했다(사소한 위협도 모두 포함)’에 응답한 경우가 응답자 본인은 38.6%(1,547명), 배우자는 33.7%(1,333명)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5-5〉 아동학대 가해

(단위: 명, %)

구분		본인(N=4,008)		배우자(N=3,95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서 학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사소한 위협도 모두 포함함)	1,547	38.6	1,333	33.7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628	15.7	476	12.0
	소계	1,608	40.1	1,381	34.9
신체 학대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358	8.9	250	6.3
	허리띠,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134	3.4	85	2.2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19	0.5	9	0.2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13	0.3	9	0.2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5	0.6	6	0.1
	목을 졸랐다	1	0.0	3	0.1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1	0.0	0	0.0
	소계	458	11.4	311	7.9
방임	아이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62	1.6	17	0.4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2	0.1	3	0.1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6	0.2	3	0.1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 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혼자 있게 하였다	27	0.7	12	0.3
	소계	86	2.1	28	0.7
성적 학대	성적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 도록 강요했다	7	0.2	1	0.0
	소계	7	0.2	1	0.02
전체	계	1,668	41.6	1,415	35.3

응답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로부터의 폭력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3,828명으로 95.5%를 차지하였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0명으로 4.5%를 차지하였다. 자녀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6〉 자녀로부터의 폭력경험

(단위: 명, %)

	자녀로부터의 학대 및 폭력 여부(배우자 및 본인)		
	없음	있음	계
빈도	3,828	180	4,008
비율	95.5	4.5	100

응답자(가구) 특성별 아동학대 가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성별,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 구성, 가구소득, 지역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 유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유형, 수급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43세 이상 연령, 임신/일용노동자, 고등학교 이하 교육수준, 영유아+아동가구에서 아동학대 가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응답자(가구) 특성별 아동학대 가해

(단위: 명, %)

구분		가해 유	가해 무	전체	χ^2
성별	남자	43.2	51.8	100.0(1,934)	28.927***
	여자	56.8	48.2	100.0(2,074)	
연령	43세 미만	47.9	64.7	100.0(2,314)	113.200***
	43세 이상	52.1	35.3	100.0(1,694)	
경제 활동 상태	상용근로자	34.9	65.0	100.0(2,004)	75.634***
	임시/일용 근로자	50.9	49.0	100.0(218)	
	자영업/ 무급가족	46.4	53.5	100.0(757)	
	비취업/ 기타	49.0	50.9	100.0(1,029)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52.5	47.4	100.0(1,318)	110.512***
	대학교(4년제 미만) 이하	39.5	60.4	100.0(1,419)	
	대학교(4년제 이상)	32.6	67.4	100.0(1,271)	
가구 유형	2세대 가구	41.6	58.3	100.0(3,871)	.283
	3세대 가구	39.4	60.5	100.0(137)	
가구 구성	영유아가구	19.1	80.8	100.0(982)	271.768***
	영유아+ 아동가구	51.8	48.1	100.0(405)	
	아동가구	48.4	51.5	100.0(2,622)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4.7	65.2	100.0(458)	10.134**
	300만~500만 원 미만	42.5	57.5	100.0(2,400)	
	500만 원 이상	42.5	57.4	100.0(1,150)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41.5	58.4	100.0(106)	.001
	비수급	41.6	58.3	100.0(3,902)	
지역	대도시	48.1	51.8	100.0(1,911)	68.786***
	중소도시	34.3	65.6	100.0(1,571)	
	농어촌	39.7	60.2	100.0(526)	

*p<.05, **p<.01, ***p<.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학대 가해경험을 교차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는 낮은 점수대에 많이 분포하였으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5점 이상부터 아동학대 가해 비율이 가해경험이 없는 비율보다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학대

(단위: 명, %)

구분	자녀학대 가해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	유	무	전체	비율
0점	143	701	884	21.1
1점	167	442	609	15.2
2점	165	272	437	10.9
3점	240	223	463	11.6
4점	261	262	523	13.0
5점	279	220	499	12.5
6점	197	114	311	7.8
7점 이상	216	106	322	8.0
전체	1,668	2,340	4,008	100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자녀학대 가해경험 유무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폭력경험은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유무를 확인하였다. 세 집단의 폭력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군대폭력의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에 자녀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군대폭력 피해경험이 있지만 자녀학대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자녀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외의 데이트폭력과 직장폭력은 피해나 가해경험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자녀학대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9〉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자녀학대

(단위: 명, %)

자녀학대 가해여부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경험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학 대 있 음	빈도	535	143	418	260	148	1,520	133	1,535	573	1,016	346	1,243
	퍼센 트	29.5	7.9	23.0	14.3	3.6	37.9	3.3	38.2	14.8	26.3	8.9	32.2
학 대 없 음	빈도	648	486	459	675	78	2,262	74	2,267	416	1,845	160	2,101
	퍼센 트	35.7	26.8	25.3	37.2	1.9	56.4	1.8	56.5	10.8	47.9	4.1	54.5
χ^2		88.697***		76.184***		56.164***		46.069***		152.484***		176.602***	
합계		1,812		1,812		4,008		4,008		3,850		3,850	

* $p < .05$, ** $p < .01$, *** $p < .001$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 가해경험과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배우자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배우자폭력 가해가 있었던 경우, 아동학대 가해가 있는 비율은 35.1%이었으나, 아동학대 가해가 없었던 비율은 14.2%에 그쳤다. 배우자폭력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도 아동학대 가해가 있었던 비율은 34.1%인 데 비해 배우자폭력 피해는 1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경험이 없을 때보다 아동학대경험이 있을 때 부부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가 많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0〉 배우자폭력과 아동학대

(단위: 명, %)

폭력유형	유무	아동학대 가해 없음	아동학대 가해 있음	X2
배우자폭력 가해	무	85.8	64.9	237.394***
	유	14.2	35.1	
	소계	2314(100.0)	1644(100.0)	
배우자폭력 피해	무	86.4	65.9	234.615***
	유	13.6	34.1	
	소계	2314(100.0)	1644(100.0)	

*p<.05, **p<.01, ***p<.001

노부모학대 여부와 아동학대 가해경험을 교차분석한 결과 노부모학대 경험에 있는 경우 아동학대 가해경험 유, 무는 각각 53.2%(217명)와 46.8%(191명)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가해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학대경험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없는 경우가 60.8%(1,662명)로 노부모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학대와 아동학대가 일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5-11〉 노부모학대와 아동학대

(단위: 명, %)

구분	변수	아동학대 가해경험 없음		아동학대 가해경험 있음		전체	X ²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노부모 학대 여부	학대 있음	191	46.8	217	53.2	100.0	28.569***
	학대 없음	1,662	60.8	1,073	39.2	100.0	
전체		1,853	59.0	1,290	41.0	100.0	

*p<.05, **p<.01, ***p<.001

2. 아동학대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간의 관계성 분석 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12>와 같다. 모형 1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아동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이며, 모형 2는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아동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이고, 모형 3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아동학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형 1과 모형 2의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통합모형 3은 두 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지만 유의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유의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유의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보다 아동학대에 더 크게 영향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아동학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Exp (B)	B	S.E	Exp (B)	B	S.E	Exp (B)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287	.018	1.333***				.267	.020	1.307***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1.302	.140	3.676***	.377	.157	1.457*
성별 (여성=1)	.456	.094	1.578***	.528	.095	1.696***	.518	.098	1.679***
연령	.067	.007	1.069***	.070	.006	1.072***	.067	.007	1.070***
균등화가구소득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주택소유형태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일용직고용 (상시고용기준)	-.036	.172	.965	.117	.167	1.124	-.034	.172	.966
자영업	.136	.101	1.146	.271	.099	1.312**	.139	.102	1.149
무직 기타	.343	.107	1.409***	.345	.104	1.413**	.345	.107	1.412**
중소도시	-.477	.087	.621***	-.536	.085	.585***	-.467	.087	.627***
농촌(대도시비교)	-.441	.124	.643***	-.513	.122	.599***	-.442	.125	.643***
건강상태 좋지 않음(건강상태 좋음 비교)	-.326	.229	.722	-.370	.231	.691	-.358	.231	.699
양육스트레스	.127	.014	1.136***	.151	.013	1.163***	.124	.014	1.132***
우울도	-.064	.010	.938***	-.044	.010	.957***	-.065	.010	.937***
자존감	.006	.011	1.006	.006	.011	1.006	.007	.011	1.007
음주	.295	.126	1.343*	.401	.123	1.493**	.295	.126	1.342*
교육수준	-.206	.049	.813***	-.204	.048	.815***	-.210	.049	.810***
삶의 만족도	-.367	.086	.693***	-.287	.083	.750**	-.357	.086	.700***
사회적 지지	-.013	.009	.987	-.017	.009	.983*	-.013	.009	.987
가족관계	.074	.023	1.077**	.059	.022	1.061*	.078	.023	1.081**
사회적 바람직성	-.125	.016	.883***	-.137	.016	.872***	-.127	.017	.881***
-2 log likelihood	4434.077			4622.137			4428.304		
Nagelkerke R ²	.300			.249			.301		
N	4,008			4,008			4,008		

*p<.05, **p<.01, ***p<.001

또한 모든 모형에서 아동학대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낸 변수는 성별, 연령, 경제활동(무직 기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양육스트레스, 우울, 음주,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사회적 바람직성이다. 성별의 경우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서는 상시고용 기준으로 무직일 경우에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1.4배로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1.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고위험 음주로서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1.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우울, 교육수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경우 아동학대에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사회적 지지와 경제활동(일용직고용), 자존감, 사회적 지지의 경우 모두 아동학대 영향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아동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아닐까 판단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생 여부가 적은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중소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아동학대 발생 여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는 성인이 부모가 되는 첫 자녀 출산 평균연령인 30세부터 시작된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가 대부분이지

만, 그중에서도 “예전보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처럼 부모가 된 이후 출산 기회비용으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폭력경험은 크게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으로 성인기 이후 폭력경험과 자녀학대경험 여부를 비교한 결과, 자녀학대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군대폭력의 피해나 가해경험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뿐만 아니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아동학대 가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폭력의 악순환,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동학대의 85%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고 있으므로(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지속적인 학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정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고 높은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폐된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아동학대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다방면에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특히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것은 ‘인식 전환’이다. 인식 전환을 위해 각각 단계에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세대 간 전이라는 학대의 악순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했거나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있다면 그 외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시 가해자로 재등장하지 않도록 원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가 되면 또다시 자식을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 학대의 세대 간 전이를 교육으로 끊어 줘야 한다. 아동 발달단계에 맞게 타인에 대한 존중교육을 해야 하고, 혼전 교육, 산전교육, 부모교육 등 성인 대상 교육이 더 많아져야 한다. 지금도 부모교육은 많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꼭 받아야 할 고위험군 부모들은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교육을 받지 않는다.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이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촘촘한 발굴 및 지원시스템도 필요하다.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기 아동을 예측하고 지원하는 상시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사회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 시스템은 장기 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수급 기록 등 위기 아동 징후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된 정보를 예측모형에 투입해 위기도 순으로 아동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에 맞춰 아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신고의

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의사,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하고 국민 전체의 인식 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도 2015년 3월에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하면서 선진국의 사례처럼 체벌을 금지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체벌이라는 단어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아직 이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서 사회 내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출발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비폭력 분쟁 해결,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기술에 대한 명시적 훈련은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한다. 아이들이 폭력을 포함하지 않은 문제 해결 및 갈등 해결 기술을 취득하는 것은 체벌과 학대의 감소,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중단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체벌의 비효율성을 보여 주고 대안적 자녀 양육 및 갈등 해결 전략을 가르치는 학교와 상담기관의 기존 생활기술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폭력이 다음 폭력을 부르는 폭력의 순환,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반드시 예방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계성 연구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이론적 배경
- 제3절 분석 방법
- 제4절 분석 결과
- 제5절 논의 및 결론

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 배우자폭력의 관계성 연구

제1절 문제의 제기

20세기 중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여성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양한 여성주의의 논의 중, 배우자폭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배우자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인식하고 배우자폭력이 인권의 문제임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Htun & Weldon, 2012). 이 당시 배우자폭력은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서 사회적 개입이나 해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공적 영역의 개입이 필요한 주요한 사회 문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배우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배우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역시 전개되었는데 이는 주로 배우자폭력의 원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발전해 왔다.

배우자폭력은 가정폭력이란 용어와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을 지칭하는 용어인 ‘Domestic Violence’는 그 논의가 배우자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가정폭력은 가정 내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아동학대, 배우자폭력, 노인폭력, 형제폭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어 부부 간 발생하는 특수한 폭력 유형으로서 배우자폭력의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여기에서 배우자란, 실제 법적인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부부를 포함할 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를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배우자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의 의미가 강하다.

배우자와의 삶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적절하지 못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배우자 간의 폭력은 사회구조적인 가치체계,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는 배우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배우자폭력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련의 노력 중,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관점에서 배우자폭력을 조망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Black, Sussman, & Unger, 2010; Gomez, 2010; Franklin & Kercher, 2012; Kitzman et al., 2003; Stith, 2000). 이 논의의 핵심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Bandura, 1973)에 근거하여 주로 배우자폭력의 가해 행동이 발달과정 속에서 다양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고 부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반응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이해한다(Mihalic & Elliott, 1997). 아동기 폭력경험은 성인기 배우자폭력에서의 가해행위와 관련이 있지만 동시에 피해의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Renner & Slack, 2006).

발달과정에서 폭력 및 다양한 부정적 경험에 노출되는 것은 성인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우자폭력경험과 같은 어려움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지위에 따라 더욱 배가되기도 하고 배우자폭력 가해 혹은 피해와 같은 문제를 더욱더 심하게 경험하기도 한다(Bograd, 1999). 상호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 theory)은 이러한 배우자폭력에 있어 취약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아동기 폭력경험이나 혹은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커지며, 성인기의 발달 결과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폭력경험 및 부정적 경험의 누적효과를 보고자 하는 노력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Finkelhor 등(2007)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누적효과를 강조하며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

이렇듯, 배우자폭력을 이해함에 있어 아동기의 폭력 및 부정적 생애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현재의 배우자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밝히는 노력은 가정폭력 및 배우자폭력에 있어 우리의 개입과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찾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배우자폭력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기 폭력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현재 배우자폭력에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부정적 영향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누적의 효과는 배우자폭력에 있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배우자폭력의 정의 및 현황

국내의 배우자폭력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법률상 배우자폭력은 별도로 개념이나 정의가 내려지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은 가정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우자폭력은 다양한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 중에서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정도로 한정지어 살펴볼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행위로 이해되며 이는 현재 <표 6-1>과 같이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6-1> 배우자폭력 유형

유형	설명
신체적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것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성적인 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 www.easylaw.go.kr 에서 2017. 5. 15. 인출.

법률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배우자폭력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배우자폭력 현황은 2016년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이인선 등, 20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배우자폭력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그리고 통제까지 5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6년 배우자폭력의 현황을 기존의 현황(2007년부터)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6-2>와 같다.

〈표 6-2〉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본 배우자폭력 현황

구 분	부부 폭력률 ¹⁾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³⁾
		경한 폭력	중한 폭력	전체 신체 폭력					
2016년 ²⁾	14.1 (41.5)	3.6	0.4	3.7	12.5	2.5	2.2	-	(37.7)
2013년	44.1	7.2	0.6	7.3	37.2	5.3	5.4	27.3	-
2010년	53.8	16.3	3.3	16.7	42.8	10.1	10.4	30.5	-
2007년	40.3	11.1	4.8	11.6	33.1	4.1	10.5	19.6	-

- 주: 1) 배우자폭력률은 지난 1년 동안 제시된 폭력 중 어떠한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의미함. 2013년까지의 폭력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그리고 방임을 포함하여 전체 폭력률이 계산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통제를 포함한 폭력률이 계산되었음을 알림.
- 2)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방임으로 측정되던 것이 통제로 개념화되었으며, 부부폭력률 산출은 통제를 포함하는 방식과 포함하지 않는 방식 두가지로 나누어 계산됨.
- 3) 2013년도에도 설문을 통해 통제를 측정하긴 하였으나 전체 폭력률 추이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자료: 이인선 등. (2016).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황정임 등. (2013).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본 표는 황정임 등(2013),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와 이인선 등(2016),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2007년 이후 한국의 배우자폭력률을 비교해 보면 2010년 53.8%로 가장 높았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40% 정도를 웃도는 수준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신체폭력은 2013년 이후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6년 3.7%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의 신체폭력률을 보여 주고 있다. 2016년 전반적으로 통제를 제외한 모든 폭력 유형에서 발생률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제의 경우 2016년에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발생 추이의 비교는 어렵다. 2016년의 급격한 부부폭력 발생의 감소가 실제적인 감소인지 일시적인 감소인지는 차후 3년 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으나 현재 전체 폭력률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세부유형별로 배우자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Straus(1996)의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II(CTS2)를 기반으로 협상(negotiation), 심리적(정서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성폭력(sexual coercion), 상해(injury)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가정폭력실태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배우자폭력 발생률 등을 위해 CTS2 중 정서적, 신체적, 성폭력을 중심으로 살피고, 이에 더해 실태조사에서 포함한 경제적 폭력과 통제를 더해 전반적인 배우자폭력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배우자폭력

배우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특히 배우자폭력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현재 가해자의 특성에 근거한 배우자폭력의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 둘째, 과거 폭력경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배우자폭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전자의 경우 가해자의 현재 상황(부부관계, 가족관계, 정신건강, 알코올 및 약물, 실업, 경제적 수준, 스트레스 등)에 근거하여 배우자폭력의 위험도를 파악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 과거의 폭력경험이 어떠한 식으로 현재의 배우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폭력경험과 현재의 폭력과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노력은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라는 용어로 학

계의 오랜 관심을 받아 왔다. 이 관점은 주되게 사회학습이론에 따라 폭력의 순환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기 시절의 가정 내 학대나 폭력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학습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후의 성인기의 학대 혹은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한다 (Black, Sussman, & Unger, 2010; Franklin & Kercher, 2012; Kitzman et al., 2003; Stith, 2000; Izaguirre & Calvete, 2016; Gomez, 2010; Mihalic & Elliott, 1997).

최근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현상, 즉,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 보다 맥락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 시절 폭력을 경험한 사실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성인기의 배우자폭력 등의 폭력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상호교차이론(Intersectionality)은 폭력의 재경험에 있어 보다 취약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Balderston, 2013; Bograd, 1999; Matos, Conde, & Santos, 2014). 배우자폭력으로 폭력을 재경험함에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대상이 있으며 이 대상들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Matos 등 (2014)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여성(socially excluded women)의 경우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취약한 대상에 실천적인 개입의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아동기의 폭력 노출과 배우자폭력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최근의 또 다른 주요 관점을 소개하면 Finkelhor 등(2005, 2007, 2011)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아동기의 폭력피해경험은 경험 자체보다는 중복피해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기존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발달 결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하나의 폭력 유형 혹은 아동기 폭력경험 유무 등으로 접근하여 중복적 피해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아동기의 폭력경험은 그 경험이 누적될수록 발달 경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복피해의 아동은 개입이나 실천에 있어 우선적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기의 중복피해경험과 성인기의 배우자폭력의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 중복피해의 가능성, 폭력경험의 누적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의 배우자폭력은 단순한 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조건적, 폭력의 특징적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연속적으로 이해하여 그 정도에 따른 배우자폭력경험을 살피고,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및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제3절 분석 방법

1. 활용변수

본 장의 주요 목적은 아동기의 부정적 삶의 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제반 조건 등에 대한 파악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수들이 주요 분석 변수로 활용될 것이다.

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아동기 부정적인 생애경험은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 중인 ACE 점수의 기본적 틀과 변수 설정 방법을 따른다.

나. 청년기/성인기 폭력경험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배우자폭력 이전의 경험으로 아동기 부정적인 삶 뿐만 아니라, 청년기/성인기의 폭력경험도 함께 고찰한다.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을 포함하며 이들이 현재의 배우자폭력경험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분석을 실시한다.

다. 배우자폭력

배우자폭력은 크게 WHO의 통제 행위와 CTS2의 배우자폭력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CTS2의 경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전국가정폭력조사에서 활용 중인 경제적 폭력 3문항을 포함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배우자폭력 유형은 피해와 가해를 모두 질문하였으며 응답자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경험과 가해를 한 경험에 대해 동일한 문항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협상, 정서적 폭력, 상해, 신체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의 전체 유형을 모두 포괄하여 질문하되, 배우자폭력 발생률의 계산 시에는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유사한 항목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상 및 상해 등은 별도로 하여 계산하였다.

〈표 6-3〉 배우자폭력의 유형 및 구체적인 행동

유형	행동
협상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의견을 설명하거나, 협상안을 제안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정서적 폭력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상해	씨름으로 인해 빠거나, 멍들거나, 베이거나, 그 다음 날까지 아프게 했다
신체폭력	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이나 몸을 때렸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신체공격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때린다고 협박하였다
상해	다툼 때문에 병원에 갔거나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다
성적 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신체적 힘은 사용하지 않음)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이에 더해 본 조사에서는 통제에 관련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통제는 WHO에서 제시한 통제행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항상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등과 같이 배우자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통제행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매우 많이’, ‘자주’, ‘가끔’, ‘없음’으로 4점 척도로 응답을 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통제행위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으로 코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그 외 분석 변수

성별, 연령, 지역, 가구유형, 가구구성(자녀연령대 기준), 종사상 지위, 경제활동상태, 교육정도, 기초수급 여부, 결혼 상태(미혼, 이혼, 사별 vs. 배우자 있음, 별거), 결혼유지기간, 가족관계 및 사회적 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바람직성, 음주, 자존감 등을 포함하였다. 본 변수들은 기술통계를 통해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기 폭력경험, 청년/성년기의 폭력피해, 그리고 성인기 배우자폭력의 관계의 특징을 보다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제변수로서 투입되었다.

2. 분석 틀

가. 기초분석

분석을 위해 우선 배우자폭력의 산출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폭력의 각 유형에 대해 Straus(2004)의 제안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CTS2 분석 방법인 ‘있음’, ‘없음’의 재구조화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CTS2의 총 5유형의 배우자폭력 유형(협상, 정서적, 신체적, 상해, 성적 폭력)에 대해 각 유형별로 한 번이라도 응답 기간 동안 폭력의 가해나 피해가 있었던 경우 각각 ‘있음(1)’으로 구조화되며 한 번도 없었던 경우는 ‘없음(0)’으로 구조화하여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 중 협상의 경우 역코딩을 통해 다른 유형의 폭력과의 해석적 통일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기존의 국내 가정폭력 발생률 관련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함한 통제와 경제적 폭력의 경우도 분

석의 통일성을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시키
고자 한다. 즉, 7가지의 배우자폭력에 대해 폭력피해 및 가해경험이 있었
는지 혹은 전혀 없었는지가 파악이 되며 전체적인 폭력피해 및 가해 상황
도 이에 맞게 분석될 것이다. 이는 현재 기존의 배우자폭력 연구 및 가정
폭력전국조사, 그리고 해외의 연구들에서 활용하는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한 분석 틀로서 변수 재구성 후 전체적 분석에 포함될 것이다.

나. 로지스틱 회귀분석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의 배우자폭력과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현재 배우자폭력의 경우 모
든 유형이 있음(1), 그리고 없음(0)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배우자폭력 가해경험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유형별 가해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배우자폭력 피해경험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 중 전체 배우자폭력의 가해, 피해경험 관련 분석의 경우 협상을 포
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이 실시되었다.

현재의 한국의 가정폭력을 산정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협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우자폭력 본 척도인 CTS2의 경우 협상을 주요한 배우자폭력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경우를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유형별 배우자폭력 가해, 피해 결과의 경우 유형별 결과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년기 폭력 관련 행동은 성별에 따라 그 경로가 달라질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분석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제4절 분석 결과

1. 기술분석 결과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현재의 배우자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에 대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8.6%),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4%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폭력의 현황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본 분석에서는 전체 응답자 4,008명 중 결혼, 동거, 별거를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3,958명으로 선별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표 6-4〉 배우자 유무

(단위: 명, %)

구분	응답 비율
배우자 있음(동거, 결혼, 별거)	98.6
배우자 없음(미혼, 이혼, 사별)	1.4
전체	100.0(4,008)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유지기간은 평균 13.2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의 경우 대체적으로 결혼관계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만족이 65.8%, 매우 만족이 28.4%로 불만족을 표현한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결혼유지기간(년)

구분	평균(년)
결혼유지기간	13.2

〈표 6-6〉 결혼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 비율
매우 불만족한다	0.4
약간 불만족한다	5.3
약간 만족한다	65.8
매우 만족한다	28.4
전체	100.0(3,958)

이어 전반적인 조사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를 알고 있고 잘 대해 준다’, 혹은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될 수 있으면 함께 보낸

다'의 응답에서 다소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 관련한 문항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발견되었다.

〈표 6-7〉 가족관계(N=3,958,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32.8	63.9	2.8	0.5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를 알고 있고 잘 대해준다	32.5	57.2	9.7	0.7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한다	35.5	55.9	7.8	0.7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과 제일 가깝게 지낸다	38.6	54.4	6.4	0.5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뛸 수 있으면 함께 보낸다	30.9	58.0	10.3	0.8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감을 느낀다	36.6	56.9	5.8	0.8
우리 가족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모두가 참석한다	32.3	58.8	8.2	0.7
우리 가족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잘 생각 해낸다	30.3	59.4	9.5	0.7
우리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족과 상의한다	32.5	61.2	5.6	0.8
우리 가족은 가족 간의 화목과 단합을 중시한다	30.1	64.8	4.5	0.6

이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알아보기 위해 친인척 관계망과 친구 관계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조사대상자의 친인척 네트워크의 경우 한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척이 3-4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2.0%), 도움을 청하거나 편하게 사적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인척은 2명 정도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친인척 네트워크

(단위: 명, %)

구분	없음	1명	2명	3-4명	5-8명	9명 이상	전체 (N)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척(가족)	4.5	8.0	28.8	42.0	13.7	3.0	100.0 (3,958)
도움을 청할 만큼 가깝게 여기는 친척(가족)	5.0	16.7	38.8	30.6	7.2	1.7	100.0 (3,958)
편하게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척(가족)	4.7	17.3	40.3	30.1	6.5	1.0	100.0 (3,958)

이어서 조사 대상자의 친구 네트워크 특징을 살펴보면 친인척 네트워크에 비해 친구 네트워크의 경우 ‘없음’을 응답한 비율이 다소 적었으며 빈도의 특징에 있어서는 친인척과 비슷한 정도의 패턴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5명 이상의 친구 네트워크의 빈도가 친인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표 6-9〉 친구 네트워크

(단위: 명, %)

구분	없음	1명	2명	3-4명	5-8명	9명 이상	전체 (N)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구	1.1	3.8	17.9	41.8	25.0	10.4	100.0 (3,958)
도움을 청할 만큼 가깝게 여기는 친구	3.2	11.7	36.9	38.4	7.3	2.5	100.0 (3,958)
편하게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1.1	11.7	38.3	36.9	10.0	2.0	100.0 (3,958)

다음은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배우자폭력 발생률에 대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CTS2와 통제 및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여 배우자폭력의 양상을 고찰하였는데,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와의 비교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배우자폭력을 정서폭력, 신체적 폭

력, 성폭력, 경제적 폭력을 포함하는 배우자폭력 유형과 여기에 통제를 포함한 유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폭력률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본 분석에서는 배우자폭력의 가해와 피해 모두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에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가해, 통제를 포함한 가해,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피해, 통제를 포함한 피해로 구분하여 발생률을 살펴보고 여기에 CTS2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상과 상해는 별도로 그 발생률을 고찰하며 전체 배우자 폭력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0〉 배우자폭력 발생률(N=3,945)

(단위: %)

구분	전체 배우자폭력률	배우자폭력률	유형별 폭력					추가 유형	
			정서	신체적 폭력	성폭력	경제적 통제	통제	협상	상해
가해 ¹⁾	27.5 ²⁾	21.8	18.1	5.4	4.3	3.1	-	81.6	5.4
피해 ³⁾		21.2	17.0	5.2	4.6	2.7	-	46.8	4.7
가해 ⁴⁾	46.5 ⁵⁾	39.4	18.1	5.4	4.3	3.1	32.2	81.6	5.4
피해 ⁶⁾		40.2	17.0	5.2	4.6	2.7	32.6	46.8	4.7

주: 1)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의 가해율.

2)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폭력 가해 및 피해의 총합을 바탕으로 산출한 전체 배우자폭력

3)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의 피해율.

4) 통제를 포함한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의 가해율.

5) 통제를 포함한 배우자폭력 가해 및 피해의 총합을 바탕으로 산출한 전체 배우자폭력률

6) 통제를 포함한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의 피해율.

조사 결과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폭력률(가해와 피해 모두 포함)은 27.5%로 나타났으며 통제를 포함하는 배우자폭력률은 이보다 높은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결과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폭력률은 14.1%, 통제를 포함한 배우자폭력률은 41.5%로 나타나 본 조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통제의 경우 2016년 전

국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유형에서는 본 조사에서 다소 높은 수준의 발생률이 분석되었다. 배우자폭력 응답에 따른 구체적인 빈도분석 결과를 다음 표에 제시되어있다.

〈표 6-11〉 배우자폭력 가해

(단위: 명, %)

구분	1년 에 1회	1년 에 2회	1년 에 3~ 5회	1년 에 6~ 10회	1년 에 11~ 20회	1년 에 21회 이상	없음	전체 (빈도)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7.9	5.9	2.7	0.7	0.1	0.2	82.4	100.0 (3,958)
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이나 몸을 때렸다	2.7	1.1	1.0	0.1	0.1	0.2	94.7	100.0 (3,958)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0.8	0.4	0.2	-	-	0.1	98.4	100.0 (3,958)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때린다고 협박하였다	1.8	1.0	0.3	0.0	0.1	0.1	96.7	100.0 (3,958)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0.7	1.1	0.8	0.3	0.0	0.2	96.9	100.0 (3,958)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신체적 힘은 사용하지 않음)	0.6	1.0	1.0	0.3	-	0.1	97.0	100.0 (3,958)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0.6	0.4	0.1	-	-	0.2	98.7	100.0 (3,958)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0.7	0.1	0.1	-	0.0	0.2	98.7	100.0 (3,958)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0.5	0.4	0.7	0.1	0.1	0.3	98.0	100.0 (3,958)

〈표 6-12〉 배우자폭력 피해

(단위: 명, %)

구분	1년 에 1회	1년 에 2회	1년 에 3~ 5회	1년 에 6~ 10회	1년 에 11~ 20회	1년 에 21회 이상	없음	전체 (빈도)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5.9	6.7	3.0	0.6	0.2	0.4	83.3	100.0 (3,958)
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 이나 몸을 때렸다	2.1	2.1	0.5	0.2	0.1	0.2	94.9	100.0 (3,958)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0.8	0.3	0.2	-	-	0.1	98.6	100.0 (3,958)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혹 은 때린다고 협박하였다	1.2	1.0	0.4	0.1	-	0.1	97.2	100.0 (3,958)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0.7	0.8	0.6	0.2	0.1	0.3	97.2	100.0 (3,958)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나 원하 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였다(신체적 힘은 사용하지 않음)	0.7	0.9	1.0	0.7	0.1	0.3	96.2	100.0 (3,958)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0.5	0.3	0.2	0.1	-	0.1	98.9	100.0 (3,958)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 로 처분하였다	0.5	0.2	-	-	0.1	0.1	99.2	100.0 (3,958)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0.5	0.5	0.6	0.2	0.1	0.1	97.9	100.0 (3,958)

〈표 6-13〉 부부 간 통제

(단위: 명, %)

구분	내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나에게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0.3	0.9	3,958	0.4	0.9	3,958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0.1	0.4	3,958	0.1	0.5	3,958
항상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0.6	1.2	3,958	0.6	1.2	3,958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0.4	1.0	3,958	0.3	0.9	3,958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0.2	0.7	3,958	0.2	0.7	3,958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의심하고 비난했다	0.1	0.4	3,958	0.1	0.5	3,958
병원에 가야 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했다	-	0.3	3,958	-	0.4	3,958

전체 배우자폭력 발생률 추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우자 유형으로 추가적으로 고찰한 협상과 상해의 결과를 살펴보면, 협상의 지난 일 년 간의 발생률은 ‘내가 배우자에게’ 해당하는 협상은 81.6%, ‘배우자가 나에게’ 하는 협상은 46.8%로 나타났으며 상해의 경우는 가해로 인해 배우자를 상해 입게 한 경우는 5.4%, 응답자가 배우자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표 6-14〉 배우자 협상

(단위: 명, %)

구분		1년 에 1회	1년 에 2회	1년 에 3~ 5회	1년 에 6~ 10회	1년 에 11~ 20회	1년 에 21회 이상	없음	전체 (빈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의견을 설명하거나, 협상안을 제안했다	내가 배우자 에게	7.0	19.2	27.6	15.8	3.1	5.3	22.0	100.0 (3,958)
	배우자 가 내게	5.8	20.6	26.2	14.8	2.9	4.5	25.4	100.0 (3,958)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내가 배우자 에게	3.0	9.2	20.6	17.3	5.5	7.5	36.8	100.0 (3,958)
	배우자 가 내게	3.0	10.8	16.8	15.3	4.4	6.7	43.1	100.0 (3,958)

〈표 6-15〉 배우자폭력 상해 가해

(단위: 명, %)

구분	1년 에 1회	1년 에 2회	1년 에 3~ 5회	1년 에 6~ 10회	1년 에 11~ 20회	1년 에 21회 이상	없음	전체 (빈도)
싸움으로 인해 피거나, 멍들거나, 베 이거나, 그 다음 날까지 아프게 했다	1.7	1.6	1.2	0.2	0.1	0.2	94.9	100.0 (3,958)
다툼 때문에 병원에 갔거나 혹은 병 원에 갈 필요가 있었다	0.4	0.1	0.1	0.0	0.0	0.2	99.1	100.0 (3,958)

〈표 6-16〉 배우자폭력 상해 피해

(단위: 명, %)

구분	1년 에 1회	1년 에 2회	1년 에 3~ 5회	1년 에 6~ 10회	1년 에 11~ 20회	1년 에 21회 이상	없음	전체 (빈도)
싸움으로 인해 삐거나, 멍들거나, 베이거나, 그 다음 날까지 아프게 했다	1.6	1.9	0.7	0.1	0.1	0.1	95.4	100.0 (3,958)
다툼 때문에 병원에 갔거나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다	0.3	0.1	0.1	-	-	0.1	99.4	100.0 (3,958)

배우자폭력률은 포함된 배우자폭력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발생률이 가능하다. 다음 기술분석에서는 배우자폭력률 산출의 엄격성을 위해 배우자폭력률 중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폭력경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조사 대상자의 주요 특성과 배우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우선, 배우자폭력 가해 행위의 경우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지역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임시, 일용근로자 혹은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3세 이상,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43세 미만 집단에 비해 배우자폭력 가해 발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있어 중소도시지역보다 대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배우자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7〉 응답자(가구) 특성별 배우자폭력 가해

(단위: 명, %)

구분		배우자폭력 가해 ¹⁾			X ²
		무	유	전체	
성별	남자	77.4	22.6	1,900	4.910
	여자	78.9	21.1	2,045	
연령	43세 미만	79.7	20.3	2,282	14.537 ***
	43세 이상	76.1	23.9	1,662	
경제활동 상태	상용근로자	80.1	19.9	1,958	54.479 ***
	임시/일용근로자	75.5	24.5	213	
	자영업/무급가족	71.9	28.0	747	
	비취업/기타	79.5	20.4	1,02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74.0	26.0	1,289	81.775 ***
	대학교(4년제 미만) 이하	74.7	25.3	1,393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86.2	13.8	1,262	
가구소득	소득 없음	77.5	22.5	423	24.027 **
	300만 원 미만	76.6	23.4	1200	
	300만~500만 원 미만	77.6	22.4	1,308	
	500만 원 이상	80.9	22.4	1,012	
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	77.1	22.8	103	1.463
	비수급	78.2	21.8	3,841	
지역	대도시	74.7	25.3	1,888	58.434 ***
	중소도시	82.6	17.4	1,539	
	농어촌	77.7	22.3	516	

주: 1) 통제를 제외한 배우자폭력 가해율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함.

*p<.05, ** p<.01, ***p<.001

다음은 배우자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성별,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국기초 수급여부, 지역에 있어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인 경우, 연령은 43세 이상에서, 경제활동의 경우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무급가족업 종사자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도시지역보다는 대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배우자폭력 피해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18〉 응답자(가구) 특성별 배우자폭력 피해

(단위: 명, %)

구분		배우자폭력 피해 ¹⁾			X ²
		무	유	전체	
성별	남자	79.7	20.3	1,900.	18.421 **
	여자	78.0	22.0	2,045	
연령	43세 미만	80.6	19.4	2,282	23.290 ***
	43세 이상	76.4	23.6	1,663	
경제활동 상태	상용근로자	81.1	18.9	1,958	40.977 ***
	임시/일용근로자	69.9	30.1	214	
	자영업/무급가족	76.5	23.5	748	
	비취업/기타	78.0	22.0	1,026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74.3	25.7	1,289	86.957 ***
	대학교(4년제 미만) 이하	76.2	23.8	1,393	
	대학교(4년제 이상) 이상	86.2	13.8	1,263	
가구소득	소득 없음	78.4	21.6	424	16.424 *
	300만 원 미만	78.0	22.0	1,200	
	300만~500만 원 미만	78.9	21.1	1,308	
	500만 원 이상	79.8	20.2	1,013	
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	68.1	31.9	104	15.191 **
	비수급	79.1	20.9	3,841	
지역	대도시	75.5	24.5	1,999	73.501 ***
	중소도시	84.4	15.6	1,540	
	농어촌	74.3	25.7	516	

주: 1) 통제를 제외한 배우자폭력 피해 발생률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p<.05, ** p<.01, ***p<.001

다음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현재의 배우자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부정적 경험) 횟수에 따라 배우자 폭력 가해 및 피해율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동기에 부정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부정적 경험의 7점 이상 집단의 경우 배우자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가해율을 살펴보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0점인 집단의 경우 배우자폭력 가해는 4.6%이었지만, 7점 이상인 집단에서는 배우자폭력 가해율이 61.2%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율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0점인 경우 3.5%의 피해율을 보여준 반면, 7점 이상의 경우 62.8%의 높은 피해율을 보고하여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배우자폭력 가해 및 폭력 경험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들이 성인기 배우자폭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관련성은 후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검증하고자 한다.

〈표 6-19〉 아동기 폭력경험과 배우자폭력

(단위: 명, %)

구분	배우자폭력 가해			배우자폭력 피해		
아동기 학대경험 점수	무	유	전체	무	유	전체
0점	95.4	4.6	834.0	96.4	3.5	834.0
1점	90.6	9.4	605.0	91.3	8.7	605.0
2점	83.6	16.4	427.4	86.2	13.8	427.4
3점	80.9	19.1	457.7	79.2	20.8	457.7
4점	77.9	22.1	515.7	80.4	19.6	515.7
5점	67.9	32.1	488.1	67.7	32.3	488.1
6점	51.8	48.2	305.6	52.3	47.6	305.6
7점 이상	38.8	61.2	311.3	37.1	62.8	311.3
전체	3,084	861	3,945	3,109	836	3,945

다음은 청년기 및 성인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피해경험(군대 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과 배우자폭력과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성인기 폭력경험의 유형이나 형태(피해, 가해)에 관계없이 폭력을 경험한 경우 배우자폭력의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의 경험이 한 유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폭력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그중에서도 데이트폭력의 경우 데이트폭력의 가해를 경험한 경우 배우자폭력에 있어 가해행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68.9%로 나타났으나 배우자폭력경험에 있어 데이트폭력의 경험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 6-20〉 아동기 이후 폭력경험과 배우자폭력

(단위: 명, %)

배우자 폭력	군대폭력 ¹⁾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피해 무	90.7	9.3	90.3	9.7	81.2	18.8	80.6	19.4	85.4	14.6	83.8	16.2
피해 유	72.7	27.3	67.4	32.6	38.5	61.4	44.8	55.2	58.5	41.5	49.0	51.0
가해 무	87.0	13.0	87.8	12.2	80.2	19.8	80.7	19.3	85.4	14.6	83.7	16.3
가해 유	71.2	28.8	66.4	33.6	43.0	57.0	31.1	68.9	55.9	44.1	45.4	54.6
전체	1,779				3,958				3,958			

주: 1) 군대폭력의 경우 남성에 한해서 분석을 실시함.

조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과 배우자폭력률, 그리고 주요 특성과 배우자폭력의 관계 및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의 폭력경험과 현재의 배우자폭력 간의 관계 등을 기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재 배우자폭력의 가해 및 피해 행위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에 경험한 폭력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의 폭력경험이 어떠한 식으로 현재 배우자폭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주요 인구학적 변수들과 함께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2. 배우자폭력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관계성 분석 결과

배우자폭력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의 배우자폭력의 가해, 그리고 피해와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폭력 노출과 같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성인기의 가해행동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기존 연구뿐 아니라 본 장의 기술분석에서도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의 배우자폭력 가해의 관계, 그리고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의 배우자폭력 피해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배우자폭력 가해행위에 있어 이전 경험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세부 분석을 진행하였다.

-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의 폭력경험과 현재 배우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ACE를 바탕으로 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 배우자폭력 가해행위 유형별 관련성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둘째, 배우자폭력 피해행위에 있어 이전 경험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세부 분석을 진행하였다.

-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의 폭력경험과 현재 배우자폭력 피해행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ACE를 바탕으로 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 배우자폭력 피해행위 유형별 관련성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

배우자폭력 가해행위를 이해함에 있어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의 폭력 피해경험이 어떠한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포함한 모델 1과 주요 인구학적 특성 및 통제변수와 청년/성인기의 폭력피해경험을 포함한 모델 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청년/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포함한 모델 3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해행위를 통제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년/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현재의 통제를 포함한, 그리고 포함하지 않은 배우자폭력 가해행위에 있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모델 1과 2를 통해 검증되었다. 그러나 배우자폭력 이전의 경험을 모두(아동기 및 청년/성인기) 포함한 경우 통제를 제외한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만이 유의미성이 검증되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배우자폭력 가해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통제를 포함한 가해행위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청년/성인기 폭력경험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폭력의 맥락이나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6-2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제외 전체 배우자폭력 가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Pr > ChiSq	OR	Pr > ChiSq	OR	Pr > ChiSq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9	.00			1.37	.00
청년/성인기 폭력피해경험			2.44	.00	1.36	.20
성별	1.00	.98	.60	.02	.90	.67
연령	.79	.17	.86	.33	.79	.16
아동 수	1.08	.54	1.08	.52	1.09	.52
교육수준	.78	.02	.81	.05	.78	.02
균등화 가구소득	.91	.18	.89	.09	.91	.18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9	.85	.99	.52	.99	.9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63	.09	.84	.48	.64	.10
자영업	1.46	.09	1.60	.02	1.45	.09
무직 기타	.83	.39	.86	.48	.83	.139
지역						
중소도시	.94	.75	.83	.28	.95	.80
농촌(대도시비교)	1.15	.58	.99	.98	1.15	.60
주관적 건강상태	1.36	.13	1.22	.33	1.35	.15
양육스트레스	1.22	.00	1.26	.00	1.21	.00
가족관계	.91	.01	.89	.00	.92	.01
우울도	1.05	.00	1.07	.00	1.05	.00
자존감	.94	.02	.95	.02	.94	.01
음주	1.07	.76	1.17	.47	1.05	.83
삶의 만족도	.67	.03	.74	.08	.68	.04
사회적 지지	.97	.21	.97	.12	.97	.21
사회적 바람직성	1.04	.29	1.02	.51	1.04	.329
log-likelihood	-1560.03		-1664.35		-1551.57	
N	3,929		3,929		3,929	

〈표 6-2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포함 전체 배우자폭력 가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Pr > ChiSq	OR	Pr > ChiSq	OR	Pr > ChiSq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1	.00			1.38	.00
청년/성인기 폭력피해경험			2.88	.00	1.68	.01
성별	1.55	.02	.80	.23	1.23	.03
연령	.69	.01	.74	.03	.69	.01
아동 수	.93	.50	.93	.50	.93	.53
교육수준	.89	.23	.92	.36	.89	.22
균등화 가구소득	.96	.43	.95	.26	.96	.41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52	1.00	.63	1.00	.49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63	.08	.82	.44	.65	.10
자영업	1.08	.69	1.21	.31	1.05	.80
무직 기타	.71	.08	.73	.08	.71	.07
지역						
중소도시	.91	.52	.76	.05	.92	.58
농촌(대도시비교)	.81	.39	.71	.15	.80	.35
주관적 건강상태	1.00	.99	.90	.52	.98	.91
양육스트레스	1.20	.00	1.25	.00	1.20	.00
가족관계	.93	.03	.91	.00	.93	.04
우울도	1.04	.01	1.07	.00	1.04	.02
자존감	.94	.00	.95	.00	.94	.00
음주	1.18	.48	1.33	.18	1.13	.59
삶의 만족도	.80	.22	.86	.42	.81	.25
사회적 지지	.99	.57	.98	.41	.99	.57
사회적 바람직성	1.09	.00	1.07	.02	1.09	.00
log-likelihood	-2040.12		-2180.44		-2031.26	
N	3,929		3,929		3,929	

위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피해경험은 현재의 배우자폭력 가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에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기 배우자폭력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폭력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배우자폭력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어떠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유형의 배우자폭력 가해행위가 순서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발달과정 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력경험 중 본 연구의 핵심 요인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유형 중 협상과의 관계

배우자폭력 유형 중 협상과 관련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협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성별의 경우 여성이 협상의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균등화 가구소득, 지역, 양육스트레스, 우울도, 자존감,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6-2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협상 (negotiation)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83	.00	.02
성별(여성=1)	.76	.07	.11
연령	1.07	.58	.13
아동 수	.92	.37	.08
교육수준	.98	.78	.07
균등화 가구소득	.79	.00	.03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9	.15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88	.66	.26
자영업	1.08	.59	.17
무직 기타	1.27	.15	.20
지역			
중소도시	.60	.00	.08
농촌(대도시비교)	.52	.00	.10
주관적 건강상태	.89	.43	.13
양육스트레스	.93	.00	.02
가족관계	.99	.84	.04
우울도	1.08	.00	.02
자존감	.92	.00	.02
음주	.86	.46	.17
삶의 만족도	1.69	.00	.26
사회적 지지	.98	.15	.01
사회적 바람직성	.98	.50	.02
log-likelihood	-2347.75		
N	3,929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 결과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이 밖에, 균등화 가구소득, 우울,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주요 유의미한 독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균등화소득,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 우울 등이 주요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6-2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협상 (negotiation)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82	.00	.03	.84	.00	.31
연령	1.17	.36	.20	.93	.66	.15
아동 수	.99	.94	.13	.85	.19	.10
교육수준	1.07	.55	.12	.92	.41	.09
균등화 가구소득	.78	.00	.05	.79	.00	.05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71	.00	.98	.02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16	.75	.55	.57	.07	.17
자영업	1.34	.11	.25	.69	.15	.18
무직 기타	.30	.04	.17	1.12	.53	.20
지역						
중소도시	.75	.12	.14	.47	.00	.08
농촌(대도시비교)	.53	.03	.15	.50	.13	.14
주관적 건강상태	.75	.13	.14	.97	.90	.20
양육스트레스	.93	.02	.03	.93	.00	.02
가족관계	1.01	.89	.04	.98	.70	.06
우울도	1.05	.01	.02	1.10	.00	.02
자존감	.88	.00	.02	.97	.24	.02
음주	.83	.29	.15	.81	.80	.93
삶의 만족도	2.25	.00	.49	1.28	.17	.23
사회적 지지	.98	.47	.02	.97	.10	.02
사회적 바람직성	.98	.62	.03	.97	.45	.03
log-likelihood	-1110.45			-1206.35		
N	1,897			2,032		

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유형 중 정서적 폭력과의 관계

다음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정서적 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정서적 폭력 가해행동에 있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즉,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 폭력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존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정서적 폭력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정서적 폭력 (psychological violence)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3	.00	.05
성별(여성=1)	.97	.89	.22
연령	.89	.52	.16
아동 수	1.08	.54	.15
교육수준	.80	.05	.09
균등화 가구소득	.87	.07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79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77	.37	.23
자영업	1.51	.07	.34
무직 기타	1.15	.55	.27
지역			
중소도시	.91	.64	.18
농촌(대도시비교)	1.40	.24	.39
주관적 건강상태	1.06	.80	.24
양육스트레스	1.17	.00	.03
가족관계	.93	.03	.03
우울도	1.04	.05	.02
자존감	.94	.03	.03
음주	.67	.08	.35
삶의 만족도	.55	.00	.11
사회적 지지	.98	.55	.02
사회적 바람직성	1.01	.64	.03
log-likelihood	-1391.03		
N	3,929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정서적 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남성의 경우 그 밖에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p < .01$). 여성의 경우 이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균등화 가구소득, 그리고 우울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정서적 폭력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2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 (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정서적 폭력(psychological violence)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3	.00	.06	1.56	.00	.07
연령	1.03	.90	.26	.72	.113	.15
아동 수	1.04	.80	.17	1.02	.91	.20
교육수준	.79	.13	.12	.83	.24	.13
균등화 가구소득	.99	.94	.09	.71	.00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76	.00	1.00	.99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46	.10	.22	.74	.45	.29
자영업	1.70	.06	.49	1.09	.84	.34
무직 기타	1.82	.37	1.22	1.03	.91	.26
지역						
중소도시	.78	.35	.21	.96	.93	.25
농촌(대도시비교)	.89	.77	.35	2.25	.04	.94
주관적 건강상태	1.36	.30	.40	.82	.53	.25
양육스트레스	1.23	.00	.04	1.12	.00	.05
가족관계	.93	.12	.04	.92	.09	.04
우울도	1.01	.81	.03	1.07	.00	.03
자존감	.91	.01	.03	.98	.68	.04
음주	1.55	.06	.36	1.71	.40	1.07
삶의 만족도	.67	.19	.20	.38	.00	.10
사회적 지지	.96	.17	.03	.99	.91	.02
사회적 바람직성	.98	.75	.05	1.03	.46	.05
log-likelihood	-684.82			-665.37		
N	1,897			2,032		

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유형 중 신체적 폭력과의 관계

다음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신체적 폭력과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등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낮고, 문제음주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배우자폭력 중 신체적 폭력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결과 나타났다.

〈표 6-2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신체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신체적 폭력 (physical violence)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3	.00	.06
성별(여성=1)	1.57	.08	.40
연령	.80	.28	.16
아동 수	.83	.40	.18
교육수준	.88	.44	.14
균등화 가구소득	.70	.00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9	.62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14	.71	.42
자영업	.93	.78	.22
무직 기타	.92	.79	.28
지역			
중소도시	.82	.48	.23
농촌(대도시비교)	.53	.10	.20
주관적 건강상태	.74	.13	.15
양육스트레스	1.26	.00	.05
가족관계	.85	.00	.03
우울도	1.02	.28	.02
자존감	1.05	.25	.05
음주	2.14	.00	.56
삶의 만족도	.53	.00	.11
사회적 지지	.93	.00	.02
사회적 바람직성	1.04	.40	.05
log-likelihood	-602.13		
N	3,929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신체적 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으며 남녀 모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가 긍정적이면 신체적 폭력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6-2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
(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신체적 폭력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3	.00	.07	1.46	.00	.10
연령	.73	.29	.22	.98	.93	.29
아동 수	.74	.19	.17	.93	.79	.26
교육수준	.78	.18	.15	.97	.90	.20
균등화 가구소득	.70	.01	.09	.71	.02	.10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9	.23	.01	1.00	.96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64	.43	1.02	.77	.55	.34
자영업	.87	.63	.25	.83	.63	.33
무직 기타	1.55	.69	1.69	.80	.47	.25
지역						
중소도시	.77	.48	.29	.93	.85	.35
농촌(대도시비교)	.31	.06	.19	.85	.76	.44
주관적 건강상태	.61	.12	.19	.89	.70	.27
양육스트레스	1.31	.00	.07	1.20	.00	.07
가족관계	.86	.00	.05	.83	.00	.05
우울도	.99	.76	.04	1.03	.28	.03
자존감	.97	.47	.04	1.14	.03	.07
음주	2.18	.01	.68	2.93	.05	1.60
삶의 만족도	.58	.07	.17	.46	.01	.14
사회적 지지	.92	.01	.03	.93	.03	.03
사회적 바람직성	1.00	.95	.06	1.09	.23	.08
log-likelihood	-252.58			-334.89		
N	1,897			2,032		

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상해(injury)와의 관계

다음은 배우자폭력 중 상해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높을수록 배우자폭력에 있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부정적이고 문제음주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상해 (injury)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0	.00	.05
성별(여성=1)	1.31	.21	.29
연령	.77	.14	.14
아동 수	.98	.92	.19
교육수준	.95	.71	.13
균등화 가구소득	.72	.00	.06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97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55	.16	.23
자영업	1.30	.22	.28
무직 기타	.79	.43	.23
지역			
중소도시	.54	.04	.16
농촌(대도시비교)	.62	.15	.21
주관적 건강상태	.91	.57	.16
양육스트레스	1.19	.00	.04
가족관계	.90	.01	.04
우울도	1.05	.02	.02
자존감	1.02	.65	.05
음주	1.83	.00	.43
삶의 만족도	.52	.00	.11
사회적 지지	.96	.11	.02
사회적 바람직성	1.05	.29	.05
log-likelihood	-672.25		
N	3,929		

상해 관련 배우자폭력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성별에 따라 그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현재 배우자폭력 상해 가해행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이 밖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해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배우자 상해행위를 적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여성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함께 소득, 양육스트레스가 주요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6-3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상해(injury)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17	.00	.64	1.27	.00	.07
연령	.77	.30	.20	.92	.76	.25
아동 수	.83	.34	.16	1.05	.84	.28
교육수준	.66	.01	.11	1.29	.13	.22
균등화 가구소득	.89	.24	.09	.61	.00	.09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9	.90	.00	1.00	.93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24	.04	.17	.72	.51	.36
자영업	.98	.96	.27	1.53	.25	.56
무직 기타	.72	.74	.71	.90	.72	.27
지역						
중소도시	.26	.00	.10	.88	.73	.33
농촌(대도시비교)	.25	.01	.14	1.27	.59	.56
주관적 건강상태	.83	.39	.22	.94	.81	.24
양육스트레스	1.20	.00	.06	1.17	.00	.05
가족관계	.93	.15	.05	.86	.01	.05
우울도	1.04	.19	.03	1.04	.30	.07
자존감	.98	.67	.04	1.07	.30	.07
음주	1.63	.06	.43	3.18	.02	1.62
삶의 만족도	.47	.02	.15	.54	.05	.17
사회적 지지	.94	.06	.03	.98	.53	.03
사회적 바람직성	1.02	.70	.06	1.07	.29	.07
log-likelihood	-302.09			-350.06		
N	1,896			2,032		

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성적 폭력과의 관계

다음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성적 폭력 가해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높을수록 성적 폭력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주관적 건강상태, 양육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성적 폭력 가해행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1	.00	.07
성별(여성=1)	.57	.02	.14
연령	.91	.69	.21
아동 수	1.42	.13	.33
교육수준	.98	.89	.16
균등화 가구소득	.79	.01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76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50	.20	.27
자영업	1.08	.77	.31
무직 기타	1.59	.19	.55
지역			
중소도시	.40	.02	.16
농촌(대도시비교)	.83	.59	.28
주관적 건강상태	2.25	.00	.48
양육스트레스	1.18	.00	.05
가족관계	.93	.11	.04
우울도	1.11	.00	.03
자존감	1.07	.27	.06
음주	.87	.67	.27
삶의 만족도	.76	.22	.17
사회적 지지	.90	.00	.02
사회적 바람직성	.96	.41	.05
log-likelihood	-501.98		
N	3,929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배우자폭력 가해행위와 동일하게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성적 폭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성적 폭력 가해행위를 보여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남성에 비해 성적 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도가 높을수록 성적 폭력 가해행위를 보여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7	.00	.10	1.40	.00	.11
연령	1.14	.75	.32	.98	.95	.33
아동 수	1.02	.93	.23	1.72	.06	.50
교육수준	.72	.06	.13	1.32	.23	.31
균등화 가구소득	.89	.31	.10	.70	.00	.09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61	.00	1.01	.28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26	.05	.18	.69	.61	.50
자영업	.86	.66	.30	.85	.76	.44
무직 기타	1.93	.44	1.63	1.64	.11	.50
지역						
중소도시	.11	.00	.05	1.06	.89	.45
농촌(대도시비교)	.26	.00	.11	3.65	.01	1.80
주관적 건강상태	2.92	.00	.85	1.43	.28	.47
양육스트레스	1.17	.00	.06	1.20	.01	.07
가족관계	.94	.27	.05	.87	.10	.07
우울도	1.06	.03	.03	1.16	.00	.04
자존감	1.02	.51	.04	1.12	.13	.09
음주	.77	.45	.26	1.55	.59	1.26
삶의 만족도	.70	.24	.21	.88	.73	.32
사회적 지지	.90	.00	.03	.88	.00	.03
사회적 바람직성	.88	.02	.05	1.03	.66	.08
log-likelihood	-252.17			-221.10		
N	1,897			2,032		

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경제적 폭력과의 관계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경제적 폭력과 통제행위를 살펴보았다. 그중 경제적 폭력 가해행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과는 달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분석되지 않았으며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관계가 경제적 폭력 가해행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경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경제적 폭력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98	.78	.05
성별(여성=1)	1.23	.59	.50
연령	.83	.51	.23
아동 수	1.28	.34	.33
교육수준	.87	.58	.21
균등화 가구소득	1.07	.44	.11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1	.32	.01
경제적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67	.29	.82
자영업	2.28	.04	.93
무직 기타	1.02	.95	.41
지역			
중소도시	1.70	.09	.53
농촌(대도시비교)	.32	.08	.21
주관적 건강상태	1.53	.25	.57
양육스트레스	1.22	.00	.06
가족관계	.86	.00	.05
우울도	1.05	.11	.04
자존감	1.05	.44	.07
음주	.92	.85	.42
삶의 만족도	.54	.08	.18
사회적 지지	.98	.60	.03
사회적 바람직성	1.23	.00	.09
log-likelihood	-473.00		
N	3,929		

경제적 폭력의 가해행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경제적 폭력 가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여성의 경우 자영업인 경우와 삶의 만족도가 경제적 폭력 가해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경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경제적 폭력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01	.88	.07	.96	.66	.08
연령	.99	.97	.36	.84	.66	.33
아동 수	1.06	.82	.29	1.59	.13	.49
교육수준	.68	.12	.17	1.00	.99	.37
균등화 가구소득	1.02	.90	.19	1.03	.80	.13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84	.01	1.02	.05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90	.34	1.29	1.79	.39	1.20
자영업	.87	.78	.42	5.24	.00	2.99
무직 기타	3.65	.20	.3.71	1.26	.59	.55
지역						
중소도시	1.50	.25	.53	2.18	.08	.97
농촌(대도시비교)	.29	.18	.27	.67	.64	.59
주관적 건강상태	1.17	.62	.37	2.09	.26	1.37
양육스트레스	1.28	.00	.08	1.17	.02	.07
가족관계	.96	.52	.06	.81	.01	.07
우울도	1.06	.14	.04	1.04	.46	.06
자존감	.95	.46	.06	1.12	.17	.09
음주	.91	.83	.40	1.40	.73	1.35
삶의 만족도	.96	.94	.58	.34	.00	.14
사회적 지지	1.02	.42	.03	1.20	.35	.04
사회적 바람직성	1.26	.02	.12	1.21	.07	.13
log-likelihood	-196.40			-254.11		
N	1,897			2,032		

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통제행위와의 관계

다음은 통제행위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통제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통제행위를 보여 줄 가능성이 높았다($p < .01$).

〈표 6-3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통제행위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통제행위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5	.00	.04
성별(여성=1)	1.76	.00	.32
연령	.76	.05	.11
아동 수	.90	.39	.11
교육수준	.98	.85	.09
균등화 가구소득	1.01	.84	.05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36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79	.38	.21
자영업	.93	.69	.18
무직 기타	.68	.04	.13
지역			
중소도시	.94	.66	.14
농촌(대도시비교)	.63	.08	.16
주관적 건강상태	1.15	.45	.21
양육스트레스	1.16	.00	.03
가족관계	.94	.04	.03
우울도	1.04	.03	.02
자존감	.95	.01	.02
음주	1.11	.64	.25
삶의 만족도	.96	.81	.16
사회적 지지	.99	.76	.02
사회적 바람직성	1.08	.00	.03
log-likelihood	-2018.78		
N	3,929		

성별에 따른 통제행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 남성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함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통제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인 경우는 대도시에 비해 통제행위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통제행위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통제행위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5	.00	.05	1.50	.00	.06
연령	.93	.73	.20	.64	.02	.12
아동 수	1.05	.79	.18	.74	.04	.10
교육수준	1.03	.79	.13	.95	.72	.12
균등화 가구소득	1.00	.98	.07	1.00	.99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1	.13	.01	.99	.48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64	.29	.27	.81	.58	.30
자영업	1.04	.84	.23	.93	.84	.32
무직 기타	.80	.76	.57	.73	.16	.16
지역						
중소도시	.96	.86	.21	.93	.69	.18
농촌(대도시비교)	.39	.01	.14	.88	.71	.31
주관적 건강상태	.88	.65	.24	1.35	.17	.30
양육스트레스	1.23	.00	.04	1.12	.00	.03
가족관계	.93	.08	.04	.98	.66	.03
우울도	1.03	.08	.02	1.03	.13	.02
자존감	.97	.31	.03	.94	.02	.02
음주	.98	.94	.21	4.81	.02	3.33
삶의 만족도	1.20	.39	.26	.79	.31	.18
사회적 지지	.98	.46	.02	1.00	.89	.02
사회적 바람직성	1.03	.06	.04	1.08	.05	.04
log-likelihood	-929.14			-1046.16		
N	1,897			2,032		

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

다음으로 배우자폭력 이전 폭력경험과 현재의 배우자폭력 피해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배우자폭력 피해 전체에 대한 결과를 먼저 분석하였으며 그 후 피해 유형별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의 관계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배우자폭력 피해경험은 통제를 포함한 피해경험과 그렇지 않은 피해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해경험과 동일하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년/성인기 폭력경험 분석 모델에 포함 여부에 따라 모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동기 및 청년/성인기의 폭력경험은 현재 배우자폭력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배우자폭력에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통제를 포함한 피해경험과 통제를 포함하지 않은 피해경험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3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제외 전체 배우자폭력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Pr > ChiSq	OR	Pr > ChiSq	OR	Pr > ChiSq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3	.00			1.36	.00
청년/성인기 폭력 피해경험			6.52	.00	2.49	.00
성별	1.33	.15	1.54	.02	1.57	.02
연령	.89	.47	.98	.91	.90	.51
아동 수	.87	.27	.90	.41	.90	.37
교육수준	.84	.10	.85	.12	.83	.09
균등화 가구소득	.94	.30	.95	.39	.95	.42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	.82	.99	.59	.99	.9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96	.88	1.15	.59	.96	.89
자영업	1.13	.59	1.25	.32	1.12	.60
무직 기타	.96	.87	1.03	.87	.98	.92
지역						
중소도시	.79	.25	.77	.15	.83	.34
농촌(대도시비교)	1.56	.06	1.34	.22	1.56	.07
주관적 건강상태	1.32	.17	1.18	.43	1.29	.22
양육스트레스	1.24	.00	1.27	.00	1.23	.00
가족관계	.92	.03	.91	.00	.93	.04
우울도	1.05	.00	1.08	.00	1.05	.00
자존감	.96	.18	.98	.12	.97	.24
음주	1.59	.05	1.84	.02	1.61	.04
삶의 만족도	.65	.03	.76	.12	.68	.04
사회적 지지	.96	.04	.95	.02	.96	.03
사회적 바람직성	.99	.99	.98	.58	.99	.89
log-likelihood	-1474.08		-1544.75		-1460.85	
N	3,929		3,929		3,929	

〈표 6-3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전체 통제 포함 전체 배우자폭력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OR	Pr > ChiSq	OR	Pr > ChiSq	OR	Pr > ChiSq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7	.00			1.30	.00
청년/성인기 폭력 피해경험			6.37	.00	2.63	.00
성별	1.15	.44	1.40	.06	1.36	.10
연령	.84	.27	.91	.51	.85	.29
아동 수	.84	.14	.87	.21	.85	.18
교육수준	.95	.58	.95	.60	.94	.53
균등화 가구소득	.99	.91	1.00	.98	1.00	.9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35	1.01	.39	1.01	.3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86	.63	.99	.97	.86	.60
자영업	.83	.35	.95	.80	.83	.35
무직 기타	.83	.39	.85	.43	.83	.40
지역						
중소도시	.82	.21	.74	.06	.84	.28
농촌(대도시비교)	.95	.82	.86	.53	.94	.81
주관적 건강상태	1.04	.85	.94	.77	1.01	.97
양육스트레스	1.23	.00	1.25	.00	1.22	.00
가족관계	.92	.00	.91	.00	.92	.01
우울도	1.03	.10	1.04	.01	1.03	.14
자존감	.97	.12	.97	.20	.97	.16
음주	1.44	.09	1.66	.02	1.45	.10
삶의 만족도	.76	.11	.83	.28	.78	.17
사회적 지지	1.00	.84	.99	.90	1.00	.88
사회적 바람직성	1.05	.00	1.03	.28	1.05	.09
log-likelihood	-2089.32		-2162.56		-2071.12	
N	3,929		3,929		3,929	

배우자폭력의 가해행위에서와 동일하게 배우자폭력 피해 유형에 따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관련성이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일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협상 피해경험과의 관계

우선, 배우자폭력에 있어 협상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가구소득, 우울, 자존감이 협상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3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협상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0	.00	.03
성별(여성=1)	1.04	.80	.16
연령	1.00	.97	.13
아동 수	1.11	.28	.11
교육수준	.97	.69	.08
균등화 가구소득	1.22	.00	.05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16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28	.36	.35
자영업	.74	.08	.12
무직 기타	.96	.85	.17
지역			
중소도시	1.43	.01	.19
농촌(대도시비교)	1.60	.02	.33
주관적 건강상태	1.39	.03	.21
양육스트레스	1.05	.02	.02
가족관계	1.01	.69	.04
우울도	.91	.00	.02
자존감	1.10	.00	.02
음주	1.19	.40	.17
삶의 만족도	.69	.02	.11
사회적 지지	.99	.44	.01
사회적 바람직성	1.01	.61	.03
log-likelihood	-2422.08		
N	3,929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함께 가구소득, 자존감이 협상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p < .01$). 여성의 경우 남성과 동일하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협상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변수였으며, 이 밖에 우울 등이 협상 피해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협상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협상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2	.00	.05	1.18	.00	.05
연령	.87	.42	.15	1.33	.11	.24
아동 수	.98	.87	.14	1.28	.06	.17
교육수준	.89	.29	.10	1.08	.48	.11
균등화 가구소득	1.24	.00	.07	1.21	.00	.08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50	.00	1.01	.09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82	.67	.38	1.97	.03	.62
자영업	.63	.02	.13	.99	.99	.28
무직 기타	3.30	.03	1.85	1.07	.72	.21
지역						
중소도시	1.25	.19	.22	1.61	.01	.30
농촌(대도시비교)	1.43	.19	.40	1.87	.04	.56
주관적 건강상태	1.62	.01	.31	1.16	.47	.25
양육스트레스	1.04	.14	.03	1.05	.09	.03
가족관계	1.01	.75	.04	1.03	.62	.06
우울도	.94	.02	.00	.87	.00	.02
자존감	1.15	.00	.03	1.04	.11	.02
음주	.79	.21	.15	1.40	.70	1.23
삶의 만족도	.70	.11	.15	.69	.08	.15
사회적 지지	.98	.41	.02	.99	.70	.02
사회적 바람직성	1.00	.87	.04	1.03	.43	.04
log-likelihood	-1129.33			-1258.23		
N	1,897			2,032		

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

다음은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 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인 경우 정서적 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4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정서적 폭력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6	.00	.05
성별(여성=1)	1.08	.68	.21
연령	.97	.88	.17
아동 수	.82	.14	.11
교육수준	.77	.02	.08
균등화 가구소득	.98	.77	.06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73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06	.83	.30
자영업	1.10	.65	.25
무직 기타	1.11	.64	.26
지역			
중소도시	.76	.19	.16
농촌(대도시비교)	1.07	.77	.25
주관적 건강상태	1.05	.83	.22
양육스트레스	1.20	.00	.03
가족관계	.93	.05	.03
우울도	1.06	.01	.02
자존감	.98	.48	.03
음주	1.82	.00	.40
삶의 만족도	.63	.03	.13
사회적 지지	.96	.07	.02
사회적 바람직성	.97	.46	.04
log-likelihood	-1301.81		
N	3,929		

이를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이에 더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있을수록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1$).

〈표 6-4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정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정서적 폭력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1	.00	.07	1.52	.00	.07
연령	1.12	.64	.28	.81	.36	.18
아동 수	.71	.05	.12	.84	.38	.16
교육수준	.90	.55	.16	.63	.00	.10
균등화 가구소득	1.12	.11	.08	.85	.03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98	.00	1.00	.50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59	.32	.31	1.11	.75	.36
자영업	1.25	.44	.36	.93	.79	.30
무직 기타	.83	.81	.66	1.06	.79	.27
지역						
중소도시	.65	.12	.18	.84	.54	.23
농촌(대도시비교)	.68	.24	.22	1.77	.09	.61
주관적 건강상태	1.45	.16	.38	.86	.58	.23
양육스트레스	1.22	.00	.04	1.19	.00	.04
가족관계	.90	.01	.04	.94	.15	.04
우울도	1.05	.10	.03	1.07	.01	.03
자존감	.93	.03	.03	1.02	.57	.04
음주	2.34	.00	.50	.68	.44	.34
삶의 만족도	.77	.42	.25	.47	.00	.11
사회적 지지	.94	.02	.02	.97	.33	.03
사회적 바람직성	.93	.17	.05	1.01	.76	.05
log-likelihood	-599.31			-665.05		
N	1,897			1,032		

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

다음은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나타났다($p<.01$).

〈표 6-43〉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신체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신체적 폭력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47	.00	.07
성별(여성=1)	1.67	.04	.42
연령	.77	.25	.17
아동 수	.75	.19	.16
교육수준	.96	.79	.13
균등화 가구소득	.89	.21	.08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1	.10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96	.91	.26
자영업	.97	.97	.27
무직 기타	.96	.89	.29
지역			
중소도시	.99	.98	.29
농촌(대도시비교)	1.27	.53	.49
주관적 건강상태	.87	.48	.17
양육스트레스	1.14	.00	.05
가족관계	.87	.00	.04
우울도	1.05	.04	.02
자존감	1.14	.00	.05
음주	3.23	.00	.96
삶의 만족도	.58	.01	.12
사회적 지지	.93	.71	.05
사회적 바람직성	1.02	.71	.05
log-likelihood	-606.268		
N	3,929		

다음은 성별에 따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높을수록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 밖에 아동 수, 양육스트레스, 문제음주가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되었다($p<.01$). 여성의 경우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피해 위험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4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 결정 모형 로짓 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56	.00	.12	1.42	.00	.08
연령	.98	.96	.31	.62	.11	.18
아동 수	.48	.00	.12	.97	.92	.26
교육수준	.69	.04	.13	1.13	.52	.22
균등화 가구소득	1.05	.63	.11	.74	.02	.10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17	.00	1.01	.01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29	.68	.81	.73	.50	.35
자영업	.46	.03	.16	1.89	.10	.74
무직 기타	1.11	.91	1.08	1.01	.97	.31
지역						
중소도시	.99	.98	.37	.91	.80	.35
농촌(대도시비교)	.85	.77	.49	1.84	.20	.88
주관적 건강상태	.84	.59	.27	.93	.80	.26
양육스트레스	1.20	.00	.07	1.11	.03	.06
가족관계	.93	.27	.06	.80	.00	.05
우울도	1.06	.08	.04	1.03	.37	.03
자존감	1.12	.02	.06	1.15	.02	.08
음주	3.04	.00	.98	3.87	.01	2.11
삶의 만족도	.74	.35	.23	.46	.01	.14
사회적 지지	.93	.07	.03	.95	.14	.03
사회적 바람직성	1.02	.66	.06	1.04	.54	.07
log-likelihood	-263.49			-318.71		
N	1,897			2,032		

4)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상해 피해경험과의 관계

다음으로 배우자폭력으로 인한 상해 피해경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상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이 낮은 경우도 상해 피해를 예측했다. 이 밖에 양육스트레스, 우울, 문제적 음주, 삶의 만족도가 상해 피해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4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상해폭력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2	.00	.05
성별(여성=1)	1.66	.04	.40
연령	.83	.37	.17
아동 수	.88	.55	.19
교육수준	.97	.82	.14
균등화 가구소득	.74	.00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19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75	.51	.32
자영업	.99	.97	.24
무직 기타	.86	.62	.26
지역			
중소도시	.74	.32	.22
농촌(대도시비교)	.70	.34	.26
주관적 건강상태	.96	.81	.17
양육스트레스	1.18	.00	.04
가족관계	.95	.27	.04
우울도	1.08	.00	.02
자존감	1.09	.05	.05
음주	2.31	.00	.59
삶의 만족도	.55	.00	.11
사회적 지지	.99	.78	.02
사회적 바람직성	1.07	.16	.05
log-likelihood	-606.15		
N	3,929		

이러한 분석 결과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상해 피해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이 외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있는 경우 상해의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강할수록 배우자폭력 상해 피해경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상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7	.00	.09	1.34	.00	.08
연령	.73	.29	.21	1.06	.86	.33
아동 수	.70	.11	.16	.97	.86	.25
교육수준	.54	.00	.11	1.42	.06	.26
균등화 가구소득	.84	.25	.12	.71	.00	.08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9	.56	.01	1.01	.01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5	.02	.12	1.08	.88	.55
자영업	.72	.32	.24	.91	.81	.38
무직 기타	3.32	.02	1.73	.82	.56	.28
지역						
중소도시	.43	.08	.21	1.15	.70	.42
농촌(대도시비교)	.27	.03	.17	1.53	.38	.74
주관적 건강상태	.80	.45	.23	.99	.99	.27
양육스트레스	1.23	.00	.07	1.15	.00	.05
가족관계	1.05	.52	.07	.88	.04	.05
우울도	1.02	.47	.03	1.11	.00	.03
자존감	1.00	.92	.05	1.18	.00	.06
음주	2.27	.00	.68	3.04	.05	1.72
삶의 만족도	.65	.11	.17	.46	.01	.14
사회적 지지	.98	.47	.03	1.00	.90	.03
사회적 바람직성	1.03	.68	.07	1.11	.11	.07
log-likelihood	-253.90			-322.56		
N	1,897			2,032		

5)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성적 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적 폭력 피해경험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폭력 피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여성인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성적 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성적 폭력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31	.00	.06
성별(여성=1)	5.46	.00	1.62
연령	.65	.04	.13
아동 수	1.27	.38	.35
교육수준	.92	.62	.16
균등화 가구소득	.83	.17	.11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38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68	.38	.30
자영업	1.40	.46	.64
무직 기타	.89	.67	.23
지역			
중소도시	.83	.60	.28
농촌(대도시비교)	1.93	.10	.78
주관적 건강상태	1.91	.04	.61
양육스트레스	1.20	.00	.04
가족관계	.92	.05	.04
우울도	1.03	.25	.03
자존감	.99	.86	.06
음주	1.05	.92	.55
삶의 만족도	.71	.16	.17
사회적 지지	.93	.03	.03
사회적 바람직성	1.05	.28	.05
log-likelihood	-571.98		
N	3,929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함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의 경우 성적 폭력 피해경험이 매우 낮아 분석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여성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함께 양육스트레스가 성적 폭력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p<.01$).

〈표 6-4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성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성적 폭력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9	.00	.10	1.34	.00	.07
연령	.75	.50	.32	.74	.22	.18
아동 수	.89	.72	.29	1.36	.30	.40
교육수준	.70	.20	.19	.96	.82	.18
균등화 가구소득	.74	.09	.13	.85	.24	.12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9	.51	.01	1.01	.14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	-	-	.98	.96	.47
자영업	.37	.10	.22	2.21	.19	1.35
무직 기타	-	-	-	1.13	.67	.32
지역						
중소도시	.44	.22	.29	.92	.84	.37
농촌(대도시비교)	.80	.67	.41	2.31	.07	1.06
주관적 건강상태	1.40	.42	.59	2.08	.08	.87
양육스트레스	1.19	.01	.07	1.18	.00	.05
가족관계	.90	.24	.08	.94	.30	.06
우울도	1.07	.13	.04	1.00	.91	.03
자존감	.92	.29	.07	1.01	.91	.06
음주	.95	.92	.47	1.89	.48	1.71
삶의 만족도	2.18	.05	.85	.52	.04	.15
사회적 지지	.97	.64	.07	.92	.04	.04
사회적 바람직성	.87	.08	.67	1.11	.08	.06
log-likelihood	-123.62			-423.51		
N	1,826			2,032		

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경제적 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

CTS2에 추가로 국내 가정폭력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폭력과 관련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폭력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경제적 폭력 피해 가능성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와 우울이 높은 경우 경제적 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경제적 폭력 피해경험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경제적 폭력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13	.02	.06
성별(여성=1)	.89	.71	.28
연령	1.17	.48	.26
아동 수	1.15	.56	.27
교육수준	1.25	.17	.20
균등화 가구소득	.92	.42	.09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69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2.53	.05	1.20
자영업	.96	.91	.31
무직 기타	1.26	.52	.45
지역			
중소도시	.83	.59	.28
농촌(대도시비교)	1.07	.88	.49
주관적 건강상태	.93	.78	.24
양육스트레스	1.21	.00	.06
가족관계	.90	.03	.04
우울도	1.09	.00	.03
자존감	1.14	.02	.07
음주	.71	.41	.30
삶의 만족도	.48	.02	.15
사회적 지지	1.01	.70	.03
사회적 바람직성	1.11	.10	.07
log-likelihood	-434.78		
N	3,929		

이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경제적 폭력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폭력 가해에서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였는데, 배우자폭력 중 경제적 폭력은 그 원인이나 배경이 보다 차별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 일용직인 경우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우울이 높을수록 경제적 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경제적 폭력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경제적 폭력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15	.03	.08	1.12	.13	.09
연령	.98	.96	.34	1.21	.57	.41
아동 수	1.14	.58	.28	1.18	.62	.39
교육수준	1.31	.20	.28	1.27	.29	.29
균등화 가구소득	.95	.67	.11	.86	.27	.12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96	.04	.02	1.01	.10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6.53	.00	3.82	1.42	.64	1.06
자영업	.72	.45	.31	1.15	.77	.57
무직 기타	2.10	.42	1.92	1.04	.92	.39
지역						
중소도시	.79	.54	.31	.87	.75	.39
농촌(대도시비교)	1.18	.78	.68	1.41	.63	1.02
주관적 건강상태	1.35	.31	.40	.57	.29	.30
양육스트레스	1.22	.01	.09	1.20	.00	.07
가족관계	.94	.31	.06	.87	.04	.06
우울도	1.07	.09	.04	1.12	.00	.04
자존감	1.07	.23	.06	1.22	.01	.09
음주	.66	.37	.31	1.29	.75	1.03
삶의 만족도	.57	.25	.28	.34	.01	.14
사회적 지지	1.04	.30	.04	.98	.75	.04
사회적 바람직성	1.13	.12	.09	1.10	.32	.11
log-likelihood	-202.41			-218.23		
N	1,897			2,032		

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폭력 중 통제 피해경험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배우자폭력 유형 중 통제 피해경험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통제 피해경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p<.01$).

〈표 6-5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통제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통제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7	.00	.04
성별(여성=1)	.98	.91	.17
연령	.76	.06	.11
아동 수	.89	.32	.10
교육수준	.97	.78	.09
균등화 가구소득	1.02	.74	.80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71	.00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89	.70	.25
자영업	.82	.28	.15
무직 기타	.82	.33	.17
지역			
중소도시	.72	.04	.11
농촌(대도시비교)	.79	.35	.20
주관적 건강상태	1.03	.87	.19
양육스트레스	1.19	.00	.03
가족관계	.93	.01	.03
우울도	1.02	.14	.02
자존감	.98	.32	.02
음주	1.25	.32	.28
삶의 만족도	.88	.42	.14
사회적 지지	1.01	.48	.02
사회적 바람직성	1.04	.16	.03
log-likelihood	-2088.72		
N	3,929		

통제의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통제 피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양육스트레스는 통제 피해를 성별에 관계없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6-5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별에 따른 통제 피해 결정 모형 로짓모형(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통제					
	남성			여성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28	.00	.05	1.29	.00	.05
연령	.83	.36	.17	.66	.03	.13
아동 수	.94	.72	.16	.83	.21	.12
교육수준	1.20	.14	.15	.82	.12	.10
균등화 가구소득	1.05	.41	.07	.97	.72	.07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	1.00	.52	.01	.99	.91	.01
경제적 활동상태						
일용직고용(상시고용 기준)	1.56	.47	.97	.74	.33	.23
자영업	.80	.27	.16	.98	.96	.33
무직 기타	.64	.48	.40	.87	.55	.20
지역						
중소도시	.63	.04	.14	.78	.26	.16
농촌(대도시비교)	.62	.16	.21	.98	.98	.35
주관적 건강상태	1.05	.85	.26	1.02	.94	.25
양육스트레스	1.28	.00	.04	1.13	.00	.04
가족관계	.91	.03	.04	.96	.37	.04
우울도	.99	.82	.02	1.04	.04	.02
자존감	.98	.63	.03	.98	.41	.03
음주	1.03	.89	.24	3.05	.05	1.76
삶의 만족도	.80	.32	.18	.95	.80	.21
사회적 지지	1.10	.45	.02	1.00	.97	.03
사회적 바람직성	.98	.69	.04	1.07	.04	.04
log-likelihood	-964.96			-1090.02		
N	1,897			2,032		

제5절 논의 및 결론

아동기의 폭력 및 부정적 경험은 개인의 삶에 있어 단기적, 장기적 흔적을 남긴다. 특히 아동기의 폭력경험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정적 영향으로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기의 배우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관점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어린 시절의 폭력이 학습을 통한 내재화 과정을 거쳐 성인기 폭력, 배우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아동기의 폭력경험과 배우자폭력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학습이론 외에 상호교차이론, 그리고 중복피해의 관점을 반영하여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누적 특성뿐 아니라, 어떠한 특성이 배우자폭력의 위험성을 높이는지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청년·성년기의 폭력경험은 현재의 배우자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에 있어서 아동기 및 청년·성년기의 폭력경험은 배우자폭력의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통제 포함 여부나 배우자폭력의 가해, 피해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여 배우자폭력을 이해함에 있어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본 분석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연속적 변수로서 그 누적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적절한데, 기술분석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점수와 배우자폭력 발생률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관찰되었으며 실제 분석 결과,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배우자폭력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제적 폭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배우자폭력의 가

해 및 피해에 있어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강력한 관련 변수로서 검증되어 배우자폭력에 있어 예방적 차원으로, 그리고 세대 간 전이의 방지를 위해서도 아동기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폭력에 있어 가해 그리고 피해경험에 있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적 폭력의 경우 그 배경과 원인이 다른 유형의 배우자폭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다. 경제적 폭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배우자폭력의 가해와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성별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상해 피해와 관련하여 남성의 경우 부정적 생애경험 외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있는 경우 상해의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그 관련 변인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존감이 상해 피해경험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변인이 차별적으로 배우자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폭력의 요인을 이해함에 있어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양육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유의미성 검증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폭력의 가해, 피해 모든 영역에서 주요한 예측변수로서 유의미성이 검증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 특히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폭력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스트레스와 배우자폭력 간의 관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개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본 장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생애 전반에 있어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살피는 본 보고서의 일부분으로 배우자폭력과 관계를 초점으로 구성되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배우자폭력을 예측하는 주요 경험이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7 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노인학대의 관계성 연구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이론적 배경
- 제3절 분석 방법
- 제4절 분석 결과
- 제5절 논의 및 결론

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노인학대의 관계성 연구

제1절 문제의 제기

본 장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이 노인학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경험적 연구들은 아동학대를 경험하거나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그들의 노부모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Kosberg, 1998; Gordon & Brill, 2001;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016에서 재인용). 노년기 배우자학대는 노년기가 시작되면서 발생하였다고보다는 중장년기, 심지어는 신혼에 시작되어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배우자폭력 사례도 적지 않다(김유진, 2015). 이렇듯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 배우자폭력 피해와 노인학대 피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국내 외적으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동기의 부정적 삶의 경험은 아동학대,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 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집단폭력의 피해경험이나 목격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Turner, Finkelhor, Ormrod(2010)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대응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에 대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아동기에 중복으로 경험한 부정적 삶에 대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면 수도권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재엽 등(2010)의 조사에서는 배우자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피해의 중복경험률이 8.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패널을 분석한 이인선, 최현주(2014)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와 학교폭력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4.5%로 나타났다(류정희 등, 2016에서 재인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에서 실시한 성인 대상 조사에서는 37.1%가 아동기 중복피해경험이 있다고 회고적으로 응답하였다(CDC, 2010; 류정희 등, 2016에서 재인용). Turner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인 2~17세 아동의 66%가 2개 이상의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 아동기 학대, 폭력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에 노출이 되고 중복피해가 누적됨으로써 단일 유형의 학대나 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Turner et al., 2010). 아동학대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보듯이 부정적 삶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생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경험적 연구를 리뷰해 본 결과,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은 청년기나 중장년기 학대 및 폭력의 가해, 피해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정희 등, 2016). 이는 아동기에 학대나 폭력과 같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폭력이나 학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제외하면, 아동기의 부정적 삶의 경험이 노인학대 가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바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이 노인학대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2017년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기존 연구들은 노인학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의 최근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가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류정희 등, 2016).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조사를 수행한 정경희 등(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14.6%가 지난 1년간 학대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노인학대 척도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정경희 등(2011), 정경희 등(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각각 12.7%와 9.9%가 지난 1년간 학대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연구 모두 확률표집을 수행한 전국조사의 연구 결과이며,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이론적 틀로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기에 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를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류정희 등, 2016).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폭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노부모와 문제가 생기면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행사하는 노인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다(한동희, 김정옥, 1994; 한은주, 김태현, 1997; 류정희 등, 2016; Gordon & Brill, 2001).

아동기에 경험할 수 있는 학대 및 폭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 목격, 집단폭력, 학교폭력 등이 포함된다. 먼저 아동학대 피해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수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험적 연구를 리뷰한 문헌 연구에서 아동기에 방임을 받았던 아동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느끼지 않아 그들이 성인이 된 후 노부모를 방임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류정희

등, 2016). 질적 연구인 전지형과 강선경(2015)의 연구, 이현주(2013)의 연구에서도 노인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다. Reay와 Browne(2001)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노인이 된 아버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등, 2016에서 재인용). Korbin, Anetberger, Austin (1995)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노인학대 가해의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등, 2016에서 재인용). 다만 Korbin 등(1995)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가해자를 비교하면 아동학대 피해경험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노인학대 가해자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아동기에 보다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노인학대보다는 아동학대 가해를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의 피해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나 폭력을 목격하고 자랐다면 노인학대를 행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은, 2004; 배진희, 정미순, 2008). 조애저 등(1999)의 연구에서 노인학대 행위자의 주요한 특성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학대 행위자의 28%에 해당함). 아동기에 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폭력을 학습하게 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을 파괴시킴으로써 자녀-부모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노부모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배우자폭력을 목격한 자녀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던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성인이 된 후 노모를 방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nfgeld-Connett, 2013; 류정희 등, 2016에서 재인용). 시설 내 노인을 학대하는 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Pillemer &

Moore, 1989; 류정희 등, 2016에서재인용) 아동기 폭력에 대한 목격이 대인관계 전반의 폭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성인의 노인학대 가해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부모폭력 가해를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설명한 김재엽, 송아영(2007)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부모에 대한 폭력가해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공격성의 증대로 이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목격 이외의 폭력피해경험과 노인학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생애 초반의 부정적 경험이 노인의 자기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국외 질적 연구만 발견되었다. 노인 스스로가 본인을 학대하는 자기방임의 생애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한 국외 문헌을 보면, 이들 노인들은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적인 사건, 아동학대 피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경험을 여러 번 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였는데(Band-Winterstein, Doron, & Naim, 2012; Day, Leahy-Warren, & McCarthy, 2013), 이를 통해 또래폭력이나 지역사회폭력, 집단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이나 목격이 노인학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폭력매체에 대해 중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실생활에서의 폭력에 대해 둔감해짐으로써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는 둔감화이론(desensitization theory)의 논리를 적용한다면(이은희 등, 2004), 아동기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실제 폭력, 학대에 대해 둔감하게 만듦으로써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가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하위문화(subculture theory)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폭력과 학대가 만연하고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폭력적인 행동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하위문화에서 생

활하게 되면 이런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하게 된다(김준호, 1992; 이은희 등, 2004에서 재인용). 따라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문화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노부모에게 폭언이나 폭력과 같은 학대행위를 행사하게 될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지만 관련 연구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청년기에 데이트폭력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동기, 사공은희(2007)의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기 부정적 삶의 생애경험은 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독립변수가 성인의 노부모학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학교폭력 등 관련 분야에서 중복피해경험이 폭력가해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연구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김재엽, 이현, 장건호(2016)의 연구가 있다. 김재엽 등(2016)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적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아동학대 피해만을 받은 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복피해집단에서 중복피해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최근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폭력가해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에 대한 국외 연구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은 성인기의 신체·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 비행, 범죄, 반사회적인 행동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Duncan, 1999; Price-Robertson, Higgins, Vasallo,

2013). 이들 요인들은 노인학대 행위자의 전형적인 특성(이미진, 2013)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학습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동기에 부정적 삶의 경험을 중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노인학대 가해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이 공격성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들 변수가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노인학대 가해와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아동기에 중복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면, 이들 부정적인 경험은 생애 사건(event)이 되기보다는 삶의 조건(condition), 즉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수 있다(Turner et al., 2010). 그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사회심리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완충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심리 자원을 감소시키게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의 사회심리적 자원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노를 차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즉 개인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및 폭력의 보호요인으로 여겨져 왔다(김동기, 사공은희, 2007; 이은희 등, 2004; Vaux, 1988). 아동기 중복피해는 생애경로의 누적불리가설(cumulative disadvantage hypothesis)과 접목될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의 가중과 사회심리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성인의 노인학대 행위의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이후 성인기 폭력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류정희 등, 2016) 아동기 부정적인 삶의 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과의 연관성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대나 폭력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과 같은 보호요인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폭력피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류정희 등, 2016),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통제한 이후에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가해경험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이들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이 노인학대 가해경험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본인의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학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즉 성인이 본인의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지난 1년간 학대를 행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경험이 노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노인학대 중 노부모학대에 한정한 이유는 첫째, 비록 배우자학대가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자녀가 노인학대 행위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중장년기 성인 자녀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경험이라는 2개의 독립변수가 노인학대 가해경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층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실태조사 자료 중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중 1인이라도 생존하였다고 응답한 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60세 이상인 응답자만을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노인학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책적 대상자인 60세 이상이라는 기준

에 부합하는 자만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60세 이상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후에 성별, 연령별 집단분석을 분리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생애경험이 이질적인 점(예: 군대폭력)을 감안한 것이며, 베이비붐 세대인지 아닌지에 따라 노인학대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기에 만 43세 이상과 43세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령집단별 분석을 수행한다.

2. 활용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총 3개로 본인의 친부모학대, 배우자의 부모학대,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학대한 노부모학대를 포함한다. 먼저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거나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중 한 가지 이상의 학대행위를 지난 1년간 1회 이상 행한 경우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정의한다. 종속변수는 모두 이산변수로서 학대행위를 한 응답자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2014년 전국 노인실태조사자료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학대행위 5개에 해당되는 항목을 자녀가 노부모에게 행하였는지를 통해 파악하였다. 즉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각각에 대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는지(신체적 학대), 말과 행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였는지(정서적 학대),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는지(경제적 학대), 부모가 건강하지 못할 때 돌봐 주지 않았는지(방임), 거의 찾아뵙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는지(방임)를 질의하였다.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는 각 항목에서 학대행위에 대해 인정한 경우는 학대

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방임은 2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방임으로, 그렇지 않으면 방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학대와 유기, 방임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적 학대와 유기는 실제 발생률이 낮고 자녀가 응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나. 통제변수

다른 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통제변수 이외에 본 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노인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으로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3점을 측정한 서열변수를 0과 1점의 이변량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0점은 의존하지 않음을, 1점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4점으로 측정한 단일 문항으로 점수값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노인학대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이다.

3. 분석 틀

지난 1년간 노부모학대 발생률에 대한 기술통계를 수행하고(표준가중치 적용),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의 학대 및 폭력경험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같이 투입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60세 이상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노부모학대를 종속

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만을 투입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와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만을 투입하여 성인기 폭력피해경험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다.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모두 투입하여 이들 변수들이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친부모학대와 배우자부모학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이후 성별, 연령별 집단분석에서는 통제변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동시에 투입한 분석만을 수행하여 집단별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1종의 오류인 $\alpha=0.05$ 로 설정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3.0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4절 분석 결과

1. 기술분석 결과

노인학대의 정책적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는 전체 응답자 4,008명 중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중 1명 이상의 연령이 60세인 응답자 3,706명을 선별하여 통계를 산출하였다. 응답자 3,706명 중 친부가 생존한 사례는 2,603명, 친모가 생존한 사례는 3,316명이었고, 배우자의 부가 생존한 사례는 2,533명, 배우자의 모가 생존한 사례는 3,210명에 달하였다.

〈표 7-1〉 부모 생존 유무

(단위: 명, %)

구분	생존	사망	전체(N)
친부	2,603	1,103	3,706
친모	3,316	390	3,706
배우자의 부	2,533	1,173	3,706
배우자의 모	3,210	496	3,706

노부모 연령대의 범위는 40대 후반에서 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친부는 50~91세, 친모는 48~91세, 배우자의 부는 50~90세, 배우자의 모는 49~9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응답자 친부가 70.14세(표준편차 6.44세), 응답자 친모가 68.24세(표준편차 6.96세), 배우자의 부가 70.23세(표준편차 6.34세), 배우자의 모가 68.52세(표준편차 6.4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임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20% 내외를 차지하였다(〈표 7-3〉 참조).

〈표 7-2〉 노부모 연령(평균)

(단위: 세,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친부	50	91	70.14	6.44	2,603
친모	48	91	68.24	6.96	3,316
배우자의 부	50	90	70.23	6.34	2,533
배우자의 모	49	94	68.52	6.64	3,210

〈표 7-3〉 노부모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매우 좋음	좋은 편	나쁜 편	매우 나쁨	계(명)
친부	6.6	73.9	18.9	0.6	100.0 (2,603)
친모	6.3	70.5	22.3	1.0	100.0 (3,316)
배우자의 부	7.0	70.5	21.3	1.2	100.0 (2,533)
배우자의 모	6.1	72.1	20.2	1.7	100.0 (3,210)

응답자 중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 연락 빈도를 질의하였다(〈표 7-4〉 참조). 응답자의 약 96%는 친부모와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연락을 하는 것으로, 가장 빈번한 응답은 주 1회 정도(30.9%)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와 연락하는 빈도는 친부모에 비해서 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86%는 배우자의 부모와 최소한 월 1회 이상 연락을 하였으며, 가장 빈번한 응답 범주는 월 1회(27.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 노부모와의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분	친부모	배우자의 부모
거의 매일	8.6	3.7
주 2~3회	22.5	15.3
주 1회 정도	30.9	20.1
2주에 1회	17.8	19.2
월 1회 정도	15.8	27.4
3개월에 1회 정도	3.6	9.9
6개월에 1회 정도	0.6	2.1
연 1회 이하	0.1	0.3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	0.1	1.8
기타	0.0	0.3
계(명)	100.0(3,352)	100.0(3,315)

노인학대 행위자의 특징 중 하나인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살펴해보았다(〈표 7-5〉 참조).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1.9%에 달하였으며, 의존한다는 응답(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7.2%, 완전히 의존하는 비중이 0.9%)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표 7-6〉 참조), 약 79%가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해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7-5〉 노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수준

(단위: 명, %)

구분	응답 비율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0.9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7.2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91.9
계(명)	100.0(3,706)

〈표 7-6〉 응답자의 노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2.5	19.0	46.4	32.1	100.0 (3,706)

〈표 7-7〉은 노인학대 발생률을 정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한 응답자 3,706명 중 지난 1년간 노부모학대를 행했다는 비율은 12.9%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9.1%), 방임(4.2%), 신체적 학대(1.7%), 경제적 학대(0.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학대를 행했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대피해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친부모가 생존한 응답자 3,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부모학대 가해경험은 11.6%였으며,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한 응답자 3,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우자부모학대 가해경험은 7.3%로 친부모학대 가해경험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노부모학대와 유사하게 친부모학대와 배우자부모학대 역시 학대 유형별로 보았을 때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다른 유형의 학대 유형은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 〈표 7-8〉에서 보듯이 노부모학대를 측정한 개별 항목의 발생빈도를 보면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1년에 2회가 가장 많아 발생빈도가 빈번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7〉 노인학대 발생률

(단위: %)

구분	전체 학대율 (모든 유형)	신체	정서	경제	방임	사례 수
노부모학대	12.9	1.7	9.1	0.6	4.2	3,706
친부모학대	11.6	1.7	8.5	0.5	3.4	3,452
배우자부모 학대	7.3	1.2	4.5	0.3	2.9	3,346

〈표 7-8〉 노인학대 발생빈도

(단위: %)

구분		1년 에 1회	1년 에 2회	1년 에 3~ 5회	1년 에 6~ 10회	1년 에 11~ 20회	1년 에 21회 이상	없음	계 (명)
친 부 모 학 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0.4	0.6	0.5	0.1	0.1	0.0	98.3	100.0 (3,452)
	말과 행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했다	2.4	3.4	2.2	0.4	0.0	0.1	91.5	100.0 (3,452)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0.1	0.2	0.0	0.0	0.1	0.1	99.5	100.0 (3,452)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0.5	0.6	0.4	0.1	0.1	0.1	98.3	100.0 (3,452)
	거의 찾아뵙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0.2	1.0	0.6	0.4	0.1	0.1	97.5	100.0 (3,452)
배 우 자 부 모 학 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0.3	0.4	0.4	0.0	0.0	0.1	98.8	100.0 (3,346)
	말과 행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했다	0.7	2.3	0.9	0.4	0.1	0.1	95.5	100.0 (3,346)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0.1	0.0	0.0	0.0	0.0	0.1	99.7	100.0 (3,346)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0.3	0.5	0.2	0.2	0.0	0.1	98.6	100.0 (3,346)
	거의 찾아뵙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0.1	0.8	0.6	0.5	0.2	0.2	97.6	100.0 (3,346)

〈표 7-9〉는 응답자(가구) 특성별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가구유형, 수급여부,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43세 미만은 11.7%, 43세 이상의 경우 15.0%가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상태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노부모학대는 23.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14.2%, 상용근로자 12.3%, 주부/기타 11.2%의 순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의 노부모학대 경험은 16.0%, 대졸 이상은 12.0%, 전문대졸 이상은 1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가구형태에서는 2세대 가구는 12.5%, 3세대 가구는 26.0%로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부모학대는 20.0%로 나타났으나,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12.7%에 머물렀다. 지역구분에서는 대도시의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은 15.5%, 농어촌 11.5%, 중소도시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 성별, 가구구성,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9〉 응답자(가구) 특성별 노부모학대

(단위: %)

구분		노부모학대			X ²
		무	유	계 (명)	
성별	남자	87.0	13.0	100.0(1,466)	0.019
	여자	87.2	12.8	100.0(1,626)	
연령	43세 미만	88.3	11.7	100.0(1,962)	6.945**
	43세 이상	85.0	15.0	100.0(1,129)	
경제 활동 상태	상용근로자	87.7	12.3	100.0(1,604)	18.127***
	임시/일용근로자	76.4	23.6	100.0(144)	
	자영업/무급가족	85.8	14.2	100.0(529)	
	주부/기타	88.8	11.2	100.0(815)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4.0	16.0	100.0(923)	12.089**
	전문대졸	88.9	11.1	100.0(1,116)	
	대졸 이상	88.0	12.0	100.0(1,053)	
가구 유형	2세대 가구	87.5	12.5	100.0(3,015)	12.087**
	3세대 가구	74.0	26.0	100.0(77)	
가구 구성	영유아가구	89.3	10.7	100.0(852)	5.096
	영유아+아동가구	86.7	13.3	100.0(346)	
	아동가구	86.2	13.8	100.0(1,894)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3.1	16.9	100.0(343)	5.685
	300만~500만 원 미만	87.7	12.3	100.0(1,889)	
	500만 원 이상	87.6	12.4	100.0(858)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79.8	20.2	100.0(84)	4.178*
	비수급	87.3	12.7	100.0(3,008)	
지역	대도시	84.5	15.5	100.0(1,551)	18.991***
	중소도시	90.1	9.9	100.0(1,141)	
	농어촌	88.5	11.5	100.0(401)	

*p<.05, **p<.01, ***p<.001

〈표 7-10〉은 응답자(가구) 특성별 친부모학대와의 관계에 대해 이원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연령, 경제활동상태, 가구유형,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43세 미만의 10.7%는 친부모학

대를 하지만 43세 이상은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에서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친부모학대는 19.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1.9%, 상용근로자 11.7%, 주부/기타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서는 2세대 가구인 경우 친부모학대는 11.2%였으나, 3세대 가구에서의 친부모학대는 20.1%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한 지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친부모학대가 14.4%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10.1%), 중소도시(8.6%) 순으로 친부모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교육수준, 가구구성, 가구소득, 수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10〉 응답자(가구) 특성별 친부모학대

(단위: %)

구분		친부모학대			X ²
		무	유	계(명)	
성별	남자	88.0	12.0	100.0(1,641)	0.532
	여자	88.8	11.2	100.0(1,811)	
연령	43세 미만	89.3	10.7	100.0(2,108)	4.380 [*]
	43세 이상	87.0	13.0	100.0(1,345)	
경제 활동 상태	상용근로자	88.3	11.7	100.0(1,728)	16.720 ^{***}
	임시/일용근로자	80.4	19.6	100.0(194)	
	자영업/무급가족	88.1	11.9	100.0(620)	
	주부/기타	90.7	9.3	100.0(91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6.5	13.5	100.0(1,070)	5.718
	전문대졸	89.6	10.4	100.0(1,242)	
	대졸 이상	88.9	11.1	100.0(1,139)	
가구 유형	2세대 가구	88.8	11.2	100.0(3,318)	9.975 ^{***}
	3세대 가구	79.9	20.1	100.0(134)	
가구 구성	영유아가구	89.9	10.1	100.0(890)	2.552
	영유아+아동가구	88.0	12.0	100.0(367)	
	아동가구	87.9	12.1	100.0(2,195)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6.6	13.4	100.0(396)	1.621
	300만~500만 원 미만	88.5	11.5	100.0(2,098)	
	500만 원 이상	89.0	11.0	100.0(958)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84.1	15.9	100.0(88)	1.646
	비수급	88.5	11.5	100.0(3,364)	
지역	대도시	85.6	14.4	100.0(1,686)	25.353 ^{***}
	중소도시	91.4	8.6	100.0(1,330)	
	농어촌	89.9	10.1	100.0(436)	

*p<.05, **p<.01, ***p<.001

〈표 7-11〉은 응답자(가구) 특성별 배우자부모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수급여부,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부모학대는 6.3%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배우자부모학대는 8.2%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3세 미만의 배우자부모학대는 5.8%였으나, 43세 이상의 경우 9.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이하의 배우자부모학대는 9.8%, 전문대졸 6.2%, 대졸 이상 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가구유형에서는 2세대 가구인 경우의 배우자부모학대는 7.0%였으나, 3세대 가구에서의 배우자부모학대는 17.7%로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여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배우자부모학대는 13.5%로 나타났으며, 비수급자는 7.1% 수준에 머물렀다. 친부모학대와 마찬가지로 지역은 배우자부모학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서의 배우자부모학대는 9.5%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7.5%, 중소도시는 4.3%의 순이었다. 그러나 응답자 특성 중 경제활동상태, 가구구성,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11〉 응답자(가구) 특성별 배우자부모학대

(단위: %)

구분		배우자부모학대			X ²
		무	유	계(명)	
성별	남자	93.7	6.3	100.0(1,607)	4.386 [*]
	여자	91.8	8.2	100.0(1,739)	
연령	43세 미만	94.2	5.8	100.0(2,050)	17.831 ^{***}
	43세 이상	90.4	9.6	100.0(1,296)	
경제 활동 상태	상용근로자	93.1	6.9	100.0(1,721)	4.695
	임시/일용근로자	89.4	10.6	100.0(151)	
	자영업/무급가족	93.8	6.2	100.0(593)	
	주부/기타	91.9	8.1	100.0(88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90.2	9.8	100.0(1,016)	14.832 ^{**}
	전문대졸	93.8	6.2	100.0(1,192)	
	대졸 이상	94.0	6.0	100.0(1,137)	
가구 유형	2세대 가구	93.0	7.0	100.0(3,267)	13.142 ^{***}
	3세대 가구	82.3	17.7	100.0(79)	
가구 구성	영유아가구	94.5	5.5	100.0(868)	5.781
	영유아+아동가구	93.2	6.8	100.0(369)	
	아동가구	92.0	8.0	100.0(2,10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91.5	8.5	100.0(366)	2.879
	300만~500만 원 미만	93.3	6.7	100.0(2,015)	
	500만 원 이상	91.9	8.1	100.0(965)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86.5	13.5	100.0(89)	5.319 [*]
	비수급	92.9	7.1	100.0(3,256)	
지역	대도시	90.5	9.5	100.0(1,666)	29.066 ^{***}
	중소도시	95.7	4.3	100.0(1,265)	
	농어촌	92.5	7.5	100.0(415)	

*p<.05, ** p<.01, ***p<.001

〈표 7-12〉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가 높아질수록 노부모학대경험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가 0점인 경우 노부모를 학대한 비율은 7.2%였지만, 7점 이상인 경우에 노부모를 학

대한 적이 있는 자의 비율은 41.3%로 급상승하였다.

친부모학대경험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가 7점 이상인 응답자의 친부모학대 가해경험은 41.4%로, 0점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친부모학대 가해경험 4.7%와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 친부모학대경험이 있는 경우는 10%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부모학대경험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가 0점인 경우,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자는 4.6%에 불과한 반면, 7점 이상은 29.8%로 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점수가 높아질수록 배우자부모학대 가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7-12〉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원분석

(단위: %)

구분 아동기 부정적 경험 점수	노부모학대 ¹⁾			친부모학대 ²⁾			배우자부모학대 ³⁾		
	무	유	계(명)	무	유	계(명)	무	유	계(명)
0점	92.8	7.2	100.0 (699)	95.3	4.7	100.0 (768)	95.4	4.6	100.0 (725)
1점	95.0	5.0	100.0 (481)	95.1	4.9	100.0 (531)	97.1	2.9	100.0 (518)
2점	92.5	7.5	100.0 (318)	92.6	7.4	100.0 (352)	94.4	5.6	100.0 (357)
3점	88.4	11.6	100.0 (371)	89.9	10.1	100.0 (415)	93.5	6.5	100.0 (386)
4점	90.1	9.9	100.0 (395)	91.5	8.5	100.0 (458)	95.8	4.2	100.0 (432)
5점	76.9	23.1	100.0 (389)	78.8	21.2	100.0 (420)	92.4	7.6	100.0 (432)
6점	80.6	19.4	100.0 (242)	84.0	16.0	100.0 (268)	88.8	11.2	100.0 (259)
7점 이상	58.7	41.3	100.0 (196)	58.6	41.4	100.0 (239)	70.2	29.8	100.0 (238)
계 (명)	87.1 (2,693)	12.9 (398)	100.0 (3,091)	88.4 (3,051)	11.6 (400)	100.0 (3,451)	92.7 (3,103)	7.3 (244)	100.0 (3,347)

1) $X^2=246.014^{***}$

2) $X^2=320.632^{***}$

3) $X^2=215.824^{***}$

* $p<.05$, ** $p<.01$, *** $p<.001$

〈표 7-13〉은 아동기 이후 군대폭력경험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군대폭력 피해경험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17.3%로 나타났으며, 군대폭력의 피해가 없었으나 노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6.5%에 불과하였다.

군대폭력의 가해경험과 노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군대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부모학대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8%로, 군대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노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6.8% 수준에 머물렀다.

〈표 7-13〉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군대폭력)과 노부모학대

(단위: %)

노부모학대	군대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3.5	82.7	93.2	79.2
가해 유	6.5	17.3	6.8	20.8
계 (명)	100.0 (506)	100.0 (881)	100.0 (737)	100.0 (649)
X ²	32.021***		58.623***	

*p<.05, ** p<.01, ***p<.001

〈표 7-14〉는 과거 성인기 군대폭력경험과 친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로, 군대폭력 피해경험과 친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친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16.3%로 나타났으며, 군대폭력의 피해가 없는 자가 친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5.9%에 불과하였다.

군대폭력의 가해경험과 친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군대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친부모학대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19.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군대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친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6.7% 수준으로 두 집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14〉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군대폭력)과 친부모학대

(단위: %)

친부모학대	군대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4.1	83.7	93.3	80.8
가해 유	5.9	16.3	6.7	19.2
계 (명)	100.0 (561)	100.0 (982)	100.0 (824)	100.0 (720)
X ²	35.361***		54.822***	

*p<.05, ** p<.01, ***p<.001

〈표 7-15〉는 과거 성인기 군대폭력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군대폭력 피해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7.8%로 나타났으며, 군대폭력의 피해가 없었으나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3.6%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대폭력의 가해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군대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자가 배우자부모학대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10.0%로 확인되었으며, 군대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5〉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군대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단위: %)

배우자부모 학대	군대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6.4	92.2	97.1	90.0
가해 유	3.6	7.8	2.9	10.0
계 (명)	100.0 (529)	100.0 (991)	100.0 (790)	100.0 (730)
X ²	10.176**		32.221***	

*p<.05, ** p<.01, ***p<.001

〈표 7-16〉은 과거 성인기 데이트폭력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46.7%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폭력의 피해가 없었으나 노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10.9%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과 노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부모학대의 가해 경험에 있는 경우가 51.3%로 나타났으며,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노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10.8%로 나타났다.

〈표 7-16〉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데이트폭력)과 노부모학대

(단위: %)

노부모학대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89.1	53.3	89.2	48.7
가해 유	10.9	46.7	10.8	51.3
계	100.0 (2,923)	100.0 (169)	100.0 (2,935)	100.0 (156)
X ²	182.902***		216.847***	

*p<.05, ** p<.01, ***p<.001

〈표 7-17〉은 과거 성인기 데이트폭력과 친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친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친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45.7%로 분석되었으며, 데이트폭력의 피해가 없었으나 친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9.6%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과 친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친부모학대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50.0%로 나타났으며,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친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9.6%에 불과하였다.

〈표 7-17〉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데이트폭력)과 친부모학대

(단위: %)

친부모학대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0.4	54.3	90.4	50.0
가해 유	9.6	45.7	9.6	50.0
계	100.0 (3,263)	100.0 (188)	100.0 (3,282)	100.0 (170)
X ²	227.213***		257.528***	

*p<.05, ** p<.01, ***p<.001

〈표 7-18〉은 과거 성인기 데이트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 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36.1%로 나타난 데 반해, 데이트폭력의 피해가 없었으나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5.6%에 불과하였다.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 부모학대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38.9%로 나타났다으며, 데이트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5.5%로 확인되었다.

〈표 7-18〉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데이트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단위: %)

배우자부모 학대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4.4	63.9	94.5	61.1
가해 유	5.6	36.1	5.5	38.9
계	100.0 (3,163)	100.0 (183)	100.0 (3,171)	100.0 (175)
X ²	238.464***		237.691***	

*p<.05, ** p<.01, ***p<.001

〈표 7-19〉는 과거 성인기 직장폭력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직장폭력의 피해경험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25.2%로 나타났으나, 직장폭력의 피해가 없는 사람의 노부모학대경험은 8.3%로 나타나 두 집단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직장폭력의 가해경험과 노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이 두 관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부모학대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35.3%로 나타났으며, 직장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노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9.2% 수준에 머물렀다.

〈표 7-19〉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직장폭력)과 노부모학대

(단위: %)

노부모학대	직장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1.7	74.8	90.8	64.8
가해 유	8.3	25.2	9.2	35.3
계	100.0 (2,206)	100.0 (778)	100.0 (2,584)	100.0 (400)
X ²	149.237***		211.821***	

*p<.05, **p<.01, ***p<.001

〈표 7-20〉은 과거 성인기 직장폭력과 친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직장폭력의 피해경험과 친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자가 친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24.5%로 나타났으나, 직장폭력의 피해가 없는 사람의 친부모학대경험은 7.3%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직장폭력의 가해경험과 친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자가 친부모학대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32.3%로 나타났으며, 직장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친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8.6%로 두 집단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7-20〉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직장폭력)과 친부모학대

(단위: %)

친부모학대	직장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2.7	75.5	91.4	67.7
가해 유	7.3	24.5	8.6	32.3
계	100.0 (2,472)	100.0 (850)	100.0 (2,889)	100.0 (431)
X ²	179.913***		202.935***	

*p<.05, ** p<.01, ***p<.001

〈표 7-21〉은 과거 성인기 직장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직장폭력의 피해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14.4%로 나타났다으며, 직장폭력의 피해가 없는 사람의 배우자부모학대경험은 4.4%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직장폭력의 가해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의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부모학대의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21.9%로 나타났으며, 직장폭력의 가해경험이 없는 자가 배우자부모학대를 가한 경우는 4.7% 수준에 머물렀다.

〈표 7-21〉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직장폭력)과 배우자부모학대

(단위: %)

배우자부모 학대	직장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무	유	무	유
가해 무	95.6	85.6	95.3	78.1
가해 유	4.4	14.4	4.7	21.9
계	100.0 (2,363)	100.0 (860)	100.0 (2,781)	100.0 (442)
X ²	97.460***		173.763***	

*p<.05, ** p<.01, ***p<.001

〈표 7-22〉는 아동학대와 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아동학대 가해경험과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가한 사람이 노부모학대를 한 경험은 16.8%, 친부모학대를 한 경우는 14.9%, 배우자부모를 학대한 경험은 9.4%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아동학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이 노부모학대를 한 비율은 10.1%, 친부모학대는 9.2%, 배우자부모학대는 5.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22〉 아동학대 가해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의 관계

(단위: %)

구분 아동 학대 가해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무	유	계 (명)	무	유	계 (명)	무	유	계 (명)
무	89.9	10.1	100.0 (1,809)	90.8	9.2	100.0 (2,017)	94.3	5.7	100.0 (1,941)
유	83.2	16.8	100.0 (1,283)	85.1	14.9	100.0 (1,435)	90.6	9.4	100.0 (1,405)
계 (명)	87.1 (2,694)	12.9 (398)	100.0 (3,092)	88.4 (3,053)	11.6 (399)	100.0 (3,452)	92.7 (3,103)	7.3 (243)	100.0 (3,346)
X ²	29.523***			27.032***			16.356***		

*p<.05, ** p<.01, ***p<.001

〈표 7-23〉은 배우자폭력 가해와 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배우자폭력 가해경험과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학대를 가한 사람이 노부모학대를 한 비율은 26.3%, 친부모학대를 한 경우는 23.5%, 배우자부모학대경험은 17.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배우자학대 가해경험이 없는 사람의 노부모학대경험은 9.4%, 친부모학대는 8.3%, 배우자부모학대는 4.5% 수준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표 7-23〉 배우자폭력 가해경험과 노인학대 가해경험의 관계

(단위: %)

구분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배우자 폭력 가해	무	유	계 (명)	무	유	계 (명)	무	유	계 (명)
무	90.6	9.4	100.0 (2451)	91.7	8.3	100.0 (2708)	95.5	4.5	100.0 (2615)
유	73.7	26.3	100.0 (632)	76.5	23.5	100.0 (702)	83.0	17.0	100.0 (722)
계 (명)	87.2 (2687)	12.8 (396)	100.0 (3083)	88.6 (3000)	11.4 (390)	100.0 (3410)	92.8 (3096)	7.2 (241)	100.0 (3337)
χ^2	127.913***			127.087***			132.435***		

* $p < .05$, ** $p < .01$, *** $p < .001$

〈표 7-24〉는 배우자폭력 피해와 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배우자폭력 피해경험은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부모학대를 한 경우는 26.3%, 친부모학대를 한 경우는 24.1%, 배우자부모를 학대한 경우는 14.9%로 나타났다. 배우자학대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의 노부모학대 가해 비율은 9.2%, 친부모학대는 8.0%, 배우자부모학대는 4.9%로 나타나 배우자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 가해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24〉 배우자폭력 피해와 노인학대 가해경험의 관계

(단위: %)

구분 배우자 폭력 피해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무	유	계 (명)	무	유	계 (명)	무	유	계 (명)
무	90.8	9.2	100.0 (2424)	92.0	8.0	100.0 (2688)	95.1	4.9	100.0 (2565)
유	73.7	26.3	100.0 (659)	75.9	24.1	100.0 (722)	85.1	14.9	100.0 (770)
계 (명)	87.2 (2687)	12.8 (396)	100.0 (3083)	88.6 (3020)	11.4 (390)	100.0 (3410)	92.8 (3095)	7.2 (240)	100.0 (3335)
X ²	134.583***			144.996***			89.774***		

*p<.05, **p<.01, ***p<.001

2. 노부모학대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관계성 분석 결과

예상한 대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에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부모학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표 7-25〉 참조). 모형 1에서 보듯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개수가 1개 많아질수록 노부모학대의 승수비(Odds Ratio)는 1.3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세대구분, 가족관계, 자존감, 고위험음주군, 노인에 대한 인식이었다. 구체적으로 2세대에 비해 3세대 가구형의 응답자가,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군에 속할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노부모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미진, 2013).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성인기 폭력피해가 노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성인기 폭력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1단위 증가할수록 노부모학대의 승수비는 7.4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들은 모형 2에서도 유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응답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부모학대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변수를 모두 투입한 결과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1개 많아질수록 노부모학대의 승수비는 1.190배 증가하고, 성인기 폭력피해가 1단위 증가할수록 노부모학대의 승수비는 4.03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와 비교하였을 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투입됨으로써 성인기 폭력피해의 승수비는 약 45%가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모형 1의 결과와 같았으며, 이를 통해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응답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통제한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함을 알 수 있다.

〈표 7-25〉 60세 이상 전체 집단의 노부모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Pr	Std. Err	OR	Pr	Std. Err	OR	Pr	Std. 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높은 값=부정적)	1.307	***	.027				1.190	***	.031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높은 값=부정적)				7.415	***	.192	4.031	***	.220
교육수준(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991		.079	.966		.079	.967		.080
지역(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895		.147	.849		.146	.927		.148
농촌	1.261		.197	1.177		.199	1.227		.201
가구균등화소득(단위: 천만원)	.980		.036	.991		.036	.994		.036
자가(0=자가 이외, 1=자가)	.952		.136	.963		.138	.987		.139
경제활동상태(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1.391		.247	1.440		.248	1.358		.249
자영업·무급	.970		.161	1.013		.162	.977		.162
주부·기타	.792		.175	.746		.176	.753		.177
성별(0=남성, 1=여성)	1.046		.149	1.316		.152	1.302		.154
연령(연속)	1.008		.011	1.008		.011	1.007		.011
아동 수(1-4)	.833		.099	.861		.098	.840		.099
세대 구분(0=2세대, 1=3세대)	3.355	***	.308	3.837	***	.295	3.751	***	.303
가족관계(높은 값=긍정적)	.888	***	.029	.880	***	.029	.892	***	.029
사회적 지지(높은 값=긍정적)	.994		.014	.988		.015	.989		.015
삶의 만족도(높은 값=만족)	.845		.140	.937		.142	.913		.142
전반적인 건강상태(높은 값=건강함)	.844		.139	.717	*	.139	.776		.141
우울(높은 값=우울함)	.982		.016	.988		.016	.977		.016
자존감(높은 값=긍정적)	.936	***	.019	.940	**	.019	.940	**	.019
고위험음주(0=저위험, 1=고위험)	2.956	***	.232	2.709	***	.230	2.987	***	.232
사회적 바람직성(높은 값=바람직함)	1.021		.026	1.008		.026	1.016		.026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0=의존하지 않음, 1=의존함)	.786		.221	.797		.224	.809		.223
노인에 대한 인식(높은 수=긍정적)	.727	***	.076	.730	***	.077	.749	***	.077
log-likelihood	2054.147			2044.986			2013.766		
N	3243			3243			3243		

〈표 7-26〉에서는 종속변수인 친부모학대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부모학대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며,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모두 친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보듯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개수가 1개 많아질수록 노부모학대의 승수비는 1.37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주부·기타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가, 2세대 가구에 비해 3세대 가구의 응답자가,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군에 속할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친부모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성인기 폭력피해가 친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성인기 폭력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1단위 증가하면 친부모학대의 승수비는 9.14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 중 가구소득, 삶의 만족도는 모형 2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성별 변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응답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친부모학대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변수를 모두 투입한 결과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1개 많아질수록 친부모학대의 승수비는 1.247배 증가하고, 성인기 폭력피해가 1단위 증가하면 노부모학대의 승수비는 4.38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통제한 이

후에는 성인기 폭력피해의 승수비가 대폭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나열하면, 주부·기타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가, 남정보다는 여성이, 2세대 가구에 비해 3세대 가구의 응답자가,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군에 속할수록 친부모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노인에 대한 인식은 모형 3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표 7-26〉 60세 이상 전체 집단의 친부모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Pr	Std. Err	OR	Pr	Std. Err	OR	Pr	Std. 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높은 값=부정적)	1.371	***	.027				1.247	***	.030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높은 값=부정적)				9.142	***	.188	4.383	***	.212
교육수준(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1.076		.079	1.045		.079	1.054		.080
지역(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840		.143	.813		.144	.892		.146
농촌	1.168		.199	1.067		.202	1.121		.204
가구균등화소득(단위: 천만원)	.919	*	.037	.931		.038	.931		.038
자녀(0=자녀 이외, 1=자녀)	1.030		.136	1.027		.138	1.065		.139
경제활동상태(7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1.210		.230	1.317		.230	1.241		.232
자영업·무급	.881		.160	.935		.161	.891		.162
주부·기타	.674	*	.175	.649	*	.176	.648	*	.178
성별(0=남성, 1=여성)	1.114		.144	1.400	*	.147	1.401	*	.150
연령(연속)	.992		.011	.996		.011	.991		.011
아동 수(1-4)	.844		.098	.869		.097	.850		.099
세대구분 (0=2세대, 1=3세대)	2.459	**	.263	2.883	***	.259	2.704	***	.264
가족관계(높은 값=긍정적)	.881	***	.028	.868	***	.028	.885	***	.028
사회적 지지(높은 값=긍정적)	.987		.014	.979		.014	.983		.014
삶의 만족도(높은 값=만족)	.695	**	.136	.811		.137	.756	*	.138
전반적인 건강상태(높은 값=건강함)	.846		.137	.746	*	.138	.800		.140
우울(높은 값=우울함)	.977		.015	.985		.015	.973		.016
자존감(높은 값=긍정적)	.950	**	.019	.954	*	.019	.955	*	.019
고위험음주(0=저위험, 1=고위험)	3.165	***	.234	2.792	***	.231	3.217	***	.234
사회적 바람직성(높은 값=바람직함)	1.027		.026	1.015		.026	1.021		.026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0=의존하지 않음, 1=의존함)	.788		.216	.766		.221	.800		.219
노인에 대한 인식(높은 수=긍정적)	.843	*	.077	.833	*	.077	.871		.078
log-likelihood	2103.030			2108.036			2054.279		
N	3534			3534			3534		

〈표 7-27〉은 종속변수인 배우자부모학대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분석에서도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모두 배우자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보듯이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개수가 1개 많아질수록 배우자부모학대의 승수비는 1.2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가,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자가, 자가거주자가, 자영업·무급 가족종사자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가, 고연령일수록, 2세대에 비해 3세대 응답자가,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군에 속할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배우자부모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성인기 폭력피해가 배우자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성인기 폭력피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노부모학대의 승수비는 6.29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 중 농촌지역 변수는 모형 2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모형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성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배우자부모학대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변수를 모두 투입한 결과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1개 많아질수록 배우자부모학대의 승수비는 1.122배 증가하고, 성인기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배우자부모학대의 승수비는 4.29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통제한 이후에는 성인기 폭력피해의 승수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 나열하면,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가,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거주자가, 자가거주자가, 자영업·무급 가족 종사자에 비해 상용직 종사자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연령일수록, 2세대에 비해 3세대가,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고위험음주군에 속할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배우자부모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표 7-27〉 60세 이상 전체 집단의 배우자부모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	Pr	Std. Err	OR	Pr	Std. Err	OR	Pr	Std. 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높은 값=부정적)	1.232	***	.033				1.122	**	.037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높은 값=부정적)				6.292	***	.227	4.298	***	.257
교육수준(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956		.098	.949		.099	.939		.099
지역(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554	**	.198	.540	**	.199	.570	**	.200
농촌	1.710	*	.239	1.602		.245	1.625	*	.246
가구균등화소득 (단위: 천만원)	1.017		.049	1.024		.050	1.030		.050
자가(0=자가 이외, 1=자가)	.685	*	.169	.664	*	.171	.685	*	.171
경제활동상태 (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716		.328	.750		.331	.701		.331
자영업·무급	.633	*	.217	.654		.219	.629	*	.220
주부·기타	.811		.208	.818		.211	.801		.211
성별(0=남성, 1=여성)	1.344		.188	1.684	**	.193	1.688	**	.194
연령(연속)	1.041	**	.014	1.047	**	.014	1.044	**	.014
아동 수(1-4)	.865		.126	.884		.125	.874		.126
세 대 구 분 (0 = 2 세 대 , 1=3세대)	3.478	**	.380	4.726	***	.365	4.352	***	.374
가족관계(높은 값=긍정적)	.855	***	.033	.854	***	.033	.860	***	.033
사회적 지지(높은 값=긍정적)	1.047	*	.018	1.039	*	.019	1.041	*	.019
삶의 만족도(높은 값=만족)	1.198		.172	1.347		.175	1.325		.175
전반적인 건강상태(높은 값=건강함)	.597	**	.183	.510	***	.184	.538	**	.186
우울(높은 값=우울함)	1.009		.018	1.014		.018	1.005		.019
자존감(높은 값=긍정적)	.886	***	.024	.885	***	.025	.886	***	.025
고위험음주(0=저위험, 1=고위험)	3.802	***	.332	3.507	***	.326	3.687	***	.328
사회적 바람직성 (높은 값=바람직함)	.994		.032	.983		.032	.987		.03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0=의존하지 않음, 1=의존함)	.686		.280	.718		.282	.733		.282
노인에 대한 인식 (높은 수= 긍정적)	.642	***	.094	.667	***	.095	.671	***	.095
log-likelihood	1415.407			1393.123			1383.472		
N	3463			3463			3463		

다음으로 성별로 분리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먼저 남성 응답자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표 7-28〉 참조)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받지만, 배우자부모학대는 성인기 폭력피해의 영향만 받고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표 7-29〉 참조),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령집단별 분석 결과를 보면, 43세 미만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표 7-30〉 참조)에서는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3세 이상의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표 7-31〉 참조), 노부모학대와 친부모학대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받지만, 배우자부모학대는 오직 성인기 폭력피해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연령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7-28〉 남성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독립변수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OR	Pr	Std. Err	OR	Pr	Std. Err	OR	Pr	Std. 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높은 값=부정적)	1.104	*	.048	1.143	**	.047	1.016		.063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높은 값=부정적)	9.007	***	.372	10.084	***	.366	8.403	***	.475
교육수준(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919		.121	.906		.119	.930		.159
지역(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496	**	.249	.603	*	.232	.177	***	.432
농촌	1.557		.277	1.427		.283	1.976		.351
가구균등화소득(단위: 천만원)	.934		.069	.924		.063	.709	*	.147
자가(0=자가 이외, 1=자가)	.713		.210	.693		.207	.393	**	.273
경제활동상태(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723		.529	.612		.476	.655		.626
자영업·무급	.995		.219	.913		.209	.567		.314
주부·기타	.858		1.030	.643		.937	.982		1.120
연령(연속)	1.008		.018	.998		.017	1.050	*	.023
아동 수(1-4)	1.021		.143	.980		.141	.784		.194
세대구분(0=2세대, 1=3세대)	4.576	**	.517	2.361	*	.403	.027		7.429
가족관계(높은 값=긍정적)	.780	***	.042	.790	***	.040	.768	***	.050
사회적 지지(높은 값=긍정적)	.966		.024	.964		.023	1.013		.033
삶의 만족도(높은 값=만족)	.917		.224	.883		.211	1.179		.286
전반적인 건강상태(높은 값=건강함)	.691		.222	.620	*	.217	.947		.287
우울(높은 값=우울함)	.970		.024	.938	**	.025	1.007		.029
자존감(높은 값=긍정적)	.945	*	.028	.953		.028	.908	*	.038
고위험음주(0=자유형, 1=고위험)	2.917	***	.259	3.124	***	.257	2.677	**	.352
사회적 바람직성(높은 값=바람직함)	.973		.039	1.012		.038	.982		.050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0=의존하지 않음, 1=의존함)	1.231		.312	1.141		.304	1.762		.379
노인에 대한 인식(높은 수=긍정적)	.914		.117	.955		.116	.867		.149
log-likelihood	877.602			933.799			545.711		
N	1557			1686			1685		

〈표 7-29〉 여성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독립변수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OR	Pr	Std. Err	OR	Pr	Std. Err	OR	Pr	Std. 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높은 값=부정적)	1.289	***	.045	1.343	***	.043	1.181	**	.049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높은 값=부정적)	2.637	**	.289	2.947	***	.275	3.788	***	.325
교육수준(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963		.111	1.158		.113	.999		.131
지역(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1.360		.203	1.239		.202	.762		.261
농촌	.863		.316	.809		.312	1.401		.363
가구균등화소득(단위: 천만원)	1.025		.047	.949		.050	1.137	*	.060
자가(0=자가 이외, 1=자가)	1.450		.206	1.749	**	.208	1.058		.245
경제활동상태(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2.111	*	.304	1.983	*	.292	.856		.424
자영업·무급	1.075		.274	.911		.281	.857		.335
주부·기타	.930		.203	.809		.204	.990		.248
연령(연속)	1.006		.016	.992		.016	1.062	**	.020
아동 수(1-4)	.655	**	.150	.673	**	.149	1.078		.181
세대구분(0=2세대, 1=3세대)	2.770	*	.394	2.838	**	.385	6.207	***	.459
가족관계(높은 값=긍정적)	1.021		.049	.980		.046	.897	*	.050
사회적 지지(높은 값=긍정적)	1.004		.020	.994		.021	1.052	*	.025
삶의 만족도(높은 값=만족)	.942		.192	.767		.192	1.534		.232
전반적인 건강상태(높은 값=건강함)	.849		.198	.946		.193	.374	***	.264
우울(높은 값=우울함)	.973		.023	.990		.022	.994		.026
자존감(높은 값=긍정적)	.936	*	.028	.952		.028	.868	***	.034
고위험음주(0=저위험, 1=고위험)	10.12 3	*	1.008	8.400	*	1.001	2841 3997 1.6		5591. 776
사회적 바람직성(높은 값=바람직함)	1.059		.038	1.024		.038	.991		.045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0=의존하지 않음, 1=의존함)	.608		.344	.657		.328	.444		.454
노인에 대한 인식(높은 수=긍정적)	.627	***	.108	.787	*	.110	.567	***	.130
log-likelihood	1058.217			1057.392			760.512		
N	1686			1848			1778		

〈표 7-30〉 만 43세 미만 집단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독립변수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OR	Pr	Std. Err	OR	Pr	Std. Err	OR	Pr	Std. 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높은 값=부정적)	1.227	***	.041	1.263	***	.041	1.145	*	.053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높은 값=부정적)	3.813	***	.293	3.960	***	.290	3.997	***	.371
교육수준(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1.060		.109	1.067		.110	1.063		.144
지역(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1.073		.185	1.163		.184	.565	*	.276
농촌	1.151		.276	1.280		.275	2.026	*	.327
가구균등화소득(단위: 천만원)	.950		.047	.931		.047	.953		.069
자기(0=자기 이외, 1=자기)	1.067		.170	1.139		.170	.693		.221
경제활동상태(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2.022	*	.313	1.842	*	.305	.891		.468
자영업-무급	.685		.253	.599	*	.257	.581		.368
주부·기타	.588	*	.225	.634	*	.227	.670		.287
성별(0=남성, 1=여성)	1.393		.209	1.246		.210	1.472		.278
연령(연속)	1.010		.022	.999		.022	1.028		.030
아동 수(1-4)	.980		.130	.918		.130	1.108		.174
세대구분(0=2세대, 1=3세대)	.485		.657	.419		.637	.946		.736
가족관계(높은 값=긍정적)	.846	***	.039	.860	***	.038	.819	***	.050
사회적 지지(높은 값=긍정적)	.976		.019	.979		.019	1.058	*	.027
삶의 만족도(높은 값=만족)	.630	*	.192	.645	*	.187	.870		.251
전반적인 건강상태(높은 값=건강함)	1.040		.176	.970		.176	.748		.241
우울(높은 값=우울함)	.964		.022	.957	*	.021	.998		.027
자존감(높은 값=긍정적)	.962		.024	.957		.024	.925	*	.033
고위험음주(0=저위험, 1=고위험)	3.837	***	.326	3.339	***	.319	9.426	***	.622
사회적 바람직성(높은 값=바람직함)	1.004		.036	1.004		.036	.937		.047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0=의존하지 않음, 1=의존함)	.660		.293	.671		.282	.565		.390
노인에 대한 인식(높은 값=긍정적)	.919		.101	.934		.101	.955		.133
log-likelihood	1203.864			1209.277			749.216		
N	2060			2156			2121		

〈표 7-31〉 만 43세 이상 집단의 노인학대에 대한 로짓모형 분석

독립변수	노부모학대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OR	Pr	Std. Err	OR	Pr	Std. Err	OR	Pr	Std. 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높은 값=부정적)	1.116	*	.053	1.203	***	.049	1.097		.055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높은 값=부정적)	6.967	***	.367	6.449	***	.334	6.491	***	.394
교육수준(1=고졸, 2=전문 대졸, 3=대졸)	.967		.130	1.132		.126	.910		.152
지역(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575	*	.280	.524	*	.259	.548		.323
농촌	1.781		.310	.963		.323	1.550		.393
가구공동화소득(단위: 천만원)	1.146	*	.065	.914		.074	1.176	*	.080
자가(0=자가 이외, 1=자가)	.583		.277	.660		.270	.636		.309
경제활동상태(기준: 상용직)									
임시일용직	.501		.472	.738		.398	.540		.510
자영업·무급	1.445		.245	1.254		.233	.761		.307
주부·기타	1.155		.321	.742		.308	.995		.341
성별(0=남성, 1=여성)	1.081		.256	1.427		.237	2.071	*	.305
연령(연속)	.984		.037	.964		.036	1.070		.040
아동 수(1-4)	.618	**	.183	.729		.171	.820		.220
세대구분(0=2세대, 1=3세대)	27.295	***	.509	8.237	***	.372	12.737	***	.537
가족관계(높은 값=긍정적)	.916		.049	.925		.045	.840	**	.051
사회적 지지(높은 값=긍정적)	.991		.025	.988		.024	1.012		.028
삶의 만족도(높은 값=만족)	1.497		.239	.906		.225	2.179	**	.269
전반적인 건강상태(높은 값 =건강함)	.501	*	.276	.601	*	.257	.326	***	.321
우울(높은 값=우울함)	.985		.027	.987		.025	.988		.029
자존감(높은 값=긍정적)	.867	***	.034	.925	*	.031	.806	***	.041
고위험음주(0=저위험, 1= 고위험)	2.941	**	.372	4.037	***	.370	1.944		.434
사회적 바람직성(높은 값= 바람직함)	.985		.044	1.010		.042	1.015		.051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0= 의존하지 않음, 1=의존함)	1.082		.406	1.159		.379	.832		.452
노인에 대한 인식(높은 수 = 긍정적)	.570	***	.127	.803		.129	.487	***	.145
log-likelihood	716.366			790.417			575.258		
N	1183			1378			1342		

제5절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성인 중 지난 1년간 노부모를 학대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13%에 달하며, 대부분 정서적 학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약 10%가 지난 1년간 학대피해를 경험했다는 수치와 유사한 결과이며, 정서적 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동일하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아동기에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노부모학대가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학대뿐만 아니라 본인의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대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특성, 건강정서 특성을 통제한 다원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노부모학대, 본인의 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한 것임을 보여 준다. 기존 연구에서 아동학대, 배우자폭력과 노인학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검증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 등의 중복피해가 노인학대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 그들의 친부모를 학대함으로써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남을 보여 준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친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고 있다. 세대 간 전이의 노인학대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자가 과거 가해자였던 친부모에게 가하는 “보복” 행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Pillemer, 1986),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배우자부모학대와와의 관계는 노인학대의 복잡다단함을 드러내 주고 있다. 즉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배우자부모의 학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단순히 세대 간 전이로 설명할 수 있는 노인학대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과거 자녀의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배우자부모의 학대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연관되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건전한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대인관계 전반에서 학대와 폭력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성인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을 포괄하는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노인학대의 가해경험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원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3개의 종속변수 모두에서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성인기 폭력가해경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노인학대 가해경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폭력피해와 폭력가해의 상호연관성, 복잡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는 이원분석에서 보듯이 아동학대가해, 배우자폭력가해, 배우자폭력피해 역시 모두 노인학대의 가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중복피해뿐만 아니라 중복가해(poly-perpetration)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친부모학대 중 절반은 배우자부모를 학대한다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현상이다.

다만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다른 성인기 폭력가해경험(예: 배우자폭력)과 노부모학대 가해경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원분석에서 보듯이 성인기 폭력가해경험뿐만 아니라 폭력피해경험은 노부모학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아동학대가해, 배우자폭력피해, 배우자폭력가해경험이 노부모학대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잠재적 학대행위자인 성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주로 노인의 어떤 특성이 학대피해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특성과 노부모학대 가해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특히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노부모학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의 현재 상황과 노인학대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대행위자의 과거 생애경험이 노부모학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노인학대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사정할 때 아동학대피해 여부만을 파악할 뿐, 다른 생애변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학대행위자의 아동기 학대피해경험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경험하는 폭력피해나 폭력 목격과 같은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피해가 노부모학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학대의 행위자에 대한 사정에 있어 학대와 폭력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해자, 노인은 피해자라는 단순히 등치화에서 벗어나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중지, 재발 방

지를 위해서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학대의 중지, 재발 방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복잡다단함, 역동성을 이해하고 현재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단기적 접근에서, 생애기간 동안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대피해노인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

제 8 장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1절 문제의 제기
- 제2절 이론적 배경
- 제3절 분석 방법
- 제4절 분석 결과
- 제5절 논의 및 결론

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 성인기 삶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1절 문제의 제기

본 장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성인부모의 78.9%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학대, 폭력, 부모의 이혼, 또래폭력 등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경험만을 조사한 타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95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전 아동기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경험을 조사했던 한국종합사회조사(2012) 결과 성인의 56%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가정폭력실태조사(2016)의 결과는 세부항목별 발생률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8.1%가 아동기 신체적 학대를, 29.6%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45.9%는 부모 사이의 폭력(언어 또는 행동)을 목격한 것으로 답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경험되고 있는 아동기 학대, 폭력 등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아동 발달 및 아동기 이후 생애과정에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은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에 중복적으로 노출되고 그 피해의 경험이 누적됨으로써 단일 유형 학대 및 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심리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urner et al., 2010). 또한 이러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생애 전반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정책의 예방과 개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성인기의 사회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사회 학대 및 폭력의 세대별 순환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방안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 성인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응답자의 현재 사회경제적 조건 및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기술분석을 수행하고,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현재 성인기 삶의 사회심리적, 신체적 건강결과의 연관관계를 우울과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최근 들어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성인기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주로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그 사회심리적 건강결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건강결과는 주로 자존감과 우울과 관련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기 학대에서 유발되는 모든 부정적 결과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며 우울은 낮은 자존감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심리적 결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우울은 아동의 성장기 학대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왔다

(Al-Fayez et al., 2012; Harris, 2001; Matsuura et al., 2009; Stein et al., 2002; 강정희, 2017에서 재인용).

우울은 자존감이 손상된 결과는 대인행동에 있어서의 미숙함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삶의 경험과 우울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이정숙, 구형선, 조인주, 2013; 이민희, 김연하, 2017; 이나영, 2015; 윤상영, 2013). 이정숙, 구형선, 조인주(2013)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성장기 아동학대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경험은 우울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 영향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정체감을 통해 매개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민희, 김연하(2017)의 연구는 남녀 대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기 외상적 경험과 우울성향을 분석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아동기 외상적 경험, 자아존중감 및 우울성향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발견하였다. 여러 종류의 외상적 경험에 노출되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성향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낮았다. 아동기 외상적 경험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에만 아동기 외상적 경험은 우울성향에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영(2013)의 아동기 학대경험 및 배우자폭력 노출경험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주요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성학대 및 방임, 배우자폭력 노

출 등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존감은 타인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Harris, 2001; 강정희, 2017에서 재인용).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는 아동기의 학대경험 또는 부모의 이혼 등의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자존감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다(김옥진, 2017; 강정희, 2017). 김옥진(2017)은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부모의 이혼이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주변의 친구나 선생님, 선후배 등 심리적 사회적 지지그룹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자존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최근 연구의 경향은 자존감과 우울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강정희(2017)의 성장기 학대경험과 삶의 만족의 관계성 연구는 18세 이전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성년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학대유형별,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자존감,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기 학대와 삶의 만족도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자존감과 우울을 통해 매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학대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컸다. 또한 아동기 학대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학대경험은 시간적 경과가 비교적 짧은 시점인 초기(18~27세)에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후 연령대(28~59세)에서는 자존감 감소나 우울 증가와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기 학대의 경험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울도를 높여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아동기의 학대, 가족갈등, 부모의 이혼, 가족관계의 스트레스 및 외상경험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의 영향 및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도 대학생 등 특정한 시기의 성인기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보다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뿐만 아니라 과거 성인기의 폭력피해경험까지 포괄하여 과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우울,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의 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성인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조건 및 사회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기술분석을 수행하고,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 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활용변수

본 장에서 활용된 분석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독립변수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을 포함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의 목격, 가족 구성원의 부정적 생애경험,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의 목격경험 등 포괄적인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13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경험 유무의 총합을 점수화한 연속변수(0~13점)로 활용하였다.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은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으로 경험 여부 중 한 번이라도 경험했을 경우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이 있음(1)으로 조작화한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모두 3개로 심리적 건강상태를 보여 주는 삶의 만족도, 우울, 자존감을 포함한다. 삶의 만족도는 1. 매우 불만족~4.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우울도는 세부항목별 “0. 극히 드물다~3. 대부분 그랬다”로 구분하여, 그 총합인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점수값이 높을수록 우울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자존감은 세부항목별 “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총합으로 연속형 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점수값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연령별, 아동 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조사에 따른 응답자 반응왜곡(response distortion)의 문제점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추가하였다.

〈표 8-1〉 분석변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ACE)	신체적 학대	항목별 ACE문항은 1. 예, 0. 아니요로 측정하여 합산함(연속변수)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가족구성원) 알코올/약물중독	
		(가족구성원) 수감경험	
		(가족구성원) 우울, 자살	
		가정폭력 목격	
		(부모) 별거/이혼	
		정서적 방임	
		물리적 방임	
		또래폭력	
		지역사회폭력 목격	
		집단폭력 경험/목격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군대폭력 피해	1. 예, 0. 아니요
		데이트폭력 피해	
		직장폭력 피해	
종속 변수	심리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1. 매우 불만족~4. 매우 만족
		우울	세부항목별 “0. 극히 드물다~3. 대부분 그랬다”의 총합(연속변수)
		자존감	세부항목별 “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총합(연속변수)
통제 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교육수준	고등 이하,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총가구소득(지난 3개월 평균소득)	평균 소득액
		주거취약층 여부	1. 예, 0. 아니요
		경제활동상태	1.상용근로자 2.임시, 일용근로자 3.자영업/무급가족 4.무직/기타
	인구가족학적 특성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별	1.43세 미만 2.43세 이상
		아동 수	평균 아동 수
		가구유형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가족관계특성	세부항목별 “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총합(연속변수)
	심리사회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0. 전혀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 합계점수(연속변수)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사회적 지지	세부항목별 “없음은 0점~5는 5점”의 총합(연속변수)
	전반적인 건강상태	1. 매우 나쁘다~나쁘다 2. 좋다 3. 매우 좋다
	고위험음주율	1. 고위험음주, 0. 고위험음주 아님
	사회적 바람직성	세부항목별 “1. 예, 0. 아니요”의 총합(연속변수)

주: 1) ACE 질문문항(혹은 카테고리)별 합산 산식은 국제비교를 위하여 International ACE Study 가이드라인을 따랐음.

- 2) 연령구분을 43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 여부를 적용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또는 확장해서 1974년까지의(2017년 기준 43세)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 및 사회적 자원의 취약함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적 삶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학대 및 폭력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
- 3) 주거취약층은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평균 30%를 기준으로 이상은 주거취약층으로 분류하였음.
- 4) 고위험음주율은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평균 7잔 이상 마실 경우 고위험음주로 분류함.

2. 분석 방법

먼저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 등 주요 결과변수에 대한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현재의 건강 및 심리사회적 결과변수 간의 교차분석, t-test/ANOVA(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 삶의 만족도, 우울도,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같이 투입한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우울도,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분석은 동일한 3개의 세부모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만을 투입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삶의 만족도, 우울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모형 2에서는 통제변수와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만을 투입하여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모형 3은 통합모형으로서 통제변수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모두 투입하여 이들 변수가 심리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3가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4절 분석 결과

1. 기술분석 결과

가. 응답자의 물질적 박탈상태

응답자의 물질적 박탈상태를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주거불안정, 식품불안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응답자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415만 4,000원이었으며, 이 중 2.7%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그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 평균은 20.0%였으며, RIR 30%를 기준으로 주거불안정 가구를 분류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4.9%가 주거불안정 가구에 해당하였다. 식품미보장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의 절대량이 부족한 가구는 전체의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전체 응답자의 23.5%가 음식의 다양성 및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표 8-2〉 현재의 물질적 박탈상태

(단위: 명, %)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평균소득	415만 4,000원	127.774
	가구균등화소득	1,247.9	2041.806
주거불안정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	20.0	21.423
	주거불안정	197	4.9
구분	변수	빈도	비율
식품불안정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다	3,036	75.8
	충분한 양은 먹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941	23.5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28	0.7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3	0.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	107	2.7

나. 응답자의 건강상태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적 건강상태, 건강행태 및 사회심리적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기초분석 결과, 응답자의 현재 흡연율은 23.2%이며, 고위험음주군은 9.9%, 월간 폭음률은 41.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업무 및 학업 외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15분이었으며, 표준편차는 57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 게임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이 90.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2시간은 8.3%였다.

〈표 8-3〉 현재의 건강행태 · 습관

(단위: 명, %, 시간)

구분		빈도	비율
현재 흡연율 ¹⁾	흡연한다	930	23.2
	흡연하지 않는다	3,078	76.8
	전체	4,008	100.0
고위험음주율 ²⁾	고위험음주군	398	9.9
	저위험음주군	3,610	90.1
	전체	4,008	100.0
월간 폭음률 ³⁾	폭음하지 않는다	2,353	58.7
	폭음한다	1,655	41.3
	전체	4,008	100.0
게임 이용시간	1시간 미만	3,619	90.3
	1~2시간 미만	333	8.3
	2~3시간 미만	44	1.1
	3시간 이상	12	.3
	전체	4,008	100.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업무·학업 외 인터넷 사용시간		74.6	57.259

주: 1) 현재 흡연율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현재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한다’로 분류함.

2) 고위험음주율은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평균 7잔 이상 마실 경우 고위험음주로 분류함.

3) 월간 폭음률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에 소주 7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경우가 한 달에 1번 이상일 경우 ‘폭음한다’로 분류됨.

응답자의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2점으로 대체로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응답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73.9%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2%는 매우 좋다고 하였고, 5.6%가 나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3.1점 수준으로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73.9%가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20.2%는 매우 만족, 5.6%가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우울도는 33점 만점에 평균 3.9점, 자존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0.8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가족관계친밀도,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관계친밀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32.4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36점 만점에 평균 21.1점이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8.5점으로 나타났다.

〈표 8-4〉 현재 사회, 심리적 건강상태

(단위: 명,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반적인 건강상태	4,008	3.2	0.492	1.0	4.0
삶의 만족도	4,008	3.1	0.501	1.0	4.0
우울도	4,008	3.9	4.217	0.0	33.0
자존감	4,008	30.8	3.906	15.0	40.0
가족관계친밀도	4,008	32.4	4.501	10.0	40.0
사회적 지지	4,008	21.1	4.479	6.0	36.0
사회적 바람직성	4,008	8.5	2.313	1.0	14.0

〈표 8-5〉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응답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12	0.3
	나쁜 편이다	224	5.6
	좋은 편이다	2,962	73.9
	매우 좋다	810	20.2
	전체	4,008	100.0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12	0.3
	약간 불만족한다	224	5.6
	약간 만족한다	2,962	73.9
	매우 만족한다	810	20.2
	전체	4,008	100.0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에 해당하였으며, 그 주요한 이유는 가족갈등 및 사회적 관계(57.4%), 경제적 이유(37.2%), 질병(5.4%) 등이었다.

〈표 8-6〉 자살 생각과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살 생각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없다	3,939	98.3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69	1.7
	합계	4,008	100.0
자살 이유	경제적 이유 때문에	26	37.2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4	5.4
	가족갈등 및 주변과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40	57.4
	기타	0	0.0
	합계	69	100.0

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사회심리적 건강

응답자의 사회심리적 건강상태별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정도가 어떠한 비율로 분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도, 자존감, 음주 및 흡연 등의 사회심리적 건강상태 변수들과의 교차분석 및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교차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높았을 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삶의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응답자 중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으며, 삶에 대해 약간 불만족하는 경우 11.2%만이, 약간 만족하는 경우 19.6% 그리고 매우 만족하는 경우 29.5% 등이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또한 7회 이상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삶의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인 경우 41.7%인 데 비해, 약간 불만족은 17.0%, 약간 만족은 8.4%, 매우 만족은 3.7%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는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고,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부적 관계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0점	-	11.2	19.6	29.5	21.1
1점	8.3	12.1	14.2	19.7	15.2
2점	-	11.2	11.2	9.9	10.9
3점	25.0	16.6	12.6	6.0	11.5
4점	8.3	11.7	12.3	16.3	13.1
5점	16.7	11.2	13.6	8.4	12.4
6점	-	9.0	8.0	6.5	7.8
7점 이상	41.7	17.0	8.4	3.7	8.0
전체	100.0(12)	100.0(223)	100.0(2,963)	100.0(811)	100.0(4,009)

 $\chi^2=176.042^{***}$, $***p<.001$

주관적 건강상태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의 교차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인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0점인 비율은 24.0%로 가장 높았으며, 7점 이상인 비율도 13.5%로 높은 편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0점인 비율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점까지 10%대 전반의 비율을 보였다.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아동기에 부정적 생애경험을 겪지 않은 비율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점인 비율이 16.5%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간의 교차비율로 살펴본 결과 뚜렷한 경향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 8-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건강상태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매우 나쁨	나쁜 편임	좋은 편임	매우 좋음	전체
0점	-	24.0	17.9	29.2	21.0
1점	85.7	4.2	14.9	16.5	15.2
2점	-	16.7	10.7	11.1	10.9
3점	-	10.4	12.3	9.7	11.5
4점	14.3	5.2	13.7	12.1	13.1
5점	-	17.7	13.2	10.1	12.4
6점	-	8.3	8.7	5.3	7.8
7점 이상	-	13.5	8.6	6.0	8.0
전체	100.0(7)	100.0(96)	100.0(2,825)	100.0(1,082)	100.0(4,010)

X 2=129.917***, ***p<.00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우울도의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없는 경우 우울지수(우울도)는 2.9로 전체 평균인 3.9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아질수록 우울지수가 높아지며, 특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6점 이상일 경우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9〉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우울도의 차이

(단위: 명, 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평균	N	표준편차
0점	2.9	844	3.327
1점	2.7	609	3.414
2점	3.9	437	4.245
3점	3.5	463	3.681
4점	3.8	524	4.340
5점	4.3	499	4.078
6점	5.3	311	4.472
7점 이상	7.5	322	5.539
전체	3.9	4008	4.217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자존감의 평균비교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없는 경우 자존감 점수는 31.7로 전체 평균인 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존감 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6점 이상일 경우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0〉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단위: 명, 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평균	N	표준편차
0점	31.7	844	3.930
1점	31.9	609	4.093
2점	30.7	437	3.762
3점	30.1	463	3.752
4점	30.9	524	3.910
5점	30.2	499	3.359
6점	29.7	311	3.355
7점 이상	29.1	322	3.979
전체	30.8	4008	3.906

위험음주군 집단별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위험음주군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7점 이상이 1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점(15.3%), 5점(13.5%) 등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많이 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저위험음주군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0점인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1점(15.4%), 4점(13.1%) 등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대에 많이 분포하였다. 따라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위험음주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8-11〉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고위험음주율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고위험음주군	저위험음주군	전체
0점	8.5	22.4	21.1
1점	13.3	15.4	15.2
2점	9.8	11.0	10.9
3점	7.3	12.0	11.5
4점	13.0	13.1	13.1
5점	13.5	12.3	12.4
6점	15.3	6.9	7.8
7점 이상	19.3	6.8	8.0
전체	100.0(399)	100.0(3,610)	100.0(4,009)

 $\chi^2=144.497^{***}$, $***p<.001$

현재 흡연율을 기준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현재 흡연자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0점인 비율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점인 경우 14.4%, 5점인 경우 14.1%, 4점인 경우 12.1% 등의 순이었다. 7점 이상도 1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흡연자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가 0점인 비율이 22.1%로 높게 나타났으며, 1점이 15.4%, 4점이 13.4%, 5점이 12.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8-12〉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 흡연율

(단위: 명,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	현재 흡연자	현재 비흡연자	전체
0점	17.8	22.1	21.1
1점	14.4	15.4	15.2
2점	10.4	11.0	10.9
3점	11.4	11.6	11.6
4점	12.1	13.4	13.1
5점	14.1	12.0	12.5
6점	9.5	7.2	7.7
7점 이상	10.3	7.3	8.0
전체	100.0(929)	100.0(3,079)	100.0(4,008)

$\chi^2=23.262^{***}$, $***p<.001$

2.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우울도, 자존감을 포함한 3개의 심리사회적 결과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은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 1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고 모형 2는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모형 3은 아동기 및 성인기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을 모두 독립변수로 포함한 통합모형이다. 모든 모형에는 해당되는 결과변수를 제외하고 동일한 통제변수 set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첫째, 과거 폭력 및 부정적 생애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8-13〉). 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합모형 3에서는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OR=0.60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1회 증가할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odds)는 39.1%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유의한 양의 영향($OR=1.064$, $p<0.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한계 효과의 크기는 매우 작은 양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삶의 만족도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8-13〉 현재의 삶의 만족도 결정 모형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
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독립변수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OR	Pr > ChiSq	Std.Err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1.037	0.061	0.019				1.064	0.004	0.022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0.763	0.094	0.161	0.609	0.006	0.179
성별(여성=1)	0.99	0.920	0.102	0.930	0.492	0.105	0.920	0.430	0.105
연령	0.966	<.0001	0.007	0.967	<.0001	0.007	0.966	<.0001	0.007
로그균등화소득	1.076	0.031	0.034	1.065	0.063	0.034	1.071	0.043	0.034
주거취약층 (1=RIR)=20%)	0.791	0.068	0.128	0.781	0.054	0.128	0.783	0.057	0.128
전문대졸 (기준=고졸)	1.092	0.403	0.106	1.104	0.348	0.106	1.104	0.352	0.106
대졸	0.967	0.764	0.111	0.980	0.852	0.111	0.983	0.878	0.111
일용직고용 (기준=상용직)	0.713	0.070	0.187	0.736	0.100	0.186	0.716	0.073	0.186
자영업	0.939	0.588	0.116	0.971	0.795	0.115	0.936	0.567	0.116
무직 기타	1.327	0.018	0.120	1.320	0.020	0.119	1.320	0.020	0.120
2세대 가구 (기준=3세대)	1.382	0.130	0.214	1.405	0.111	0.213	1.409	0.110	0.214
아동 수	0.841	0.011	0.068	0.836	0.009	0.068	0.836	0.009	0.068
중소도시(기준=대도시)	1.214	0.045	0.097	1.170	0.105	0.097	1.197	0.064	0.097
농촌	0.664	0.003	0.137	0.657	0.002	0.137	0.664	0.003	0.137
건강상태 좋음 (기준=매우 좋음)	0.206	<.0001	0.097	0.208	<.0001	0.097	0.205	<.0001	0.097
건강상태 나쁨	0.026	<.0001	0.257	0.026	<.0001	0.258	0.026	<.0001	0.259
양육스트레스	0.886	<.0001	0.015	0.897	<.0001	0.014	0.891	<.0001	0.015
우울	0.979	0.062	0.012	0.984	0.150	0.011	0.979	0.071	0.012
자아존중감	1.158	<.0001	0.013	1.155	<.0001	0.013	1.155	<.0001	0.013
가족관계	1.097	<.0001	0.010	1.094	<.0001	0.010	1.096	<.0001	0.010
사회적 지지	1.091	<.0001	0.009	1.091	<.0001	0.009	1.092	<.0001	0.009
고위험음주	0.84	0.224	0.144	0.870	0.333	0.144	0.842	0.229	0.144
사회적 바람직성	0.958	0.020	0.019	0.956	0.017	0.019	0.959	0.027	0.019
log -likelihood	4344.172			4344.873			4336.523		
N	4008			4008			4008		

둘째,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우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8-14>와 같다. 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현재의 우울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1회 늘어나면 현재의 우울지수는 0.276 높아지며(모형 1),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있을 경우 우울지수는 1.472 증가(모형 2)함을 알 수 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의 분석 결과는 두 변수가 유의수준은 다소 감소했으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제변수는 성별, 주거취약성, 로그 가구균등화소득, 경제활동종사상 지위(일용직 고용, 무직 기타), 지역(중소도시), 건강상태(나쁨),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고위험음주로 나타났다. 특히, 나쁜 건강상태와 고위험음주의 영향이 가장 강했는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고위험음주를 할수록 우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낸 변수는 연령과 농촌거주변수이다. 과거 성인기 피해경험에서 연령이 43세 이상일 때 우울지수는 증가하며, 농촌거주는 우울지수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3의 경우 건강상태(좋은)와 삶의 만족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8-14〉 현재의 우울도 결정 모형 회귀분석(Reg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b	Std.Err	Pr > ChiSq	b	Std.Err	Pr > ChiSq	b	Std.Err	Pr > ChiSq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0.276	0.027	<.0001				0.245	0.030	<.0001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1.472	0.224	<.0001	0.580	0.248	0.019
성별(여성=1)	0.641	0.145	<.0001	0.781	0.150	<.0001	0.729	0.149	<.0001
연령	0.019	0.010	0.068	0.025	0.011	0.019	0.019	0.010	0.063
로그균등화소득	-0.113	0.049	0.020	-0.121	0.049	0.014	-0.108	0.049	0.028
주거취약층 (1=RIR)=20%)	0.362	0.182	0.046	0.364	0.183	0.047	0.372	0.182	0.041
전문대졸 (기준=고졸)	0.107	0.148	0.467	0.125	0.149	0.401	0.102	0.148	0.490
대졸	-0.191	0.156	0.221	-0.204	0.158	0.196	-0.207	0.156	0.186
일용직고용 (기준=상용직)	-0.950	0.270	0.000	-0.839	0.271	0.002	-0.950	0.269	0.000
자영업	-0.174	0.162	0.281	-0.034	0.162	0.834	-0.172	0.161	0.288
무직 기타	-0.665	0.168	<.0001	-0.656	0.170	0.000	-0.658	0.168	<.0001
2세대 가구(기준=3세대)	0.198	0.323	0.540	0.138	0.326	0.672	0.174	0.323	0.589
아동 수	-0.155	0.096	0.105	-0.153	0.096	0.112	-0.150	0.096	0.116
중소도시(기준=대도시)	0.368	0.138	0.008	0.281	0.138	0.042	0.384	0.138	0.005
농촌	-0.375	0.197	0.057	-0.453	0.198	0.022	-0.379	0.197	0.054
건강상태 좋음(기준=매우 좋음)	-0.311	0.146	0.033	-0.266	0.147	0.071	-0.306	0.146	0.036
건강상태 나쁨	1.701	0.398	<.0001	1.870	0.401	<.0001	1.737	0.398	<.0001
양육스트레스	0.085	0.021	<.0001	0.114	0.020	<.0001	0.080	0.021	0.000
삶의 만족도	-0.304	0.138	0.027	-0.244	0.139	0.079	-0.290	0.138	0.036
자아존중감	-0.379	0.017	<.0001	-0.381	0.017	<.0001	-0.376	0.017	<.0001
가족관계	-0.022	0.014	0.132	-0.027	0.015	0.059	-0.020	0.014	0.166
사회적 지지	-0.063	0.014	<.0001	-0.069	0.014	<.0001	-0.063	0.014	<.0001
고위험음주	1.137	0.202	<.0001	1.255	0.203	<.0001	1.127	0.202	<.0001
사회적 바람직성	-0.014	0.026	0.603	-0.032	0.026	0.229	-0.017	0.026	0.523
Adj R-Sq	0.268			0.256			0.268		
N	4008			4008			4008		

셋째,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자존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표 8-15>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만이 현재의 자존감 정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모형 2와 모형 3). 모든 모형에서 공통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통제변수는 교육수준(전문대졸/대졸), 2세대 가구, 아동 수, 지역(중소도시/농촌), 건강상태(좋은), 양육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우울도,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고위험음주, 사회적 바람직성이다.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모형 2와 모형 3에서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5〉 현재의 자존감 결정 모형 회귀분석(Reg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b	Std.Err	Pr > ChiSq	b	Std.Err	Pr > ChiSq	b	Std.Err	Pr > ChiSq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0.022	0.024	0.345				0.014	0.026	0.587
성인기 폭력피해경험				-0.639	0.194	0.001	-0.690	0.215	0.001
성별(여성=1)	-0.168	0.126	0.184	-0.271	0.130	0.038	-0.273	0.130	0.036
연령	0.004	0.009	0.636	0.004	0.009	0.644	0.004	0.009	0.667
로그 균등화소득	-0.010	0.042	0.806	-0.018	0.042	0.676	-0.017	0.042	0.688
주거취약층(1=RIR)=20%)	-0.088	0.158	0.579	-0.100	0.158	0.526	-0.099	0.158	0.529
전문대졸 (기준=고졸)	-0.367	0.128	0.004	-0.359	0.128	0.005	-0.360	0.128	0.005
대졸	0.417	0.136	0.002	0.434	0.136	0.001	0.434	0.136	0.001
일용직고용(기준=상용직)	-0.278	0.235	0.236	-0.267	0.234	0.253	-0.275	0.234	0.241
자영업	-0.083	0.140	0.555	-0.078	0.139	0.578	-0.086	0.140	0.541
무직 기타	0.140	0.147	0.339	0.133	0.146	0.363	0.132	0.146	0.366
2세대 가구 (기준=3세대)	1.052	0.280	0.000	1.075	0.280	0.000	1.077	0.280	0.000
아동 수	0.206	0.083	0.013	0.200	0.083	0.016	0.200	0.083	0.016
중소도시(기준=대도시)	0.868	0.119	<.0001	0.841	0.118	<.0001	0.847	0.119	<.0001
농촌	1.221	0.170	<.0001	1.220	0.170	<.0001	1.224	0.170	<.0001
건강상태 좋음(기준=매우 좋음)	-0.394	0.127	0.002	-0.396	0.127	0.002	-0.399	0.127	0.002
건강상태 나쁨	0.071	0.347	0.839	0.030	0.346	0.930	0.024	0.347	0.944
양육스트레스	-0.047	0.018	0.009	-0.038	0.018	0.031	-0.040	0.018	0.027
삶의 만족도	1.417	0.118	<.0001	1.400	0.118	<.0001	1.397	0.118	<.0001
우울	-0.286	0.013	<.0001	-0.283	0.013	<.0001	-0.284	0.013	<.0001
가족관계	0.150	0.012	<.0001	0.147	0.012	<.0001	0.148	0.012	<.0001
사회적 지지	0.068	0.012	<.0001	0.069	0.012	<.0001	0.069	0.012	<.0001
고위험음주	0.376	0.176	0.033	0.392	0.176	0.026	0.385	0.176	0.029
사회적 바람직성	0.133	0.023	<.0001	0.136	0.022	<.0001	0.137	0.023	<.0001
Adj R-Sq	0.355			0.356			0.356		
N	4008			4008			4008		

제5절 논의 및 결론

먼저, 응답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평균 월 소득과 주생활 및 식생활에서의 취약층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415만 4,000원이었으며, 이 중 2.7%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평균은 20.0%였으며, 주거취약층은 전체 응답자의 4.9%를 차지하였다. 식품미보장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의 절대량이 부족한 가구는 전체의 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으나, 전체 응답자의 23.5%가 음식의 다양성 및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건강행태는 현재 흡연율, 고위험음주군, 월간 폭음률, 인터넷 이용시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현재 흡연율은 23.2%이며, 고위험음주군은 9.9%, 월간 폭음률은 4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무 및 학업 외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15분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2점으로 대체로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3.1점 수준으로 약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우울도는 33점 만점에 평균 3.9점, 자존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0.8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친밀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32.4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36점 만점에 평균 21.1점이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은 15점 만점에 평균 8.5점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에 해당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우울도, 자존감을 포함한 3개의 심리정신적 결과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첫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독립적인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모형에서는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한계효과의 크기는 매우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년기의 삶의 만족과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보인다(강정희, 2017). 둘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현재의 우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모형에서 현재의 우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의 분석 결과는 두 변수가 유의수준은 다소 감소했으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과거 성인기 폭력피해경험만이 현재의 자존감 정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삶의 만족도, 우울도, 자아존중감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연령, 건강 상태 좋음,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중복된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은 현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과거 성인기의 폭력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자기존중감에 부적(-)으로, 우울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경우 우울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학대 및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폭력피해경험에 비해 시간적으로 더욱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영향력이 보다 약화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학대 및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울, 자기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폭력피해 및 부정적 생애경험, 우울도,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학대 유형 및 부정적 생애경험에 있어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호관계의 경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 9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의 논의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아동기 이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학대 및 폭력, 그리고 부정적인 생애경험의 중복성과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고 현재의 학대경험 및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국내에서 최초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을 아동기와 과거 성인기, 그리고 현재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아동기 학대 및 폭력 등의 부정적인 생애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그리고 현재(과거 1년)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경험과 심리·정서적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아동가족생애실태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연구는 단일 유형 중심 또는 2개 유형의 학대 및 폭력경험의 관계성에 대한 분절적이거나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학대 및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포괄하고 있다. 즉, 본 조사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International Questionnaire(ACE Study-IQ)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배우자폭력의 목격경험, 학교폭력, 집단폭력, 지역사회폭력의 직접적·간접적(목격) 피해경험 등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에 관한 국외 조사(예: 미국의 ACE-Study,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NatSCEV))의 경우 학대 및 폭력, 부정적인 생애경험을 아동기에 한정해서 조사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생애 전반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의 연속성 및 중복성을 탐색하기 위해 과거 성인기에 경험했던 폭력경험을 추가하였다. 성

인기 폭력경험은 최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을 주요 유형으로 포함하여 가해 및 피해 경험을 모두 조사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이러한 성인기 폭력의 경험에 대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조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사연구는 그 의의가 크다.

셋째, 본 조사는 현재의 학대 및 폭력경험을 가정학대의 주요한 세부 유형, 즉 자녀학대, 배우자폭력, 노부모학대로 구분하여 가해와 피해 양 측면의 경험을 모두 포괄하였다. 과거의 폭력의 중복적 피해경험이 현재의 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두 개의 단일 유형의 폭력 및 학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수준-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과거의 폭력 및 학대를 포함하는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차원의 의의를 동시에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학대 및 폭력경험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신체·심리·정서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관계를 보여 주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조사에 포함된 신체·심리·정서·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결과변수들은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자존감·삶의 만족도·자살 생각 등의 심리적 건강상태, 음주·흡연·인터넷 의존도 등의 건강행태,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1절 연구 결과의 논의

본 보고서는 전 생애에 걸친 주요한 학대 및 폭력 유형과 결과변수를 방대하게 포괄하는 전국적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가 필요한 문제와 이슈를 논의하고자 한다.

1. 과거의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과 현재의 폭력 가해경험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과거 생애과정에서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하는 부정적 생애경험이 발생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아동기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학대, 폭력 및 기타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적이 있는 성인은 전체 조사 대상자 4,008명 중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최초로 ACE-Study를 실시했던 미국(60%), ACE Study의 국제적 버전을 활용하였던 영국(46.4%), 동유럽 8개국(50%) 및 베트남(76%) 등 국외의 발생률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 비교에서 조사 대상 선정 및 표집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백인 중산층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험률의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으며,⁴⁾ 베트남의 경우 대상 연령이 대학생 중심으로 전체 성인 연령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학대, 여성폭력 등을 포함하는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일로 간주되며

4) 미국의 NatSCEV를 활용한 연구는 2~17세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 아동의 66%가 적어도 2번 이상의 학대 및 폭력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ACE-Study의 발생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Turner et al., 2010).

상대적으로 관용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조사 결과 지역사회폭력의 직접·간접경험(49.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폭력 목격경험(49.1%), 정서학대(47.8%), 또래폭력(27.5%), 신체학대(26.1%), 정서방임 및 물리적 방임(2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가정폭력실태조사(2016)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아동기 신체적 학대경험은 48.1%로 본 조사 결과보다 높았으며 부모 사이의 폭력언어 또는 행동을 목격한 경험은 45.9%로 본 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본 조사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던 정서적 학대경험의 경우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29.6%로 그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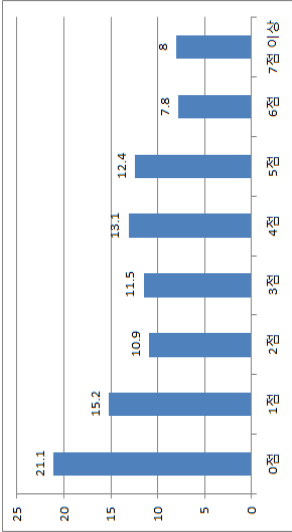
둘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3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가 43세 미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률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상용근로자와 주부 및 기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지역별·성별 특성 및 교육수준과 종사상 지위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폭력 및 학대, 기타 부정적 생애경험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한편,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으로 구분되는 과거 성인기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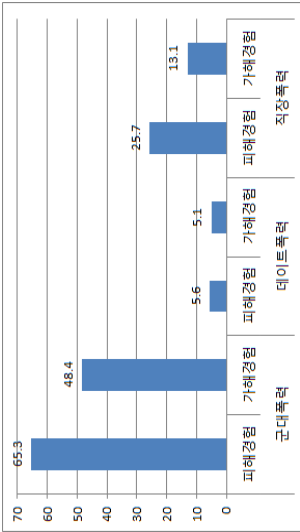
경험을 분석한 결과, 군대폭력은 피해경험이 65.3%, 가해경험이 48.4%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폭력이 관대하게 허용되고 때로는 폭력이 학습되기도 하는 특수한 공간으로서의 군대조직을 고려할 때 크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동안 군대폭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군대폭력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장폭력 피해경험은 25.7%, 가해경험은 13.1%로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의 2배에 달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 측정도구 등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98%를 차지하는 15개 산업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서유정, 2017)와 비교하면 조작적 피해자는 21.4%, 주관적 피해자는 4.3%로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와 가해경험이 각각 5.6%, 5.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데이트폭력의 발생률은 주로 청소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의표본추출 방식에 의한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어 발생률의 범위가 매우 넓은 데다 조사 대상, 조사 방식의 차이가 확연하여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아동기와 성인기를 아우르는 과거 생애과정 전체에서의 학대경험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을 동시에 한 응답자가 전체의 41.6%를 차지했으며,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룹은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81.2%가 아동기 또는 성인기에 학대·폭력을 비롯한 부정적 생애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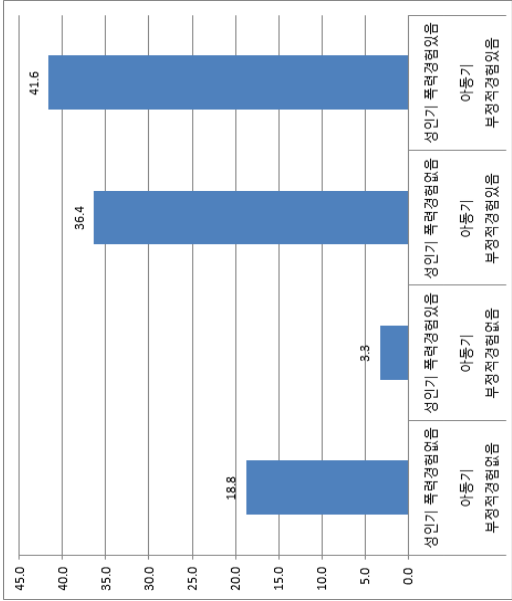
[그림 9-1] 생애주기별 학대·폭력, 부정적 생애경험 발생률 비교
아동기 학대폭력 및 부정적 경험(%)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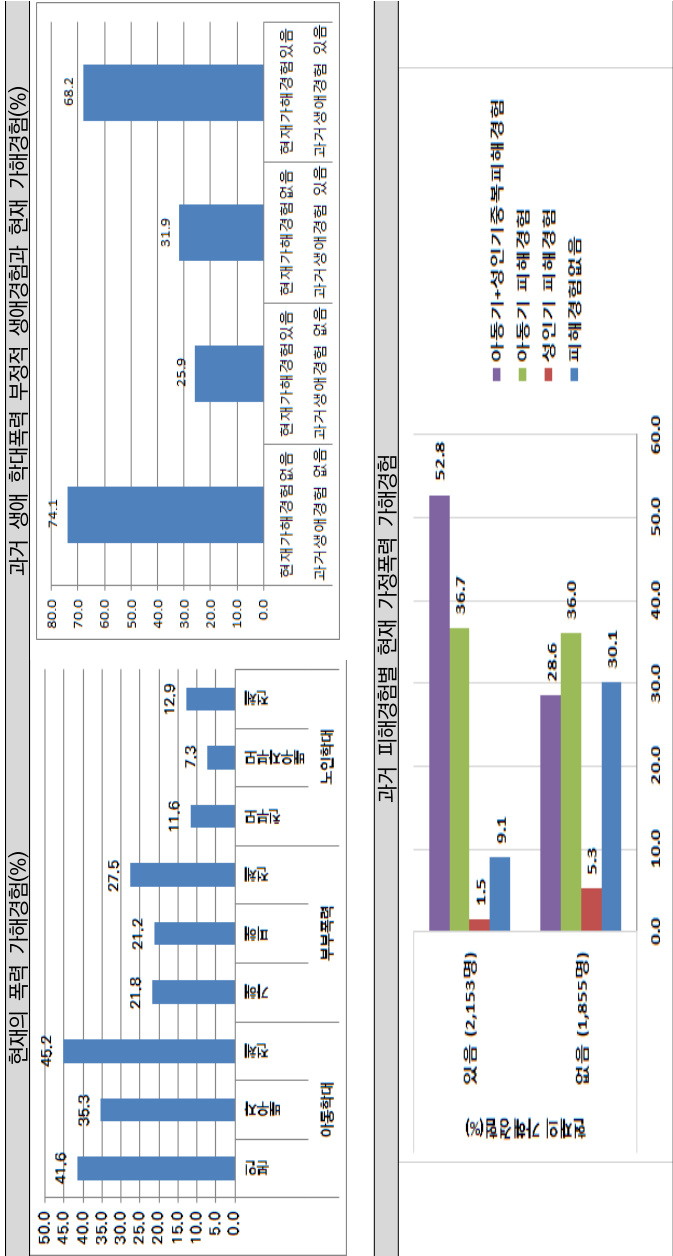
과거 생애 학대폭력 부정적 생애경험



2. 과거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이 현재의 가정폭력 및 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먼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의 폭력경험이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자녀폭력, 배우자폭력, 노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전체 유자녀 성인 4,008명 중 현재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153명(53.7%)이었다. 그중 9.1%만이 과거 폭력의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2.8%가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 피해경험이 있었고, 36.7%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만을 가진 경우에 속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정폭력 가해경험을 가진 성인의 89.5%가 과거 아동기에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2] 참조).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또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의 폭력 피해경험 모두 현재의 학대가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애주기에 걸쳐 경험되는 폭력경험의 복잡다단한 역동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다수의 사람이 경험하는 폭력 및 학대의 중복성은 가해와 피해의 측면을 교차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중복성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뿐만 아니라 중복가해(poly-perpetration) 현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9-2] 과거 학대폭력 피해경험과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경험



둘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현재 자녀학대 가해경험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본인의 자녀학대 가해경험은 41.6%, 배우자의 자녀학대 가해경험은 35.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주된 형태였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40.1%, 34.9%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구사회적 특성별 자녀학대 가해의 특성을 살펴보면, 43세 이상 연령, 여성이 다른 연령대 및 남성에 비해 아동학대 가해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아동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낮은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소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더라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뿐만 아니라 과거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은 아동학대 가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폭력의 악순환,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현재 배우자폭력경험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폭력의 경험률은 27.5%로 나타났으며 가해(21.8%)와 피해경험(21.2%)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은 현재의 배우자폭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배우자폭력의 피해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부

정적 생애경험은 배우자폭력 유형으로 ‘통제’ 포함 여부, 학대 배우자폭력의 가해,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배우자폭력을 이해함에 있어 과거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횟수와 배우자폭력 발생률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관찰되었으며,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배우자폭력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외에 다양한 변수가 배우자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폭력 피해경험에서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경험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는 성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및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과 현재의 노인 학대(노부모학대)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성인 중 지난 1년간 노부모를 학대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13%에 달하며, 정서적 학대가 가장 주요한 형태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노인학대 발생률 10%와 유사한 수준이다. 학대의 세부 유형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9.1%로 가장 높았으며 방임, 신체학대, 경제적 학대(통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아동학대 및 배우자 폭력과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특성, 건강·정서 특성을 통제한 후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노부모학대 가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 결과는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을 포괄하는 성

인기 폭력 피해경험이 노인학대의 가해경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원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노부모학대(친부모학대, 배우자부모학대) 모두에서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이 성인기 폭력 가해경험과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폭력 피해와 폭력 가해의 상호연관성 및 복잡성을 명확히 보여 준다고 하겠다.

〈표 9-1〉 가정 내 폭력의 유형별 비교

(단위: %)

	아동학대(자녀학대)			배우자폭력			노인학대(노부모학대)		
	본인	배우자	전체	가해	피해	전체	친부모	배우자 부모	전체
정서학대	40.1	34.9	43.7	18.1	17	22.7	8.5	4.5	9.1
신체학대	11.4	7.7	13.6	5.4	5.2	7.3	1.7	1.2	1.7
방임	2.1	1.2	2.5	-			3.4	2.9	4.2
성적학대	0.2	0.0	0.2	4.3	4.6	7.4	-		
경제적 통제	-			3.1	2.7	4.7	0.5	0.3	0.6
발생률	41.6	35.3	45.2	21.8	21.2	27.5	11.6	7.3	12.9

마지막으로, 과거 생애과정에서의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우울도, 자존감을 포함한 3개의 심리·정신적 결과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의 중복된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은 현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과거 성인기의 폭력 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자기존중감에 부적(-)으로, 우울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경우 우울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학대 및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에 비해 시간적

으로 더욱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영향력이 보다 약화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해 아동기의 학대, 가족갈등, 부모의 이혼, 가족관계의 스트레스 및 외상경험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의 영향 및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 대상 측면에서도 대학생 등 특정한 시기의 성인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보다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뿐만 아니라 과거 성인의 폭력 피해경험까지 포괄하여 과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우울,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3. 후속 연구과제 및 방향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의 주요 내용은 생애발달 과정에서 과거의 학대 및 폭력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기초로 생애주기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학대 및 폭력의 상호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복잡다단한 역동성을 가지고 펼쳐지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의 시작이며, 향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성과 상호관계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한 심층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과거의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이 현재의 폭력 가해행

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나 자녀학대-배우자폭력-노인학대로 구성되는 현재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경험 간 유형별 상호연관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학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조건에서 그 상호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과거 아동기 학대 및 폭력경험을 포함한 부정적 경험이 현재의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총합, 과거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 유무, 현재 폭력 가해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는 학대의 하위유형별 특수성에 따라 학대 간의 상호관계성, 세대 간 전이의 특성이 차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학대 유형별(type to type) 상호연관성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및 성인기의 학대 및 폭력경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상호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학대 및 폭력의 중복적 경험에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성인기 폭력피해의 영향력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비해 43세 이상의 고연령 집단에서 더 컸으며, 이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연령집단의 차이인지 연령효과(aging effect)인지는 불분명하므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성별, 세대별 학대의 피해와 가해의 역동성, 학대의 중복적 경험이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그룹별 특성을 가지는지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대, 폭력 및 부정적인 생애경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욕구와 필요를 근거로 하는 학대 및 폭력예방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과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심리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우울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별 분석을 통해 아동기 학대 및 부정적 생애경험이 시간 경과에 따라 우울, 자기존중감,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등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는 현재의 학대 및 폭력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학대경험이 현재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관계와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는 가해 및 피해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과거의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어떻게 상호교차 되는지, 어떤 매개변수를 가지고 현재의 심리사회적 건강상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심층분석 작업을 통해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폭력경험이 신체·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가족생애경험조사 결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가진 성인인구의 78.9%가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생률은 해외에서 동일한 도구를 활용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인데, 이는 조사 대상, 표집방식을 포함한 조사설계 전반의 차이와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차이 등 다각적

인 이해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동일한 조사도구(ACE-IQ)를 활용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의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학대 및 폭력경험의 보편성

본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 및 폭력의 경험은 개인특성 상의 문제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소수 인구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애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경험은 피해와 가해를 교차하면서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따라서 학대 및 폭력의 피해 또는 가해집단을 개인적 차원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진 특수집단으로 간주하여 조사와 처벌을 중심으로 사후대응식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커다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생애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 학대 및 폭력을 정의하고, 학대 및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대예방정책의 방향 수립과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표 9-2〉 참조).

〈표 9-2〉 연구 결과 및 함의와 정책대응 총괄

	결과 및 함의	정책대응 방안
아동기 학대·폭력· 부정적 생애경험	○ 아동기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의 중복 발생 및 보편성 확인 - 아동기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학대, 폭력 및 기타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적이 있는 성인은 전체 조사 대상자 4008명 중 78.9%	-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 조사된 사건 중심의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방식은 근본적인 학대예방의 한계를 가짐 -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족갈등, 부모이혼 등 가족관계의 스트레스 및 외상경험, 또래폭력, 집단 및 지역사회 폭력의 직접·간접적 경험 등의 부정적인 생애사건을 학대 및 폭력의 위험요인으로 고려 필요 - 중복적 학대에 취약한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보호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함 - 전통적인 아동보호체제와 함께 사전예방 및 보호의 기능을 중점으로 하는 차등적 대응체제의 도입 필요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	○ 성인기 폭력경험은 군대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을 통해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있음 - 과거 성인기 폭력경험에서 군대폭력은 피해경험이 65.3%, 가해경험이 48.4%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임 - 직장폭력 피해경험은 25.7%, 가해경험은 13.1%로 피해경험이 가해경험보다 2배 높음 - 데이트폭력의 경우는 피해와 가해경험이 각각 5.6%, 5.1%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 실질적인 군대폭력을 줄이기 위한 조직문화의 개선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데이트폭력의 경우, 본 조사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
아동기+과거 성인기 학대·폭력·부정 적 경험	○ 아동기 및 성인기의 폭력 및 학대경험의 중복성 높음 - 81.2%가 아동기 또는 성인기에 폭력 피해경험 또는 부정적인 생애경험 -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과거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을 동시에 한 응답자가 전체의 41.6%를 차지	- 우리나라 성인의 5명에 4명이 성인기에 군대폭력, 직장폭력, 데이트폭력을 광범위하게 경험하였음 - 가정 내뿐만 아니라, 가정 외 폭력 만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 제고 필요

	결과 및 합의	정책대응 방안
현재 가정폭력의 경험	- 현재 가정 내 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성인의 89.5%가 과거 아동기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음	- 고위기도뿐만 아니라 중·저위기의 가족위기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 - 현재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은 미비하며, 가족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연계를 통해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종합적 위기 개입 및 지원 필요 - 종합적인 가족지원체계를 통해 현재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부모교육,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화
아동학대경험	○ 아동학대는 가정 내 학대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 - 아동학대 피해 경험은 응답자 본인(41.6%)과 배우자(35.3%)를 포함하여 45.2%로 나타남 ○ 양육과 아동학대의 연관관계 강함 - 43세 이상 연령, 여성이 다른 연령대 및 남성에 비해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높음 ○ 학대·폭력의 세대 간 전이 관찰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과거 성인이 폭력 피해경험은 아동학대 피해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학대예방정책의 아동학대예방과 대응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 필요로 함 - 아동양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 완화, 사회적 부담 확대 - 학대의 중박 및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고리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의 예방 - 처벌의 전면적 금지
배우자학대경험	○ 배우자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이해 중요 - 배우자폭력경험은 27.5%로 가해(21.8%)와 피해(21.2%) 경험이 유사한 수준 ○ 과거의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은 현재의 배우자폭력(특히,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양육스트레스는 남녀 공통의 배우자폭력 원인 - 남성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 아동기 부정적	- 아동기 학대, 폭력이 현재의 배우자폭력과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학대 및 폭력예방 정책의 핵심으로서 아동기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 생애경험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함 - 학대 및 폭력예방 전략에서 생애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필요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부모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제도화 - 양육 및 돌봄의 사회적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의 체계화 필요

	결과 및 합의	정책대응 방안
노부모학대경험	생애 경험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양육스트레스, 우울, 자존감,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 ○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검증됨 - 노부모학대 보고한 비율은 13% 정서적 학대가 그 주요한 유형(9.1%), 방임, 신체학대, 경제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기에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많을수록 노부모학대 가해경험률이 높아짐 - 군대폭력, 데이트폭력, 직장폭력을 포괄하는 성인기 폭력피해 경험이 노인학대의 가해경험과 연관됨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노인학대의 상호연관성에서 세대별 차이 나타남. - 상대적으로 성인기 폭력피해의 영향력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비해 43세 이상의 고연령 집단에서 더 컸음 - 이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함	-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연령집단의 차이인지 연령효과(aging effect)인지는 불분명하므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검증할 필요 - 노인학대 전담 보호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위험요인사정(assessment)에서 노인학대행위자의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경험하는 기타 폭력피해나 폭력 목적과 같은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해자, 노인은 피해자라는 단순등치에서 벗어나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행위 증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심리적 건강결과	○ 과거의 중복된 학대 및 폭력 피해경험은 현재의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침 - 과거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자기존중감에 부정(+)으로, 우울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의 경우, 우울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함	- 학대 및 폭력 등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울, 자기존중감, 삶의 만족도 및 기타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학대에반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 확보 - 학대 및 폭력에 취약한 가정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지원과 개입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2. 이원적인 학대예방대응체계의 구축

학대 및 폭력예방정책은 1)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대 및 폭력 사전예방체계와 2) 발생한 학대 및 폭력 사례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피해자보호체계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체계로 구축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학대예방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학대위기에 노출된 고위기 학대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피해자보호체계만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학대피해자보호체계는 아동학대피해자, 부부폭력피해자, 노인학대피해자 등 인구대상별로 분절적으로 작동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체계는 아직까지 공적 보호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가. 지역사회 중심의 학대예방체계의 구축-차등적 대응체계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물리적 방임에 대한 중복적 경험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의 목격 등 간접적인 폭력경험, 직접적·간접적 형태의 지역사회 폭력 및 집단폭력 경험, 또래폭력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생애경험이 중복적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및 지역사회 폭력의 경우 2명 중 1명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9-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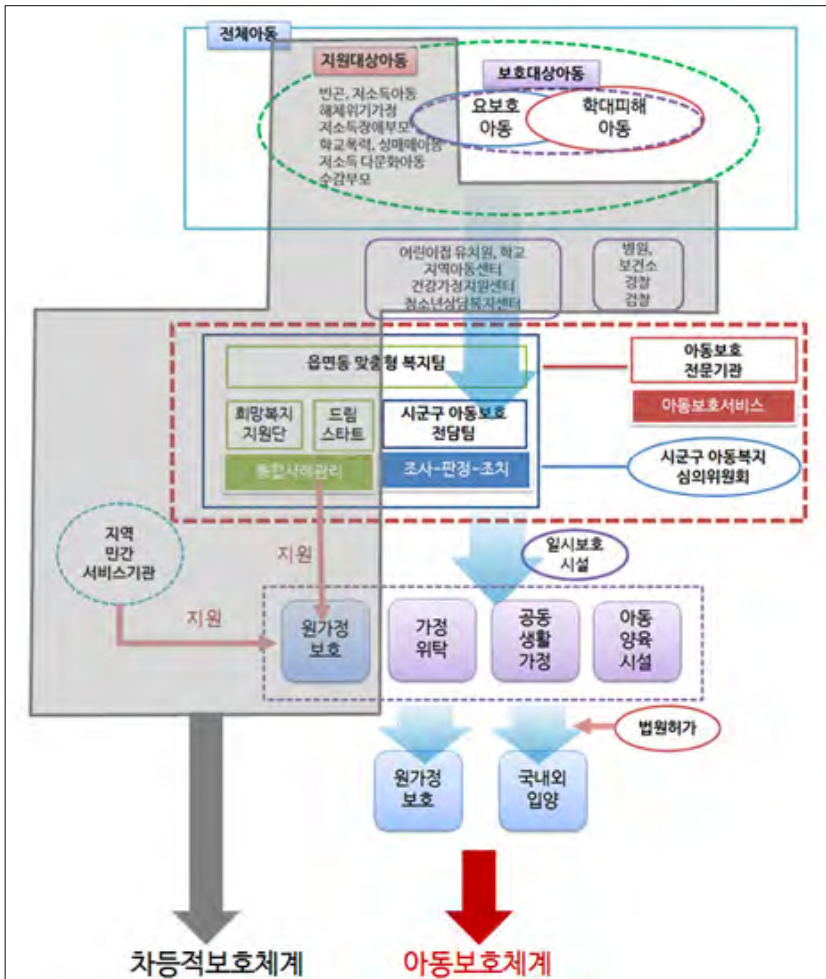
〈표 9-3〉 아동기 학대 및 폭력 부정적 생애경험

	구분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비율(%)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26.1
	아동학대	정서학대	47.8
	아동학대	성학대	3.4
차등적 대응체계	부정적 생애경험	가족 중 약물	5.1
		가족 중 수감	0.2
		가족 중 만성우울	1.4
		가족 중 폭력피해	49.1
		부모별거, 사망	7.6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정서방임	17.4
	아동학대	물리적 방임	5.2
사법체계 차등적 대응체계	직·간접적 폭력	또래폭력	27.5
		지역사회폭력	49.7
		집단폭력	52.7

따라서 아동기 학대 및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된 취약위기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보다 사전예방적인 학대대응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차등적 지원체계는 가족사정 중심의 대안적 접근으로서,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요인 및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된 사건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아동의 안전만을 중심에 두는 기존의 조사 중심 접근방식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그림 9-3]과 같이 차등적 지원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가족의 위기 및 문제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 및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이봉주 등, 2015). 본 연구 결과는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빈도가 높을수록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 및 취약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다시 성인기의 다양한 학대 피해 또는 가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학대 및 부정적인 삶의 경험 전반에 취약한 빈곤취약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학대의 중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의 세대 간 전수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학대예방 및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그림 9-3] 이원적 아동보호체계 구상(안)



나. 학대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보호체계의 구축

차등적 대응체계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학대 위험이 있는 취약한 위기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원적 대응체계의 구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학대피해자 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왔던 기존의 학대피해자 보호서비스가 고위험 사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현행 학대피해자 보호체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대상별 분절성과 함께 대상 내 조사와 서비스 제공 전반의 분절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학대피해자 보호체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체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체계, 여성 및 배우자폭력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체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체계로 대상별, 부처별 구분에 따라 나뉘어 있다. 예컨대, 아동보호체계의 경우 이러한 분절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및 폭력 등 발달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와 13세 이상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 및 지원체계로 나뉘어 아동보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보호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 내의 아동, 가정 외의 아동, 학교 내의 아동, 학교 밖의 아동으로 구분되어 아동보호는 각각의 다른 부처에서 조직적인 연계 또는 협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 대상별 학대피해자 보호체계의 분절성은 중앙단위의 부처별 분절성에서부터 지역단위의 학대피해자보호전문기관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분절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학대피해자 보호체계의 고

질적이고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피해자 보호체계의 분절성으로 인해 조사 및 사정, 판정을 통한 보호계획 수립과 개입, 치료, 사후관리에 이르는 학대피해자 보호의 전 과정에서 서비스의 일관성 및 지속성 부재,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부족,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대피해자 보호체계의 구조적 분절성과 파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학대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 학대보호자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대피해자 예방 및 보호업무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주요한 협력부처인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이 중앙단위의 조정 협력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수립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학대피해자 보호업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의 공유 원칙과 프로토콜을 마련하며, 아동보호자원의 배분에서 정부의 조정·통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부처 연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의 학대피해자 지원체계 또한 지자체의 아동가족보호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공의 학대피해자보호기관,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학대피해자 보호서비스기관 간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학대피해자 및 가족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연계 통합의 수준과 방안,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원가족보호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정책 수립

생애주기와 연동된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대 및 폭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주 공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학대예방 및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배우자폭력-노부모학대로 이어지는 학대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족을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기본 단위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Chan, 2015; 박세경 등, 2014). 앞서 살펴본 바처럼 아동,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 중심의 학대 피해자 보호체계를 가족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하거나 기존의 체계를 유지한 채 연계 및 협력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현행 체계를 대폭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 및 부정적 생애경험 전반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체계 또는 연계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경험의 중복성과 상호연관성을 검증함으로써 학대 사례에서 학대행위자 및 피해자의 특성을 사정할 때 현재의 특성과 문제점뿐만 아니라 과거의 학대 및 폭력 행위 등 다른 생애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노인학대에서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사정할 때, 학대행위자의 아동기 학대 피해경험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경험하는 폭력 피해나 폭력 목격과 같은 부정적 생애경험, 성인기 폭력 피해경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정과 개입은 학대행위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상담과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가족 내 폭력의 재생산 과정에서 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

리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 및 대응정책의 방향이 확립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모색,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아동기 학대 및 폭력경험”을 예방하는 정책 개입의 강화

본 연구 결과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폭력 중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의 발생률이 배우자폭력 및 노부모학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을 보여 주었다. 아동기에 경험했던 학대 및 폭력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생애경험이 성장기 이후 성인기 폭력경험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다시 현재의 가정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학대 및 폭력,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학대 및 폭력에 미치는 장기간에 걸친 영향이 세대 간에 재생산되어 대물림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현재의 삶에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성인기 우울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 학대 및 부정적 생애경험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폭력 및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의 자녀학대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보호적인 양육태도(safe, stable, and nurturing parenting)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방안을 구체화하

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아동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양육 및 돌봄의 사회적 지원을 체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핵심적인 아동정책으로 제시되는,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은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의 양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 개입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아동 양육의 관행을 기존의 훈육 및 체벌 중심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보호적인 양육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모 대상의 양육태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양육태도 등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대 고위험군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불분명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 왔던 **아동체벌의 전면적 금지**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 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정책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회 내에서 암묵적으로 “남의 가정사” “훈육”의 문제로 용인해 왔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부모(또는 교사)와 아동이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비폭력적 문제 해결·갈등 해결 능력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체벌과 학대의 감소, 궁극적으로는 중복적인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으로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대인관계 전반에서 학대와 폭력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아동기의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이후 중복피해뿐만 아니라 중복가해 등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학대 및 폭력의 연속성의 흐름을 깰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동기에 중복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생애 사건(event)이 되기보다는 삶의 조건(condition), 즉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사회심리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완충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심리 자원을 감소시키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하나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5. 성인기 폭력경험을 예방하는 정책 개입의 강화

본 연구 결과, 아동기 학대경험뿐만 아니라 성인기 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이 매우 보편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폭력이 피해 65.3%, 가해 48.4%로 가장 광범위하게 경험되었으며,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군대에서의 폭력피해 또는 가해의 노출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성인기 폭력 유형은 직장폭력으로, 조사 대상자 4명 중 1명이 직장폭력 피해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기에 이어 성인기에 이어지는 폭력의 연속성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폭력이 학습되고 재생산되는 주된 공간이 되어왔던 군대 내에서 발생했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향후 군대폭력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군조직문화 개선 등 적극적인 군대폭력 예방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직장폭력의 경우 노동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2016년 실태조사 결과(21.4%)와 유사하게 본 조사 결과는

4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폭력을 과거 성인기 생애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직장폭력의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피해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율이 28.1%로 정규직보다 더 높았으며, 산업별로 숙박·음식업(27.5%),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26%)을 포함한 저임금업종의 직장폭력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신이 중하위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폭력피해율이 높은 반면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답한 집단의 폭력피해율이 낮았다(서유정, 2017). 직장폭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4조 7800억 원에 달한다(한겨레, 2016)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권력관계를 기초로 하는 직장조직구조 내에서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대부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거나 체념하는 방식으로 직장 내 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폭력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직장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와 가해경험이 각각 5.6%, 5.1%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 또는 데이트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의표집 방식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비율이다. 데이트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폭력처럼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의 실태 진단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인 정책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는 달리 가정폭력방지특별법 등 제재를 가할 수 별도의 법적 제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상

적인 폭력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법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폭력까지 포함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의 형사법적 대응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추어 도입·적용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도 현행 가정폭력방지특별법상 인정되고 있는 피해자응급조치, 보호처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과 유사하게 폭력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사전예방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홍영오, 2016). 클레어법은 당사자에게 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있는 연인의 전과기록 조회 요청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에 대해 경찰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전과기록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2013년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캠퍼스 내 데이트폭력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컨대,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의 발생 건수를 매년 교육부에 보고하고 효과적인 데이트폭력 예방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 및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 등 성인들이 성장기 이후 경험하는 대인관계상의 폭력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중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성인기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력예방프로그램, 폭력대응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인의 다양한 대인관계상의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폭력예방서비스의 확장을 체계화할 수 있는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정희. (2017). 성장기 학대 경험과 삶의 만족의 관계. 한국공공관리학보, 31(2), 295-318.
- 고경은, 이수립. (2015).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2), 321-337.
- 구미영, 천재영, 서유정, 정슬기. (2015).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2014).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 권영임. (201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아동교육, 20(2), 85-96.
- 김경호. (2006).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4(1), 23-37.
- 김동기,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99-124.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등.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균. (2014). 가정환경, 학교생활 및 비행경험이 군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 김세원, 이봉주.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전환기동안 아동의 학대경험과 비행행동에 대한 잠재계층 간 관계. 아동과권리, 14(3), 327-353.
- 김숙영, 윤순녕. (2012). 유통업 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2), 212-221.
- 김옥진. (2017).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가족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3), 105-129
- 김유진. (2015). 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 개입을 체험한 피학대 노인

- 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315-346.
- 김재엽, 류원정. (2016). 탈북여성의 아동학대 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배우자 폭력의 가중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375-399.
- 김재엽, 류원정, 오세현, 이현. (2014).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여성의 생애주기 상 재피해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1), 81-101.
- 김재엽, 송아영. (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99-125.
- 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 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재엽, 이순호. (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109-137.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재엽, 이현, 장진호. (2016).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학교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중복피해집단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6, 233-255.
- 김재엽, 최권호, 채지훈. (2012). 북한이탈가정 자녀학대 및 방임의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3(3), 267-293.
-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김지환, 김자영, 김승섭(2015). 국내 병원 레지던트들의 직장 내 폭력경험과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9, 75-95.
- 김혜영, 석말숙. (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 김혜영, 장화정. (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 연구. 아동과 권리, 6(2), 269-286.
- 남순현. (2009).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아동기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16(3), 185-201.
- 노충래, 이신옥. (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 통제감 및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6, 1-35.
- 농촌진흥청, 도로교통공단, 소방방재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사업단, 질병관리본부. (2014). 제4차 국가손상종합통계.
- 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미진. (2016).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준혁. (2016).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5(2), 207-236.
- 문혁준. (2000). 부모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5), 107-119.
- 박미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관련요인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93-119.
- 박수빈. (2014).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인기 양육태도 및 신경증과의 관계. 대한 불안의학회지, 10(2), 103-107.
- 박세경, 강혜규, 류정희, 이주연, 노충래, 이상균, 정선영, 황옥경. (2014). 아동 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형민, 최수형. (2013). 방화범죄자의 성장기 경험. 한국공안행정책학회보, 22(3), 144-178.
- 배진희, 정미순. (2008). 가해자 특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pp. 369-376.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서유정. (2017). 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 KRIVET Issue

Brief.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4호.

- 서은주. (2012). 요양보호사의 직장폭력 경험실태. 성인간호학회지, 24(6), 601-614.
- 손일영. (2017).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간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신동욱. (2013).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교도소 수형자 설문 분석을 통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2013-09 연구보고서.
- 신소라, 김연수. (2016).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 연구, 24(2), 5-32.
- 안상수, 김인순, 윤민재, 김보연. (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1): 군복무 이행, 성역할 재사회화 및 성평등정책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박선영, 김혜영, 최윤정, 김병조, 김동원. (2012).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박성정, 최윤정, 김금미. (2011). 성평등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III: 대학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박성정, 김금미. (2010).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 윤민중, 신현옥, 최홍일, 한주희. (20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명용. (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7-175.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정수, 정익중. (2017). 아동복지론(제3판). 서울: 학지사.
- 윤상영. (2013). 아동기 학대 경험 및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회복 탄력성 매개효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15).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_분노억제와 전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2016).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진. (2013).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이미진, 김혜련. (2016). 노인학대 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53-89.
- 이미호. (2016)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대구 한의대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김연하. (2017). 남녀 대학생들의 아동기 외상적 경험과 우울성향. 아동과 권리, 21(2), 119-134.
- 이봉주, 김기현, 안재진, 장희선, 오준호. (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한국아동복지학회.
- 이수인, 임애덕. (2007). 한부모의 과거 가족경험, 자녀스트레스, 심리적 안녕의 관계와 성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주지역의 저소득층 한부모들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2), 1-33.
- 이숙희, 고인숙, 김정선. (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134.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 이은주. (2004). 아동기 학대경험이 성인기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8(4), 629-647.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이미정, 주재선, 정수연. (2016). 2016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

- 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 이정숙, 구형선, 조인주. (2013). 대학생의 성장기 아동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143-168.
- 이종원, 모상현, 강현철, 정운미, 한지형. (201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호, 최장옥, 황운상, 윤형호, 서동욱. (2014).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
- 이진민, 송승민, 도현심. (2011). 조부모 및 부모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85-97.
- 이현주. (2013). 학대의 세대전이를 통해 본 노인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자료 분석 활용 -. 사회과학연구, 29(3), 409-431.
- 이혜연, 박영균, 유성렬, 정선옥, 고정원. (20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원. (2016). 미혼여성의 데이트 폭력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우울의 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화숙. (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건호. (2017). 입대 전 육군병사의 가정폭력노출이 군대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간부지지의 조절효과.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 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장혜영. (2016). 간호사의 직장 내 폭력경험.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김예성. (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유형: 이론에 따른 세 하위유형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6(3), 303-325.
- 전지형, 강선경. (2015). 학대를 경험한 여성노인들의 삶의 대처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4(2), 81-109.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 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이윤경, 오영희, 손창균, 윤지은, 이은진 등. (2010). 2000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보호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4), 79-100.
-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조동택, 이상훈. (2016). 군 장병의 부대적응과 군대폭력에 미치는 영향. 경찰복지연구, 4(2), 102-137.
- 조이현. (2017).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폭력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애지, 김승권, 김유경. (1999). 노부모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춘범, 이현. (2013).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4), 31-54.
- 조춘범,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질병관리본부. (2014). 퇴원손상통계: 2004-2011.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www.easylaw.go.kr에서 2017. 5. 15. 인출.
- 최미경, 김영희, 정혜숙. (2014).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3), 221-237.
- 치안정책연구소. (2013).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교도소 수형자 설문 분석을 통한 연구.
- 통계청. (2016). 사망원인통계(전국편).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겨레. (2016. 10. 2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실액 연 4조7800억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7590.html>에서 2017. 9. 15. 인출.
- 한동희, 김정옥. (1994).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4), 45-56.
- 한은주, 김태현. (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17(1), 51-7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 (2016).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황정임 등. (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헤럴드경제. (2016. 1. 25.). 아버지의 육아 막는 日…‘파타하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 <http://heraldk.com/2016/01/25/%EC%95%84%EB%B2%84%EC%A7%80%EC%9D%98-%EC%9C%A1%EC%95%84-%EB%A7%89%EB%8A%94-%E6%97%A5%ED%8C%8C%ED%83%80%ED%95%98%EB%9D%BC-%EC%83%88%EB%A1%9C%EC%9A%B4-%EC%82%AC%ED%9A%8C/>에서 2017. 8. 1. 인출.

〈외국 문헌〉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kers, R. L. (2000). *범죄학이론*(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역).

서울: 지산.

- Al-Fayez, G.A., Ohaeri, J.U., Gado, O.M.(2012). Prevalence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Abuse among a Nationwide Sample of Arab High School Students: Association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xiety,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012(47): 53-66.
- Allen, D. M., Tarnowski, K. J., (1989). *Depressive characteristic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1). 1-11.
- Balderston, S. (2013). Victimized again? intersectionality and injustice in disabled women's lives after hate crime and rape. *Gender Perspectives on Conflict and Violence*, 17-51.
- Baldry, A. C. (2003). Bullying in schools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 Neglect*, 27(7), 713-732.
- Band-Winterstein, T., Doron, I. I., & Naim, S. (2012). Elder self neglect: A geriatric syndrome or a life course story? *Journal of Aging Studies*, 26(2), 109-118.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General Learning Press, NY.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12-29.
- Bellis et al.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ssociations with health-harming behaviours in young adults: surveys in eight eastern European countrie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92,641-655.

- Belsky, J. (1980). Child maltreatment: An ecological integration. *American Psychologist*, 35(4), 320-335.
- Black, D. S., Sussman, S., & Unger, J. B. (2010). A further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witnessing interpersonally violence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6), 1022-1042.
- Bograd, M. (1999). Strengthening domestic violence theories: intersections of race, clas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5(3), 275-289.
- Brezina, T. (1998). Adolescent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The question of intervening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1), 71-99.
- Briere, J. (1992) *Child abuse trauma: Theory and treatment of lasting effects*. Newbury Park, CA: Sage.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Abou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acestudy> 에서 2017. 3. 20. 인출.
- Cerezo, M. A., Frias, D. (1994). Emotional and cognitive adjustment in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8(11). 923-932.
- Chan. (2015). Family polyvictimization and elevated levels of addiction and psychopathology among parents in a Chinese household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6), 2433-2452.
- Chang, J., Rhee, S., & Berthold, S. M. (2008). Child Abuse and Neglect in Cambodian Refugee Familie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Child Welfare*, 87(1), 141-160.
- Charles, L. W., Robert, F. A., Shanta, R. D., & Vincent, J. F. (2003).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 Violence in Adults: 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2), 166-185.
- Chen, G., & Gueta, K. (2016).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bus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rime and substance abuse among Israeli in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6), 735-746.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6)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What the evidence shows*.
- Cloninger, C. R., & Gottesman, I. I. (1987).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antisocial behavior. In S. A. Mednick, T. E. Moffitt, & S.A. Stack (Eds.) *The causes of crime: New biological approaches* (pp. 92-10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ittenden, P. M., & Ainsworth, M. D. S. (1989). Child maltreatment and attachment theory.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432-46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uch, J. L., & Milner, J. S. (1993). Effects of child neglect on childre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1), 49-65.
- Cullen, F. T. (1994). Social support as an organizing concept for criminology: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Justice Quarterly*, 11, 527-559.
- Cutis, G. C. (1963). Violence breeds violence perha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4), 386-387.
- Daly, M. J., Burton, R. L. (1983).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3), 361-366.
- Day, M. R., Leahy-Warren, P., & McCarthy, G. (2013). Perceptions and views of self-neglect: A client-centered perspectiv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5(1), 76-94.
- Desai, S., Arias, I., Thompson, M. & Basile, K. (2002).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adult revictimization assessed i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women and men. *Violence & Victims*, 17(6), 606-639.
- Dong, Anda, Dube, Felitti, Dube et al.(2004). The interrelatedness of multiple forms of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8, 771-784.
- Duncan, D. (1999). Maltreatment by parents and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Maltreatment*, 4(1), 45-55.
- Egeland, B. (1993). A history of abuse is a major risk factor for abusing the next generation. In R. Gelles & D.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197-208). Newbury Park, CA: Sage.
- Egeland, B., Jacobvitz, D., & Sroufe, L. A. (1988). Breaking the cycle of abuse. *Child Development*, 59, 1080-1088.
- Egeland, B., Yayas, T., Appleyard, K., & Dulmen, M. V. (2002).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in the early years: A developmental pathway model to antisocial behavior. *Children's Services: Social Policy, Research, & Practice*, 5(4), 249-260.
- Euser, E. M., van IJzendoorn, M. H., Prinzie, P., & Bakermans-Kranenburg, M. J. (2011). Elevated child maltreatment rates in immigrant families and the role of socioeconomic differences. *Child Maltreatment*, 16(1), 63-73.

- Finkelhor, D., Ormrod, R. K., Turner, H. A., & Hamby, S. L. (2005).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9, 1297-1312.
- Finkelhor, D., Ormrod, R.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 7-26.
- Finkelhor, D., Shattuck, A., Turner, H. A., Ormrod, R., & Hamby, S. (2011). Polyvictimization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4, 291-300.
- Fonseka, R. W., Minnis, A. M., & Gomez, A. M. (2015). Impa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Sri Lankan Men. *PLOS ONE*, 1-21.
- Franklin, C. A. & Kercher, G. A. (2012).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PV: Differentiating correlates in a random community sampl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3), 1870-199.
- Fry, D. (199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isciplinary practices and approaches to conflict. *Human Organization*, 52(2), 176-185.
- Garssen, J., Deerenberg, I., Mackenbach, J. P., Kerkhof, A., & Kunst, A. E. (2011). Familial Risk of Early Suicide: Variations by Age and Sex of Children and Par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1(6), 585-593.
- Gershoff, E. T. (2002).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and associated child behaviors and experiences: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4), 539-579.
- Gomez, A. M. (2010). Testing the cycle of violence hypothesis: Child abuse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as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Youth and Society*. doi:

10.1177/0044118X09358313

- Gordon, R., & Brill, D. (2001). The abuse and neglect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4, 183-197.
- Green, A. H. (1985).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in child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iatry*, 6, 389-403.
- Hamby, S., & Grych, J. (2013). *The web of violence: Exploring connections among different forms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abuse*.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https://www.socialwork.career/2013/08/are-you-assessing-you-r-clients-for-polyvictimization.html>에서 2017. 10. 15. 인출.
- Hamby, S., Smith, A., Mitchell, K., Turner, H. (2016). Poly-victimization and resilience portfolios.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28(2-5), 217-234.
- Harris, J.III.(2001). Effects of Child Abuse on Self Esteem. PCP 539 Counseling Issues in *Life Span Development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 1-14.
- Hay, C. (2003). Family strain, gender, and delinquency. *Sociological Perspectives*, 46(1), 107-135.
- Herrera, V. M. & McCloskey, L. A.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isk for delinquency among youth exposed to family violence. *Child Abuse and Neglect*, 25, 1037-1051.
- Hollist, D. R., Hughes, L. A., & Schaible, L. M. (2009). Adolescent maltreatment, negative emotion, and delinquency: An assessment of general strain theory and family-based strai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4), 379-387.
- Holt, J. I., & Gillsepie. W. (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Threatened Egoism and Reciprocity: A Test of Multipl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2), 252-266.
- Htun, M. & Weldon, S. L. (2012). The civic origins of progressive policy change: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global perspective, 1975-200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3), 548-569.
- Hughes, K., Lowey, H., Quigg, Z., & Bellis, M. A. (2016). Relationship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Mental Well-Being: Results from an English National Household Survey. *BMC Public Health*, 16(222), 1-11.
- Ima, K., & Hohm, C. F. (1991). Child maltreatment among Asian and Pacific Islander refugees and immigrants: The San Diego ca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267-285.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2017).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III*, 1997-2014. <https://www.icpsr.umich.edu/icpsrweb/NACJD/studies/36523>에서 2017. 3. 20. 인출.
- Iowa State University. (2017). *Family Transitions Project*. <http://www.hdfs.hs.iastate.edu/research/project/family-transitions-project/>에서 2017. 3. 20. 인출.
- Izaguirre, A. & Calvete, E. (2016).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s a predictor of dating violence and child-to-parent aggression in Spanish adolescents*. Youth Society.
- Kaufman, J., & Zigler, E. (199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is overstated. In R. J. Gelles & D.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pp. 209-221). Newbury Park, CA: Sage.
- Kemp, A. R. (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서울: 나남.

- Kim, J. (2009). Type-specific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neglectful and physically abusive parenting behaviors among young par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761-767.
- Kim Y.H. (2017). Associatio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ith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Child Abuse and Neglect*. 67,338-348.
- King's College London. (2017). *Environmental Risk(E-Risk) Longitudinal Twin Study*, [https://www.kcl.ac.uk/ioppn/depts/SGDP-Centre/research/environmentalrisk\(e-risk\).aspx](https://www.kcl.ac.uk/ioppn/depts/SGDP-Centre/research/environmentalrisk(e-risk).aspx)에서 2017. 3. 20. 인출.
- Kitamura, T., Shikai, N., Uji, M., Hiramura, H., Tanaka, N., & Shono, M. (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style and personality: Direct influence or medi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5), 541-556.
- Kitzman, K. M., Gaylord, N. K., Holt, A. R., & Kenny, E. D. (2003). Child witnesses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2), 339-352.
- Korbin, J. E., Anetberger, G., & Austin, C. (1995).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violence in child and elder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7(1), 1-15.
- Kosberg, J. I. (1988). Preventing elder abuse: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Gerontologist*, 28(1), 43-50.
- Kruttschnitt, C., Ward, D., & Sheble, M. A. (1987). Abuse-resistant youth: Some factors that may inhibit violent criminal behavior. *Social Forces*, 66(2), 501-519.
- Lichte,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344-357.
- Logan-Green, P., Nurius, P. S., Hooven, C. & Thompson, E. A. (2015). Life course associations between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distinct and cumulative contributions, *Chil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2, 269-279.
- Matos, M., Conde, R., & Santos, A. (2014). Multiple victimization in socially excluded women: from prevalence to meaning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161, 70-76.
- Matsuura, N.(2009).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Aggressio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Depression in Inmates of a Female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y in Jap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3: 478-485.
- McKay, M. M. (1994). The link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ssessment and treatment considerations. *Child Welfare*, 73(1), 29-39.
- Mazerolle, P., Burton, V. S., Cullen, F. T., Evans, T. D., & Payne, G. L. (2000). Strain, anger, and delinquent adaptations specifying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2), 89-101.
- Messman-Moore, T.L., & Long, P.J. (2003). The role of childhood sexual abuse sequelae in the sexual victimization of women: An empirical review and theoretical reformulation. *Clinical Psychology*, 23, 537-571.
- Mihalic, S. W. & Elliott, D. (1997). A social learning theory model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1), 21-47.
- Muller, R. T., Hunter, J. E, & Stollak, G. (199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rporal punishment: a comparison of social learning and temperament models. *Child Abuse & Neglect*,

- 19(11), 1323-1335.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3).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 Oates, R. K., Forrest, D., Peacock, A. (1985). Self-esteem of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9(2). 159-163.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1998). *Rochester Youth Development Project: Project Overview*. https://www.ojjdp.gov/jjbulletin/9810_2에서 2017. 3. 20 인출.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Pears, K. C., & Capaldi, D. M.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a two-generational prospective study of an at-risk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5(11), 1439-1461.
- Pillemer, K. A. (1986). *Risk factors in elder abuse: result from a case-control study*. In K. A. Pillemer, & R. S. Wolf(Eds.), *Elder abuse, conflict in the family*(pp. 239-263). Dover, MA: Auburn House.
- Pournaghash-Tehrani, S. & Feizabadi, Z. (2009). Predictability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by early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Jounral of Family Violence*, 24, 417-422.
- Price-Robertson, R., Higgins, D., & Vassallo, S. (2013). Multi-type maltreatment and polyvictimisation: A comparison of two research frameworks. *Family Matters*, 93, 84-98.
- Renner, L. M. & Slack, K. S. (2006).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understanding intra- and intergenerational connections. *Child Abuse & Neglect*, 30(6), 599-617.
- Salzinger, S., Rosario, M., & Feldman, R. S. (2007). Physical child

- abuse and adolescent violent delinquenc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Maltreatment*, 12(3), 208-219.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Wu, C. I. (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59-171.
- Smith, C., & Thornberry, T. P.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4), 451-481.
- Smith, C. A., Ireland, T. O., Park, A., Elwyn, L., & Thornberry, T. P. (2011). Intergenerational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 two-generation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8), 3720-3752.
- Stark, E., & Flitcraft, A.H. (1988) Women and children at risk: A feminist perspective on child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8(1), 97-118.
- Stein, J.A., Leslie, M.B., Nyamathi, A.(2002). Relative Contributions of Parent Substance Use and Childhood Maltreatment to Chronic Homelessness, Depression, and Substance Abuse Problems among Homeless Women: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Abuse in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26: 1011-1027.
- Stith, S., Rosen, K., Middleton, K., Busch, A., Lundeberg, K. et al.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640-654.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 - 316.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Doubleday.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Desmond, R. E.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Straus, M. A. (2004). Cross-cultur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 dating couples in 17 nations, *Cross Cultural Research*, 38(4), 407-432.
- Sumner et al.(2015)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Statu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14(5), 478-488.
- Tillman, J. G. (201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uicide: Moral injury and the mysterious object in the work of Walker Perc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64(3), 541-567.
- Tran, Dunne, Vo, Luu(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n Eight Provinces of Vietnam.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7(8S), 26S-32S.
- Turner, H. A., Shattuck, A., Finkelhor, D., & Hamby, S. (2015). Polyvictimization and youth violence exposure across contex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8(2), 2018-214.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10). Poly-victimization

-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323-330.
- University of Washington. (2017). *Longitudinal Exposure to Family Violence*.
- Völkl-Kernstock et al.(2016). Experiences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Among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Outpatien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7(5):691-695.
- Vaux, A. (1998).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Prager Publishers.
- Whitefield, C. L. (2003).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s_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18(2),166-85.
- Whitfield, C. L., Anda, R. F., Dube, S. R., & Felitti, V. J. (2003).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s: 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18(2),166-185. <https://socialwork.uw.edu/research-project/longitudinal-exposure-family-violence>에서 2017. 3. 20. 인출.
- WHO. (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77432/1/WHO_RHR_12.36_eng.pdf에서 2017. 7. 20. 인출.
- Widom, C. S. (1989). Does violence beget viol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6, 3-28.
- Zuravin, S., McMillen, C., DePanfilis, D., & Risley-Curtiss, C. (1996). The intergenerational cycle of child maltreatment: Continuity versus discontinu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3), 315-334.

부 록 <<

부록 1.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조사표

ID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생애주기별 삶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양육자의 성장경험이 현재의 삶과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생애경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아동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후원기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문의처 : 02-3702-2689/692

집 계 구 번 호

시 도

시 군 구

SQ1 실례지만 귀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

 세

SQ2 귀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습니까?

- ☐ 1) 있음 → **SQ3**으로 이동 ☐ 2) 없음 → **조사 종료**

SQ3 귀 닥의 만 18세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는 누구입니까?

- ☐ 1) 어머니 ☐ 2) 아버지
☐ 3) 아동의 친(외)조부모 ☐ 4) 아동의 형제·자매
☐ 5) 아동의 기타 친인척 ☐ 6) 기타(적을 것: _____)

384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A. 가구 일반현황

A0 귀댁의 가구원은 총 몇 명입니까?

· 가구원이란 지난 1년 간(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어져 있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학업(학생), 유학, 군복무(군인), 입원, 해외 및 지방군무를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사실혼 등)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입주도우미 등 함께 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

A1 귀댁의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만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2017년 6월 30일 기준)
- 장애여부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② 장애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A1-1 가구원 번호	A1-2 응답자와의 관계	A1-3 성별	A1-4 만 나이	A1-5 장애여부
1 (응답자본인)				
2~8				
응답코드	① 응답자 ② 배우자 ③ 미혼자녀 ④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 ⑤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 ⑥ 응답자의 부모 ⑦ 배우자의 부모 ⑧ 기타(좌를 것)	① 남자 ② 여자		① 장애 없음 ② 장애 있음

A1-6 앞에서 응답하신 귀댁의 가구원 현황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영유아 가구원(만 5세 이하) ____명
- 아동 가구원(만 17세 이하) ____명
- 노인 가구원(만 65세 이상) ____명
- 등록장애인 가구원 ____명
- 가구유형 ____세대 가구

☐ 1) 모두 일치함

☐ 2) 일치하지 않음(적을 것: _____)

A1-7 다음 중 귀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오
A1-7-1 주말부부(취업, 학업 등)이다	☐ ①	☐ ②
A1-7-2 응답자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 ①	☐ ②
A1-7-3 응답자 배우자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 ①	☐ ②
A1-7-4 다문화가정(응답자 혹은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인 경우) 이다	☐ ①	☐ ②

B. 아동기 성장과정 및 부정적 경험

다음은 귀하가 출생 후 만 18세까지 성장하는 동안 부모(혹은 양육자)와의 관계 및 성장 환경에 관한 질문과
 또래폭력, 지역사회 폭력 및 집단폭력 등을 경험했는지나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B1. 부모(혹은 양육자)와의 관계

B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① 늘 그랬다 ② 대부분 그랬다 ③ 때때로 그랬다 ④ 거의 그렇지 못했다 ⑤ 전혀 그렇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B1-1 귀하의 부모님(혹은 양육자)은 귀하의 걱정이나 근심을 이해해주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B1-2 귀하의 부모님(혹은 양육자)은 귀하가 (학교나 직장에 있지 않았던) 자유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귀하의 부모님(혹은 양육자)이 귀하에게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B1-3 고의로 음식을 충분히 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1-4 과음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해 귀하를 돌보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1-5 강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 가족환경

B2-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① 예	② 아니오
B2-1-1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 집에서 양육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①	☐ ②
B2-1-2 부모님의 실직 혹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가정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 ①	☐ ②
B2-1-3 음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습니까?	☐ ①	☐ ②
B2-1-4 정서적 어려움(우울증, 정신질환, 자살 시도 등)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습니까?	☐ ①	☐ ②
B2-1-5 수감으로 인해 떨어져 살아야 했던 가족구성원이 있었습니까?	☐ ①	☐ ②
B2-1-6 부모님께서 이혼 혹은 별거를 하셨습니까?	☐ ①	☐ ②
B2-1-7 어머니, 아버지(혹은 양육자)가 사망했습니까?	☐ ①	☐ ②

B2-2 귀하의 가족 구성원(부모, 형제, 자매 및 기타 가족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의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에 일어난 사건을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에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B2-2-1 고함, 폭언, 욕설, 모욕 등을 당하는 것을 귀하는 본 적(혹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2-2 뺨을 맞거나 발 또는 주먹으로 맞는 것을 귀하는 본 적(혹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2-3 막대기, 벨, 몽둥이, 채찍 등의 물체로 맞거나 다치는 것을 귀하는 본 적(혹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3 귀하는 부모(양육자)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양육자)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나에게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B2-3-1 고함치거나, 소리치거나, 욕을 하거나, 모욕이나 혹은 굴욕감을 주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3-2 집 밖으로 내쫓거나 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3-3 엉덩이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꼬집거나 혹은 두들겨 팼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3-4 막대기, 벨, 몽둥이, 채찍 등의 물체로 때리거나 다치게 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4 귀하는 누군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B2-4-1 성적으로 만지거나 쓰다듬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4-2 다른 사람의 몸을 성적으로 만지도록 하였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4-3 귀하는 지금까지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2-4-4 귀하는 지금까지 강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3. 또래폭력

다음은 귀하가 자리면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힌 경험에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란 또래집단이 따돌리고 소외시키거나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B3-1 귀하는 만 18세 이전에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1) 매우 많았다 = B3-1-1로 갈 것 ☐ 2) 꽤บ่อย로 있었다 = B3-1-1로 갈 것
☐ 3) 한 번 정도 있었다 = B3-1-1로 갈 것 ☐ 4) 전혀 없다 = B3-2로 갈 것

B3-1-1 그럼, 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가장 많이 당한 순서대로 세 개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1)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거나, 부러뜨리거나, 안에 갇혔다
- ☐ 2) 인종이나 국적 혹은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 ☐ 3) 종교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 ☐ 4) 성적인 농담이나, 말 혹은 몸짓으로 놀림을 받았다
- ☐ 5) 일부러 활동에서 소외시켰거나 혹은 완전히 무시했다
- ☐ 6) 생김새, 이름, 별명 등으로 놀림을 받았다
- ☐ 7) 기타(적을 것: _____)

B3-2 귀하는 만 18세 이전에 다른 또래 아이들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1) 매우 많았다 → B3-2-1로 갈 것
- ☐ 2) 때때로 있었다 → B3-2-1로 갈 것
- ☐ 3) 한 번 정도 있었다 → B3-2-1로 갈 것
- ☐ 4) 전혀 없다 → B3-3으로 갈 것

B3-2-1 귀하가 다른 또래 아이들을 괴롭힐 때에 주로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가장 많이 행한 순서대로 세 개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1)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거나, 부러뜨리거나, 안에 가두었다
- ☐ 2) 인종이나 국적 혹은 피부색을 이유로 놀렸다
- ☐ 3) 종교 때문에 놀렸다
- ☐ 4) 성적인 농담이나, 말 혹은 몸짓을 이유로 놀렸다
- ☐ 5) 일부러 활동에서 소외시켰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 ☐ 6) 외모, 이름, 별명 등으로 놀렸다
- ☐ 7) 기타(적을 것: _____)

B3-3 귀하는 만 18세 이전에 또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싸웠습니까?
신체적 싸움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1) 자주 그랬다
- ☐ 2) 가끔 그랬다
- ☐ 3) 한번 정도 그랬다
- ☐ 4) 전혀 그런 적이 없다

388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B4. 지역사회 폭력 목적

B4 다음은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귀하가 얼마나 자주 폭력적인 상황을 보거나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 TV, 영화 혹은 라디오 등은 제외).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B4-1 누군가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거나 들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4-2 누군가가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는 것을 보거나 들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4-3 누군가가 칼 등의 흉기에 맞는 것을 보거나 들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5. 집단폭력

B5 다음은 학교 폭력, 정치적 폭력, 강도 및 조직폭력 등 집단적 폭력과 관련된 귀하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만 18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B5-1 (학교폭력) 귀하는 학교(초중고)에 다니는 동안 학교 선생님·교직원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5-2 (학교폭력) 귀하는 가족구성원 혹은 친구가 학교(초중고)에 다니는 동안 학교 선생님·교직원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5-3 (정치적 폭력) 귀하는 군인, 경찰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5-4 (정치적 폭력) 귀하는 가족구성원 혹은 친구가 군인, 경찰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5-5 (강도 및 조직폭력) 귀하는 강도 혹은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B5-6 (강도 및 조직폭력) 귀하는 가족구성원 혹은 친구가 강도 혹은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 18세 이후 폭력 경험

다음은 귀하가 18세 이후에 경험하거나 목격하였던 폭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A1-3의 본인 성별이 '1. 남자'인 경우만 응답

C1. 군대폭력

C1 귀하는 군 복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C1-1로 갈 것

☐ 2) 아니오 * C2-1로 갈 것

귀하가 만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C1-1 귀하는 군 복무 중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C1-1-1 귀하는 군 복무 중, 다른 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1-1-2 귀하의 가족구성원 혹은 친구가 군 복무 중, 다른 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1-1-3 귀하는 군 복무 중, 다른 군인으로부터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1-1-4 귀하의 가족구성원 혹은 친구가 군 복무 중, 다른 군인으로부터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1-2 귀하는 군 복무 중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C1-2-1 귀하는 군 복무 중, 다른 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1-2-2 귀하는 군 복무 중, 다른 군인에게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2. 데이트폭력

귀하가 만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C2-1 귀하는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C2-1-1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2-1-2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으로부터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2-1-3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2-2 귀하는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C2-2-1 귀하는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2-2-2 귀하는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에게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2-2-3 귀하는 데이트하거나 사귀던 사람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 직장폭력

C3 귀하는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가 만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1) 예 → C3-1로 갈 것
☐ 2) 아니오 → D1로 갈 것

귀하가 만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C3-1 귀하는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C3-1-1 직장의 상사, 동료, 부하직원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1-2 직장의 상사, 동료, 부하직원으로부터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1-3 직장 내 업무 혹은 대화, 친목모임 등 에서 소외되거나 완전히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1-4 상사 혹은 동료가 귀하에게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2 귀하는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① 자주 그랬다	② 가끔 그랬다	③ 한번 정도 그랬다	④ 전혀 없다
C3-2-1 귀하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에게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2-2 귀하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에게 언어적 혹은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2-3 귀하는 직장 내 업무 혹은 대화, 친목모임 등에서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C3-2-4 귀하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에게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 ②	☐ ③	☐ ④

D. 배우자와의 관계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D0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 1) 미혼 ⇨ E1로 갈 것 ☐ 2)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 D1로 갈 것
☐ 3) 별거 ⇨ D1로 갈 것 ☐ 4) 이혼 ⇨ E1로 갈 것
☐ 5) 사별 ⇨ E1로 갈 것

D1 귀하는 언제부터 배우자와 동거하거나 결혼하셨습니다?

년 ⇨ 1900<응답범위≤2017

D2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귀하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① 매우 많이	② 자주	③ 가끔	④ 없음
D2-1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D2-2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D2-3 항상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 ①	☐ ②	☐ ③	☐ ④
D2-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 ①	☐ ②	☐ ③	☐ ④
D2-5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 ①	☐ ②	☐ ③	☐ ④
D2-6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의심하고 비난했다	☐ ①	☐ ②	☐ ③	☐ ④
D2-7 병원에 가야 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했다	☐ ①	☐ ②	☐ ③	☐ ④

D3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① 매우 많이	② 자주	③ 가끔	④ 없음
D3-1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D3-2 친정식구(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D3-3 항상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 ①	☐ ②	☐ ③	☐ ④
D3-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 ①	☐ ②	☐ ③	☐ ④
D3-5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 ①	☐ ②	☐ ③	☐ ④
D3-6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의심하고 비난했다	☐ ①	☐ ②	☐ ③	☐ ④
D3-7 병원에 가야 할 때에는 허락을 받도록 했다	☐ ①	☐ ②	☐ ③	☐ ④

D4 귀하는 현재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만족한다 ☐ 2) 약간 만족한다
☐ 3) 약간 불만족한다 ☐ 4) 매우 불만족한다

392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D5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귀하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① 1년에 1회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3~5회	④ 1년에 6~10 회	⑤ 1년에 11~ 20회	⑥ 1년에 21회 이상	⑦ 없음
D5-1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의견을 설명하거나, 협상안을 제안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2 오락하거나 욕을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3 싸움으로 인해 피거나, 멍들거나, 베이거나, 그 다음 날까지 아프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4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5 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이나 등을 때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6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7 상대방의 물건을 밀어버리거나 혹은 때린다고 협박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8 다름 때문에 병원에 갔거나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9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10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나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신체적 힘은 사용하지 않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11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12 상대방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5-13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배우자가 나에게	① 1년에 1회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3~5회	④ 1년에 6~10 회	⑤ 1년에 11~ 20회	⑥ 1년에 21회 이상	⑦ 없음
D6-1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거나, 협상안을 제안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2 오락하거나 욕을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3 싸움으로 인해 피거나, 멍들거나, 베이거나, 그 다음 날까지 아프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4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내 감정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5 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이나 등을 때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6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7 내 물건을 밀어버리거나 혹은 때린다고 협박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8 다름 때문에 병원에 갔거나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9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10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신체적 힘은 사용하지 않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11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12 나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D6-13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E. 자녀와의 관계

E1 귀하가 첫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귀하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세 = 15≤응답범위≤A1-4의 실제 응답자 나이

E2 현재 귀하의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배우자 외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 ☐ 1) 있다
☐ 2) 없다

E3 다음 각 항목별로 귀하가 평소에 귀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E3-1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E3-2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E3-3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 ①	☐ ②	☐ ③	☐ ④
E3-4 내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E3-5 지금보다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 ①	☐ ②	☐ ③	☐ ④

E4 귀하가 배우자는 주중 평일에 자녀와 하루에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까?
본인과 배우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놀이해주지 않는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 1시간	④ 1시간~ 2시간	⑤ 2시간 이상
E4-1 본인	☐ ①	☐ ②	☐ ③	☐ ④	☐ ⑤
E4-2 배우자 ※ D0에서 2)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만 응답	☐ ①	☐ ②	☐ ③	☐ ④	☐ ⑤

E5 귀하는 아동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절대 허용될 수 없다
☐ 2)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될 수 있다
☐ 3) 대부분 허용될 수 있다
☐ 4) 늘 허용될 수 있다

394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E6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귀하 또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배우자가 자녀에게 한 적이 있다는 D0에서 2)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인 경우만 응답(나가는 모두 응답)

나 또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내가 자녀에게 한 적이 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한 적이 있다
E6-1 때리겠다고 위협했다(사소한 위협도 모두 포함함)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2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3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4 허리띠,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5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6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7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8 목을 졸랐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9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혔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10 아이의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11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12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13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혼자 있게 하였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6-14 성적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했다	☐ ①있다 ☐ ②없다	☐ ①있다 ☐ ②없다

E7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자녀가 귀하 혹은 귀하의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나/배우자에게	① 있다	② 없다
E7-1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 ① ☐ ②	
E7-2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 ① ☐ ②	
E7-3 나 또는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 ① ☐ ②	
E7-4 세게 밀쳤다	☐ ① ☐ ②	
E7-5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 ① ☐ ②	
E7-6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① ☐ ②	
E7-7 허리띠, 몽둥이 등으로 때렸다	☐ ① ☐ ②	
E7-8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① ☐ ②	

F. 노부모와의 관계

F1 현재 귀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그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항목	구분	연령
F1-1 응답자의 아버지	☐ ① 예 ☐ ② 아니오	만 세 = F1-1이 ① 예인 응답자만
F1-2 응답자의 어머니	☐ ① 예 ☐ ② 아니오	만 세 = F1-2가 ① 예인 응답자만
F1-3 배우자의 아버지	☐ ① 예 ☐ ② 아니오	만 세 = F1-3이 ① 예인 응답자만
F1-4 배우자의 어머니	☐ ① 예 ☐ ② 아니오	만 세 = F1-4가 ① 예인 응답자만

※ F1-1-F1-4 중 하나라도 ① 예인 경우 F2으로 갈 것

※ F1-1-F1-4 모두 ② 아니오인 경우 F11로 갈 것

F2 부모님(친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나쁜 편이다	④ 매우 나쁘다
F2-1 내 아버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 F1-1이 ① 예인 경우만	☐ ①	☐ ②	☐ ③	☐ ④
F2-2 내 어머니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 F1-2가 ① 예인 경우만	☐ ①	☐ ②	☐ ③	☐ ④
F2-3 배우자의 아버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 F1-3이 ① 예인 경우만	☐ ①	☐ ②	☐ ③	☐ ④
F2-4 배우자의 어머니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 F1-4가 ① 예인 경우만	☐ ①	☐ ②	☐ ③	☐ ④

F3 귀하 혹은 귀하의 배우자가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계십니까?
(간병, 간호 및 일상적 돌봄 등)

☐ 1) 직접 돌봄 ※ F4로 갈 것

☐ 2) 직접 돌보지 않음 ※ F5로 갈 것

396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

F4 다음은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의 부담으로 인한 귀하의 부담부담에 관한 문항입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F4-1 부모님의 부담으로 인해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 ①	☐ ②	☐ ③	☐ ④
F4-2 부모님 때문에 종종 신체적으로 지친다	☐ ①	☐ ②	☐ ③	☐ ④
F4-3 때때로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	☐ ①	☐ ②	☐ ③	☐ ④
F4-4 때때로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나 자신이 아닌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F4-5 부모님을 돌보게 된 이후로 나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F4-6 부모님을 돌보는 것 때문에 내 건강 상 영향을 받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F4-7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F4-8 내 상황(가족 등)과 돌봄의 요구 사이에서 나는 어쩔 줄을 모르겠다	☐ ①	☐ ②	☐ ③	☐ ④
F4-9 부모님의 부담 때문에 내 미래가 걱정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F4-10 부모님의 부담 때문에 다른 가족, 친척, 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F5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친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 카톡, 메시지 및 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 ※ A1-2에서 ⑥ 응답자의 부모가 0명이고, F1-1-①과 F1-1-② 중 하나 또는 모두 ① 예인 경우 또는, A1-2에서 ⑦ 응답자의 부모가 1명이고, F1-1-①과 F1-1-② 모두 ① 예인 경우만 응답

- ☐ 1) 거의 매일 ☐ 2) 주 2~3회
☐ 3) 주 1회 정도 ☐ 4) 2주에 1회
☐ 5) 월 1회 정도 ☐ 6) 3개월에 1회 정도
☐ 7) 6개월에 1회 정도 ☐ 8) 연 1회 이하
☐ 9)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 ☐ 10) 기타(적을 것 : _____)

F6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 카톡, 메시지 및 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 ※ A1-2에서 ⑦ 배우자의 부모가 0명이고, F1-2-①과 F1-2-② 중 하나 또는 모두 ① 예인 경우 또는, A1-2에서 ⑦ 응답자의 부모가 1명이고, F1-2-①과 F1-2-② 모두 ① 예인 경우만 응답

- ☐ 1) 거의 매일 ☐ 2) 주 2~3회
☐ 3) 주 1회 정도 ☐ 4) 2주에 1회
☐ 5) 월 1회 정도 ☐ 6) 3개월에 1회 정도
☐ 7) 6개월에 1회 정도 ☐ 8) 연 1회 이하
☐ 9)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 ☐ 10) 기타(적을 것 : _____)

F7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 ☐ 1)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 2)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3)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F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친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F1-1 또는 F1-2 중 하나라도 '①' 예인 경우만 응답

내가 친부모님께	① 1년에 1회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3~5회	④ 1년에 6~10 회	⑤ 1년에 11~ 20회	⑥ 1년에 21회 이상	⑦ 없음
F8-1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8-2 말과 행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대화기피, 의견 무시, 못들은 척, 짜증, 불평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8-3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수입을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8-4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간병, 청결유지 등의 도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8-5 거의 찾아뵙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6. 7. 1~2017. 6. 30)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F1-3 또는 F1-4 중 하나라도 '①' 예인 경우만 응답

내가 배우자의 부모님께	① 1년에 1회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3~5회	④ 1년에 6~10 회	⑤ 1년에 11~ 20회	⑥ 1년에 21회 이상	⑦ 없음
F9-1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9-2 말과 행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대화기피, 의견 무시, 못들은 척, 짜증, 불평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9-3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수입을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9-4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간병, 청결유지 등의 도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9-5 거의 찾아뵙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F10 귀하는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 2)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G.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G1 다음은 귀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하여 여쭙보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요.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G1-1 우리 가족은 어려움을 댈 때 서로 도와준다	☐ ①	☐ ②	☐ ③	☐ ④
G1-2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를 알고 있고 잘 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G1-3 우리는 무슨 일이든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한다	☐ ①	☐ ②	☐ ③	☐ ④
G1-4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과 제일 가깝게 지낸다	☐ ①	☐ ②	☐ ③	☐ ④
G1-5 우리 가족은 자유시간을 났을 수 있으면 함께 보낸다	☐ ①	☐ ②	☐ ③	☐ ④
G1-6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감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G1-7 우리 가족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모두가 참석한다	☐ ①	☐ ②	☐ ③	☐ ④
G1-8 우리 가족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잘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G1-9 우리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족과 상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G1-10 우리 가족은 가족 간의 화목과 단합을 중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G2 다음 중 최근 1년 동안 귀하의 신생활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1)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2)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 3)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G3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1) 차가 ☐ 2) 전세
☐ 3) 보증부월세(완전세포함) ☐ 4) 월세(사글세)
☐ 5) 기타(직을 것: _____)

G4. 지난 3개월 간 귀 도의 물병균 총 임대로 및 관리비(수도광열비 포함)는 얼마입니까?

전세보증금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G3에서 2) 또는 3) 또는 5) 응답자만
월평균 임대료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G3에서 3) 또는 4) 또는 5) 응답자만
월평균 관리비 (수도 광열비 포함)	천	백	십	일	만원			= 모든 응답자

G5 지난 3개월 간 귀 닥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총 가구소득 =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만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 현물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제외

억	천	백	십	일

반원 * 0≤응답범위≤99999

● '응답거절' 시만 가구소득 구간 질문

- ☐ 1) 소득 없음 ☐ 2) 100만원 미만
☐ 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5)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6)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7)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8)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9) 700만원 이상

G6 지난 1년 간 귀 닥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교육급여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초·중고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부교재비 포함한 교과서대(고등학생), 부교재비(초·중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 등

구분	해당항목	①	②
G6-1	생계급여	의복, 음식료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① □ ②
G6-2	주거급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① □ ②
G6-3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 등 지원	□ ① □ ②
G6-4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 혹은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① □ ②

G7.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귀하의 가족 및 친척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혈연이나 혼인에 의해 맺어진 사람들을 떠올리며 문항별로 해당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없음	① 1명	② 2명	③ 3~4명	④ 5~8명	⑤ 9명 이상
G7-1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만가+가 연락하는 친척(가족)은 몇 명입니까?	☐ 0	☐ 1	☐ 2	☐ 3	☐ 4	☐ 5
G7-2	도움을 청할 만큼 가깝게 여기는 친척(가족)은 몇 명입니까?	☐ 0	☐ 1	☐ 2	☐ 3	☐ 4	☐ 5
G7-3	편하게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척(가족)은 몇 명입니까?	☐ 0	☐ 1	☐ 2	☐ 3	☐ 4	☐ 5

G8 다음은 귀하의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웃을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친구들을 떠올리며 무한대로 해당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없음	① 1명	② 2명	③ 3~4명	④ 5~8명	⑤ 9명 이상
G8-1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G8-2 도움을 청할 만큼 가까워 여가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G8-3 편하게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 ①	☐ ①	☐ ②	☐ ③	☐ ④	☐ ⑤

H. 삶의 질 및 건강상태

H1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1) 매우 만족한다 ☐ 2) 약간 만족한다
☐ 3) 약간 불만족한다 ☐ 4) 매우 불만족한다

H2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 1) 매우 좋다 ☐ 2) 좋은 편이다
☐ 3) 나쁜 편이다 ☐ 4) 매우 나쁘다

H3 귀하는 지난 1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셨습니까?

항목	① 대부분 그렇다	② 종종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극히 드물다
H3-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H3-2 비교적 잘 지냈다	☐ ①	☐ ②	☐ ③	☐ ④
H3-3 상당히 우울했다	☐ ①	☐ ②	☐ ③	☐ ④
H3-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 ①	☐ ②	☐ ③	☐ ④
H3-5 잠을 잘 못 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①	☐ ②	☐ ③	☐ ④
H3-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H3-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 ①	☐ ②	☐ ③	☐ ④
H3-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①	☐ ②	☐ ③	☐ ④
H3-9 마음이 슬펐다	☐ ①	☐ ②	☐ ③	☐ ④
H3-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①	☐ ②	☐ ③	☐ ④
H3-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H4 귀하는 다음 각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H4-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H4-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H4-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H4-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H4-5 내가 지렁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H4-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H4-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H4-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①	☐ ②	☐ ③	☐ ④
H4-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H4-10 때때로 내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H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1) 예 → H5-1)으로 이동 ☐ 2) 아니오 → H6)으로 이동

H5-1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H5)에서 '1) 예' 응답자만

- ☐ 1) 경제적 이유 때문에
☐ 2) 현재 살고 있는 집안 때문에
☐ 3) 가족갈등 및 주변과의 단절 등 사회적 관계 때문에
☐ 4) 기타(각을 것: _____)

H6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평균적으로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 ☐ 1) 전혀 마시지 않았다 → H7)로 이동 ☐ 2) 한달에 1회 미만(몇 달에 한번 정도) → H6-1)로 이동
☐ 3) 한달에 1회 → H6-1)로 이동 ☐ 4) 한달에 2~3회(일주일에 1회 미만) → H6-1)로 이동
☐ 5) 일주일에 2~3회 → H6-1)로 이동 ☐ 6) 일주일에 4회 이상 → H6-1)로 이동

H6-1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평균적으로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보통 몇 잔 정도 마셨습니까?

※ H6)에서 2)~6)번 응답자만 응답

※ 소주, 맥주 구분 없이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 단 캔맥주 17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 1) 1~2잔 정도 ☐ 2) 3~4잔 정도
☐ 3) 5~6잔 정도 ☐ 4) 7~9잔 정도
☐ 5) 10잔 이상

H6-2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한 번에 소주 7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A1-4-1(응답자본인 성별)이 ① 남자인 경우만 응답

※ 캔맥주 17개는 355cc를 기준으로 합니다.

- ☐ 1) 전혀 없다 ☐ 2) 한달에 1번 미만(몇 달에 한번 정도)
☐ 3) 한달에 1번 정도 ☐ 4) 일주일에 1번 정도
☐ 5) 거의 매일

H6-3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한 번에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A1-4-1(응답자본인 성별)이 ② 여자인 경우만 응답

※ 캔맥주 17개는 355cc를 기준으로 합니다.

- ☐ 1) 전혀 없다 ☐ 2) 한달에 1번 미만(몇 달에 한번 정도)
☐ 3) 한달에 1번 정도 ☐ 4) 일주일에 1번 정도
☐ 5) 거의 매일

H7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도(최근 6개월 이내) 담배를 피우십니까?

- ☐ 1) 5갑(100개비) 미만,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 2) 5갑(100개비) 이상,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 3) 5갑(100개비) 미만, 과거에도 피웠고 현재도 피운다
☐ 4) 5갑(100개비) 이상, 과거에도 피웠고 현재도 피운다
☐ 5) 한 번도 피운 적 없다

H8 귀하는 PC 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 1) 하루 평균 총 시간 분
 2) 학업 및 업무를 제외한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총 시간 분.

H9 스마트폰(스마트패드) 및 PC(노트북)을 이용한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1) 1시간 미만
☐ 2) 1~2시간 미만
☐ 3) 2~3시간 미만
☐ 4) 3시간 이상

H10 귀하는 아래 항목들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항목	① 예	② 아니오
H10-1 나는 때때로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	☐ ①	☐ ②
H10-2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일어날지 모를 부정적인 결과들에 직면한다	☐ ①	☐ ②
H10-3 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배려한다	☐ ①	☐ ②
H10-4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	☐ ①	☐ ②
H10-5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한 적이 있다	☐ ①	☐ ②
H10-6 나는 대화를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끝까지 듣는다	☐ ①	☐ ②
H10-7 나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데 결코 망설이지 않는다	☐ ①	☐ ②
H10-8 나는 한 번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 ①	☐ ②
H10-9 나는 때때로 상대받지 않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	☐ ①	☐ ②
H10-10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며 살지 않을 것이다	☐ ①	☐ ②
H10-11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킨다	☐ ①	☐ ②
H10-12 논쟁을 할 때 나는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 ①	☐ ②
H10-13 내가 일련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은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다	☐ ①	☐ ②
H10-14 나는 항상 건강식을 먹는다	☐ ①	☐ ②
H10-15 나는 기쁨 보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도움을 준다	☐ ①	☐ ②

I. 자료분석용 질문

11. 귀하의 지난 3개월 간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 1) 실용근로자 → 12)로 갈 것
☐ 2) 임시, 일용근로자 → 12)로 갈 것
☐ 3) 고용주/자영업자 → 12)로 갈 것
☐ 4) 무급가족 종사자 → 12)로 갈 것
☐ 5) 일시휴직 → 12)로 갈 것
☐ 6) 구직활동 → 13)으로 갈 것
☐ 7) 주부 → 13)으로 갈 것
☐ 8) 학생 → 13)으로 갈 것
☐ 9) 무직/퇴직 → 13)으로 갈 것
☐ 10) 기타(적을 것: _____) → 12)로 갈 것

1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1)에서 1)-4)번 또는 11)번 응답자만 응답

- ☐ 1) 관리자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3) 사무 종사자
☐ 4) 서비스 종사자
☐ 5) 판매 종사자
☐ 6) 농림어업 종사자
☐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9) 단순노무 종사자
☐ 10) 군인
☐ 11) 기타 (적을 것: _____)

13.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 ☐ 1) 무학(정규교육 받지 않음)
☐ 2) 초등학교 재학/졸업
☐ 3) 중학교 재학/졸업
☐ 4) 고등학교 재학/졸업
☐ 5) 대학교(4년 미만) 재학/졸업
☐ 6) 대학교(4년제 이상) 재학/졸업 이상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응답자 주소	읍면동			
	세부주소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

부록 2. <부표 2-1> 국내 학대폭력 관련 조사의 관련 문항별 비교

조사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직접 경험 여부
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16	만 19세 이상 가구원	만 65세 미만	문2	상장기 학대 경험 여부	만 18세 이전	피해	정서적·신체적 폭력, 방임	부모 ○
			문3	상장기 부모 간 폭력 목격 여부	만 18세 이전	피해	정서적·신체적 폭력	부부 목격
			문7	배우자에 대한 통제 정도	지난 1년간	가해	통제	부부 ○
			문8	배우자에 대한 통제 정도	지난 1년간	피해	통제	부부 ○
			문9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정도 및 폭력 최초 경험 시기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부부 ○
			문10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정도 및 폭력 최초 경험 시기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부부 ○
			문11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유무	-	피해	신체적 폭력	부부 ○
			문12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무	-	피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부부 ○
			문21	자녀에 대한 응답자의 학대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방임	자녀 ○
			문22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방임	자녀 ○
			문23	응답자에 대한 자녀의 학대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자녀 ○
			문24	배우자에 대한 자녀의 학대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자녀 ○

조시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작성 경험 여부
						직 폭력		
		문25	가족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정도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가족	○
		문26	응답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정도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가족	○
		문2	성장기 학대 경험 여부	만 18세 이전	피해	정서적·신체적 폭력, 방임	부모	○
		문3	성장기 부모 간 폭력 목격 여부	만 18세 이전	피해	정서적·신체적 폭력	부부	목격
		문7	배우자에 대한 통제 정도	지난 1년간	가해	통제	부부	○
		문8	배우자에 대한 통제 정도	지난 1년간	피해	통제	부부	○
		문9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정도 및 폭력 최초 경험 시기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부부	○
		문10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정도 및 폭력 최초 경험 시기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부부	○
		문11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유무	-	피해	신체적 폭력	부부	○
		문12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무	-	피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부부	○
		문21	자녀에 대한 응답자의 학대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방임	자녀	○

조시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작성 경험 여부
노인실태조사, 2014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문22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방임	자녀	목적
		문23	응답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정도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가족	○
		문K13	범죄피해를 당한 여부	지난 1년간	피해	폭력	타인	○
		문L5	노인학대 경험 유무 및 행위자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돌봄), 방임(경제적)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방임	가족, 타인	○
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전국의 0~18세 미만 아동가구	문16	양육실태(양육방법)	-	가해	신체적 착벌	자녀	○
		문61	아동학대(방임) - 아동을 혼자 둘, 애정표현을 안함, 끼니를 챙기지 못함, 병원을 데려가지 못함,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못함	지난 1년간	가해	방임	자녀	○
		문62	아동학대(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 벽에 부딪침, 물건을 던짐,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때림, 휴대로 때림, 칼이나 흉기에 찔림, 수치심과 모욕감, 언어폭력, 모욕적인 말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자녀	○
		문63	아동의성학대경험1(성추행) - 성희롱 당한 경험	지난 1년간	가해	성추행	자녀	○
		문64	아동의성학대경험2(성폭행) - 성관계 요구 경험	지난 1년간	가해	성폭행	자녀	○
		부모용						

조시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작성-경험 여부
		문26 문27 문28 문29 문30	비행경험 - 놀림,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패싸움, 폭력, 협박, 핼튼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왕따, 갈취	타인	○
			학교폭력 피해경험 - 놀림, 조롱, 따돌림, 무시, 소문, 협박, 위협, 갈취,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	지난 1년간	피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따돌림, 갈취	학교친구	○
			학교폭력 가해경험 - 놀림, 조롱, 따돌림, 무시, 소문, 협박, 위협, 갈취,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따돌림, 갈취	학교친구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욕설, 나쁜 소문, 불쾌한 글·사진, 왕따	지난 1년간	피해	정서적 폭력, 왕따	학교친구	○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 욕설, 나쁜 소문, 불쾌한 글·사진, 왕따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 폭력, 왕따	학교친구	○
			아동학대 피해경험(방인) - 아동을 혼자 둔, 애정표현을 안함, 끼니를 챙기지 못함, 병원을 데려가지 못함,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못함	지난 1년간	피해	방임	가족	○
		문53 문54 문55	아동학대 피해경험(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 벽에 부딪침, 물건을 던짐, 발로 차거나 깨물거나 때림, 혀대로 때림, 칼이나 흉기에 찔림, 수치심과 모욕감, 언어폭력	지난 1년간	피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족, 타인	○
			아동의 성학대 경험1(성추행) - 성희롱 당한 경험	지난 1년간	피해	성추행	가족, 타인	○
			아동의 성학대 경험2(성폭행) - 성관계 요구 경험	지난 1년간	피해	성폭행	가족, 타인	○

아동
용

조시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작성 경험 여부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2016	2010 년 기준 전국의 초1, 초4, 중1 각 학년 재학생	초 1 패널 (중1) 청소년 년용	문21 비행 경험 유무 및 횟수 - 놀림,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패싸움, 신체적 폭력, 협박, 뺨찌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왕따, 갈취	타인	○
			문22 비행피해 경험 유무 및 횟수 - 놀림,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폭행, 협박, 뺨찌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지난 1년간	피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왕따, 갈취	타인	○
			문26 양육방식2 사이비비행 경험 여부 및 횟수	-	피해	방임, 학대	부모	○
			문38 - 욕, 폭력적 언어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 폭력	타인	○
		초 4 패널 (고1) 청소년 년용	문21 비행 경험 유무 및 횟수 - 놀림,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패싸움, 신체적 폭력, 협박, 뺨찌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왕따, 갈취	타인	○
			문22 비행피해 경험 유무 및 횟수 - 놀림,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폭행, 협박, 뺨찌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지난 1년간	피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왕따, 갈취	타인	○
			문26 양육방식2 사이비비행 경험 여부 및 횟수	-	피해	방임, 학대	부모	○
			문37 - 욕, 폭력적 언어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 폭력	타인	○
	중 1 패널 (대1) 대학 생용	문14	비행 경험 유무 및 횟수 - 놀림,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패싸움, 신체적 폭력, 협박, 뺨찌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왕따, 갈취	타인	○
		문15	비행피해 경험 유무 및 횟수 - 놀림,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폭행, 협박,	지난 1년간	피해	정서적·신체적·성적 폭력,	타인	○

조시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작성 경험 여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2012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초등학생 5학년생		벙 뜯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왕따, 갈취		
		문28	사이버비행 경험 여부 및 횟수 - 욕, 폭력적 언어	지난 1년간	가해	정서적 폭력	타인	○
	문9	문8	폭력가해 유무 및 횟수 - 타인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폭력(가해) - 학교 왕따, 가해	지난 6개월간	가해	신체적 폭력, 왕따	타인, 학교친구	○
			1. 학교폭력피해 유무 및 횟수 - 심한 놀림이나 조롱 - 함박, 왕따 2. 학교 및 지역사회폭력 - 심각한 신체적 폭행 피해 - 강도피해	지난 6개월간	피해	정서적·신체적 폭력, 왕따, 갈취	학교친구	○
다문화 청소년 실태조사, 2016	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및 어머니	문25	집단 괴롭힘 경험 - 따돌림, 욕, 심한 집적거림, 놀림, 무시, 폭력, 위협, 소문	-	피해	정서적·신체적 폭력, 따돌림	학교친구	○
		청소년용 문59	- 비행친구와의 접촉 - 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가해) 유무 및 횟수 -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유무 및 횟수 - 폭력서클(집단) 가입 경험 유무 및 횟수 - 패싸움 경험 유무 및 횟수	지난 1년간	가해	신체적 폭력, 갈취	타인	○
여성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산업	문3	직장 괴롭힘의 객관적 경험 - 조롱, 폭언, 소문, 위협, 폭력, 성적 수치심, 성	최근 6개월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직장동료	○

조시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자진 경험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보호 방안 연구, 2015	총사 근로자		희롱					
		문3-4	괴롭힘 행위 목적 경험 유무	-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직장 동료	목적
		문3-5	괴롭힘 행위 가해 경험 유무	-	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직장 동료	○
		문4	주관적 괴롭힘 피해 경험	-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직장 동료	○
		문5	과거의 직장 괴롭힘 경험	-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직장 동료	○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2015	교세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여자	문7-1	행동제한 관련 경험	-	피해	정서적 폭력	연인
			문7-2	정서적 폭력 관련 행동 경험	-	피해	정서적 폭력	연인
			문7-3	신체적 폭력 관련 행동 경험	-	피해	신체적 폭력	연인
			문7-4	성행동 관련 경험	-	피해	성적 폭력	연인
			문7-5	상해를 당한 경험	-	피해	신체적 폭력	연인
		남자	문2-1	상장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	피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자녀
			문2-2	상장기 부모 상호 간 폭력의 목격 경험	-	피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자녀
			문7-1	행동제한 관련 경험	-	가해	정서적 폭력	연인
			문7-2	행동제한 관련 경험	-	피해	정서적 폭력	연인
			문7-2	정서적 폭력 관련 행동 경험	-	가해	정서적 폭력	연인
			문7-22	정서적 폭력 관련 행동 경험	-	피해	정서적 폭력	연인
			문7-3	신체적 폭력 관련 행동 경험	-	가해	신체적 폭력	연인
			문7-32	신체적 폭력 관련 행동 경험	-	피해	신체적 폭력	연인

조시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작성 경험 여부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 요인 연구 III, 2011		문7-4	성행동 관련 경험	-	가해	성적 폭력	연인	○
		문7-42	성행동 관련 경험	-	피해	성적 폭력	연인	○
		문7-5	상해를 당한 경험	-	가해	신체적 폭력	연인	○
		문7-52	상해를 당한 경험	-	피해	신체적 폭력	연인	○
	전국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	문5-10	성희롱 경험 유무 및 횟수	지난 1년간	피해	성적 폭력	학내 타인	○
		문6-8	데이트폭력 경험 유무 및 횟수	지난 1년간	가해	성적 폭력	연인	○
		문5-10	성희롱 경험 유무 및 횟수	지난 1년간	피해	성적 폭력	학내 타인	○
		문6-8	데이트폭력 경험 유무 및 횟수	지난 1년간	가해	성적 폭력	연인	○
청년층 제1차 설문조사 및 제2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연구, 2009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19~30세 청년층	문10	성추행 당한 경험	-	피해	성적 폭력	타인	○
		문11	성폭력 당한 경험	-	피해	성적 폭력	타인	○
	문15	성추행, 성폭력 경험 횟수		고등학교 입학 이후 현재까지	피해	성적 폭력	연인, 타인	○
		문16	성추행, 성폭력 경험 횟수	고등학교 입학 이후 현재까지	가해	성적 폭력	연인, 타인	○
	전국 19~70세 장애인 직장인	문23	성희롱 경험 유무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목격 경험	지난 1년간	피해	성적 폭력	직장 동료	○/목격
		문18	피해 경험/목격 유무 인어폭력, 신체적 구타, 폭행, 집단 따돌림, 성	근부름 당시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근대 내	○/목격

조사명	응답자	문항번호	학대폭력 내용	기간	가해/피해	폭력유형	행위자-피해자 관계	작성 경험 여부
초 연구 I, 2014	필 군이 필 및 군 면제 남성		적 괴롭힘, 성적 농담					
		간접용	문5-5 인권침해 경험 유무	-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군대 내	○
			문5-6 경험한 인권침해 종류 구타, 언어폭력, 성희롱, 왕따	-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군대 내	○
		사영용	문4-5 인권침해 경험 유무	-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군대 내	○
			문4-6 경험한 인권침해 종류 구타, 언어폭력, 성희롱, 왕따, 과식 강요	-	피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군대 내	○
		여 군 면제 및 군 원용	문4 성희롱 피해 경험 유무	지난 1년간	피해	성적 폭력	군대 내	○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	현재 군대에 복무중인 여군	문5 성희롱 목적 유무	성희롱 목적 유무	지난 1년간	피해	성적 폭력	군대 내	목적
		문3-5	1. 성희롱 경험 유무 2. 성희롱 목적 유무	지난 1년간	피해	성적 폭력	군대 내	○/목적
		문3-6	피해 경험 유무 및 회수 성적 농담, 신체 접촉, 성추행	지난 1년간	피해	성적 폭력	군대 내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